

대통령 특사 방북 관련  
**국내 주요 신문 기사집**

2002. 4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일 반 기 사





# 내달 이산상봉 재개

## 南北 비밀접촉서 합의...장관급 회담도

남북한은 4월 중 4차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남북한의 내부시장이 밝은 서울과 베이징(北京)의 소식통들은 "남북한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수차례 막후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4월부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4월이 되면 남북관계에 중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사 3면>

소식통들은 "특히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벌어진 막후접촉에서는 남북당국이 4월에 장관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 사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양에 공관을 둔 외국의 서울 주재 한 외교관도 "지난 2월 초·남북이 개성에서 비밀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비밀접촉은 개성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 직설자간 실무접촉과 오는 4월 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 공연과 관련된 당국간 실무접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2월 19일) 이전에 있었던 남북접촉에서 북측은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중인 한·미연합의 전시중립연습(RSOI)과 독수리연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남측에 강력히 요구해 남북 비밀접촉이 한때 교착 국면에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방한 이후 이뤄진 접촉에서 남측이 RSOI와 독수리연습은 통상적인 한·미연합연습이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해 양측은 3월에는 양자관계를 동결하

되 4월부터 남북관계를 복원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으로서 먼저 남북 실무급회담에 비중을 두고 있

다"며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차관급 간 검토통진위원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광중 특파원, 서울=이영중 기자

<kjyoo@joongang.co.kr>

중앙일보

2002. 3. 25 (월)

# 南北대화 내달 재개될듯

## 北서 15일째 장관급회담 제의가능성

### 평화車 준공식 南인사초청 분위기 조성用인듯

지난해 9월17일 이후 중단된 남북한 당국간 접촉이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재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말 합의된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금강산 육로 관광에 대한 양측 당국간 지원 문제 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90주년인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당국간 대화 재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정부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제의할 대화형식은 조속한 쌀지원 및 대미 접촉을 위해 지난해 9월17일 이후

중단됐던 장관급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적십자 또는 민간레벨의 접촉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대화제의 근거에 대해 "북한은 다음달초 극심한 춘궁기에 접어들어 남한과 일본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아야 할 시점"이라며 "아리랑 축전(4월 29일부터 두일간) 성공을 위해 남한과 일본 관광객을 대거 받아들여야 하며, 점증하는 미 부시 행정부의 압박을 남북대화 재개로 완화시킬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측이 4월 5일 남포에서 열리는 통일그룹 산하 평화자동차공장 준공식에 남한

의 언론사 대표 및 기자들을 초청한 것과, 북한의 남치의를 받고 있는 일본 여성에 대해 북한적십자사가 공동조사하자고 제의한 것 등

은 대화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상태가 다음달쯤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화를 가로막을 악재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승욱기자 jswook@sgt.co.kr

世界日報

2002. 3. 25 (월)

# “춘궁기 식량 필요” 北 화해손짓 예감

## 내달 南北대화재개 전망

업어붙은 남북한 관계에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화 재개 방침을 공식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북측이 요구하고 제의할 대화 형식에 대해 아직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장관급 회담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이 내달중에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선 것은 북측으로부터

더 긍정적인 변화 조짐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의 언급에서도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가 대화 재개 시기를 언급한 '내달 중순쯤'은 북한의 식량문제, 아리랑축전 등과 맞물려 있다.

북한으로서는 우선 식량과 비료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춘궁기에 접어드는 북한으로선 남한을 비롯해 일본 미국 유엔 등으로부터 식량을 받아들여 주민

불만을 다소 잠재울 수 있다. 파종기가 앞으로 3~4개월이라는 점을 감안, 비료를 지원받아야 할 때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재개 수위를 보이며 아리랑축전 등 북한의 요구를 검토하는 등 두 단계를 연계하겠다는 의도가 엿해진다. 정부는 아

## ‘아리랑축전’ 외화벌이 겨냥 美 對北강경책 완화도 기대

리랑축전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 90주년(4월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아리랑축전을 기획, 다음달 29일부터 두달간 대대적으로 열 계획이다.

이들 기회 삼아 북한은 남한과 일본 관광객을 포함한 총 10만명의 내·외국인을 유치하면서 국가적 위상을 강화하고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남한당국과 일본정부

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 북한은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활용할 것이란 견해다. 미국이 제2테러전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강경입장이 감수될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려 보자는 계산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대화란 한반도 하고 있는 자신들을 향해 미국이 더 이상 힘은 과시하거나 압박하지는 않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방한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남치된 일본 여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자, 북한 적십자회가 즉각 대화하자고 화답한 것과 남포의 평화자동차공장 준공식에 남측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북측의 긍정적 입장 선회로 해석된다.

/정송숙기자 jswook@sgt.co.kr

## 중앙일보

2002. 3. 25 (월)

# 南北관계 숨통 트이나

## 장관급회담 합의 배경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약의 축 발언 이후 한층 격화된 한반도 경제에서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양측이 각기 내부적으로 타개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으로선 춘궁기와 농사철을 맞아 식량과 비료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 외화벌이를 위해 기획된 아리랑축전에 남측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對北) 압박에 대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절실하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긴종교조를 막기 위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북변정세의 성과 유지▶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대북관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은 3대 외화원(外貨源)인 금강산 관광 대가·미사일 판매·조선련의 승금 등에 장애가 생겨 곤경을 겪고 있다. 결국 북측은 식량 및 비료의 확보와, 아리랑축전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남측 당국과의 대화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 '강경 태세'를 표명하지만 내심 위기감을

##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2000년

- ▶6월 13~15일 남북 정상회담
- ▶6월 27~30일 1차 직접자회담
- ▶7월 29~31일 1차 장관급 회담
- ▶8월 15~18일 1차 이산가족방문 단교한
- ▶9월 11~14일 김용순 특사 서울·제주 방문
-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기공식
- ▶9월 25~26일 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 ▶12월 27~30일 1차 남북 경제협

력추진위

◇2001년

- ▶2월 26~28일 3차 이산가족방문 단교한
- ▶3월 10~14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 ▶3월 24일 경주경 회담 사망, 북한 조문단 서울 방문
- ▶9월 15~18일 5차 장관급 회담
- ▶10월 12일 북, 4차 이산상봉(10월 16일 여정) 일방 연기
- ▶11월 9~14일 6차 장관급 회담 (금강산여관)
- ▶12월 16~31일 북한 경수로사업단 제19명 남한 원자력발전소 시찰

## 北 식량 확보·美 압박 벗기 포석

## 南 월드컵 앞두고 긴장완화 필요

느는 점도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평가다. 한 당국자는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했던 1990년대 초 남북대화에 의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듯이 북한은 주변정세가 어려워지면 대남(對南)대화를 하나의 '안전판'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도 북·미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윤하반

기부터는 북한의 핵사찰을 둘러싸고 북·미간에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켜낼 한 수는 없고 나름대로 대북 삼독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변정세의 성공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남북대화는 필요하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가 "정상회담까지 이뤄낸 현 정부가 이렇다할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임기를 마치면 나라의 성과는 사라지고 ‘떠주기 논란’

만 남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

서로가 이런 상황인식을 갖고 이뤄진 비밀 접촉에서 북측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 중인 한·미 합동연습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일 초 이 연습이 끝나고 4월 중에 당국대화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최근 미국을 집중 성토했다. '먼서도 대남 비난을 자제할 것이나,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원책을 마무리지은 것도 남북간 비밀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측도 북·미대화에 앞서 남북 관계 진전이 이뤄지는 이른바 선남후미(先南後美)방식의 대화구도에 이해를 보였다는 것이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지난 2월의 한·미 정상회담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의 체면을 통째로 버리고 미국에 관심사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앞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유광중 특파원, 서울=이영준 기자

<kjyoo@joongang.co.kr>

# 임동원특사 내주 訪北

남북-북미대화·이산상봉 재개등 논의

월드컵·아리랑축전 총리급 교차방문 타진

## 북한도 동시 발표

정부는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양측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동원(사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팀 4인 첫째 주에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북한도 이날 같은 시간 방송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파견을 재의했었다"고 말했다.

임동원 특사가 북한에 파견될 경우 지난 2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화 재개 방안과 북의 대량살상무기 등 북·미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및 북의 대량살상무기, 핵 사찰 문제 등 북·미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북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5월말 개막되는 월드컵 대회 때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고, 4월 말부터 열리는 북한의 아리랑축전 때 남한의 같은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 특보는 "2000년 6·15 선언의 합의사항이나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최고 당국자 간에, 간접회담이긴 하지만, 특사 파견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북에 특사 파견을) 재의했고, (북이) 수락을 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5일 오전 10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쌍방은 민족앞에 닦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남측은 박선숙 청와대 공보수석이 특사교한 사실을 발표했으나 북측은 발표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허민·이현중·서의동 기자  
minski@munhwa.co.kr

문화일보

2002. 3. 25 (월)

國民日報

2002. 3. 25 (월)

# 임동원특보 내달 訪北

대통령 특사 자격... 김정일위원장 면담 추진

林특보 "아리랑축전-월드컵 동시방문등 협의"  
北 상호방문 확정없이 일방 訪北 논란 가능성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팀 4인 첫째 주에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발표했다.

박대변인은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특사 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재의했었다"고 말했다.

임특보가 북한에 파견될 경우 5월말 개막되는 월드컵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가원수급)이 남한을 방문하고 그에 앞서 4월말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 때 남한 총리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 및 금강산관광 정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음달 초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팀 4인 첫째 주에 기자실에서 방북일정과 의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화 문제 등 남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특보는 공식발표후 가진 기자회견단회에서 북한 김위원장과의 면담 계

회를 밝히면서 "월드컵과 북한 아리랑축전에 양측 고위 인사의 교차 방문 문제, 김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가 의제로 다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드컵에 김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임특보는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특보는 북측과의 사전 협의 채널이 김용순 노동당 비서라는 점을 시사했다.

임특보는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에 가면 거론하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 특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자국(북한) 최고 당국자의 생각을 물어온 임무할 띠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임특보의 방북은 북측 고위인사의 상호방문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측에서 먼저 평양을 방문하는 데다 야당이 임특보의 파견을 공식으로 반대하고 나서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같은 시각에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 방송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쌍방은 민족 앞에 닦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 있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진홍기자 jhkim@kroib.co.kr

# ‘햇볕 지키기’ DJ 승부수

## 아리랑축전·김정일 담방·식량지원등 의제다양 南측 정권말기 들어서 구체적 합의여부 미지수 한반도 긴장완화 ‘돌과구’ 주목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달을 비롯한 국내 보수층의 엄청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임종일 청와대 외교안보특별회의를 복속해 보내기로 한 김에서 김대중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구나 북측으로부터 특사 상호교환이라는 뚜렷한 연결조치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임박도가 방북을 먼저 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한 상황을 김대중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임박도가 복속을 방문해 논의할 사항은 평양 아리랑축전에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담방까지 다양하다. 우선 4월20일부터 예정된 아리랑축전 때의 남북 합관단 방북 문제가 조급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동 총리를 단장으로 한 합관단이 개막식에 맞춰 방북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측에 돌격으로 할 수 있는 김원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원드립 기간 중 남측을 방문해 온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북측이 김원남 주석의 90회 생일(4월15일)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아리랑축전을 올해 최대 중요행사로 꼽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합관단의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외화획득 측면에서라도 10년연 관공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측에서도 워드캠프대회 복속 고위급 인사들이 관전한다면 대외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합의됐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5대 령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의 비관어론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로서 우선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제계를 풀 수 있다. 이미 김보현 국정원 3차장 등이 이달 초 방북했을 때 임강 부분 합의한 사안이라 성사 가능성이 있다. 김소호는 금강산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 제주도에서 양측 상봉단을 함께 만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을 살뜰하는 당근으로는 쌀 및 비료 등 식량지원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과종기가 다가오고 있고 북측이 해마다 150만t 규모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남북측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측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식량문제 등을 논의할 경향추진위원회 임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경의선 연결문제와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담방 문제가 최우선의 핵심 과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다져주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김위원장의 서울 담방 카드만큼 효과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기 못한 게 사실이다. 남측 정부가 강령 말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북측 정권이 과거 전례한 날 때 구체적인 담판의 레퍼토리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김국 임박도의 반복을 온 한 남북관계는 규정짓는 사건임을 뛰어넘어 전 정부의 해빙정책을 총괄 평가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든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일정

대 회	시 기	장 소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13~15일	평양
1차 남북강관단회담	7월29~31일	서울
1차 이산가족 상봉	8월15~18일	서울, 평양
2차 강관단회담	8월20일~9월11일	평양
김영순 특사 남방방문	9월11~15일	서울, 제주도
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9월25~26일	제주도
3차 강관단회담	9월27~30일	제주도
2차 이산가족 상봉	11월30일~12월25일	서울, 평양
4차 강관단회담	12월12~16일	평양
3차 직접회담	2001년 1월29~31일	금강산
5차 군사실무회담	2월8~7일	평양
3차 이산가족 상봉	2월26~28일	서울, 평양
5차 강관단회담	9월15~18일	서울
금강산 남북간회담	10월3~5일	금강산
6차 강관단회담	11월9~11일	금강산

# 평양-개성-베이징 수차례 비밀접촉

## 南특사 방북 합의 뒷얘기

남북한은 이번 합의의 이끝이내까지 몇 차례 비밀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간의 비밀접촉은 지난해 11월 제 6차 강관단회담이 무산된 이후 언론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밀접촉은 미국이 9-11테러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문제 삼고 나선 뒤 남북관계가 단순한 소강상태를 넘어 장기 경계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상당한 무게가 실렸던 게 사실이다. 또 미국이 올 들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해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고, 최근엔 테러할 문제까지 들고 나오자 비밀접촉의 필요성이 정부 내에서 심심찮게 제기되었다.

최근 청와대 회고와 관계자가 "원이 되면 남북관계에 중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밀접촉의 실효를 인정하기도 했다. 가만 보면 비밀접촉 주역은 김보현 국정원 3차장과 서영교 통일부 국장의 방북선이다. 이들은 지난 4월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 최후를 이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접촉했던 것

## 작년 11월이후 說무성

### ‘악의 축’ 발언후 냉각 이산상봉 재개등 깊은 논의 이뤄진듯

으로 진행했다. 이번 접촉에서 다음 단계 주도로에서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말 서울에서 시작되는 워드캠프대회와 4월 말부터 시작되는 평양 아리랑축전에 남북한 고위인사들 교환방문하는 방안을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정원 소속 관계자 등 실무진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일부터 상주하다시피 하며 북측과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악의 축 발언을 쏟아내자 상황은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김보현 처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개성과 베이징을 오가며 비밀 접촉을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임종일 청와대 외교안보특별회의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박도가 직접 비밀접촉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관측 뒤에는 사실상 북측이든 남측이든 김영순 노조당 대남담당비서의 중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격상까지 내놓았던 김영순 어태청위원장이 한 번에 노조당 행사 등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임박도와의 사전 교감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비밀접촉에서 북측은 아리랑축전의 성공을 위해 남한 정부가 제대로 도와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한 정부 입장에서 금방 내줄 선물이 없어 고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 임종일 위원장의 북한 파견에 관한 의견도 일단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북측은 이와 함께 북한 당국자의 남한 특사 파견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이의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남측은 임박도와의 방북을 발표할 경우 남한 내 보수세력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남북 공동발표형 유도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김영석기자

# 남북관계 '봄바람' 부나

임동원특사 방북 합의 의미

## '北·美긴장' 포괄적 해법 논의 공감 北 식량-南 월드컵 안전 서로 필요

남북이 막후접촉을 통해 남북 특사의 북한 파견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6차 강관급회담 결렬 이후 4개월 동안 소강국면이 계속됐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남북이 공동발표 형식을 취함으로써 특사의 교환방문도 막후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특사 파견은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점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남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북측이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안전

에 대해 북한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특사의 일반적 파견인데다 월드컵과 북측 아리랑 축전의 성공개최 문제들이 협의될 것으로 보여 대북 강경세력들에 의해 상호주의 시비가 또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는 6차례 걸쳐 강관급회담이 최고위급 대화 채널로 가동돼 왔으나 이번 특사방문은 현상황이 평상의 대화채널로는 풀기 어려운 포괄적인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돼야 한다는데 북측의 최고당국자가 공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사 방문을 통해 남북은 지난 2월

● 특사방북 예상의제 ●		
남	의제	북
• 회담시일내 연결 필요	경의선 연결	• 공시지대 등 비공식 요청
• 남북 시절단 교차 방문	월드컵 및 아리랑 축전	•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축전 연계 (금강산-원산-평양육로개방 제외)
• 조기담방 희망	김정일 담방	?
• 연희소 설치 등 제도화	이산가족	• 제도화에 소극적
• 남북지 문제도 이산가족 포함	금강산 관광	• 체제영향 우려
• 특구지정 및 육로도로 개설	남북·북미 대화	• 관광대가 정상 지급 희망
• WMD문제 대화 해결		• 체제거론하는 미국과 상충 일것다
•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대화 원칙 동의

19·21일 조지 W 부시대통령의 방한기 간중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통해 남측은 북측에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조기에 북-미대화에 나서줄 것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이 최근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북한 재래식무기 감축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공동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3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에 시한과 대북 경수로 제공시한

이 맞물려 '안보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위협감소'를 위한 대화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임동원특사가 지난 19일 "1년내에 상당한 수준의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4년 북핵위기와 같은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현상황에 대한 정부당국의 갑박한 인식이 담겨있다. 북한은 물론 식량과 비료의 확보가 시급할 뿐 아니라 한반도 앞으로 다가온 아리랑 축전(4월29일-6월29일)에 남북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북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 중요"

임동원특사 일문일답

금대통령 제의 북한서 수락

김정일 면담 담방 논의할듯

대통령 특사로 4월 첫째주 북한을 방문하게된 임동원장외대 외교안보 특보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시기와 목적 등에 대해 밝혔다.

-특사로 방북하는데 대해 설명해 달라.

"김대중대통령께서 북측에 대해 특사 파견을 제안한 것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 안보위기가 있다.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를 방지해야 했고 4대 협상을 치러야 하는데 평화와 안전이라는 불가능하다.

최고 당국자들간에 간접회담이지만 특사를 통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 김대통령이 제의했고 북측이 수락했다. 북측도 우리와 생각이 같다. 안보위기와 남북간 현안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4월 첫째주에 평양을 방문해주기를 비란다는 통보를 받았다. 날짜는 교통편에 따라 신축성이 있다. 실무적으로 합의되는 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어떤 채널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것인데 이미 알고 있듯이 공개, 비공개 합의 채널이 유지돼 오고 있다.

당국간의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문제를 협의했고 어제 저녁에 합의해서 오늘 아침에 북측이 발표하기로 했다. 10시에 발표했을 것이다."

-북한측에서 김용순 특사가 오나.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다. 김용순 비서는 제작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후에 서울을 방문했다. 이것과 관련해 우리측이 특사를 보낸다고 보면 된다."

-판문점 통해 가나.

"종로 걸장이 안됐다. 날짜도 결정되지 않았다."

-가면 누구를 만나나. 김정일위원장을 만나나.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담방문제가 논의되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아리랑 축전과 관련 있다.

"관계없다.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

-상대방은 '김용순'인가.

"북한에서는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노동당 통일전선부이고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김용순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이현중기자 leehun@munhwa.co.kr

문화일보

2002. 3. 25 (월)

國民日報

2002. 3. 25 (월)

## '햇볕정책 집행자'... DJ정부 대북정책 실무지휘

임동원 대북특사 누구인가

'내달초 방북하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 통일특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집행자로 불릴 만큼 대북정책의 실질적 책임자이다. 현 장관 들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특보 등 자리를 바꿔왔지만 이에 상관없이 김대통령은

그를 신임하면서 대북정책을 맡겨왔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층은 국정원장 당시 그의 역할이나 대북 무차별 지원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그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늘 야당 공세의 표적이 돼왔다.

그는 정권 출범이전 아태재단 사무총장 시절부터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짜왔다.

# 南-北 ‘대화 훈풍’

임동원 특사 北파견 파장

양측 필요성 공감대  
합의내용에 촉각 곤두  
“상호주의 어긋난 방문”  
野·보수층 반발 부담



북한 평양방송 아나운서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 발효와 동시에 임동원 청와대 특보의 북한방문계획을 밝히고 있다. TV촬영

정부가 25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를 대북특사로 파견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4개월 동안 냉각기류가 흘렀던 남북관계에 밝바람이 불고 있다. 또 북한이 임특보의 방북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간에 북측인사의 남한 방문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임특보의 북한 방문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야당과 보수층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여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북측 인사의 상호 방문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측에서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데다 임특보가 북한 당국과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또 어떤 내용의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키로 한 것은 남북한 모두 대화재개 수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월15일)을 기념해 다음달 29일부터 두달간 열 예정인 아리랑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남측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식량과 비료가 절실히 필요한 춘궁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임특보의 방북을 수용하는 데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대

화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대량 살상무기에 이어 인권문제와 핵사찰까지 강경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북한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측의 대화 수요도 북측에 못지 않게 많다. 당장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남북대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또 현 정부의 최대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북 햇볕정책이 퍼주기 논란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작은 결실이라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임특보의 북한 방문 결과 지켜봐야겠지만 남북한이 공식대화를 재개하면 우선 남측 비상경계태세를 걸어 북측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이 재개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임특보의 일방적인 방북이 남한 내 보수세력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보수세력은 지난해 광복절 때 민간단체의 평양방문행사 물의와 관련, 임특보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결국 임특보는 정치권 논란 속에 통일부장관직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 특사 방북이야 삼사되겠지만 획기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석기자

# “北요청으로 특사파견 공동발표”

##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특사 파견은 최근 우리측이 먼저 제의했고, 이에 대해 북이 수락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 통일안보팀은 남북관계에 뭔가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것이라는 ‘중대 발표설’로 아침 일찍부터 술렁거렸다. 남북 특사 교환 가능성이 남북에서 동시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고, 김정일 담방 전격 발표 얘기도 돌아다녔다. 발표 주체를 놓고서도 통일부와 국

정원·청와대 등으로 혼선을 빚었다. 다음은 박선숙 대변인 일문일답.

-남북 특사 교환 얘기가 있었는데.

“임동원 특사의 평양 방문만 합의됐다.”

-특사 파견은 언제 논의됐나.

“최근 논의했고, 회신이 왔다.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며, 6·15 공동선언 준수와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것이다.”

-주요 의제는.

“자세한 사항은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논의할 것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특사 방문을 제의했나.

“최근이다. 남북 간 대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제의해 왔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평양과 공동발표인가.

“북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왜 청와대에서 발표했나.

“특사 자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허민기자 minski@munhwa.co.kr

## 남북관계 주요일지

### ◇2000년

▲3.17=박지인 특사(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북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장 비담회담(중국 상하이) ▲3.23, 4.8=남북 두차례 특사 접촉 (중국 베이징) ▲6.13~15=남북 정상회담(평양) ▲6.27~30=제1차 적십자회담 금강산 호텔 ▲7.29~31=제1차 장관급회담 (서울) ▲8.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서울·평양) ▲9.29~9.1=제2차 장관급회담 (평양) ▲9.2=비전향장기수 63명 북송 (관문집) ▲9.11~14=북 김용순 비서 서울방문 ▲9.18=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기공식 ▲9.20~23=제2차 적십자회담 (금강산호텔) ▲9.25~26=제1차 국방장관회담 (제주도) ▲9.27~30=제3차 장관급회담 (제주도) ▲11.30~12.2=제2차 이산가족 상봉(서울·평양) ▲12.12~16=제1차 장관급회담 (평양) ▲12.28~30=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평양)

### ◇2001년

▲2.26~28=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서울·평양) ▲3.24=정주영현대 명예회장 북한 조문단 서울방문 ▲9.15~18=제5차 장관급회담 ▲10.12=북, 제4차 이산상봉(10.16 예정) 일방연기 ▲11.9~14=제6차 장관급 회담(금강산 여관)

### ◇2002년

▲3.25일=남북 특사파견 발표

## 청와대 발표문 (전문)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합의하였다.

이번 특사방문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 당국자 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하여 특사파견을 제의하였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대통령 특사로 4월 첫째주 중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번 특사 방문이 정세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02. 3. 25

청와대 공보수석실

박선숙 대변인 문답

-다른 합의사항은 없다.
△임동원 특사의 평양 방문만 합의됐다.
-우리측이 언제 제외했고, 특사는 방북해 어떤 것들을 논의하나.
△최근 제외했다. 그리고 북측의 회신이 왔다. 논의될 사항은 발표문에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북한 특사의 우리나라 방문 등

“교차방문 평양가서 논의”

교차방문 계획은.
△자세한 사항은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논의해야 한다.
-북한에서도 공동 발표하나.
△그렇다.
-북한과 공동 발표하게 된 이유는.
△북측 요청에 의해 공동 발표하게 됐다. 자세한 경위는 말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유는.
△대통령특보이기 때문이다.
-합의 경위는 어떻게 되나.

△그동안 남북대화를 위해 비공식·공식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가 진행돼 왔다.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 때 남북이 교차방문할 계획인가.
△자세한 사항은 특사가 논의해 이뤄질 것이다.
-장관급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논의될 것이다. 김진홍기자

임동원 특보 문답

다음달 평양을 방문할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임은 25일 월드컵과 북한 아리랑축전 때 양측 고위 인사의 교차방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음은 임문일답.
-특사로 파견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제외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예방한다는 대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평화와 안정 없이는 한반도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2003년 안보위기가설이 나돌고

“김정일 월드컵참관 희박”

있다. 또 6·15남북공동선언 준수 문제와 남북간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를 최고 당국자간 간담화뿐만 아니라 하지만 특사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외했고, 북측이 수락했다.
-북한에서 특사가 오나.
△아직 그런 여가는 전혀 없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 문제도 논의되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북한에서 특사를 수용한 이유는.
△한반도 위기질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고 남북 현안을 해결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도 논의하나.
△거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각을 진달하고, 조인해결 필요가 있다면 할 것이다. 저쪽 최고 당국자의 생각을 들여볼 것이다.
-김위원장의 월드컵 방문 계획은.
△기분발한 아이디어인데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김진홍기자

남북 '특사' 小史

남북한은 당국간 공식 대화 창구가 막히거나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마다 최고위층 측근 인사들 밀사, 특사로 보내 대화의 통구멍을 마련했다.
제1세대 밀사는 박경희 대통령 시절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 이부장은 1972년 5월2일 3박4일간 평양을 극비 방문, 김일성 주석과 비밀면담을 가졌고, 이어 북한의 박성현 부주석이 같은달 29일 서울을 방문하는 등 막후 접촉을 통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성사시켰다.
전두환정권 때는 장세동 안기부장·박철언 안기부장 제2특보 라인이 대북 대화 채널로 가동됐다. 두 사람은 85년 북한의 허담 대남담당 비

이후락씨 72년 '1세대 밀사'

김일성주석과 극비면담
7·4 공동성명 이끌어내
현정부 임동원특보 활약

서와 한시해 유엔 대사가 비리리에 서울을 방문한 뒤 같은해 10월17일 2박3일간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타진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초기에는 박철언·한시해 라인이 재가동됐다. 청와대 정책보좌관실에 정책연구2반이라는 별도팀과 안기부 발동대가 움직이기도 했다. 박씨가 권력 핵심

에서 밀려난 뒤에는 서동권 당시 안기부장이 평양밀사 역할을 했다. 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탄생한 것은 이들의 활동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밀사가 아닌 특사 교환이 논의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93년 북한 핵위기 때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회담 대표접촉을 갖자는 남북 측의에 대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현안 해결을 위한 특사 교환을 역제외해움으로써 93년 10월5일부터 94년 3월19일까지 여덟 차례나 실무접촉이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 박영수 대표단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분배다가 된다”고 말해 특사 교환은 무산됐다. 94년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역할을 했으나 그해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임동원 통일안보특보와 김홍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라인이 거동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조수진기자 sjcho@kmib.co.kr

청와대 발표문 내용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 이번 특사 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 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제외했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임의 특사로 4일 첫째 주중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번 특사 방문이 징계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임동원특사 내달 3일께 訪北

김정일 만나 金대통령 친서 전달

“核사찰·미사일 문제 등 협의할 것”

청와대 임동원(林東源·울곡)외교 안보특별대표가 다음달 3일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 정도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林특보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만나며 金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 4면>

林특보의 방북 이후 북한은 월드컵 기간 중이나 8·15 광복절 때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 남한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박선숙(朴仙淑)대변인은 25일 오전 10시 “이번 특사 방문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 당국자 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제의했었다”며 “특사 방문이 경제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진



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며,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합의하게 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林특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 당국 간의 직접한 채널을 통해(특사 파견 문제)협의해 왔으며 어제 저녁 북측이(수락한다고)통보해 왔다”고 밝히고 “핵 사찰·미사일 등 문제에 대해 金대통령의 뜻을 전하려 가는 것이며 지극 최고 당국자(金위원장)의 생각을 받아 올 임무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林특보는 또 “2003년 안보 위기가 풀리고 있는 등 다가올 지 모를 위기를 방지하고, 올해에

월드컵 등 4대 행사를 치르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절대 필요하며, 긴장 조성을 슬기롭게 막아야 한다”고 특사 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측도 안보 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남북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林특보는 ‘평양

에서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협의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다른 고위급 인사들 월드컵 기간 중이나 8·15 광복절 때 남한에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① **중앙일보**

2002. 3. 26 (화)

朝鮮日報

2002. 3. 26 (화)

## 임동원특사 내달 3일 訪北 김정일답방·이산상봉 논의

월드컵·아리랑축전 총리급 교차방문도 추진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6·15 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남북대화 와 미·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대표를 내주 중 북한에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

북한도 같은 시각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고 공개했다. 임 특보는 내달 3일쯤 방북할 것이라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임 특보는 방북시 내년에 한반도

에 안보위기가 올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들 위해 북한이 미국과 조속히 대화들 재개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뜻을 담은 김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비롯, ▲남북 이산가족

상봉 ▲김의선 인권사업 등 남북간 현안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기자들과 만나 5월 31일 개막되는 월드컵대회 때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고, 4월 말부터 일리는 북한의 아리랑축전 때 남한의 총리급 인사가 평양을 교차 방문하는 문제가 의제로 다루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全民培기자 baiba@chosun.com

# 林東源특보 내달3일께 특사자격 訪北

## 金正日답방-장관급회담 논의

### 정부 식량30만 t 비료20만 t 對北지원 곧 발표

#### 北韓도 특사방문 발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4월 3일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합성과 방안을 논의한다.

▶ A2·3·4면에 관련기사

임 특보는 이번 방북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서훈 담방과 남북 장관급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 남북간 현안은 물론 남북의 총리급 인사가 각각 아리랑축전(4월29일~6월20일)과 월드컵대회(5월31일~6월30일)를 교차 참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 비서관은 25일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며 "이번 특사 방문이 경제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북측에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등 3가지 의제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김 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 평양을 방문해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임동원 특보는 "(북-미간 현안) 핵과 미사일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좋은 해

결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북측 최고당국자(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김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인건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임 특보의 방북 때 국방부 당국자를 수행원에 포함시켜 남북 군사당국자 간에 경의선 연결에 대한 군사실무회담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임 특보의 방북에 앞서 북한에 비료 20만t을 지원하고, 식량 30만t 지원을 위한 차관 합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인도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 특보의 방북합의 발표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에 남북간 합의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철희기자 klint@donga.com

#### 고이즈미·파월 "남북대화 환영"

관련 골란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임 특보 방북 발표에 대해 "정말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으며 조앤 프로코포비츠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남북대화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남북 대화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22일 한일 정상회담 때 (임 특보의 방북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때 가능하다면 북한이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에 대해 성의 있게 나서도록 북한 측에 전달해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lijah@donga.com

### 경향신문

2002. 3. 26 (화)

# 임동원특사 3일께 訪北

## 이산상봉 - 남북·북미대화 재개 등 논의

### 金대통령 친서 김정일위원장에 전달 월드컵·아리랑 총리급 교차방문 타진

정부는 남북 현안과 한반도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4월3일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 / 관련기사 3·4면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김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최근 특사 파견을 제

의했다"며 "북측이 24일 저녁 이를 받아들여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북남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게 된다"며 특사 방북을 보도했다.

임동원 특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 의지를 전달하고, 북한 최고당국자의 생각을 들어봐야 할 임무가 있다"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계획을 밝혔



임동원 특보

한반도 위기상황을 원치 않아 우리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다"며 "지난 2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방안과 미사일 및 핵사찰 등 북·미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은 양쪽의 총리급 인사들이 오

는 5월말부터 열리는 월드컵과 4월말에 시작하는 아리랑축전에 교차방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임특보 방북때 이산상봉과 경의선 연결, 금강산관광 합성화, 개성공단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은 또 임특보 방북때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으며, 남측은 임특보 방북에 맞춰 북한에 비료와 식량차관을 제공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사방북 추진 과정에서 미·일·중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며 특사 파견 발표에 앞서 외교경로를 통해 이를 통보했다. 이종근·이용욱기자

hrubang@kyunghyang.com

# 임동원특사 내달3일께 訪北

## 이산상봉 재개·대량 살상무기 등 논의

### 월드컵·아리랑축전 총리급 교차방문도 추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

해 다음달 3일께 임동원(林東源·사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한다.

청와대 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25일 오전 "남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합의했다"면서 "김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심 예방,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간 합의이행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견을 제의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같은 시각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쌍방은 민족 앞에 닥친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4·8·10·42면

남북 양측은 특사 파견을 합의하기 까지 서울-평양 핫라인을 가동했으며 우리측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 마추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가 평양에 파견될 경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협력을 받을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영성기자 leeyes@hk.co.kr

2면에 계속됩니다

임 특보는 또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여부를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 금강산관광 활성화, 경의선 연결문제 등 5대 핵심과제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임 특보는 5월말 개막되는 월드컵 개막식에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고, 4월말부터 열리는 북한의 아리랑 축전 때 남한의 같은 급 인사가 평양을 교차방문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특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시각을 전달할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북측 최고당국자(김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김 위원장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 초청에 대한 질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논의대상임을 시사했으나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2. 3. 26 (화)

# 임동원특보 내달3일께 訪北

## 金正日면담 이산상봉-南北관계 현안등 논의

### '아리랑'-월드컵때 총리급 교차방문도 타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중단된 남북한 장관급 회담 재개 및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현안을 논

의하기 위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4월3일쯤 북한에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

(세계일보 5일·25일자 보도)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이번 특사 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심을 예방하며 6·15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 당국자간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파견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오전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임동원 특보는 이번 방북에서 4월29일부터 열리는 북한의 아리랑축전과 5월 말 개막되는 월드컵대회 때 남북한 총리급 인사가 교차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4월3일쯤 방북할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배경 설명을 한 뒤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해졌다. 우리측에서는 이한동(李漢東) 총리가, 북한에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방북 과정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용순 비서와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한 6·15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은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파견된 바 있다.

임 특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좋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북측 최고당국자(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김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욱기자 jswook@sgt.co.kr

世界日報

2002. 3. 26 (화)

# 임동원 특보 내달3일 訪北

## 이산상봉등 현안 논의

정부는 25일 남북대화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월3일께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보를 대북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

북한도 이남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

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특사 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파견을 재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이와 관련, 임 특보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며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

고 বলে,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원드컵 개막 때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의 남한 방문 △북한 아리랑축전 때 남한의 총리급 인사 북한 방문 △이산가족 상봉 △남북장관급 회담 재개 등을 논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김영근·홍원식 기자  
ygkim@hankyung.com

## 한국경제

2002. 3. 26 (화)

## 한겨레

2002. 3. 26 (화)

# 임동원특사 내달3일께 방북

## 김위원장에 김대통령 뜻 전달듯 남북·북미 대화재개등 포괄협의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보 보좌역이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4월 첫췌주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남북한이 25일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 특사의 방북 시기가 "이르면 4월3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특사 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과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 당국자 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재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북한도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공개적인 합의로 특사를 파견한 것은 2000년 9월 김홍순 북한 노동당 비서의 남쪽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임 특보는 기자회견장에서 "2003년 안보 위기설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월드컵 등 4대 행사와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평화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북한도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상,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에 대해) 북한과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우리측 시각

을 전달하고, 북한 최고 당국자의 생각도 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히, 지난 2월 김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설명하고,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전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임 특보는 김 위원장과 만나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소강국면 타개에 목적이 있는 만큼 특사 파견을 계기로 그동안 가동되지 못했던 남북 간의 협의기구가 가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활성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 남북이 합의한 5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북쪽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홍성, 이재훈 기자 yskim@hani.co.kr

## 미·일 "남북대화 환영"

1위싱턴 도쿄=윤국한 오태규 특파원] 클린 파워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이하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발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앤 프로코포비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음달 3일께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보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hani.co.kr

오 국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특사의 방북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돼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한-

일 정상회담 때 설명을 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이 성의껏 가지고 임했다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으므로 특사가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okhan@hani.co.kr

# 총리급 교차방문 추진

## 임동원특사 새달3일께 訪北... 김정일 면담

### 이산상봉·답방·북미관계등 현안 모두 논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간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특사 방문이 경제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임 특보의 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 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파견을 제의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3·4·7면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오전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시대와 함께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임 특보의 방북 시기에 대해 "4월3일쯤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방북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이산가족 상봉,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문제 등 남북한 현안뿐 아니라 북·미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

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특보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조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측 최고당국자(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김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특보는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의 성공을 위한 남북한 고위 인사의 상호방문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으나, 5월 말 개막되는 월드컵 대회 때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고, 4월 말부터 열리는 북한의 '아리랑' 축전 때 남한의 총리급 인사가 북한을 교차 방문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연 전영우기자  
poongymn@kdaily.com

임 특보는 지난 2월 김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북·미대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이 합의한 5대 과제의 이행방안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임 특보의 특사파견 발표에 앞서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여야 대표에게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2002. 3. 26 (화)

매일경제

2002. 3. 26 (화)

임동원 특사

내달3일 訪北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6·15 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사진)를 4월 3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한다.



▶관련기사 3·6면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같은 시간에 "김대중 대통령 특사가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 임동원특사 내달3일 방북

서울경제

2002. 3. 26 (화)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6·15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오는 4월3일께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5면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이번 특사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한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파견을 제의했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 “돌파구 필요” 南北 공감

## 임동원특사 전격 방북... 의미와 전망

정부가 북한의 동의하에 내달 초 임동원(林東源) 대동원 특보를 김대중(金大中) '대동원 특사'로 평양에 보내기로 함에 따라 정해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통령이 이 끈질기게 대북 특사 파견을 추진해 온 것은 미·북 및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지 않을 경우 재임 중의 유적으로 추진해 온 남북관계 개선이 취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북한도 김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를 완전 동등시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판단 아래 특사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임 특보의 방북시 어떤 형태로든 전권 협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다.

### ◆임특보 누굴 만나 무슨 얘기할

임 특보는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함께 김영남(金永南) 최

황이었다. 때문에 북측이 남한 관광단을 대거 관람시키기 위해 남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북을 제의하고, 5월 말 월드컵대회 때 북한 대표단의 남한 방문도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기자 baibal@chosun.com

### ◆북한은 왜 대화에 나섰나?

부시 미 행정부 등장 이후 대미 대남 비난강도를 높여오던 북한이 갑자기 대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미후남(先美後南)' 입장만을 계속 고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대화의 문을 너무 오래 닫아둘 경우, 김대중 정부가 '민족 우선'에서 '한·미동맹 우선'으로 완전히 선회(旋回)할 수 있고, 급변 한반



◇평양가는 林특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내주 방북길에 오른 임동원 대동원특보가 25일 평양에 도착한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춘추관을 떠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DJ, 재임중 '對北성과 마무리' 의욕

### 경의선복원·금강산관광 등 논의예상

### 北 "先美後南 고집맨 고립위험" 판단한듯

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남담당비서인 김용순(金容淳) 통일전선부 부장 등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는 먼저 김용순 비서와 만나 한반도 긴장 조성 예방과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 간 협력하고도 이행되지 않은 사안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할 듯하다.

또 통일부가 올 대북정책 추진 과제로 밝힌 ▲4차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과 도로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위한 당국간 협상 재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재개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 협의 등 다섯 가지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관련한 미·북 대화 문제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임 특보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결심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대신 식량·비료 지원 등 대북지원을 비공격로 요구하고,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아리랑축전에 보다 많은 남한 관광객들이 참석하는 문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남사업부서 등을 내세워 작년 말부터 이들 다각도로 모색해 왔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돼 여의치 못한 상

기로 가면 본격적인 대선(大選)국면이라, 대북지원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을 것이라 지적이다. 여기에 북한으로선 4원은 비료와 식량지원 확보, '아리랑 축전'(4월 말-6월말)에 남한 관광객 유치 등 받들어 떨어진 힘이 너무 많은 시기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기자 ginko@chosun.com

### ○남북한 특사교환 일시

▲이후라 '남·중일정보부장 비밀

평양방문(72.5)=7:4 남북 공동

성명 작업

▲박성철 북 부수상 비밀 서울방

문(72.5)=7:4 남북 공동성명 작업

▲허담 북 대남비서 비밀 서울방

문(85.9)=남북 정상회담 협의

▲정세동 남 인기부장 비밀 평양

방문(85.11)=남북 정상회담 협의

▲서동권 남 인기부장 비밀 평양

방문(90.10)=남북 정상회담 협의

▲임동원 남 국정원장 비밀 평양

방문(2000.5)=남북 정상회담 의

제 협의

▲김용순 북 대남비서 공개 서울

방문(2000.9)=김정일 서울답방

등 협의

朝鮮日報

2002. 3. 26 (화)

# 南北관계 복원까지 산넘어 산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총괄특보의 내란 초 복원 방안은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사 파견은 어디까지나 대외의 시작에 불과하다.

▽남북관계 급류 타나=임동원 특사 파견 합의는 북한의 오랜 담박기 끝에 나온 대화재개 걸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걸림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예이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조성되기 시작해 올해 초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경계에 닿았던 한반도 주변 난기류가 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변한 국제정세 등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상황으로 복원시키기엔 장애물이 적지 않다. 특히 북측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를 좀 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을 논의하나=남측은 특사 파견을 제안하면서 △안보도 긴장조심 예방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 협회사상 이행 등을 논의하고 북측에 전달했다. 이는 구체적인 의제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조심 예방을 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북-미관계 악화의 근원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임 특보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김대중-클린턴 회담 후 북-미대화 재개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6·15 공동선언 준수 등 의제 제시한 것은 장관급회담에서 해명이 어려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기존 협회사상 추진은? =그동안 남북 당국 간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고 있는 5대 핵심과제, 즉 △경의선 연결 △급강산관광 활성화 △개성공단 개발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북측은 논의가 이뤄진 전방이다.

특히 경의선 연결은 김 대통령이 부임보다 먼저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 정부는 이번 임 특보의 방북 때 이미 남북 군사분계지 간에 세 부적인 협의까지 마치고도 서명하지 못한 군사적 보장 합의에서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임동원 특사 방북시 예상 의제

남측 입장	주요 의제	북측 입장
북의 군사신뢰구축 등거 연계	대북 전격지원	조속한 전격지원 요청
군사완곡 협회 통해 신방기 연결	경의선 연결 위한 군사신뢰구축	한미의 불기침선인 필요
연주소 설치 등 제도화 완료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교향방문 등에 한성
특구지침 및 육로개방	금강산 관광	남측정부의 권광대가 지금부족
연대 집행 회합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방	남측의 분위가 조성 필요
남북사교 교류방안	월드컵 및 이리왕복선 연계	남측 대규모 관광객 구성 요청
남북대의 경의 및 북-미대화 재개 권고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 권고	남측과 한미 행정 후 북-미대화 재개 권고

## 한반도 난기류 극복 계기 마련 불구 진전없는 北-美관계등 장애물 많아 이산상봉-경의선-WMD 논의 예상



“평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4월초에 북한을 방문하게 될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총괄특보가 25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대북 특사 파견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방북 특사 수행단에 국방부 고위당국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신탁카드=이 같은 정부의 기대에 북측이 호응해 나오려면 연가 반대급부도 필요한 게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 특보의 방북에 앞서 비료 및 석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관건은 대북 전격지원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전격지원은 북측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안인 데다 미국도 대북협상 차원에서 전격지원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남북은 물론 북-미간 현안 해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대선 新北風 우려”

### 한나라-자민련 반응

한나라당 남경필(南庚弼) 대변인은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총괄특보 방북 특사로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 “신거를 앞두고 북한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북을 여인하는 정치의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성명에서 “정부의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방침에 회담하듯 임 특보의 방북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보여 전략적 의도에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통일부장관이 있는데 국회에서 불신임 받은 임 특보가 특사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회장 김용갑·金容甲)은 “김 정권이 ‘신 북풍(新北風)’ 성격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면 결코 목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임 특사의 방북이 순수 스포츠행사인 월드컵과 북한의 정치적 행사인 이라크 참전우연계 시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방식”이라며 “김 국방위원장의 단방도 과거 회피에 대한 사죄가 없다면 결코 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 정부 ‘베이징 S라인’ 특사파견 협상 주도

남북관계에 새 돌파구가 될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는 대북 특사 파견은 중국 베이징(北京) 체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총괄특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 비공개 채널을 통해 협의했고 어제(24일) 밤 북측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북담당인 김보연(金保然) 3차장이 이끄는 대북협상팀이 이번 특사 방북 심사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이 중에서도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후 비밀협상에 깊숙이 관여해온 ‘베이징 S라인’이 북한 당국과 협상을 벌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국정원 S국장이 이끄는 이 라인은 올해 1월부터 베이징 등지를 오가며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남북 당국자들이 베이징에서 수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설과 북한 개성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방북협상설 등이 곳곳에서 흘러 나오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기존에 유지해왔던 선미추남(先美後南) 정책 대신 남북관계에 무게중심을 두는 선남추미(先南後美)로 입장을 수정, 특사 파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대화 바탕 '긴장 완화' 공감대

## 북-미관계 핵심 핵문제 해결 모색 월드컵-아리랑축전 화해터전 마련

25일 발표된 남쪽의 특사 파견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래 핵문제 공격 가능성과 '제2의 조선전쟁' 등 과격한 구호들이 난무했던 한반도에 환시바람이 걸리듯 맑은 봄날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4월쯤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특사 파견을 통한 대화국면을 예고하는 것으로 급변전한 데 대해서는 다소 어리둥절한 측면도 있다. 북한에서는 27일까지 계속되는 한-미 연합 연습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고, 공장·기업소·학교별로 진정 분위기를 확산해 가는 상황이다.

북쪽은 왜 남쪽의 특사 파견을 받아들였을까? 우선 북쪽의 아리랑 공연과 남쪽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남북 두루 화해협력 관계를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쪽의 특사 수용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전인 지난 1월 북한이 정부·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에서 밝힌 '정세가 어떻게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특사 파견의 한면만 보는 것이다. 남쪽이 특사 방문을 발표하면서 짐작 남북대화보다는 '평화 문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을 예방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언급했지만, 특사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팀 특보는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좋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쪽의 보도도 마찬가지다.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사의 소임이 단순히 남북대화의 복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임 특보는 지난 19일 이래적으로 "1년 내에 상당한 수준의 북-미 관계 진전이 없을 경우 94년 북한 핵 위기 때와 같은 '한반도 안보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사 파견은 이런 안보위기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남북이 서로 호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특사 파견이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 분위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특히 고무적이다. 지난 13일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 담당대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간의 뉴욕접촉은 "부시 패거리들"과는 상충하지 않겠다"던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자세 전환이다. 게다가 미국 관리들은 이날 접촉이 '유익한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 지난해 북핵 국적으로 추징되는 피선박의 킴포사건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북-일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



▲25일 오전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팀 특보가 다음주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hani.co.kr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류정옥 아나운서가 25일 저녁 8시 뉴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촬영/연합

로 보인다. 이 역시 북한이 22일 북-일 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의함으로써 발전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북-미, 북-일 관계는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하려는 데 불과하고 변수도 많다. 그럼에도 특사 파견이

부시 행정부 등장 이래 중단-연기-결렬을 계속해 온 남북대화의 불온 정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대체로 일치한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 ■ 특사 파견하기까지

## 남, 연말~연초 제의 부시 방한뒤 진지한 논의 북, 이달 중순 결정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팀 특보의 대통령 특사 파견 문제가 남북 간에 언제부터, 어떤 창구를 통해 협의됐을까?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특사 방문은 우리쪽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최근에 제의했고, 북쪽의 회신이 왔다"고 발표했다. 임 특보는 "24일 저녁 합의가 됐고, 북한이 25일 아침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여러 정황을 볼 때, 남쪽이 특사를 제의한 시점은 연말 또는 연초께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 제의가 이뤄졌지만 막후 협의가 밀도 높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1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2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특사 파견 논의는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중순 이후 남북 간에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

한이 수용적으로 최종 결심을 굳힌 것은 이달 중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어제(13일) 잭 프리처드 대북협상 전담대사가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와 만났다"며 "유익한 만남이었고, 양쪽은 토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표면적 갈등과 달리 실무 협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김용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2월 말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잇달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쪽 핵심 부가 이즈음 특사 방문을 통해 활로를 열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김 대남 비서는 그 뒤 군 부대 현지지도에 동행했으며, 3월 17일 김 위원장의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 방문 때도 함께 나타났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평양·베이징 오가며 2개월동안 막후접촉

### □ 남북특사 교환 합의까지

남북한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의 방북에 합의하고, 25일 이를 동시에 발표하기까지 양측 '말사' 들간 비밀접촉이 북한과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북이 특사파견에 합의하기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린데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일부 현안에 대해선 이미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 행사와 관련, 남북 고위인사의 교차방문 합의 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간 비밀접촉설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직후. 게다가 지난 1월 말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미관계 등 한반도정세가 급변하자, 이의 타개책으로 정부가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북한의 대남사업장구인 조국통일명화위원회(조평통)측과의 공개·비공개 채널을 가동하며 특사파견을 본격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남북 당국자들이 베이징에서 여러 차례 비밀접촉했다는 설,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고위 인사들의 방

북설 등이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임 특보는 "공식·비공식 채널에 반드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며 즉답을 피했다.

임 특보는 일찌감치 '특사' 임무를 맡아 북한 김용순(金容淳) 비서를 상대로 기획에서 마무리까지 막후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김보현(金保鉉) 국가정보원 3차장 라인이 가동됐고, 남북 당국간회담에서 연락관 역할을 해온 서훈 국장 등이 북측과 접촉했다는 후문이다. 북측이 남측의 특사파견 제의를

부시 악의축 발언후 정부 적극 나서  
"제1의제는 안보"...사전조율 시사

최종 수락하는 회  
신을 보내온 것은  
24일 저녁으로 알  
려졌다.

임 특보는 이날 "남북은 '4월 첫째주 특사파견'에만 합의했으며 앞으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남북이 특사교환에 합의했다는 것은 이미 의제들을 심도있게 협의했고, 논의의 기본 틀을 어느 정도 잡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또 "대량살상무기(WMD)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 안정을 논할 수 없다."고 밝히 한반도 안보관련 의제들에 대한 사전조율도 이뤄졌을 것이라 관측을 낳았다. 북측도 이날 '민족 앞에 닥친 임중한 사태'라는 표현으로 안보문제가 제1의제임을 시사했다.

☞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 한반도 위기 막기 '히든 카드'

## ■ 임동원특사 파견에 담긴 의미

대북 특사 파견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힘들어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다. 김 대통령은 얼마 전 사석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체, 불안정해진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평화론" 확고히 구축하지 못하고 임기 말 늘 갖는 게 천추의 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김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이 이번 특사 파견에 깊게 담겨있다.

현실적으로도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내년 북미가 핵사찰을 놓고 격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지할

경우 한반도의 불안이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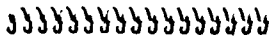
대북 특사인 청와대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 특사가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논의할 우선적인 의제도 한반도 긴장 예방이 꼽힌다. 임 특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와 안정 없이는 한반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반도에 다가올지 모를 위기를 방지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선마후남(先美後南) 정책을 선남후미(先南後美)로 바꾸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만 잘되면 남북관계는 저절로 풀린다"는 북한의 전략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완강한 자세 앞에서는 실적이 없다는 점.

따라서 역으로 남북관계의 완성

## 한국일보

2002. 3. 26 (화)



### ■ 남북한 협상의제(예상)



#### 남측 제시

- ▶ 한반도 긴장조심 예방
  - 한미사일·핵 등 대량살상 무기위협 해소
  - 북미·북일관계 개선
  - 월드컵·아리랑 연계
- ▶ 6·15 공동선언 준수
  -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 장관급 회담 등 당국회담 재개
- ▶ 남북합의사항 이행
  - 이산가족 교환, 경의선 복원, 금강산
  - 유료관광, 개성공단 조성, 군사신뢰구축



#### 북측 제시

- ▶ 민족 앞에 덕된 협동한 시대
  -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적 문제
  - 주적 문제
- ▶ 북·남관계 문제
  - 식량·전력 지원 문제
  - 비료·무상지원 문제
  - 경추위 등 당국회담 재개
  - 아리랑 관광객 수용방안

## 2003년 위기설에 안전장치 포석 경의선·식량지원등도 주요 의제 北성의 미흡땀 국내서 쟁점 될수도

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자는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가 갔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소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성의를 보이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파종기를 맞아 비료가 필요하고, 식량 지원도 받아야 할 처지다.

경제적으로도 고단한 상황이며

내년에 강도가 높아질 미국의 압력에 경면으로 맞서기도 두려운 분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으로 결국 북한은 남측이 제시하는 '당근'을 최대한 얻어내면서 한반도 긴장조심 예방이라는 명분에 동참할 것이라는 게 주변의 기대이다.

큰 방향이 합의되면 구체적인 의제

들은 의외로 손조롭게 풀릴 수도 있다. 주요의제로는 남북간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금강산관광 활성화, 개성공단 개발, 군사적 신뢰구축 등 5대 핵심과제가 지적된다.

또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야 할 사안인 남북고위급 인사의 월드컵 개막식 및 아리랑 축전 교차참석, 김 정일 위원장의 답방도 논의될 문제들이다.

그러나 구체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남측의 지원에 비해 북한의 성의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 국내 정치로 비화돼 특사파견은 격한 쟁점이 될 우려도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 이산 상봉·식량지원 구체성과 전망

■ 임동원특보 월 논의하나

## 경의선 연결·금강산관광 육로 개설 협의 창구 막힌 국방장관회담 일정 최대 관심

임동원 대북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다음달 첫째 주 평양을 방문해 협의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한반도 위기설' 로까지 불리는 최근의 북-미 갈등 등 긴장된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 합의를 얻기는 어렵다.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 확보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한 남북의 역할을 북쪽에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성과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북쪽에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에 대한 명분 제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이 각각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남),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 (북)로 표현한 논의 사항들은, 제대로만 논의가 진행되면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정세상태를 빚어내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우선 계속 뒤로 밀려온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에 관한 합의가 이

뤄질 것이라는 데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보다는 상봉 장소가 금강산이나, 서울~평양 교환 방문이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 문제도 특사 방북을 통해 자연스럽게 풀릴 전망이다. 식량 지원은 그동안 경험 차관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차관 협상을 위한 경험추진위 일정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의 시금석으로 꼽히고 있는 경의선 연결 공사와 금강산 육로관광로 개설 문제도 협의될 게 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둘 모두 겹겹사업이면서도 비무장지대 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상정한 평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두 과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특사 방북의 성과를 가르는 실질적 잣대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 경의선 비무장지대 구간 공사 시작을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청와대 박선숙 대변인이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특사로 북한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의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의 긴급 뉴스를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다. 서경신 기자 raoul@hani.co.kr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자 회담 일정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그동안 북쪽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비춰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북쪽은 이를 최대한 지렛대로 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0년 10월 1차 회담이 열린 뒤 창구가 막힌 국방장관회담 일정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특사 파견의 주된 과제로 꼽히는 한반도 정세안정을 직접 협의할 창구가기 때문이다.

다음달 29일부터 평양에서 두일간

계속될 아리랑 공연과 관련해서는 남쪽 정부 대표단 파견보다는 민간 관광객을 양쪽 당국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직항로, 인천~남포간 해상로, 판문점~개성간 육로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드컵과 관련해서도 북쪽 사절단의 개막식 참석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었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한겨레

2002. 3. 26 (화)

## 72년 이후락부장 극비 방북 등 10여차례 임특보, 김용순 서울방문에 담방차원 파견

### ■ 남북특사 교환 일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대남 특사는 공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만 다를 뿐, 그들의 임무는 최고책임자의 의사를 상대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같다.

4일 초 평양에 갈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자신의 평양행이 재작년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서울 방문과 관련하여 벌 것을 주문했다. 담방 차원의 공개 특사인 셈이다.

임 특보는 정상회담 직전에도 비공개 '특사'의 구실을 수행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정상회담 몇주

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만나 정상회담 준비과정을 사전 조율했다. 이에 앞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비밀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는데 이들 역시 특사라 할 만하다.

남북이 비밀리에 물밑으로 오갔던 '밀사'의 역사는 지난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판문점을 넘어 5일 초 평양을 극비 방문해 당시 김일성 수상을 두차례 면담했고, 5월 말엔 북한 박성철 당시 부수상이 담방 형식으로 서울을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했다. 그 결과가 7·4 남북

### ■ 남북 특사 파견 일자

시기	특사 파견 내용	주요 논의 사항
1972년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김일성 수상과 면담	7·4공동성명 협의, 남북조직원 직접회담 개최 협의
1972년 5월	박성철 부수상, 박정희 대통령 면담	
1985년 9월	허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 건투환 대통령 면담	정상회담 추진
1985년 10월	장세동 안기부장, 김 주석 면담	
1989년 7월	박집현 대통령 정책보좌관, 김 주석 면담	국외회담 직접회담 총리 회담 등 재개
1990년 10월	서동원 안기부장, 김 주석 면담	남북기본합의서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 남북간 연세방문	핵위기 탈출, 정상회담 회담의 시간달
2000년 4월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송호경아태부위원장, 베이징 회담	정상회담 개최협의
2000년 5월	임동원 국정원장 극비방북	정상회담 사전조율
2000년 9월	김용순 아태위원장 서울 재주 방문	정상회담 후속 조처 논의

공동성명이었다.

5공화국 때인, 85년 9월 허담 노동당 대남비서가 서울을 극비 방문한 데 이어 장세동 안기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 추진을 논의했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 간에 밀사가 아닌 특사 교환이 본격 논의됐던 것은 김일성 정부 시절인 93년 북한 핵위기 때였다. 북쪽 제의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논의됐으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끝내 무산됐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부시 訪韓 후 南北 본격 막후접촉

## ■ 특사파견 성사까지 베이징 채널도 가동 韓美간 조율 가능성

임동원 특보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기까지는 '악의 축' 발언 이후 전면에 등장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동된 남북간 대화채널과 우리측 인사의 비밀방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채널이 분주해진 시점은 대북

포괄적 협상의 필요성이 증대했던 지난해 말 한미정상회담 전후다. 회담 전 한미 양국은 남북·북미 대화를 풀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했고, 이는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검토는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회담이 걸릴된 뒤 가동된 비공식 채널과는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남북간 비밀접촉은 한미정상회담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도라산역에서 대북침공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북미대화할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가정보원 김보현(金保鉉)

3차장과 통일부 서영교(徐永敎) 국장 등 대북 실무진들이 이달 초 방북했다는 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임 특보의 방북설도 나돌았다. 임 특보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북 부서의 주요 인사가 방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후 북한은 술한 저음질 끝에 24일 오후 OK사인을 보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올 초부터 국정원 요원들이 담당했던 베이징(北京) 등 제3의 채널도 남북간 의견교환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남북 비밀접촉 과정은 정보당국을

채널로 한 안미간의 조율 속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13일 적 프리치드 미 대학교수담당대사와 박길연(朴吉淵) 북한 주 유엔대사의 접촉 후 미 국무부는 이를 '유용한 만남'이라고 표현했다. 미국도 청신호를 감지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북한은 21일 일본인 납치사건에 관해 대일 대화 의사를 표시했다. 남북뿐만 아니라 북일, 북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국면전환이 예고되는 것이다. 비밀접촉 등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진의는 1차적으로 28일부터 2박3일간 방북하게 될 메가타리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한국일보  
2002. 3. 26 (화)

世界日報

2002. 3. 26 (화)

# 교착 南北관계 '봄바람'

## 특사파견 의미·北의 계산

임동원(林東源) 특보의 대북 특사파견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것임은 분명하다.

임 특사는 방북중 그동안 쌓여 있던 남북간 현안들을 모두 풀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도 임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임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 가동이 중단된 ▲직접자회담 ▲경협추진위원회 ▲장관급회담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간 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협의체가 재가동된 것으로 전망된다. 미뤄지고 있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도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특히 우리측의 월드컵과 북측의 아리랑축전을 연계하는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전력투구하는 아리랑 공연에 남한 관객이 몰려들지 않는다면



남북 동시발표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임동원 특보의 대북특사 파견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북한도 같은 시간 평양방송을 통해 임 특보의 평양 방문 사실을 공식 보도하고 있다(오른쪽).

## 北 아리랑 축전 성공·식량난 타개 속셈 중단된 직접자회담등 협의체 재가동 될듯

밝혀 임 특사의 방북기간에 남북은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아이টে모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서부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 그리고 평양에서 열릴 아리랑축전에 남한의 총리급 인사 참석문제 등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임 특사의 방북은 결과에 따라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작금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일대 분수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남한 관객이 아리랑 공연에 참석하려면 남북간 당국자회담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북측이 특사방북을 받아들인 것이 아리랑축전을 위한 인회성이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특사방북 수용은 미국의 대북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다. 국면을 좁혀 보면 남한의 비료와 식량 지원의 명분을 얻는 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진·김기동기자 jji@sgt.co.kr

## 남북관계일지

- ▲2000.3.17~4.8=남북특사 접촉(박지원 장관·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 ▲6.13~15=남북정상회담
- ▲7.29~31=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 ▲8.15~18=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8.29~9.1=제2차 장관급회담(평양)
- ▲9.2=비전향장기수 63명 송환
- ▲9.11~14=북한 김용순 비서 '특사' 자격 남한 방문

- ▲9.25~26=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제주)
- ▲9.27~30=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제주)
- ▲11.30~12.2=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12.12~16=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평양)
- ▲2001.2.26~28=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2002.1.30=부시, '악의 축' 발언
- ▲3.5=정부, '대북특사 추진'(世界日報 보도)
- ▲3.25=임동원 특사파견 발표

# “核·대량살상무기 논의”

## 임동원특사 문답

내주 방북할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5일 “(방북때) 핵사찰·대량살상무기 문제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담방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특사 방북의 의미는?  
“평화와 안정없는 한반도가

를 발표했으나 그후 국제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 지연됐다.”  
—어떻게 논의했나?  
“공개·비공개 협의체널이 유지돼 당국간 적절한 경로를 통해 협의했고, 어제(24일) 저녁에 합의됐다. 북한이 오늘 아침 발표하겠다고 해 우리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  
—북측도 남한에 특사를 보내나?  
“2000년 6월 정상회담 후 북한 김용순 특사가 서울을 공개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이 특사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게 편리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담방도 얘기되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월드컵 기간 중 담방문제는?  
“개인 생각으로는 희박하다고 본다.”  
—월드컵 대회·아리랑 축전 때의 남북 고위급인사 교환방문도 논의되나?  
“이제부터 검토해보겠다.”  
—북측 채널이 김용순인가?  
“북측 대남문제 총괄부서는 당의 통일전선부이고, 김용순은 대남사업 총괄 비서이자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핵사찰·대량살상무기 문제도 거론하나?  
“그 문제 거론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 우리의 시각과 좋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조언할 필요가 있다. 또 북측 최고당국자의 생각을 김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논의내용도 전달되나?  
“그런 것이다.”  
/국민배기자 baibai@chosun.com

## “올해 치를 4대 행사 평화·안정 긴요 내년 안보위기 올수도… 대처해야”

대단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2003년 안보위기설이 있다. 다가올지 모를 위기를 방지해야 했고, 금년에 치를 4대 행사는 평화와 안정없는 안 된다.”  
—북이 왜 수용했다고 보나?  
“남북협안 해결을 생각했을 것이다. 북은 1월 22일 당정합동회의에서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

“2000년 6월 정상회담 후 북한 김용순 특사가 서울을 공개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이 특사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게 편리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담방도 얘기되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서울담방문제도 포괄적 논의”

## 한겨레

2002. 3. 26 (화)

### ■ 임특사 일문일답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은 25일 “남과 북 모두 한반도에 다가올지도 모를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어떤 채널을 통해 합의했나?  
=그동안 남북간 공개·비공개 협의체널은 계속 유지돼 왔다.

—북쪽에서 연락이 온 것인가?  
=우리가 제의하고, 북쪽에서 24일 저녁 연락이 와 오늘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북쪽에서도 특사가 오나?  
=그런 얘기는 없었다. 지난 2000년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특사로 서울을 공개 방문했다. 이것과 관련해 우리측이 특사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  
=미리 얘기하기 곤란하다. 대변인이 발표한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생각이다.

—누구를 만날 예정인가?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방문제

### 한-미간 항상 긴밀협의 식량지원 연계 안시켜

도 논의되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 때 교환 방문 가능성도 있나?  
=그런 것은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 논의해야 할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해 봐야겠다.

—미국쪽에 통보했나?  
=한-미 간에는 항상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남북 비공식 접촉 장소가 북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정한 장소와 관련 없다. 공식·비공식 채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북한이 공개적인 특사 교환을 받아들인 이유는?  
=2000년 김용순 비서의 서울 방문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남북간에는 이런 특사 교환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인식이 있다. 공개적으로 오는 건 전례는 그때 확립된 것이다.

—북한이 가장 시급한 것은 식량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 협의는 있었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조건이 없는 것으로서,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미국과 우리의 기본 정책이다.

—핵사찰,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거론할 생각인가?  
=거론하게 될 것이다. 그 문제의 거론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얘기할 수 없다. 우리 시각을 전달해 주고 조언해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간다. 북한 최고 당국자의 생각을 알아올 임무도 갖고 간다.

—현재 특사를 받아들인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은 과거 ‘선 미(미국), 후 남(남한)’ 전략을 지켜왔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병행 추진기로 했다가 지난해 부시 미 정부 등장 이후 다시 ‘선 미, 후 남’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북관계가 합성화되지 않으면 북-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남북관계를 합성화시켜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도록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김용순 기자 yskim@hani.co.kr

# “金위원장 만나게 될것”

## • 임동원 특보 문답

대통령특사로 다음주 방북할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특별임명특보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북하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보는 시각과 김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특사 방북의 배경과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재의한 이유는 새가시다. 첫째는 한반도의 긴장조성 예방이다. 2003년 안보위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금년에 우리는 4대 현사슬 치러야 하는데 평화와 안정 없이는 치릴 수 없다. 또 6·15 공동선언 준수문제라든지, 남북간 합의했지만 이행중단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특사 파견을 수용한 이유는 무라고 보나.  
“북한도 안보위기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다. 긴장문제를 포함해 남북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가나.  
“날짜는 교정편에 따라서 신속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특사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왔나.  
“그동안 남북간 공개·비공개 협의채널이 유지돼 왔다. 당국간 직할한 경로로 통해서 이 문제가 협의돼왔고, 어제(24일) 저녁에 합의됐다. 북한이 오늘 이집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나.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월드컵대회, 아리랑 축전등 고위급인사의 교환방문도 논의되나.  
“의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해보겠다”

—핵사찰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나.  
“거론하게 될 것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공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또 북측 최고당국자의 생각을 듣고 김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나는 얘기도 전달되는가.  
“아마 그런 것이다”

이종근기자 harkjung@k.yunghyang.com

## “北도 안보위기 중시 韓·美정상 얘기 전달”

“북한도 안보위기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다. 긴장문제를 포함해 남북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회의실로 갑시다’ 민주당 한광옥 대표 등이 25일 확대당직자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남훈기자

## 野 “국내 정치 악용 경계” 與 “남북관계 활성화 기대”

### • 특사 방북 여야반응

여야 3당은 25일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특보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방북 시기 및 의미를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지민연은 남북교류 증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대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악용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대북문제가 잘 풀려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김정일 위원장 담판을 예견해온 조치들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선거를 앞두고 북한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남대변인은 또 “북한과 협의할 내용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북정책 잘못으로 국회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동원의 파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민연 정진석(鄭鎭錫) 대변인도 “특사 방북이 국내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국내 정치의 불안·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원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힘겨운 남북관계가 활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특사 파견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한 양측이 내심있는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의미있는 합의의 틀을 열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승욱기자 utokim@k.yunghyang.com

## 林東源 특보 문답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임명특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에 특사 파견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보다 내년 한반도에 다가올지 모르는 안보위기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2003년 안보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핵, 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북한이 특사 파견에 응한 이유는...  
“북한도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다. 남북 현안을 논의할 필요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협의해 왔나.  
“남북 간에는 공개, 비공개 협의 채널이 유지돼 왔다. 24일 저녁에 합의돼 북한이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북측 상대방은...  
“북한에서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당의 통일전선부이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비서가 김용순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 24일 저녁에 합의 訪北수단 협의중

—언제 가나.  
“교정편에 따라 신속적이다.”

—관문길을 통해 가나.  
“그것도 포함해 협의 중이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만나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는 것이다.”(당연히 만난다는 의미)

—북측도 특사를 보내나.  
“2000년 9월 김용순 특사가 서울을 공개 방문했다.”

—남북 고위층의 월드컵과 아리랑축전 교환방문도 논의되나.  
“논의는 없었으나 이제부터 검토해보겠다.”

—미국 측과의 조율은...  
“한미 간에는 항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핵사찰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거론하나.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

—월드컵 기간에 김 국방위원장의 담판 가능성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철희기자 kkim@donga.com

## '남북 金心' 간접회담

### ■ 누구 만나 뭘 논의하나

대통령 특사로 내주 초 북한에 파견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누구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  
 ●누구를 '만나다' 이번 '임동원' 특사' 카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뽑은 '최후의 승부수' 인 만큼 당연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난다.

남북, 북·미관계와 한반도 긴장 완화, 6·15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김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고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또 대남문제를 전달하고 있는 김용순(金容淳) 비서는 물론, 군부실세인 조명록(趙明祿)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광근 무역상 등도 임 특보의 대화 상대로 꼽힌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김 위원장 답방 문제 임 특보는 김 위원장에게 북·미대화 재개와 핵·미사일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 남북간 평화의지를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이유를 들어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확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김 위

### 주요의제와 양측입장

남측 입장	의제	북측 입장
연내 답방	김정일 위원장 답방	확약 불가
미국과 대화 촉구 미국이 요구하는 핵사찰 촉구	북·미 대화 및 핵문제	미국의 체제·안정·통일 정책이 먼저 실현될 수 있지만, 대화 진행도 의의 있음
월드컵과 '아리랑' 행사 개최	월드컵·아리랑 행사	결정권 관련해 '아리랑' 행사 참가 연계 전향로 등 개선, 단체 관광·협조
강소 불문 사법제 면회소 등 신설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에 소극적
최단시간에 1인 원로	경의선·도로 연결	당시제 등 지원 요청
관공특구 지정 및 육로개방	금강산 관광	관광대가 지참 정상화
경협추진위 개최 촉구	개성공단 개발	전면지원 등 요구

### 김용순·조명록 등 실세 접촉 6·15합의이행 - 美대화 촉구 고위인사 월드컵 초청할듯

원장의 답방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번엔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으로서도 내년에 미사일 반사실험 유보 기간이 끝나고 미국의 핵사찰 요구가 거세지는 등 '2003년 위기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쉽게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주장도 있다.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부담이 없으면 서도 효과가 큰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임 특보를 통해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를 월드컵 개막식에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4월 말부

터 두달 동안 열리는 '아리랑' 축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측 제의에 응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 해결'을 주장해온 의제다. 이에 따라 임 특보는 이른 시일 내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성사시키고, 이어 면회소 설치 등의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도 햇볕정책의 구체적 성과로 상징성이 큰 만큼 임 특보가 북한의 최고위층에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의선 연결에 대한 화답만 받아내도 이번 특사 파견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영무기자  
anselmus@kdaily.com





임동원 외교안보특별특보의 다음달 3일 방북은 정체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 특보의 특사 파견을 북한측이 흔쾌히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방북이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상호입장

남	의	북
조기 답방 희망	김정일 답방	?
시절단 교차 방문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	금강산 관광-아리랑 축전 연계
경협추진위에서 논의	대북 식량지원	조속 지원
육로 개설 및 특구 지정	금강산 관광	관광대가 정상 지급 요구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	이산가족 상봉	식량 지원 등 교류 연계
최대시일 내 연결 완료	경의선 연결	합의서 서명 연기

## 임동원특사 내달3일 평양방문

# 냉기류 남북관계에 훈풍

### 최기영 기자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도 25일 임 특보의 특사 파견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특사 방문이 경제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서 나타난 대북 강경 무드를 누그러뜨리고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권국 대화 재개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남북대화가 성공하면 북·미, 북·일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임 특보의 특사 방북 길은 우리측이 요청하고 북한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임동원 특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측에 특사 파견을 제외한 이유는 발표문에 세 가지로 잘 요약돼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첫번째 '한반도의 긴장조산을 예방하며'라는 대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 특보는 이번 방북 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을 만나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와 6·15 남북 공동선언 후 체결된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분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는 얼마 전 내년 한반도 위기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한반도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기를 예방하고, 올해 치를 4대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슬기롭게 막아야 한다"고 자신의 임무를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월드컵 대회를 불과 60여 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 김위원장등 고위층 만나 한반도 긴장완화 논의 北·美대화등 설득 나설듯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임 특보는 또 내년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요구,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을 위한 사찰문제 등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중대 현안들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측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과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

**예상 시나리오**

**4월 2002년 APRIL**

- 임동원 특보, 평양 방문(첫째주)
- 김정일 위원장 특사, 서울 답방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장관급회담(또는 경협추진위) 개최

**5월 2002년 MAY**

- 아리랑 축전 장관단 파견 (이한동 총리 방북?)

**6월 2002년 JUNE**

- 월드컵 장관단 서울 방문 (김영남 위원장 서울 방문?)

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이 6·15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건설, 군사직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과 이행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와 양측이 합의만 하면 4월 중에도 성사될 수 있다.

북측은 경협추진위나 장관급회담 직전에 남측의 특사 파견에 대한 답례 형태로 송호길 이대평화위 부위원장 등을 특사로 서울로 내려보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측은 아리랑축전을 통해 '달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래 '남측의 대규모 장관단 유치'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의 대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아리랑 축전 장관단을 보내는 대신 월드컵 장관단을 요청할 수 있어 비합리축 단계부터 장관단 교환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동 총리를 대표로 하는 아리랑축전 장관단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월드컵 장관단이 맞교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월드컵-아리랑축전에 고위인사 상호참관 기대

### □ 향후 시나리오

#### 내영필 기자

임동원 특보가 4월 3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함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임 특보의 특사 파견 외에는 북측과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시진 김측에서 이미 상당부분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당의 반박 속에서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는 '모험'을 선택한 청와대 입장에서조차 빈손으로 돌아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한 모든 현안의 의제로 다루길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대통령선거 등 남측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고 북측도 차기 집권자와의 '거래'에 비중을 둘 수 있어 낙관하기 어려운 의제다.

그러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우리측이 각종 회담 및 대화 때마다 최우선 과제로 던지는 만큼 북측에 설리될 제공해주면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지난해 10월부터 방문단 명단이 확정된

- ▶ 남북, 우리측 특사의 평양방문 합의
- ▶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4월 첫째주 방북
- ▶ 이번 특사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
- ▶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 6·15공동선언 준수, 남북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협의의 위해 특사파견 재의

# ‘침체’ 남북관계 春風 다시 부나

## ■ 임동원특사 내달3일 방북

남과 북이 25일 김대중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합의함에 따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정체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특사로 파견될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특보는 "아직 논의할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성급한 성과를 경계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남북 총리급 인사의 북한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 상호 교차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6·15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등 핵심적인 남북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왜 특사방문 하나=정부는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측에 요청했으나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이유로 남북관계 재개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월드컵 등 4대 행사가 있고 내년에는 한반도 안보위기 재연이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특사파견을 재의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파견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김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에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특사파견을 재의했다"고 말했다.

특사로 파견될 임 특보는 이중에서도 안보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1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북미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한반도에 지난 94년 북한 핵 위기와 같은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무슨 논의하나=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남북 총리급 인사의 아리랑축전과 월드컵 교차방문,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에서도 안보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도 이날 특사

## 올해 남북관계 주요 일정

- ▲1.30 미 조지 W 부시 대통령, '악의 축' 발언
- ▲2.17~22 미 부시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북미 대화 재의
- ▲2.22 북한 외무성 답화, 대화 재의 거부
- ▲2.28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무산
- ▲3.4 정부 '대북 특사교환 추진' 보도 부인
- ▲3.19 북한 외무성 답화, 한미 군사 훈련 비난
- ▲3.25 남북, 남측 대통령 특사 평양 방문 합의

## 남-월드컵 안전 개최 북-봄철 식량난 타개 이해 맞물려 대화합의 금위원장 답방등 논의

방문을 공식 발표하면서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상태와 함께 서로 관심 있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점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건설,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남북관계 전망=북한은 그동안 북미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대화 중단이 북미관계 개선에도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비료지원 문제, 봄철 식량난에 따른 식량지원 문제 등 현안이 대두함에 따라 남북대화 재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임 특보의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의 정체상태를 깨고 대화재개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의 월드컵 참석 등이 합의될 경우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외식기자 esahn@sed.co.kr

## 한국일보

2002. 3. 26 (화)

# 北·美관계도 해빙 되려나

## ■ 林특사 訪北관련 전망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방북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를 공식 표명한 이래 사실상 모든 공식 대화가 끊긴 상태다.

한국측의 지속적인 대북대화 요구에 마지 못해 지난해 6월 부시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는 대화'를 선언했으나 북한이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이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을 이룩하면서 북한을 WMD 확산 우려 국가로 분류하고 비난하면서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출초 연두교사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설상가상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번엔 임 특보의 방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는 곧바로 북미 대화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외교 관계자는 "북미관계가 악화한 것은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던 데에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임 특보가 미국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할 경우 북한이 이에 호응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임 특보의 방북은 사전에 미국측과 조율됐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때문에 임 특보가 모종의 미국측 메시지를 가지고 평양에 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가 일요일인 데도 발표가 전해진 24일 저녁 신속하게 환영 논평을 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 北 김영남 월드컵때 방문 관심

## 林특보 무얼 논의하나

임동원(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다음주 평양행은 무엇보다 남북한 정상에 대화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가 25일 "특사는 고밀도의 대화 수단"이라며 "남북 관계 타개의 시발점(jump-start)으로 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무슨 얘기 오갈까=林특보는 우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서울 답방 의증을 타진한다.

서울 방문의 '적절한 시기'를 이미 넘겼다는 비판론이 있지만, 대북 포용 정책의 개운한 마무리에는 2차 정상 회담 성사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미 미 행정부의 대북 시각도 전해질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이 문제는 북·미 대화에서 다루겠다고 피할 수 있다.

셋째는 남북 관계와 관련한 포괄적 현안.

정부는 ▷경의선(京義線)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건설▷금강산 육로 관광▷이산가족 상봉▷군사적 신뢰와 긴장 완화 등 을 대북정책 5대 핵심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재개와 7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가 핵심이다.

넷째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료·식량 지원이다.

매년 20만 t 인파에서 이뤄지던 인도적 차원의 비료 무상 지원과 30만 t의 정부 보유 쌀 차관 제공은 북측의 요청 등 절차 문제만 남은 상태다.

"식량·비료 지원은 이산상봉 전에 타결될 수 있다"는 당국자의 말로 짐작할 때 "선(先)지원, 후(後)상봉 구도가 될 수 있다."

◇깜짝 놀랄 합의를 있을까=핵심 관계자는 "林특보는 이미 의견이 접근된 사안 외에 높은 차원의 현안 타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외의 합의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북측이 1년도 남지 않은 김대중 정부와 어느 정도까지 대화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중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학)교수는 "특사는 6·15 합의의 틀 안에서 줄 것과 받을 것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월드컵·아리랑 축전 상호 참관 등이 성사되면 남북관계는 급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트너는 '용순 비서'=林특보는 김용순(金容淳)노동당 통일전선담당 비서와 주로 접촉한다.

## 경의선등 南北현안 포괄적 협의 동감내기 '용순 비서'와 주로 접촉

정부 안팎에서는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월드컵 때 북측 참관단을 이끌고 방한할 것이란 설이 나온다. 여의치 않으면 8·15 때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서울 방문은 김정일 담방의 전조라는 점에서 주시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남측의 총리급 인사가 평양 아리랑 축전을 참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기대 섞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특사의 역할이 일정한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측이 지나치게 포인 남북 관계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 특사 파견에 합의했지만, 김위원장 답방 등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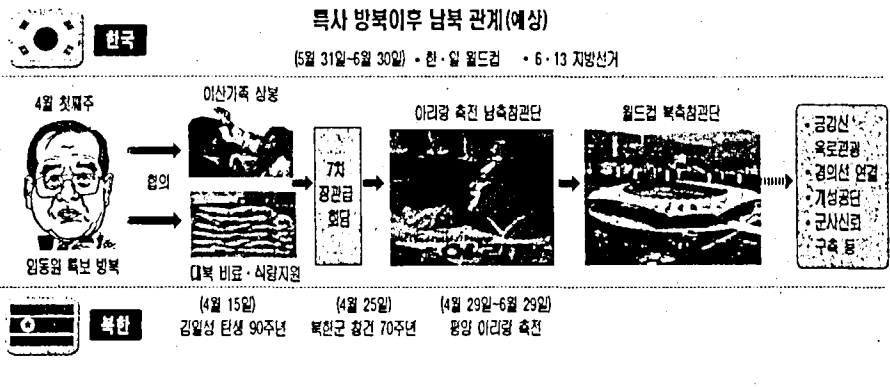
두 사람은 6·15 공동선언 이행이 선행 단계에 빠지거나 2000년 9월 제주에서 심야 담판을 해 정상화했다. 1934년생 동갑에 평안도 출신이라는 공통점 외에 양측 최고위층의 신임이 두텁고 호흡도 잘 맞다는 평이다.

남측에서는 김보현(金保鉉)국가정보원 3차장(대북 담당)이, 북측은 임동옥(林東玉)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실무로 나설 것으로 짐쳐진다.

회담 대표가 아닌 특사라는 점에서 다섯명 안팎의 단촐한 규모로 짜일 전망이다. 또 방북 경로는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한 항공편이 유력하다.

남북한은 26일부터 특사 파견의 구체적 절차를 집중 협의한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 “내년 안보 위기說… 예방 필요 아리랑·월드컵도 논의될 듯”

## 林특보 일문일답

다음달 초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는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5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성사 배경과 목표 등을 설명했다. —방북 목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설이 나올 고 있다. 또 6·15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준수하고, 이행이 중단되거나 잘 안된 문제들에 대해 최고 당국자들이 간접화법이기 하지만 특사를 통해 대화를 하자고 (남측이 제안)해서 북측이 동의한 것이다. 북측도 안보위기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화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을 통해 가나.  
“실무적인 협의가 남아 있다. 그것도 한 방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논의하나.  
“모든 문제를 포괄해 논의할 것으로 안다.”

—월드컵과 북한의 아리랑 축전 행사에 관해 논의하나.  
“의제는 아니지만 논의될 것으로 본다.”

—어떻게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했나.  
전영기 기자

“2000년 9월 김용순 특사가 서울에 올 때부터 특사 교환은 공개해지는 인식을 같이 해왔다.”

—북측과 사전협상이 이뤄진 장소는.  
“공식·비공식 채널이 있다. 채널이 있으면 장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양에 가면 핵사찰·대량살상무기 등 미국이 우려하는 문제도 논의하나.  
“거론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조언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것이고, 저쪽 최고 당국자의 생각을 받아올 임무가 내게 있다.”

—긴장조성 예방을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진전이 중요하데.  
“그렇다. 북한은 원래 미국과의 문제가 풀려야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선미후남(先美後南)정책이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한과 미국 문제를 병행추진하는 쪽으로 바꿨다. 그런데 지난해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선미후남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건 (북한의) 잘못된 생각이다.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면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족 자주적인 입장에서라도 잘못됐다. 이번이 가면 그 점을 설득하겠다.”

—어떻게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했나.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 햇볕 전도사… DJ 對北정책 총괄

## ■ 임동원 특사는 누구

### ▶ 2000년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일지

6.13~15	남북정상회담(평양), 공동선언 채택
8.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평양)
9.2	비전향장기수 63명 송환
9.11~14	북한 김용순 비서 '특사' 자격 남한 방문
11.30~12.2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평양)
▶ 2001년	
2.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평양)
3.10~14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
3.15	남북 첫 이산가족 서신교환(각300통)
3.24	북한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 별세 관련 조문단 파견
8.15~21	8.15 민족통일 대축전(평양)
9.3	국회 임동원 통일장관 해임결의안 가결
10.12	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일방 연기
11.14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평양)
▶ 2002년	
1.30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약의 속' 발언
3.25	임동원특사 방북 발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설계자요, 전도사로 불린다. 임 특보는 실제로 국민의 정부 들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등을 잇따라 맡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해왔다.

임 특보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김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앞서 같은 해 5월 국가정보원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 인사들을 만나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한 바 있다. 임 특보가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세 번째 만남이 이뤄지는 셈이다.

군 출신(육사 13기)이지만 군인 체취가 거의 나지 않고, 치밀한 일처리와 논리적 언변 등으로 북측을 설득하는 데 직업자라는 평이다. 육사 교수로 거쳐 80년 육군소장으로 예편한 뒤 주 나이지리아·호주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분야도 두루 섭렵했다. 90년대 초 통일원 차관이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8·15 민족공동행사에서 남측 인사들의 돌출행동과 관련, 국회에서 해입건의안이 통과돼 통일부장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대통령 특보로 다시 돌아왔다.

●오종연기자

엇갈린 정치권 반응

청와대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대북 특사 파견은 정치권에 충격을 던졌다. "특사 파견은 김정일 담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한나라당 鄭亨根 의원)는 점에서 대선 국면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침체된 남북관계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일색인 민주당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선용 신북풍"(洪準杓의원)이라며 2000년 4·13 총선을 사흘 앞두고 6·15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된 것과 같이 이번 특사 파견은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송위원장 담방이 이뤄지면 연말

野 "대선 겨냥한 新북풍" 與 "남북관계 활성화 기대"

대선까지 그 파장이 미칠 것이라 우려가 깔려 있다. 정형근 의원은 "시중에선 월드컵이 끝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재방북할 것이라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노무현(盧武鉉) 후보 지지층이 20~40대란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한나라당 남북관계특위 조웅규(曹雄圭)위원장은 "젊은층은 남북관계를 좀 더 민족적 관점에서 본다"면서 "김정일 담방으로 盧후보에 대한

이들의 지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차정일(車正一)특검의 발표시간과 같은 점을 들어 '특검 물타기용' 이라거나 "한나라당 부총재단 사퇴 등 당 내분 수습 국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란 해석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은 이를 따지기 위해 우선 국회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재오(李在五)총무는 "林특보가 북에서 협의할 내용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경필(南

景弼)대변인은 "특사 파견은 김정일 담방 구경용일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금강산 관광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나, 통일부 장관이 아닌 林특보가 방북하는 점에서 이런 거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도 마찬가지로, 정진석(鄭鎭碩)대변인은 "세간에선 林특사의 방북이 국내 정치와 연계돼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며 "대선 정국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면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침체된 남북관계가 활짝해지는 좋은 계기"(韓光王대표)라면서 "남북 간과 북·미 간 긴장 국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특사가 파견됐다"(金成勳의원)고 '정략적 의도성'을 일축했다. 최상연 기자 <choisy@joongang.co.kr>

대한매일

2002. 3. 26 (화)

한반도 '해빙의 봄별' 쫓나

특사파견 배경과 전망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4월 첫째 주 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열었던 남북관계가 해빙(解氷)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대통령의 특사파견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조건 없이 수용한 태도가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특사파견 배경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남북이 뜻을 같이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11 테러 이후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가 소원했지만, 남북관계는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접근을 다시 찾은 셈이다.

올해 월드컵 등 4대 행사들 치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한반도에 위기국면이 조성되는 일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 역시 2003년 핵 특별사찰 여부를 둘러싼 안보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만큼 안전판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측도 긴장조성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미관계에서 안보위

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중좌파. 이와 관련, 임 특보는 25일 "김 대통령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사파견을 제의했다. "면서 "남북간의 제반 문제에 대해 간접회담이긴 하지만 특사들 통해 최고 당국자들간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북측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南·北·美 냉기류 타개 긴장완화 논의에 공감 "평양축 선물 클수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전망 임 특보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가는 만큼 '보따리'를 채워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 특보도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측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해 의욕을 보였다.

우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활성화 ▲개성공단 개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5대 과제는 합의점을 쉽게



다음달 북한에 특사로 파견될 임동원(오른쪽)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25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재림기자 jswoolm@daily.com

게 찾을 것 같다. 북측이 성의표 보이면 바로 시정하거나 계획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담방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김숙환 대화가 오갈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번 임 특보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관계 역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임 특보는 지난 2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얻어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미국과의 대화에 나

서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어쨌든 앞으로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는 북한이 이번 특사파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 화답(和答)하는냐에 따라 국면전환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동원기자 poony@daily.com

# 南北문제 선도... '실리' 선택

임동원특보 先방북 속뜻은...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푸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굳이 먼저 손을 내미는 형식으로 특사를 파견하는 김 대통령의 의도는 급박해진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북한의 재래식 무기, 핵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남북대화 틈 갖고 한반도의 긴장된 안보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남북한 문제의 교착상태는 월

이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장관급 회담을 재개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북한측의 성의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활성화, 군사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등 5대과제도 주요의제다.

임 특보는 9·11뉴욕테러 이후 180도 달라진 미국의 대북인식을 이해시키고 조속히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김 위원장에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자국의 안보를 위해선 전쟁도 불

## 한반도 안보환경 급박... 방치 한계

## 김정일 답방 문제가 주의제 될듯

트럼프대회와 양대선거뿐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최근 공식석에서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누차 강조했었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남북문제에서 성과를 남기는 게 필수적이고 남북간에 관계개선이 되면 미국 주도의 한반도 대처방안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 특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관계 개선에 김 위원장 답방만큼 효과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

사한다는 강경입장임을 전하고 북한이 발빠르게 국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한 관계개선이 막막한 북한과 미국 관계를 호전시키는 데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북한을 국제적인 대화의 장소로 견인해내는 것도 주요과제 중의 하나다.

임 특보가 방북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갑자기 장밋빛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진심을 보여줄 것인지는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퍼주기식 선물만 챙기고 신뢰회복의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 북미관계는 악화되고 한반도 안보는 더욱 위협에



**"평양 갑니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특보가 25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자신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지방선거대선을 앞두고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보수층과 야당의 의구심이 일 수도 있어 남한 내 여론분열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과 협상에서 실속없이 조급하게 굴 경우 자칫 말로 주고 되로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정승욱기자 jswook@sgt.co.kr

# 美 걸은 "환영"... 속은 '걱정'

특사 계기로 남북관계 급진전면 MD구축등 부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인보통 일특보의 방북 발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미국의 반응과 입장이다.

미국은 일단 "환영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는 등 시종 강한 대북 압박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걸공기와 속내가 반드시 같다고만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국의 입장=미국은 지난달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표 재천명하긴 했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간의 미묘한 시각차는 여전히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회견에서 "나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고 건설적인 대화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작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이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임 특보의 방북이 만일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한국정부에 의한 대규모의 대북지원 등 획기적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남북대화 지지'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미국, 특히 부시 공화당 정부는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앞서나가는 것을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 전력지원을 추진했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탈

경우 미국은 강경한 대북정책과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외신 반응=뉴욕타임스는 "(임 특보 방북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급격히 강화된 미국의 대북 압력에 맞서 남북간에 몇주 동안 이뤄진 비밀 대화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 조치로 김 대통령의 대북 대화노력의 정당성이 입증됐으며 북한은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대북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남한이 오랜 긴장관계에 극적인 돌파구를 열기 직전의 점진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이번 발표가 북한이 피랍 일본인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음을 지적하고 "이번 조치는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응해 다른 외교적 루트를 추구하는 징표"라고 전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방북기간이 고 김일성 주석 탄생 90주년(4월 15일)을 앞둔 시점이어서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국 내 보수파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남북관계의 경제 국면을 타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며, 부시 대통령 집권 후 정치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정상화도로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lgius@donga.com  
선대인기자 edis@donga.com

## 東亞日報

2002. 3. 26 (화)

### 청와대등 10여명 방북 수행

김형기 통일부차관도 거론-3일정도 머물듯

내달 3일로 예정된 임동원(林東源) 대령외교인보통일특보의 북한 '특사단'은 10명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0년 9월 북한의 김용순(金容淳) 대남담당비서가 이끄는 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를 준용한 규모. 당시 고려민항을 이용해 남한에 내려온 북한 방문단은 모두 10명으로 박재경(朴在京) 인민군 대장 등 3명은 승이를 전달한 뒤 곧바로 돌아가고, 나머지 7명은 3박4일간 서울에 머무르다 판문점을 통해 돌아갔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임 특보 일행도 평양에서 2박3일 또는 3박4일간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북 루트 역시 관심사다. 현재로

선 판문점을 통한 육로와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로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임 특보는 2000년 5월 남평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방북할 당시 이미 판문점을 통해 북한 땅을 밟았다. 항공로를 택할 경우에는 서해 직항로로 날아가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는 루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 특보 수행원으로는 김형기(金형基) 통일부 차관과 물밀철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보현(金保鉉)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실무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 경향신문

2002. 3. 26 (화)

### '한반도 긴장완화' 최우선

#### · 무일 논의하나

임동원(林東源) 대령외교인보통일특보의 평양행이 결정됨에 따라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주요현안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특사 방북시 논의될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남측은 "한반도 긴장조정을 예방하고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며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북측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청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있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미뤄 1순위 의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에 종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 예상되는 2003년에 '한반도 안보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남북한 핵심 논의사항이다. 임특보 역시 "핵사찰 및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거론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및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이뤄진 각종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해 11월 북측이 미 태러시태 이후 남한의 비상경계조치를 들어 제4차 이산가족 방

북미사일·핵사찰등 얽혀 내년 '안보위기설' 다급해 이산상봉등 의제 수두룩

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후 남북간 대화재발은 사실상 뻔했다. 그만큼 논의할 의제는 많다.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선언에 포함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가 논의될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워드업 기간중 김위원장의 남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 임특보는 사전견문을 전제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 양쪽의 총리급 인사가 워드업과 아리랑축전에 맞춰 교차방문하는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차세현기자 csh@yonghyang.com



# 北·美 北·日 대화 촉매 기대

## 林특보 방북에 쏠린 눈

임동원(林東源)대통령 특보의 방북은 그 파장이 남북 관계 차원에 그칠 일이 아니다. 그가 지난달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지난 22일 한·일 정상회담 때의 일본측 메시지를 들고 가는 만큼 북·미, 북·일 관계의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고, 일본은 우리한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중재를 부탁했다.

◇북·미 관계=林특보의 방북은 일단 북·미 양국이 냉각기를 벗어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남북, 북·미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이 일단 호응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풀린 파울 국무장관의 발언에 잘 드러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간 화해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라며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 측 설명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林특보의 방북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수출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1 테러 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세계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미 관계가 단기적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작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온 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후회

진략일 수 있다”며 “4월 말경로 예상되는 남북 당국 간 대화와 더불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비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북·미 간 현안 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대화 재개에 나서면 중·장기적으로 북·미 관계가 호전되는 것은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일 관계=북·일 관계는 林특보의 방북과 관계 없이 최근 해빙

국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중지기로 발표했던 일본인 행방불명자 조사를 지난 22일 재개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이 문제를 다룰 적십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남한·일본과 두 국도의 회담을 하게 된다.

북한의 이같은 대일 유화 제스처는 일본의 식량 지원과 아리랑 축전 때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는 것은 테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 입장도 고려했다는 풀이다. 북한은 일본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납치자 한명의 생존 사실을 흘린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잘 풀리면 국교 정상화 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林특보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일 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는 남북, 북·일 대화가 맞물려 돌아가려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를 북·미 관계로 이어가지 않고 한·일 양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 하면 사태는 꼬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 美 대량살상무기 해결 바라고 日선 납치자 문제 교섭 원해



다음달 3일께 방북하는 임동원 청와대 특보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만찬행사에서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쉼위원장에 귀엣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 김정일 월드컵기간중 답방?

## 임특보 "가능성 희박" 일부에선 "배제 못해"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의 방북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임 특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기간중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가능성에 대해 "기발한 아이디어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일단 기대치를 낮추었지만, 정부 일각에선 서울답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정책실장은 "대북특사가 파견되면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여러가지 내용이 다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서울답방을 미루고 있는 것은 명분과 실익, 환영과 경호 문제, 미국과의 조율 등 여러가지 현안을 놓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임 특사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가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경우 전격적으로 답방할 수도 있다. 특히 '연출'에 조예가 있는 김

위원장이 '다 차려 놓은 밥상'인 월드컵 개막식에 나타남으로써 극적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임기말 김대중 정부와의 거래를 가피해온 북한측이 남한의 정치일정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의심받을 여지도 있어 답방에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는 않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 국정원 對北협상팀 가동 북경서 北측과 수차접촉

## 어떤 채널로 이뤄졌나

이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방북은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떻게 성사됐을까?

25일 특사로 발표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공개·비공개 협의 채널을 통해 협의됐고, 어제(24일) 저녁 북측에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방북 협상의 계기는 지난 1월 20일 정부가 비공개 채널을 통해 북측의 대화의사를 확인한 뒤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으나, 다음날 부시 미 대통령의 '악(惡)의 축' 발언으로 북한이 발끈해 성사되지 못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특사' 파견을 북측에 제의했다는 것이다.

정보 소식통들은 "국정원의 대북담당인 김보현(金保鉉) 3차장 산하의 대북협상팀이 가동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 직속으로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중요 회담의 인력관을 맡았고, 비합협상에 참여해왔던 S씨(국장급)가 협상 강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국장은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중국 베이징(北京) 등에서 북측의 대화 의지와 함께 특사파견 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또 다른 S국장 등이 개성에서 북측과 협상을 벌였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방북협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북측의 첫 반응은 싸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강경책이 이유였다. 이후 우리측은 최근까지 기뢰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의 김집을 받아냈는지"에 대해 북측에 문의했으나 북측의 반응은 다름이 없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 우리가 제의...24일 北서 수락 "방북·이면협상은 전혀 없었다"

정부는 육수수 10만 t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2월 말)했고,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방안(3월 21일)을 발표,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미·대남 비난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아 정부당국자들의 예를 태우게 됐다. 그러던 북한이 풀린 24일 "4월 초 특사방북 수락" 의사를 통보해와 북측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가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金仁執기자 jinko@chosun.com

# '임동원 특사' 방북절차·규모는 수행단 10여명...육·항공로 모두 검토

## 2박3일정도 머무를듯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대통령 특사' 방북단의 방북절차와 대표단 규모도 관심이 있다.

이는 2000년 9월 김용순(金容淳) 대남담당비서를 중심으로 한 북측 특사단의 남한방문 때에 준용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박재경 인민군 대장 등 송이 전 달탑(3명)과 함께 고려민항을 이용해 특사로 내려온 김 비서 방문단 규모는 총 10명이었으나, 박 대장 등 3명은 도착 당일 돌아가고 7명이 서울에 체류했다. 3박4일간 머물렀던 김 비서 일행은 청와대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한 차례 예방한 뒤 판문점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를 놓고 볼때 임 특보 방북단의 규모 또한 10명이 약간 넘는 선이 되고,

평양 체류기간은 2박3일, 또는 3박4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의 방북 루트는 육로·항공로 모두 검토대상이다. 북측이 방북 대외 귀로 등 두 번에 걸쳐 판문점을 개방하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임 특보는 2000년 5월 정상회담 준비차 방북할 때도 판문점을 이용했다. 항공로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유력하다.

임 특보 수행단도 관심이 있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차관과 이번 특사파견 문제의 협상당사자로 알려진 김보현(金保鉉) 국정원 3차장 등이 거론된다.

또 청와대·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남북대화사무국 등 실무관계자들의 참여가 확실하며,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과 서영교(徐永敎) 통일부 국장 등도 거명된다.

/金民培기자 baibai@chosun.com

林특사 방북 결정되기까지

北김용순 접촉 한달 '작업'

최기영 기자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한 것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국 방문에 즈음한 지난달 중·하순께부터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고위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계획한 바 없다"면서도 "그때 가서(정상회담 후)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여론을 남겼다.

남북 당국간 모든 대화채널이 중단된 가운데 '악의 축' 발언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미관계가 악화되자 대북 협안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처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측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자 지난달 말부터 북한 대남사업 연구인 조국통일경제위원회(조경통)측과 공개·비공개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연락채널은 우리측에서는 임동원 특보가 일찌감치 특사로 내정된 카운터파트인 북한 김용순 비서와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왔다는 후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는 남북 당국자들이 베이징에서 수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설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고위 인사들의 방북설이



4월 3일께 방북길에 오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특보가 청와대에서 평양 방문 협의사항을 설명한 뒤 손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악의 축 발언때 특사파견 검토 지난 24일 확정

실현시킬래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한측은 24일 저녁 우리측의 특사 파견을 최종 수락하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임 특보의 방북 시점은 '4월 첫째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3일째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방북 날짜는 교정권

6·15 선언 이후 남북관계

내 용	시 기
남북정상회담(평양)	2000년 6월 13-15일
김용순 특사 서울·제주 방문	9월 11-15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9월 18일
1차 남북 국왕장관 회담(제주)	9월 25-26일
1차 남북 경제추진위(평양)	12월 27-30일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2001년 2월 26-28일
5차 남북 장관회담(서울)	9월 15-18일
북, 4차 이산상봉교환일방연기	10월 12일
6차 남북 장관회담(금강산)	11월 9-14일
금강산관광 손실금 지원 결정	2002년 1월 21일
현역, 이산가족 상봉 재의	1월 29일

에 따라서 신축적"이라면서 관문점을 통한 방북도 합의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 특보의 특사 파견은 '일사' 성격을 띠지하 배제했다. 일반적으로 특사는 파견이 끝난 뒤 결과가 알려지는 것이 상례였지만 정부는 이번에 특사 파견을 사전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6·15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김용순 대남담당비서가 특사로 서울을 다녀갈 때 사전에 일반에 공개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장구를 놓고 청와대와 통일부를 놓고 고심한 끝에 임 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견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김정일 답방도 논의”

임동원특보 일문일답

- 이번 특사방북의 의미는.  
▲첫째,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2003년 안보위기가십이 나오는 한반도에 다가올지도 모를 위기를 방지해야겠고 둘째에 우리는 4대 정사를 처리하 하는데 평화와 안정이 없는 치를 수 없다. 경제회복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도 평화와 안정이 절대 필요하고 또 6·15 공동선언 준수 문제라든가, 남북 간 합의했지만 이행중단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논의하기 위해 제의했다.  
- 북한이 수용한 이유는.  
▲북한도 (한반도)안보위기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다. 또 협안을 논의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 어떻게 논의해 왔다.

▲그 동안 남북간 공개·비공개 협의채널이 유지돼 왔다. 당국간 직접한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해 왔고 어제(24일) 저녁에 합의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나.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 원드립 대회, 아리랑 축전 교환방문도 논의하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의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 미국측에도 특사 파견에 대해 알려졌나.  
▲한미간에는 항상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 남북이 특사 파견을 공개한 이유는.  
▲2000년 김용순 특사가 서울에 왔을 때부터 생긴 전례가 있었다.

정부 발표 전문

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에 합의하였다.  
이번 특사 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하여 특사파견을 제의하였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별보좌관이 대통령 특사로 4월 첫째주중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번 특사 방문이 경제·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절기유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南北관계 '소강 탈출' 시도

## 林특사 방북목적·의제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 특보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돼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2003년 2월25일)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가능성에도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이번 임 특보의 대북특사 파견은 김 대통령이 재의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그동안 남북한간 공개·비

공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특사파견 합의는 곧 남북현안에 대한 일정수준의 '의견교환'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임 특보는 방북기간 김정일 위원장과 김용순 노동당 대남비서관 만나 지난해 3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침체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미관계를 정상계도로 진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남북간 '최고위급'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

정을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도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특보는 "대북특사 발표문에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예방하며'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간 긴장완화가 최대의 책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준수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도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임 특보는 △경의선 연결 △금강산 관광합성화 △개성공단건설 △군사적 신뢰

## 6·15선언 이행·5대현안 협의 김정일 서울답방도 논의될듯

구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간 '5대현안'의 해결과 이행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문제도 협의대상임을 암시했다. 남북 총리급 인사들의 교환방문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임 특보는 김 위원장 외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폭넓게 접촉,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북·미간의 현안에 대한 우리정부와 미국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 특보가 25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잘 다녀오겠다"며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최외대 사진기자단

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

## "김대통령이 먼저 제안-채널공개 못해"

### 임동원 특보 기자회견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 특보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특사 제안 배경과 의제 등을 밝혔다.

-특사 파견이 이뤄진 과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의했고 북측이 수락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뤄졌는가는 말할 수 없다. 남북당국간에는 공개, 비공개 협의채널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24일 저녁 합의채널 발표하게 됐다"

-북한의 김용순 비서가 서울에 특사로 오게 되는가.  
"아직 그런 얘기는 없다. 김 비서는 재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서울을 방문했다. 이것과 연관이 해 우리측이 특사를 보낸다고 보면 된다"

- 판문점을 통해서 가나.  
"결정이 안났다"
- 이번 특사파견이 북한의 여러 당국자와 관련이 있는가.  
"관계없다. 그러나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화 파트너는 김용순 비서관인가.  
"북한에서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노동당 통일전선부이고, 대남사업 총괄책임자인 김용순 비서는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 미국측에 알렸는가.  
"한·미간에는 항상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거론할 생각인가.  
"거론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 왜 임동원인가?

해법 정책 전도사  
북 지도층도 신뢰

대북 특사로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 특보가 선정된 것은 그가 김대중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도 그를 선호한다는 점이 고려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00년 국장원장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사전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층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북한은 특히 그가 해법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자란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8·15광양축전' 파문으로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그가 국회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했을때 북한이 5차장관급 회담을 전격 재의, 그를 배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林'소식 기대 和色도는 남북

## • 특사합의 배경·전망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 특사 방북은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의 방향타를 잡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압박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명제에 남북한이 공감할 것이 특사 파견 합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악의 축'이후 돌파구 공감대 南월드컵·北아리랑 '필요성'

## "북·미대화" 金위원장 설득 총리급 교환방문여부 주목

○의미 및 배경=대북 특사 파견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제의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북측이 이를 수용한 점으로 미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위기로 치달은 한반도 전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비록 특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이번 대화 재개 합의는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정부는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최대 치적인 햇볕정책의 성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나아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시한이자 미국의 핵사찰 요구가 맞물릴 내년의 위기상황을 남북대화로 사전에 피해보자는 북한의 의도가 특사 파견 상사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 이병조(李秉朝) 정책실장은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적 심리급 추구를 위해 북한이 우리 생각을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측은 '아리랑축전'을 내실있게 치르고, 춘공기와 농사철을 맞아 식량 및 비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남북교류의 확대를 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전망=임동원은 지난 19일 한 특파원에서 "1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북·미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 1994년 북한 핵 위기와 같은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동원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접촉,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미대화에 임하도록 북측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임각에서는 월드컵 때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남한을 방문하고, 다음달 29일부터 두달간 진행되는 '아리랑' 공연때 남한의 총리급 인사가 방북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김위협정의 시용담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 및 6·15 공동선언의 준수 등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홍욱기자 woody@kyunghyang.com

### 특사 방북시 예상의제

2001년 11월 4차 방북교섭단	2차 남북정상회담
2002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03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04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05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06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08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09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0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1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2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3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4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5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6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7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20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21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22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23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24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2025년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2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석구기자

## 경향신문

2002. 3. 26 (화)

## 朝鮮日報

2002. 3. 26 (화)

## 남북경협株 또 '반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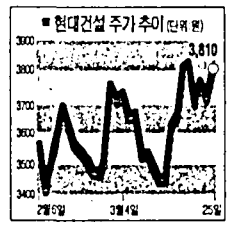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 발표로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또다시 '반짝경세'를 보였다. 남북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경우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 그러나 과거 남북교류가 활성화 된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교류에 따른 실적 증가세를 확인하기 전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25일 주식시장에선 현대건설(2.1%)·남해화학(3.7%)·현대상사(1.2%) 등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장 초반엔 현대건설이 9% 넘게 올라 4000원선을 돌파하는 등 남북경협 주 전체가 초강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나온 차익매매에 밀려 전반

적인 오후폭은 크게 줄었다. 과거에도 남북교류 관련 중대 발표 때마다 건설주들 중심으로 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지만, 일시적인 오프세에 그쳤다. 88년 '7·7선언' 때에는 건설

### "실적증가세 확인전엔 심리적 영향에 그칠것"

업종 지수가 지점대비 31% 올랐다. 94년 남북정상회담 발표 때에도 발표를 전후한 한달 동안 건설업종 지수는 14%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일이 가까워지면서 종합주가지수의 큰 폭 상승과 함께 건설업지수도 80% 이상 오른는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상승세는 대부분 1~2개월 안에



제자리를 찾는 단기성 테마에 그쳤다.

다만 이번 발표의 경우 정부가 정권 말기 앞두고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려고 노력한다면 실제 남북교류와 관련한 성과를 내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경제연구소 한태욱 수석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과열방지책으로 주춤했던 건설주에는 남북교류 확대가 어느 정도 모멘텀(상승 계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홍욱기자  
yoonjae1@chosun.com



# 美-日-中 “남북대화 재개 환영”

## ‘특사파견’ 해외 반응

미국과 일본은 25일 남북간 대화재개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남북관계와 북-일관계 등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 중국도 남북-북미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미국=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공식 환영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의 특사교환 발표를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립이 아닌 대화 외교가 북한을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에 협력하도록 만들 유일한 방안이란 점을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에 설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일본=일본 언론은 긴급뉴스 또는 머리기사로 특사파견 소식을 다뤘다. 일본 정부는 북-일 대화재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이날 오후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때 설문을 들었다”며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 성의있게 대응토록 북측에 전달해 줄 것을 그 자리에서 김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보도진에게 말했다.

◆중국=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남북관계의 정체국면을 타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며 부시 행정부 집권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도쿄=박완규·전현일특파원, 9555wgpark@sgt.co.kr

2002. 3. 26 (화)



# “核査査문제도 거론하겠다”

## 임동원특보 일문일답

—어떻게 논의를 해왔나.

△그동안 남북간 공개·비공개 채널이 유지돼 왔다. 당국간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협의돼 왔고 어제(24일) 저녁에 합의됐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북한이 발표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

—북한도 특사를 남한에 보내나.

△2000년 정상회담 후 북한 김용순 특사가 서울을 공개방문했다.

—월드컵 대회, 이리랑 축전 교찬방문도 논의되나.

△의제는 이제부터 본격 생각해 보겠다.

## “南北관계가 진전되면 北美관계도 영향줄것” “식량연계여부 잘못해”

—남북이 특사파견을 공개한 이유는.

△2000년 김용순 특사가 서울에 왔을 때부터 남북간에 특사교환은 공개적으로 하자고 합의했다. 그때 전례가 합의된 것이다.

—북한측 채널은 김용순인가.

△북한에서는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당의 통일전선부이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비서가 김용순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협사찰 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게 되나.

△거론하게 된 것이다. 좋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북측 최고당국자의 생각을 듣고 김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다.

—특사파견과 관련, 북한에 대한 식량·비료 지원 얘기가 있었나.

△북한에서는 시기적으로 (식량·비료 지원이) 필요한 때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월드컵 기간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얘기되나.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뭘 지시할지 모르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정승욱기자

## 대한매일

2002. 3. 26 (화)

### 美·日 “고무적인 일” 환영

워싱턴 백문일·도쿄 황성기특파원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특사 파견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도 특사 파견 결정에 대해 “남북대화의 진전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mip@kdaily.com

## 한국일보

2002. 3. 26 (화)

### 파월 “고무적인 일” 환영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5일 임동원 특보의 방북 발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encouraging) 일”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북한이 성의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2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특사 파견 계획을 들었다”고 말해 이미 양국 정상 간에 협의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특사의 북한 방문은 남북관계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정체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 햇볕정책 실무 지휘

## ● 임동원 특사는 누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햇볕정책의 작곡가라면, 대북 특사인 청와대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특임 특보는 실무 지휘자다.

육사, 현역소장, 외교관을 거친 임 특보는 1995년 아태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야당 총재이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 완성에 기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그는 외교안보수석,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통일특보 등을 맡았지만 자리에 상관없이 햇볕정책을 전공, 외교를 부전공으로 삼아 일을 해왔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한미 양국 정부가 포용정책을 공통의 노선으로 확정할 때도 임 특보의 탁후 역할은 컸다. 임 특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평양으로 가 의제를 조율했다.

지난 해 8·15 민족공동행사 문제로 국회에서 한나라-지민련 공조에 의해 해임건의안이 가결돼 통일부장관에서 물러났지만, 곧바로 대통령 특보를 맡아 대북정책을 사실상 주관하고 있다.

이영성기자 leey@hk.co.kr

# 한국일보

2002. 3. 26 (화)

# ① 중앙일보

2002. 3. 26 (화)

## 美·日 “林특사 방북 환영”

[워싱턴·도쿄·베이징=김진·오대영·유광중 특파원] 미국 골린 파월 국무장관은 임동원 특보의 방북 계획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일(encouraging)”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특사 파견을) 환영한다”며 “남북 대화가 진전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집권 후 정체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 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林특사는 북측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이산가족 재회,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월드컵 대회 참석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njin@joongang.co.kr>

## ■ 임특사 누구

## 햇볕정책 실질적 총괄...특사역 두번째

# 한겨레

2002. 3. 26 (화)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임 특보가 다시 나섰다. 햇볕정책과 관련해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대북 특사로서의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임 특보의 특사구실은 두번째다. 그러나 이번 두번째 임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물론, 6·15 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첫번째보다 더 어렵다.

그가 다시 임무를 맡은 것은 대북정책의 끊임없이 그에게 보내는 신뢰감 때문이다.

지난해 8·15 민족공동행사에서 남쪽인사들의 돌출행동을 계기로 두번째 맡았던 통일부장관직을 물러났지만, 김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특보로 자리를 옮겨 변함없이 자신의 통일정책을 보좌하도록 했다. 임 특보는 매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옵서버 자격으로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막후에서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왔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임 특보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자주 나타낸 바 있다.

육사 13기로 소위에 임관한 뒤 육군

소장으로 전역한 임 특보는 치밀한 사고와 논리적 언변으로 무관이라고 보다 문관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다.

김 대통령과는 대통령 당선 전 아태재단 사무총장으로 인연을 맺어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 왔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대북 퍼주기'의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해, 이번 특사 임무 수행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표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대한매일

2002. 3. 26 (화)

## “핵사찰·대량살상무기도 거론할것”

### ■ 임특사 일문일답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임특보는 25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초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쪽에서 김용순(金容淳) 특사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용순 특사가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우리측이 특사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북측 특사의 한국 방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번 논의가 이뤄진 비공식 접촉장소가 북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정한 장소와 관련이 없다. 공식·비공식

채널에 반드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나,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논의되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언제 연락을 받았다. 어제(24일) 저녁에 합의돼 오늘 아침 북측이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발표하게 됐다.

●월드컵과 북한 '아리랑' 축전 성공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고위 인사의 상호방문이 고려될 수 있는가. 금시초문이다.

●미국에도 특사파견에 대해 알려졌나. 한·미간에는 항상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측 채널이 김용순인가. 북한에서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당 통일전선부이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비서가 김용순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핵사찰,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거론하나. 거론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특사파견과 관련, 북한에 대한 식량·비료지원 얘기가 있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계절적·시기적으로(식량·비료지원) 필요한 때이다. 그것과 연결해서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월드컵 기간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얘기되나.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룡연기자

# 2野 “대선정국 新북풍”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5일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 파견이 전격 발표되자 ‘김정일(金正日) 담방구결용’ ‘대선(大選)용 신(新)북풍’이라는 등 그 배경과 정부측의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

인은 논평에서 “갑작스런 특사 파북(派北)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얻지 않은채 밀실에서 엄청난 퍼주기 같은 이면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조웅규(曹雄圭) 의원도 “마침전 발표한 금강산 관광지원책 등이 특사파견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을 마음대로 특보로 임명하더니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는 것은 국민적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의원모임 회장인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특사파견 결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뒷거래의 실상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 朝鮮日報

2002. 3. 26 (화)

### 한나라 “밀실서 퍼주기 이면거래 의혹” 자민련 “월드컵·아리랑축전 연계안돼”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국내문제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에 의해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위원회는 정책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김정일의 서울답방을 구걸하거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재방북이 추진된다면 국민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특사 파북을 ‘깜짝쇼’라고 규정하면서, 임동원 특보의 특사자격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남북관계의 책임을 물어 불신임당한 사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등 남북관계 현안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월드컵과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도 이 점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鄭鎭碩) 대변인은 “북한의 아리랑 축전은 완전한 정치행사로, 우리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공산주의 학습현장에 강제동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이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許容範기자 heo@chosun.com

/尹植漢기자 jhyoon@chosun.com

## 민주당 환영 한나라 경계

### 정치권 엇갈린 반응

민주당은 25일 청와대 임동원 특보의 대북 특사파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등 야당은 임 특보의 특사 자격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용 앞두고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민주당 한광욱 대표는 “남북관계에 있어 침체된 분위기를 임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바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남북한 양측은 내실있는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의미있는 합의점을 이끌어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환영 논평을 썼다.

반면 한나라당은 성사과정을 의심하며 정치적 악용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 “한반도 평화·발전 계기”

야 “선거 앞두고-악용말라”

“침체된 남북관계는 타개돼야 한다”고 진재, “그러나 갑작스런 발표엔 양측간 밀실협상에서 엄청난 퍼주기 등 이면거래가 선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김정일 담방’을 애원하는 행보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해임의결된 임동원씨를 특사로 파북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국내 스포츠행사인 월드컵과 북한 국내행사인 아리랑 축전을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잘못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석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등 현안의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국내정치와 연계하거나 남측 학생을 아리랑 축전에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철 대변인은 “임동원씨의 그동안 대북척신이 의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의 특사 파견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타개의 살마리가 없는 상황에서 별 내용도 없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는 게 무슨 중대발표인가”라고 반문했다.

/허범규기자

hbk1001@sgt.co.kr

## 世界日報

THE WORLD JOURNAL

2002. 3. 26 (화)

## “남북관계 새 돌파구”-“정치 이용말라”

### ■ 특사파견 여야반응

여야는 25일 임동원 청와대 특보의 대북 특사파견에 대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지만, 민주당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라며 환영을 표시한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사파견에 정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광옥 대표는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침체된 남북관계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대북 문제가 잘 풀려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북한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월드컵과 북한 국내행사인 아리랑 축전을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고, 정진석 대변인은 “임 특보의 방북이 국내정치와 연계된다는 세간의 의견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찬 기자 ahn@hani.co.kr

## 한겨레

2002. 3. 26 (화)

## “한반도 화해 도움...대미관계 개선 신호”

### ■ 해외언론 반응

주요 외국언론들은 25일 임동원 청와대 특보의 대북 특사파견에 대해 일제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화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특사 파견은 남북 양쪽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자 남한 및 일본과의 대화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흐름은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요구와 만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특사 파견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돼 온 남북 대화의 재개를 위한 국면 타개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정체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에이피통신>은 “남북한 양쪽은 특사 파견을 통해 대화 개개와 긴장완화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재권 기자 jik@hani.co.kr

## 한국일보

2002. 3. 26 (화)

# 與 “남북관계 숨통 틀 계기” 野 “선거에 악용해선 안돼”

### ■ 특사파견 與野반응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에 대해 여야는 25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크게 환영했지만 야당은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면서도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침체된 남북관계는 타개돼야 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발표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경로로 추진 중이라는 김정일(金正日) 답방을 애원하는 행보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틀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16대 총선 사흘 전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했듯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남북관계를 악용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보수파인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아예 “양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여론 물이용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신북풍’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과 북한의 정치 행사인 아리랑 축전사이의 연계를 의도한 것이라면 잘못”이라며 “임 특사는

북한에 월드컵 기간 중 아리랑 축전을 하지 말라고 당당히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특사 방북이 국내 정치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간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다른 국내 정치의 불안·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번 특사 방북이 정체국면에 빠졌던 남북 관계의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동원 특보의 방북으로 남북 양측이 관계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李仁濟) 후보측은 “월드컵 개최 등 중요사를 앞둔 시기에 특사 방문을 통해 남북간에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지게 됐다”며 특사 방문을 환영했다. 노무현(盧武鉉) 후보측도 “당의 입장과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동영(鄭東泳) 후보측 역시 “북한이 냉엄한 국제정세를 깨닫고 민족화합과 신뢰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 “남북관계 정상화 분수령”

### 특사파견 세계언론 반응

【베이징 김규환·도쿄 황성기·워싱턴 백문일 특파원】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면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 후 정체에 빠진 북·미·남북관계를 정상계도에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이산가족 재회,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월드컵 축구경기 참관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오후 현재 공식 논평은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임 특보의 방북이 김 대통령에게는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남북대화 노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의미가 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는 미국의 북한 압박 기도를 무디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사교환이 발전적 조치이지만 오랜 긴장관계를 해소할 극적 돌파구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번 발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관계개선 요구에 맞서 다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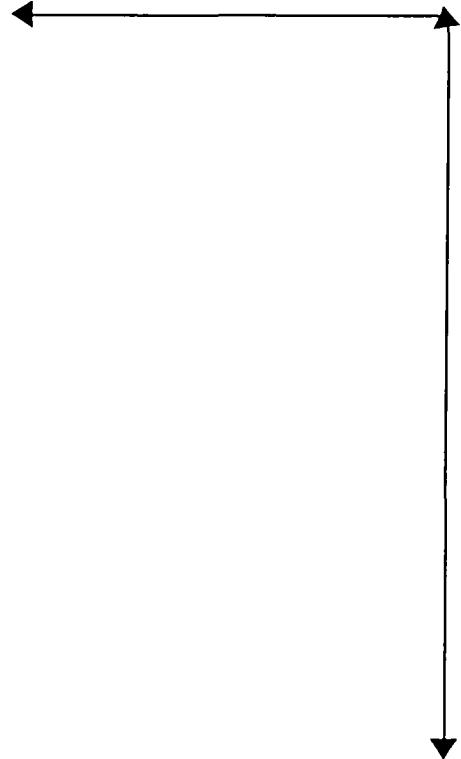
교경로를 찾을 것이라는 짐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남북한이 김대통령 특사의 평양 파견에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국면 타개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국은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남북 이산가족 재회·남북 철도 연결 등에 대해서도 조기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중점을 뒀지만 부시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대화가 답보상태에 놓이자 남북 대화쪽으로 방침을 전환, 북·일 수교 교섭의 환경정비 등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북한이 이번에 한국의 특사 파견에 응한 것은 최근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에 대해 북한측이 조사를 재개키로 한 것처럼 외교고립을 탈피하고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번 특사파견은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khkim@kdaily.com



## 북·미대화 재개 촉매될듯

### 美반응·관계전망

【워싱턴 백문일특파원】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으로 당장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에 이는 이렇다.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어만 가능하다.

그러나 특사 파견을 계기로 한반도 저변에 깔린 긴장감이 해소되면 자연스레 북·미 관계에도 돌파구가 쏠릴 개연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남북한 대화가 얼마만큼 진전되고 북·미간 대화에 어떤 방식과 속도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임동원 특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힌 점은 대화의 속도를 빠르게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거론함으로써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 회담에서 논의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반응이 기대된다. 북·미간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나 아직 양금이 풀리지 않아 깊이

### 北 대화의지 간접표명한 셈

### 韓 적극 중재...核사찰이 관건

있는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표와 잭 프리처드 국무부 대북특사가 지난 13일 계속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양쪽이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쿨린 파월 국무장관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특사 파견에 기대를 걸었다. 앞서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워싱턴을 방문, 4월 중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미간 대북공조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득될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전라남 해소를 위해 김수로 지원을 차질없이 받으려면 5월을 전후해 핵사찰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명분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를 꺼리지만 북한은 시기적으로 쫓기고 선택할 카드도 많지 않다. ● mip@kdaily.com

# 林-北인사 2월 런던접촉설

## • 訪北성사 뒷얘기

임동원 대통령특보의 '특사 방북 성사'는 김대중 대통령과 임특보 본인, 국가정보원 실무자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보 방북 성사 뒷얘기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는 "그 동안 남북간에는 대화를 위해 공식·비공식 채널이 계속 유지돼 왔다"는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전부다. 임특보는 "채널이 북한지역에서 가동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디서든지 채널은 가동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남북간 특사 파견 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월20일 김대중총장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직후였다. 먼저 임특보가 총대를

꿘다. 영국 런던에서 북측 고위인사와 접촉, 남북대화 재개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한반도정세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정원 김보현(金保鉉) 3차장과 서모국장이 나섰다. 두 사람은 베이징(北京)과 북한을 오가며 북측 인사들과 부단히 접촉했다. 당초 북한은 작년 9월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한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2일에는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결의문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를 선언했지만 이어 1월29일-터진 '악의 축' 발언이 북한을 움츠리도록 만들었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북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부시 訪韓직후 본격협상  
평양·베이징 수시로 왕래  
국정원·북측실무자 조율

이런 가운데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비밀접촉의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김보현 차장 등은 지난달 초 및 지난 4일 연달아 방북, 최승철 아·대평화위 부위원장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담당 인사 등과 만나 남북대화 재개와 이산상봉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숙 대변인이 언급한 '비공식 접촉'은 김차장과 북한 실무자간, '공식 접촉'은 이를 수시로 보고받으며 지휘한 임특보와 김용순 비서관에 이뤄진 것을 뜻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차장은 비밀접촉을 통해 다음달 제주도에서 이산상봉을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근기자 harubang@kyunghyang.com

## 한국일보

# 中관광객 北경유 성사 가능성

### ■ 임동원특사 北파견

北인사 월드컵 관전기대  
아시안게임 참가도 타진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특별직역의 북한 특사파견은 체육, 특히 한일월드컵과 부산아시아안게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사파견의 목적 중 하나가 월드컵 개막을 60일 앞둔 시점에서 남북이 신뢰를 구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월드컵의 안전문제는 그만큼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다.

월드컵을 관전하려는 중국관광객이 북한을 경유, 육로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미 중국의 한 언론사는 자전거를 타고 한국에 오는 이벤트를 기획 중인데 남북이 합의만하면 성사될 수 있다. 또 육로여행이 가능해지면 월드컵기간 중 10만여명(추산)의 중국관광객이 일시에 항공편이나 선박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수송수요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북한 축구계인사들의 월드컵 관전과 남북 축구교류 문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월드컵 대표팀에 북한선수를 발탁하는 단일팀 문제는 성사되기 힘들다.

북한의 2002 부산아시아안게임(9월29~10월14일) 참가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럴 경우 부산아시아안게임은 건국 이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북한이 처음 참가하는 대경사로 치러진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의 때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에게 북한참가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북한 참가가 확정되면 백두산 장군봉에서의 성화채화, 문화행사 및 개·폐회식에 북한예술단의 방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아시아안게임 조직위의 인건부 최형주 협력팀장은 "가능한 한 많은 선수들의 참가

를 기대하고 있고 나아가 단일선수단 구성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에 대비, 9월5일로 예정된 성화채화는 백두산 장군봉과 한라산에서 동시채화, 판문점에서 합화해 전국을 순회하는 성화봉송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선수단이 국내에 들어올 때 판문점을 경유할지, 전세기를 이용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남북체육교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북한선수단의 태릉선수촌 시설을 이용한 강화훈련과 우리 마라톤선수들의 개마고원 훈련도 가능해진다.

/유승근기자 여동은기자  
deyuh@hk.co.kr

# 南 DJ임기내 돌파구 마련 北 美무마-경제實利 노려

## 특사 제의-수용 배경

남북 양측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특별대표의 대북 특사 파견에 합의한 것은 정권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남측의 의도와 대북지원 확보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부터 피난지를 확보하려는 북측의 이해가 겹침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정부의 특사파견 제의 배경=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검색된 남북관계는 특단의 대책으로만 돌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때 바뀌어야 할 현재의 남북 소강상태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 대북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사파견 협상에 박차를 가한 것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까지 혼란에 빠진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정부는 우선 비공개 협상채널을 통해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1월29일 북측에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 직후 부시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터져 나오자 북측은 이 제의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대화의 끈을 끈고히 유지하기 위해 서는 결국 김정 일(金正日) 국 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답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북간 현안으로 걸려 있는 김의선 연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 등은 군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 따라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인히 정부 내에 형성됐다. 특히 2000년 9월 북측 김용순(金容淳) 대남 담당 비서가 특사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 남북문제 전반을 적의 없이 논의하고, 각종 협의를 이뤘던 김도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특사 파견에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는 배경이다.

▽북한의 특사 수용배경=북한이 남측의 임동원 특사 파견 제의를 수락한 것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피하면서 나름대로 실리를 찾겠다는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들어 인권문제까지 들고 나온 미국의 대북(對北) 집중 포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대로 전쟁의 기치를 내세운 미국의 아프가

## 6차 장관급회담 이후 주요 사안

- ◇2001년
- ▽11월27일=북한군, 비무장지대 아군 초소에 총격
- ▽12월22일=북한선박 추경 과선박, 일본 순시선과 교전 끝에 침몰
- ◇2002년
- ▽1월23일=정무, 금강산관광 지원방안 발표
- ▽1월29일=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을 '악의 축' 국가라고 비난
- ▽2월20일=김이정상회담
- ▽2월22일=북한 외무성, 미국의 북-미 대화 제의 거부
- ▽3월14일=탈북자 25명,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 진입
- ▽3월21일=학생 교사 등 1300명에게 금강산관광경비 60~70% 지원 발표
- ▽3월25일=대북 특사 파견 발표

니스탄 공격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이어 북한을 핵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가 나오자 북한의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측의 특사 파견 제의를 수용한 것은 북-미 대화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온 미국 측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남측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문제.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현 정권 하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하려는 것도 특사 파견을 수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듯하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탄생 90주년을 계기로 한 아리랑 축전(4월29일~6월29일)에 남측 인사들의 대대적인 방문을 통한 '외화벌이'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게다가 4월 춘궁기를 모면할 쌀 30만t을 남측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특사가 과연 얼마나 성과를 얻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정부가 정보당국 간 비선관계를 통해 특사 파견을 상사시켰다는 점 때문에 향후 각종 말썸이 양산될 소지도 남기고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매일경제

## 특사파견 남북경협株 '들쭉'

### 장성욱·이근우 기자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대북 특사 파견 발표와 함께 남북경협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25일 현대상선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건설도 한때 급등 양상을 보였다.

임 특보 평양방문과 함께 남북교류가 재개되고 약화일로에 있는 북-미 긴장관계에 숨통이 트일 경우 증시를 둘러싼 중요한 대외 변수 하나가 풀리게 된다. 투자심리 호전과 함께 남북경협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경우 건설주 등 관련 종목 수혜도 함께 기대된다.

### 남북경협 수혜예상 종목

업종	종목	내용
건설·시엔트	현대건설	대림산업 상환기업 상부, SOCS사업권 취득 동양시엔트
	쌍용양회	
비료제조업	동부한농	남해화학
	삼성정밀	조비
기타	제일모직	외류직물사육
	롯데제과	치과류 생산

\*자료=세종증권

윤재현 세종증권 리서치팀장은 "남북경협이 실제 이뤄져도 관련기업 수익성 호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지만 단기성 테마로서 수급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 世界日報

## 베이징-개성 오가며 의견조율

### 특사파견 합의 뒷배기

남북한은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2월말부터 수차례 중국 베이징(北京)과 북한 개성을 오가며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

정보원 3차장 라인과 북한의 대남 사업 창구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와 통일전선부축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간 실무자들은 베이징과 개성에서 수차례 비밀 접촉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고위인사의 방북설이 흘러 나왔다. 특사파견설이 흘러나오 무렵에는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거론됐다. 그러나 김정 일(金正日) 위원의 서울 답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임 특보로 교체됐다는 후문이다. 실각설이 나돌던 김용순 비서가 울퉁내 권력 전면에 나선 것도 임 특보의 방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측은 24일 오후 우리측의 특사파견을 최종 수락하는 회신을 보내왔다.

### 北 조국통일 평화위와 모든 채널 가동

### 특사 정세현통일서 임특보로 교체설

의 축' 발언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풀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특사파견 카드를 검토한 것이다. 남북당국간 모든 대화 채널이 중단된 가운데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부각되면서 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인 셈이다. 특사파견을 위한 막후협의 채널로는, 남측의 김보현(金保鉉) 국가

정보원 3차장 라인과 북한의 대남 사업 창구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와 통일전선부축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간 실무자들은 베이징과 개성에서 수차례 비밀 접촉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고위인사의 방북설이 흘러 나왔다. 특사파견설이 흘러나오 무렵에는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거론됐다. 그러나 김정 일(金正日) 위원의 서울 답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임 특보로 교체됐다는 후문이다. 실각설이 나돌던 김용순 비서가 울퉁내 권력 전면에 나선 것도 임 특보의 방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측은 24일 오후 우리측의 특사파견을 최종 수락하는 회신을 보내왔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北-美 “제네바합의 파기” 엄포 베풀 끝 대치

## ■ 핵 위기

한반도의 '핵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조짐이다. 미국은 북미 관계의 핵심인 1994년 제네바 핵합의의 재조정에 돌입했고, 북한은 공공연히 합의 파기를 들먹이고 있다. 제네바 합의의 붕괴는 곧 북미관계의 종말, 한반도 핵 질서의 와해를 의미한다. 북미 양국의 정점은 바로 제네바

동맹이 서한정식으로 보장한 '대북 핵 불사용'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9일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신재 핵공격의 대상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어 20일에는 의회에 북한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부보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북 핵 압박을 강화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잇단 강경책에 기가 죽은 북한은 분개했다. 북한은 6일 '더 이상 북미 합의에 열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밝히는 등 연말 제네바 합의의 재검토를 공언하고 있다. 북측이 최근 러시아와 핵연감속률 건설에 대해 논의한 것도 제네바 합의의 붕괴를 염두에 둔 후속 대응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핵 사찰도 핵심부품의 인도에 맞춰야 하고, 기



미국 정보 사이트인 '스트레트포'가 8일 공개한 함북 최대군 우주단리 대포동 2호의 로켓엔진 분사시험 시설 위성사진. 미 상임위성 팀 버드가 지난해 12월 26일 촬영한 이 사진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시설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 스트레트포 웹사이트

경수로 완료시킨 내년 불구

핵심부품 이전 늦어져

美 조기핵사찰 강력 압박에

北 '공사 지연' 손배 요구

합의 붕괴면 핵질서 와해

합의의 이행 문제이다. 합의문은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제어우기로 약속한 경수로의 '핵심부품'을 2003년 인도하고, 그 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대북 핵사찰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공사는 예정보다 훨씬 늦어져 이 추세라면 전기발전기 등 원자로의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부품'이 2005년경엔 설치될 전망이다.

미국은 경수로 공사의 진척 정도와는 무관하게 늦어도 2003년에 특별 핵사찰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이공 등의 전례를 참고할 때 북한 핵 사찰은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되므로 핵심부품의 도입 시점에 맞추려면 더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팔린 파워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핵사찰을 받을 때가 됐는데도 수용하지 않으면, 전체 경수로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라며 미국이 먼저 제네바 합의를 재고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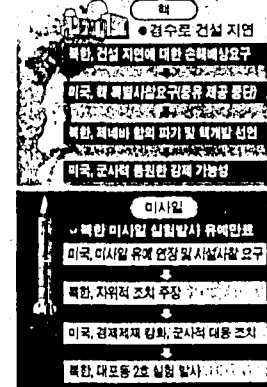
미국은 또 94년 당시 빌 클린턴 때

간도 3개월이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실 상황으로는 미국의 조기 핵사찰 요구에 북한이 불응할 게 뻔하다. 북한은 특히 경수로 공사의 지연을 '합의 위반'으로 보고 손배배상을 요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양쪽의 '벼랑 끝 적전'이 증폭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양국은 공식적으로 제네바 합의의 파기하지 않았다. 북한은 엄포를 놓으면서도 경수로 협약을 지키고 있고, 미국도 협상을 통한 타결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북한과 미국의 공방이 내년의 '담판'을 선점하려는 '기 싸움'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밀어붙이기와 북한의 강경 맞대응이 불러올 위기를 과소평가하기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남측이 대미-대북 외교를 통해 신도적으로 위기를 조율할 필요성이 나온다. 북미간 충돌이 없더라도 경수로 사업의 지체는 남한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이동준기자 djee@ik.co.kr

## ■ 2003년 한반도 위기 예상 시나리오



## ■ 미국의 북한 핵 평가

조지 테넷 CIA 국장  
"북한은 미국이 합의의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경우 이 합의의 틀에서 탈퇴할 준비가 돼 있다." (2002년 2월 5일, 상원 청문회)

## 로이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은 최소한 하나, 혹은 두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물품들을 생산했을 지 모른다." (2002년 3월 25일, 상원 군사위)

## 올 중유지원 여부 北-美관계 갈림길

1994년 제네바 합의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대북 중유 제공은 향후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핵개발 중지의 대가로 약속한 중유 50만 톤을 올해 북한에 주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는 파국을 면키 어렵다. 미 행정부는 20일 북한의 핵 의무 중수료 의회에 보증하지 않기로 결정,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물론 부시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근래 없이 한꺼번에 9,50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이 그 중 하나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집행된 5,487만 달러와 비교하면 넉넉한 액수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는 "미국은 핵 합의 이행을 지킬 것을 확약했다"면서 "조만간 1차 중유 구입비용을 입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상된 예산이 제때 집행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 행정부의 대북 불신에 편승해 의회가 재동을 걸고 행정부가 이를 추진하면, 대북 중유제공 약속이 흔들릴 수도 있다. 벤저민 길먼 등 배파 의원들은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약속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제네바합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내년도 북미관계는 미국의 중유 공급 여부에 따라 윤곽이 그려지게 돼 있다. /이동준기자

## ■ 미사일 위기

로버트 월폴 미 중앙정보국(CIA) 전략 및 계획 담당관은 11일 미 상원 정부위원회 국제안보소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발전했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 실험이 준비 단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했다.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도 이에 앞서

부도 이에 관심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메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는 '위성대리발사 조건부 개발 포기'에 사실상 거의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미사일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이 큰 이유로 작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MD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미국이 내심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우려는 미사일 수출 문제다. 관동리사 리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최근 "북한은 원하는 누구에게나 미사일을 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리이스 보좌관의 이 지적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시각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거나 이란, 이라크 등에 미사일 수출을 확대·지속할 경우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9월 장쩌민(江澤民) 중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수 차례 2003년까지는 시험 발사 유예를 재천명한 점으로 미루어 일단 내년 말까지는 시험 발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북한의 미사일 수출 과정에서 의외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1998년 이른바 '이미티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을 나포해서라도 수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리처드 이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등 강경파가 행정부 내에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soon@hk.co.kr

### ■ 북한 미사일 제원

종류	사정거리 (km)	탄두중량 (kg)	현황
대포동2	-	-	개발중
대포동1	2,500	1,000	시험발사
노동1	1,300	1,000	작전배치
스커드C	500	770	작전배치
스커드B	300	1,000	작전배치

※ 대포동1호 탄두중량은 추정. (자료: 2003 국방백서)

## 미사일 발사유예 내년 종료

## 北위협 이용 美 MD추진에

## 북미 미사일 협상 원점으로

## 이란·이라크 등에 수출 확대땀

## 美 특단의 조치 강구 가능성

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강력한 외교·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비록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고 있지만 로켓 엔진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시험을 지속하고 있는 등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 섞인 언급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북한이 실정한 시험 발사 유예 기간이 내년이면 종료된다는 시기적 압박감이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9년 9월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북미 베를린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경제제재 완화라는 당근에 시험 발사 유예로 화답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미 미사일 협상은 타결의 물꼬가 터지는 듯했다.

2000년 7월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이 위성을 대리 발사에 주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획기적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클린턴 행정

# 비료20만t-식량30만t 北지원

## 주내 발표...임동원특사 김정일 면담 확정

정부는 임동원 대동원 특사의 방북에 앞서 북측에 비료 20만t과 식량 30만t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4·5면>

입북보는 다음 달 3일쯤 북한을 방문해 사흘 정도 평양에 머물며 세 차례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 회담을 갖는 데 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도 한 차례 면담하기로 일정

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특사를 수용했다는 점은 비료 등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비료의 경우 따로 회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입북보의 방북 이후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북측의 간접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북한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북한에 20만t의 비료를 지원한 바 있고 유럽연합(EU)도 비료 10만t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쌀 등 식량지원의 경우 차관 형태의 지원인 만큼 입북보 방북 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월드컵과 아리랑축전을 연계시킨다는 방침 아래 4월 말 시작되는 아리랑축전에 총리급 인사를 단장으로 한 방북단을 파견하고, 5월 말 개최되는 월드컵 개막식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 對北특사 파견 선거이용 의혹

## 한나라당 주장

한나라당은 26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대북문제를 지방선거와 대선에 이용하려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득 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북문제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해임된 임특보가 특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입북보가 2003년 위기실을 직접 거명했는데, 어떤 위기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장관연장을 위해 민주당 노무현 고문이 제기한 정계개편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담판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서울담방이 성사되지 않으면 제주도나 제3국 회담을 차선책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다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협상 과정에서 금강산관광 지원뿐 아니라 식량, 전력 등 엄청난 퍼주기 이번계약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호기자

# 北경의선공사 자재지원

## 임동원특사 방북때 논의... 북측도 긍정반응

정부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특사 자재 방북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당면과제를 경의선 연결에 두고 공사자재 등을 북측에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5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임동원 특사 방북의 최우선 목적은 한반도 긴장 조성 방지를 위한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의 회복'이라고 전제, "따라서 여러 의제 가운데 경의선 연결이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남측 의사에 대해 북측도 자

재와 설비등을 남측이 제공하면 북측은 공사에 군인들을 동원해 필요한 인력을 제공, 경의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소개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임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과 만나 '바깥 세상이 변한 만큼 선남후미(先南後美)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안다'며 '또 남북관계가 활성화해야 북·미관계도 풀린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 경의선

연결 공사 착수에 합의할 경우 북측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 북한측 구간에 대한 자재 지원을 위해 '침목 1개 기준' '철도 1cm 기여하기' 운동 등 범국민적 참여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철저한 상호주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대북 강경파의 퍼주기 비난의 가능성도 있어 여론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임특사는 김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권유하는 내용의 김대중대통령 진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서의동기자

minski@munhwa.co.kr

## “林특사 파견 환영… 北과 만날 용의”

### 허버드 주한美대사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는 28일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사의 북한 파견과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이행하고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버드 대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9·11 이후 세계속의 한국과 미국’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으며 이러한 기조속에서 이번 임특사 파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허버드 대사는 북·미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현재 미국은 9·11테러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은 9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릴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핵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일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양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경업기자 ho3840@munhwa.co.kr

## 國民日報

THE KUMMIN DAILY

2002. 3. 26 (화)

## 문화일보

2002. 3. 26 (화)

## “北 금강산관광 수입으로 무기구매”

### 美의회 조사국 밝혀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지난 5일 의회에 제출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금강산관광 대가로 받은 현금 4억달러를 무기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중앙정보국(CIA)과 주한 미군사령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현대가 북한에 비밀리에 제공한 결제대금까지 합치면 금강산 관광대금은 총 8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무기구입에 전용된 것으로 보고 CIA가 이를 경고하는 매모를 한국정부에 지난해 1월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이슈에 정통한 래리 닉슈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중 남북간 철도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일부를 지지하지만 이런 이유로 금강산관광사업 등에는 반대한다”고 분석했다.

닉슈 연구원은 또 “만일 북한이 2003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2003년 이후) 최고 4년간 경수로 건설공사 가 중지될 것이라고 국무부 관리가 말했다”고 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워싱턴=민병득특파원  
woomin@munhwa.co.kr

### “메가와티 28일 北방문”

#### 조선중앙방송 보도

조선중앙방송은 26일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대통령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중국을 방문중이며 2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한 뒤 30일 서울에 오며 뒤이어 인도로 갈 예정이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美 “남북대화 지지…고무적”

### 특사파견 각국·언론반응

미국 정부는 25일 한국의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사의 북한방문 발표와 관련해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조앤 프로코포워츠 대변인은 “미국은 남북대화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것

으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콜린 파월 미국부장관도 남북한의 특사 교환 발표를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남북한, 대화 재개키로’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한간 교섭 특사교환 발표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북한에 가해진 외교적 압력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한이) 수주일 동안 비밀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서울과 대화 재개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한 특사교환 동시 발표

가 발전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오랜 긴장관계를 해소할 극적인 돌파구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번 발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관계개선 요구에 맞서 다룬 외교경로를 찾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김대중령의 특사 방북은 남북관계의 정체를 타개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다. 한편 한수령으로 부시 미 행정부 집권 후 정세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정상궤도로 돌려 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라인은 25일 김대중령의 특사 방북은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대화 재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청와대 김대중령의 햇볕정책 수행에 중상을 입은 임특보를 4월 첫째주에 평양으로 파견한다고 전하고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타개하려는 김대중령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경현기자

### WP “긴장해소 적극 돌파구 못돼”

### 신화통신 “정체국면 극복 분수령”

### 아사히 “교착타개 김대통령 의도”

# 대화재개위해 1월부터 타진

## 北, 당초 싸늘한 반응... 금강산 지원발표뒤 수락

### 특사 방북 성사 뒷배기

#### 林특사 김정일 면담할듯

정부가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였다. 특히 1월 29일 비공개 채널을 통해 북측의 대화 의사를 확인한 뒤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가 다음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북한이 발끈하자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사 파견을 북측에 제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정부는 특사 파견 성사를 위해 북한의 대남사업 장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측과의 공개·비공개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에서는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 라인이 가동됐고, 남북 당국간회담에서 연락관 역할을 해온 S국장 등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특사 파견을 제의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또 다른 인사들이 극비 방북, 개성에서 협상을 벌였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방북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북측은 당초 '악의 축' 발언 등으로 싸늘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옥수수 10만t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했고, 21일에는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24일 오후 '4월 초 특사 방북 수락' 의사를 통보해 왔다.

임동원 특사 방북단의 방북 절차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9월 김용순 대남 담당비서를 중심으로 한 북측 특사단의 서울 방문 때에 준용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특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김용순 특사가 서울을 공개 방문한 것과 관련해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박재경 인민군 대장 등 송이전달팀(3명)과 함께 고려민항을 이용해 특사로 내려온 김비서 방북단 규모는 총 10명, 3박4일간 머물렀던 김비서 일행은 판문점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임특보 방북단의 규모 역시 그 정도이며, 평양 체류기간도 3박4일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행단으로는 김형기 통일부 차관과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 등이 거명된다. 김용순 당시 특사인 김대중 대통령을 한차례 예방한 점에 미뤄, 임동원 특사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차례 면담하고 판문점을 통해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항공료로 갈 경우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유력하다. /허민기자 minski@munhwa.co.kr

## 임동원특보 '또다시 호흡' 김용순비서

동갑에 최고위층 신뢰 공통점

林, 작년 통일부장관해임시련

金, 금강산 교착 한때 '실각설'



임동원 특보

김용순 비서

으면서 김위원장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왔다.

임 특보와 김비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다음달 3일 방북하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북측의 김용순 대남담당비서와 남북관계 전 반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의 대표적인 대화창구인 두 사람의 인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특보의 방북에 앞서 김비서가 2000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적이 있어 일종의 '답방'이 되는 이번 방북에서 두 사람이 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

두 사람은 나이도 1934년생으로 동갑인데다 최고 위층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정치적 시련을 겪은 점까지 유사하다. 임특보는 김대통령이 야당 총재시절 삼고초려 끝에 인연을 맺은 뒤 현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수석-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로 자리를 바꿔가며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해온 '햇볕정책 전도사'이다. 김비서도 90년 국제담당 담비서를 시작으로 대남담당비서-조평통 부위원장-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대남분야 직책을 두루 맡

총괄해오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애써온 핵심 인사들이지만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최대의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다. 임특보는 지난해 통일부장관 재직시절 8·15민족공동행사에서 남측 인사의 돌출행동으로 30년만에 국회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경험했다. 임특보는 결국 통일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 특보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 정치권에선 또 2000년 김용순 비서의 특사방남(訪南)을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특보가 수행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기도 있었다.

김비서는 지난해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한때 실각설이 나돌았으나 지난해말부터 다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등 건재할 파시했다. 김비서는 지난해 금강산관광사업이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의 관광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북한 군부내 감경과의 비판으로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의동기자



# 김위원장·김용순등 만나 南北현안 포괄적 조율

## 林특사 누구와 무일 논의하나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내달 3일쯤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 따라 북한 최고위층 인사들과의 접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 테이블에는 남북 현안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간 주요 현안도 함께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남북관계의 완전 종결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판단 아래 특사를 수용했기 때문에 전전권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누구를 만나나=임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반드시 만나려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여기에는 결국 남북관계는 양측 최고지도

공인과 월드컵의 연계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월 말 시작되는 아리랑 공연 기간 중 남북 총리급 인사의 방북에 이어 김영남 위원장의 5월 말 월드컵 관공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문제로 때론 줄 수 없는 현안이다. 이와 함께 비료와 쌀 등 대북 식량지원문제로 깊숙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 현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북측이 일련된 핵방정명사 조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에 응한 만큼 북·일 수교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속내=북한이 대북 특사를 수용한다는 게 체제 안정과 경제적 살리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데 대해 북한은 실제로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정 수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강경기조를 누그러뜨리고,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대화단절로 인해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대북지원이 중단될 경우 초래될 내부로부터의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짚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율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아리랑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남북으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점도 특사 수용에 한몫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영석기자

## '한반도 긴장완화'등 집중 협의

### 특사 수용한 北, 진전된 합의 기대

자의 결단이 있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김대통령의 그동안의 경험과 분석이 깊게 깔려 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임특보의 북측 대화 파트너인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다. 김비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을 함께 했던 인물이며 이번에도 속내를 드러내놓고 깊숙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군 관련 실체인 조평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총성칼럼 경우엔 총리와 의 접촉도 예상할 수 있다.

△무엇을 논의하나=우선 정부가 올해 추진 목표로 내세운 5대 핵심 과제, 즉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과 도로연결, 금강산 관광 활성화, 개성공단 건설, 한반도 긴장완화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아리랑

## 임동원 특사 면담대상 인사 및 방북절차

면담대상 인사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평택 국방위 제1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총성남 경우엔 총리
방북대상 경로	판문점 또는 두로이음 서해직항로를 통한 관남순안관광 이용
수령대상 인사	김형기 통일부차관, 김보현 국정원3차장, 이봉조 통일부특별정책실장, 서영교 통일부국장

# 10여명 수행... 서해직항로 유력

## 김형기 통일부 차관등 거명

### 3~4일 정도 체류 가능성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 대표단 규모와 경로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양측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실무접촉을 갖고 이런 문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지만 일단 2000년 9월11일 김용순 북한 노동당비서의 남한방문 전례를 준용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임특사가 이번 방북의 성격을 김비서의 특사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북단 규모는 1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비서의 남한 방문대는 박재경 인민군 대장 등 북한산 승이 전담팀 3명을 포함해 10명이었다. 이번 방북대는 서울과의 통신망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대표단 규모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수행단은 김형기 통일부차관과 이번 특사과 건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의 실무관계자들이 동행하게 되며 이봉조 통일부 특별정책실장과 서영교 통일부국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비서 방북대는 김비서의 대남정책을 보좌하는 공

안전선부 최고위자인 임동원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

취재단 동행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임특보의 피견을 위한 사전접촉과정에서 취재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번 방북이 임시가 아닌 공개적인 특사과 건 형식이고 국민의 일관리를 존중하는 남한 언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취재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김비서 파견 때 북한 취재단이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의 방북일정은 2박3일이나 3박4일이 될 전망이다. 김비서대는 제주도도 포함시킬 경우 등 지방일정을 포함해 3박4일간 머물렀다.

방북경로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용했던 서울~중앙 서해직항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비서의 경우 고려민간 전세기용 이용해 서울에 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침체돼 왔고 특히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 판문점을 통과하는 육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임특사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000년 5월 방북할 때 판문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임특사를 위해 갈 때와 올 때 두차례나 판문점을 개방할지는 미지수다. 김비서의 경우 중앙 귀환길은 판문점을 통과했다. 김익구기자

# 남북화해 가능할 '상징물'

'경의선 연결' 최우선 의제 배경

정부가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임명 특보의 특사방북에서 경의선 연결을 남북관계의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북측 구간 공사자재 지원을 검토키로 한 것은 경의선 연결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의 진전을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참여한 군사대치 상황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지르는 철도 연결은 군사적 신뢰구축(CBM)조치의 주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미국도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경의선 연결을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의지를 재는 척도로 평가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방한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도라산역 연설에서 "(경의선은) 분단된 이 땅의 양측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줄 잠재력을 지닌 길"이라며 "한국인 모두를 위해 북한은 이 길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의선 연결은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경의선 연결은 또 남북 모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필수사업이다. 경의선이 한반도를 관통하면 남북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기지가 될 수 있고, 북한도 중국과 남한간의 물류중계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또 현대와 북측이 합의한 개성공단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된다.

현재 경의선은 전체 단절구간 24km 중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역의 10km

부시도 도라산역 방문때 '의미'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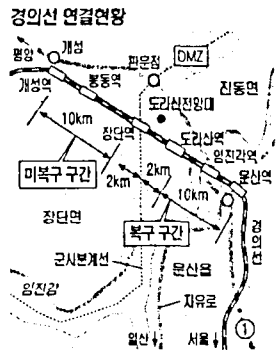
태평양-유라시아 연결 '경제적 실익'

구간 공사를 마쳤고 DMZ내 4km와 북측의 장단-개성 10km 등 14km가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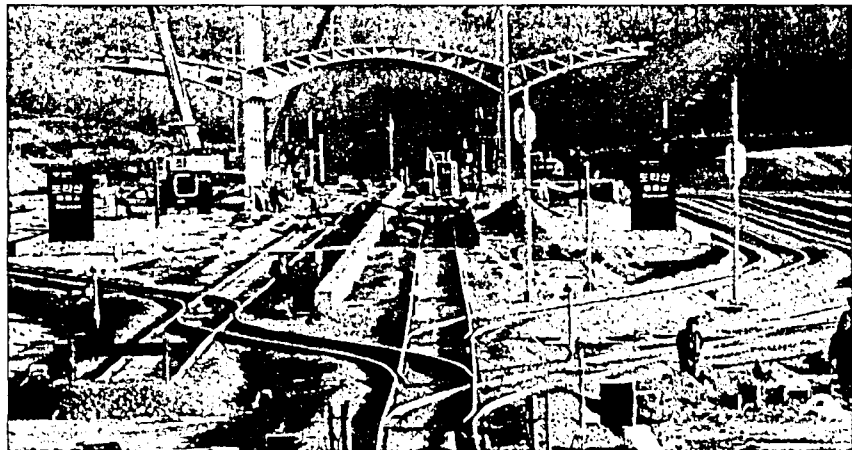
남북은 그동안 다섯차례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DMZ내 공사를 위한 4개항의 합의를 타결했으나 북측의 서명 연기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사업 재개를 위해선 제6차 군사실무회담이 조속히 재개돼 공사합의서가 서명, 발효돼야 한다. 북측은 최근 맞달새 물밑 경로를 통해 경의선 연결을 위해 남측의 공사자재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공

사용 운막사 20여동을 설치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공사자재 의지를 보여왔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1월17일 "북한이 경의선 공사용 막사를 수리하는 등 철도 연결 조짐이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정부 고위당국자도 "중국관광객들이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 편리하지 않겠느냐"면서 경의선 연결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경의선 연결이 합의되더라도 DMZ내 지뢰 제거 등을 포함, 6개월 가량의



경의선 연결현황. DMZ내 4km와 북측의 장단-개성 10km 등 14km가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다. (서울=연합통신)



경의선 북측 공사는 현재 남측구간(10km)이 완성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북측구간과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공사가 완료된 도라산역 남측구간. (문화일보 자료사진)

## "남북접촉 계기 북미대화도 열려야"

미국 정부·언론 '환영' 반응

남북한이 25일 임동원 외교안보특별임명 특보의 북한방문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미국정부와 언론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폴린 퍼필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남북한의 특사교환 발표뉴스를 접한 뒤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평가했으며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이 임동원의 방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어 "임동원의 방북이 남북고위급 대화와 이산가족 상

LA타임스 "월드컵개막식에 김영남 올 가능성"

호 방문을 비롯한 6·15 공동성명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측과 상호관심 사항들을 논의하기 원한다"면서 남북접촉을 계기로 북·미대화도 재개될 바란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임동원의 북한 방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북한에 가해진 외교적 압력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한이)수주일동안 비발 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특히 북한이 일본측에 대

해서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북·일관계 개선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방한기간중 일본정부 관계자들에게 '남북 일본인'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면서 남북자문제에 대한 북·일 협상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26일 아리랑축제 사전 취재를 위한 일본 기자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남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4월초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 근거로 남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성사시킴으로써 대북햇볕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원하고 있고 북한은 경화(탈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신문은 임동원의 방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측은 5월31일 열리는 월드컵 개막식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남측은 김일성주석 90회 생일축제(4·15)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남북한 특사교환 동시 발표가 발판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오렌 긴장관계해 해소할 극적인 돌파구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미숙기자·편집 musel@munhwa.co.kr

세상만사



김 상 온  
논설위원

정치적 이용 안된다

때에 걸맞게 '한반도 봄바람' 타령이 한창이다. 그러나 시절이 춘삼월이라서가 아니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대통령 특사로 다음 달 초 북한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있자 일부에서 한껏 기대에 부풀 전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특사 파견이 대화의 시작일 뿐이라며 낙관적 예상을 경계한다. 하지만 낙관론을 펴는 측에서는 심지어 남북한이 '이례적으로' 특사 파견을 사전에 동시에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남북한이 일정하게 합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나 이 같은 낙관적 예측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우선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고 긴장돼 있다는 게 한 원인이다. 북·미간의 협약한 대치상태는 벌써 몇 달째 남북관계를 정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1994년의 위기에 못지않은

'2003년 위기설'까지 증폭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를 연상케 하거니와 특사 파견으로 이 줄이 이완될 조짐을 보이자 긴장에 대한 반발심리가 낙관적 전망으로 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남북한 모두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관련해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2003년 위기설'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남한은 물론 미국의 계속적인 압력으로 체제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북한도 안보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정임을 인식하게 됐다.

또 늘 부족하지만 특히 춘공기와 함께 파종기를 맞아 더욱 절실한 식량 및 비료의 지원을 남한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북한의 입장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축구대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기 내에 햇볕정책의 결실을 거두려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입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장밋빛 기대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낙관론자들은 특사 파견이 이산가족 상봉 및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간의 거중 조정을 통해 양국관계 진전마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특사 파견, 특히 그와 관련한 일부 낙관론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임동원 특사의 방북 중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한동 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의 월드컵 개

막식 및 아리랑축전 교환 참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관해서다. 낙관론자들은 둘 다 성사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측 고위급 인사의 양대 행사 교환 참석은 좀더 많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또 김위원장의 답방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두 사안에 내재한 정치적 함축 때문이다.

특사가 북한에 가기도 전에 단순한 예상을 놓고 공연한 트집이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만큼 두 사안이 갖는 정치적 파급효과는 크다. 아리랑축전 참석의 경우 그것이 기본적으로 김일성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정치적 행사임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그 같은 정치행사에 정부 고위관리가 참석한다면 앞으로 국민이 지난해 8·15 평양 통일대축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미를 지닌 북한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무슨 명분으로 불허할 수 있는가. 월드컵을 위해 굳이 추진해야 한다면 분명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게다가 김위원장의 대선 전 답방이 성사될 경우 정상회담 결과는 물론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시작된 선거정국에 가히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할 게 뻔하다. 어쩌면 대통령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는 알 수 없으며 특사 파견 발표가 특검의 수사발표와 겹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본보가 이번 특사 파견을 두고 '햇볕 지키기를 위한 DJ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표현했듯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김대통령의 집념은 경탄할 만하다. 그리고 그런 집념이 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심 없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이 마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 김정일 대신 김영남 答訪 협의

## 임동원특사 방북때 논의

북한의 헌법상 국가원수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대신 서울을 방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상임위원장의 방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월드컵 기간이나 8·15 광복절을 전후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5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0년 9월 북

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담당 비서가 제주를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대신 김상임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토록 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면 이 연장선상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당시 우리측에선 남북 정상회담 때 약속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 김상임위원장이 오더라도 서울이 아닌 제주를 관란 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하고 "당시

엔 김정일 위원장 대신 김상임위원장이 오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이 낮아진 지금 상황에선 김상임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관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임위원장은 북한내 공식 권력 서열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방문이나 외교사절 접견 등에서 국가원수의 역할을 맡고 있다. 오영환·이영종 기자

<hwasan@joongang.co.kr>

# 東亞日報

2002. 3. 27 (수)

## 경의선연결 年内완공 협의

### 林東源특사 서해 직항로 통해 訪北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시 북측과 경의선 연결 마무리 문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경의선이 완공되면 북한을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평화의 통로(Peace Corridor)'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특사회담을 통해 경의선 연결에 합의한 뒤 북측 구간 공사를 연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5면에 관련기사

이 당국자는 "경의선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경의선이 '북침 통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 북한 군부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경의선이 북침 통로가 아니라는 점을 북측에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특보는 방북시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에 활용됐던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방북 기간 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2003년 안보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권유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기자 klimit@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世界日報

2002. 3. 27 (수)

## 임동원특사 訪北 서해직항로 이용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는 4월3일 방북 때 남북한 서해 항공 직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북측이 김용순(金容淳) 특사의 서울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임 특사도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언급한 뒤 "제3국 경유는 대통령 특사로써 모양새가 좋지 않고, 관문점을 통한 육로 이용도 북한이 기피하는 실정임을 가능할 때 서해 직항공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경향신문

2002. 3. 27 (수)

## 남북 국방회담 재개등 논의

### 林특사 방북때...답방·경의선 실무접촉 촉구도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보의 특사자격 방북시 한반도 위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에 최우선적으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 및 2차 국방장관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5면

정부 당국자는 26일 "이번 특사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2003년에 예상될 수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치·군사적 신뢰를

얻는 좋은 방안은 바로 남북 정상 및 국방장관 회담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일 위원장이 조기에 답방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국방장관회담과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접촉 재개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증거가 되는 만큼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특사 논의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의견을 모은 바 있어

다음달 중 4차 이산상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임특보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할 친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근·이용욱기자

harubang@kyunghyang.com

# 김정일에 北美대화 권유 친서

## 임동원특사 전달 예정

최기영·나영필 기자

정부는 북한을 방문할 임동원 특사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게 미국과의 대화를 권유하는 김대중 대통령 친서를 전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의선 복측 구간에 대한 자체 지원, 월드컵·아리랑축전 고위급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임 특사는 방북시 김 위원장을 면담할

것"이라며 "면담에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북-미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3일 방북길에 오르는 특사 방문단의 경로로 서해 직항로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 매일경제

2002. 3. 27 (수)



# 한국일보

2002. 3. 27 (수)

# 北에 비료·식량 지원키로

## 林특사 방북 성과땀 장관급회담때 논의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이 한반도 평화구도 구축노력과 남북대화, 경제협력 재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한이 춘궁·파종기를 맞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비료와 식량 등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비료와 식량 지원

을 일반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임 특사의 귀환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경제협력추진위를 재개, 이 자리에서 남북간 합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비료나 식량 지원을 다른 현안들과 연계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나 장관급회담이나 경제협력추진

위가 재개되면 인도적 지원문제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공사 재개 등의 구체적인 실천일정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임 특사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며 방북단 규모는 6~7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 “이산상봉·고위급대화 기대”

## 미, 대북특사 파견 환영

미국은 25일 (현지시간) 한국의 대북한 특사 파견을 지지·환영하면서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 대화의 지속적 재개 등 긍정적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사교환이 '고무적'이라며 "미국은 남북한 대화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보에 중심적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일은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북-미 간에 특별한 진전은 없지만 곧 본격적인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도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특사 방북이)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의 창도 열기를 기대한다"며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언론들은 남북대화 재개를 긍정 평가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이후 수주간 계속돼 온 비밀 대화의 결실"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특사 교환이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대화노력에 대한 보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는 "남한과의 협력이 미국의 압박 시도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남북한 양쪽의 절실한 필요에 비춰 이번 일은 널리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해빙정책이 성공임을 입증하고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동맹자의 선거전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워싱턴/윤국환 특파원, 류재훈 기자  
gookhan@hani.co.kr

# 임동원특사, 김대통령 친서 전할듯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포럼 특보는 북한 방문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특사의 기본 임무는 대통령 뜻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친서 전달 문제는 좀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2000년 9월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해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임 특사가 전달 친서엔 최근의 한

반도 정세와 남북, 북-미 관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는 또 서해상 직항로를 이용해 항공편으로 방북할 전망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한겨레

2002. 3. 27 (수)

#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논의

임동원(林東源) 대동령외교안보 통일특보는 남북기간에 경의선 철도 연결을 비롯한 북은 현안들도 함께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가 남북 시 북한과 논의할 5대 핵심과제를 점검해본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따른 남한의 비상경계대 세 강화를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엄격한 제4차 방문단 교환을 빠른 시일 내 실현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방문단 교환과 함께 생사 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 면회소

▽개성공단 조성=북측은 개성공단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실무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 지정과 물류이동, 전력확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배후도시를 포함해 2000만평(공단 800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 1단계 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금강산 육로관광=집부가 다음 달부터 관광 감비를 보조해주시기로 결정. 금강산관광사업이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육로개설 및 관광특구



김경제기자 kjs5873@donga.com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과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귀속말을 나누고 있다.

## 경의선 자재지원... 이산상봉 정례화 추진 남북경협-금강산 육로관광 협의도 재개

설치 등의 이산상봉 제도화 문제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경의선 철도 연결=남북은 5차례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공사를 위한 합의서를 마련했으나 북측이 서명을 미루고 있어 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남측 구간 공사가 이미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측이 연결공사를 희망할 경우 자재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간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경비 보조 없이도 현대가 독자 생산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육로관광길 개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남북경협추진위원회=지난해 11월 6차 장관회담에서 개최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정부는 검열추진위를 조속히 재가동해 개성공단, 민간선박의 영해 통과, 동해 공동어로, 남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연결과 가스관 연결 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남북 주요 현안

현안	현황	추진방향
이산가족 문제	북, 2001년 11월 제4차 방문교한단 임명 연기	방문단교한 조기재개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
경의선 연결	북, 비무장지대 내 공사관련 합의서 서명 연기	합의서 서명 후 최단시일 내 연결
개성공단	현대의 조신이태경허위 논의 중단	2008년 4000만평 규모 공단 단계적 건설 추진
금강산관광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개설 논의 중단	북측의 조속한 협의 이행을 촉구
군사실패 구축 및 긴장완화	2000년 9월 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논의 중단	2차 국방장관회담 조속 개최
남북경협추진위	검열 관련 4개 합의서 논의 중단	진척실무협의회 등 실무협의 재개
김정일 국방위 친선 서울 답방	6·15정신회담 약속 불이행	김정일 위원장 답방 추진

## “16대총선 北風장본인 林특보 이번엔 金正日답방 이용하나”

### 野 3가지 문제점 제기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은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임동원(林東源) 대동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임 특보는 10대 총선 직전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는 등 북풍을 선거에 이용한 장본인이라는 것. 이번에도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둘째, 임 특보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북적격자’라는 것. 그런데도 그가 금강산 관광 지원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평양을 방문기로 한 것은 정치적 의욕을 만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총장은 이와 함께 “통일부장관이라는 공식 채널을 제쳐놓고 대동령특보가 평양에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 특보가 “2003년 안보위 기실”을 거론한 배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또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성명에서 한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못하면 제주 방문 또는 제3국 회담 등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횡간에 퍼다하더라”며 “식량과 전력 대량 지원을 은밀히 약속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 “南 햇별성과-北 달려 물물교환”

LA타임스 “특사회담 어쩔수 없는 이유 있다”

### 허버드대사 “北-美대화도 기대”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사진)는 26일 임동원(林東源) 대동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에 대해 “남북대화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강(窓)도 열리게 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임 특보의 방북을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미국 LA타임스는 25일 “남북한이 최근 평양에서 4월초 특사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데는 ‘어쩔 수 없는(compelling)’ 이유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햇별정책이 성공한 정책임을 입증하고 김정일(金



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켜 울 선거의 진망을 밝게 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기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달려가 질실한 상황인 북한은 4월 말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에 수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이것은 양쪽의 물물교환(barter deal)이다”며 “양측이 월드뱅크와 아리랑축전 이전에 서울러 타협할 필요가 있었다”는 장자크 그로하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소 소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김정일 못온다면...” 次善의 선택

① 중앙일보

2002. 3. 27 (수)

東亞日報

2002. 3. 27 (수)

## 김영남 서울행 추진배경

정부가 내달 대북특사의 평양과견을 계기로 김영남(金永南·74)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추진키로 한 것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방에 당분간 이뤄지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금국방위원장과 만나 서울방방과 2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회담(和談)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5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금위원장은 서울방방에 대신 확실한 스게줄을 뿌려라”며 여덟차례나 답

의 실망이나 정부가 안을 부담도 될 수 있다.

이미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서 국가수반 자격으로 김대통령과 회담한 적도 있어 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26일 “김정일 답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금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금상임위원장의 서울방방은 이미 2000년 9월 김용순(金容淳) 특사의 서울·제주방방 때 거론된 바 있어 성사 가능성이 큰 편이다.

특히 월드컵 때 북한수반으로 참관할 경우 북한으로선 테러국가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는 데도 보탬이 된다.

## 김영남 누구인가

### 北국가원수로 서열 2위 내외보다 대외활동 주력

서울 방방이 거론되고 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권력서열 2위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개정 때 신설된 직책으로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이다.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은 지난 3년간 내치(內治)보다는 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 같은 대외 활동에 주력해왔다.

지난 3월 초에도 2주일에 걸쳐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면서 북한-동남아 외교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28년 합북 명천에서 태어난 김위원장은 김일성대학·모스크바 유학을 거친 후 노동당 지도원과 과장을 지냈으며 노동당 부부장(60년)·내각 외무성 부상(62년)·국제부 제1부부장(70년)을 거쳐 72년 국제부문의 최고책임자인 국제담당 비서에 발탁됐다.

83년 말 노동당에서 나와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15년간 재직했다.

매사에 꼼꼼하고 범람이 없으며, 특히 기억력이 비상해 한번 본 사람은 이름과 특징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인물로 정평이 나왔다.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식기자 <brent1@joongang.co.kr>

## 訪北경로·일정은

### 金正日, 김무실 면담 대신 林특사숙소 심야 방문할듯

4월3일 우리 국적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게 될 임동원(林東源) 대령의 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 일정은 2000년 9월 북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방한했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묘향산등 나들이 가능성

당시 김용순 비서는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해 포항제철 등 산업시설에 나선 뒤 관광지인 제주도급 방문했다. 이 집어 비취날 때 북측은 우리 대표단을 묘향산이나 백두산 등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회담에서는 철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임 특보와 김위원장의 만남은 2000년 9월 김용순 비서가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했던 식의 의례적인 면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재개 등 이번이 합의해야 할 의제는 대부분 북한 군부 심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에 많은 비중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김용순등과 마라톤 협상

김 위원장과 임 특보의 만남은 김 위원장의 김무실이 아닌 임 특보의 숙소로 예상되는 백두원 또는 모란봉 초대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측의 김호관 대령 등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시간인 심야에 임 특보의 숙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할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임 특보는 평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김용순 비서, 임동욱 노동당 통일선선부 제1부부장 등 대남 라인과 줄곧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인다. 김용순 특사의 방한 시에도 임 특보가 당시 국가정보원장 자격으로 이들과 함께 지내며 회담을 거쳤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성사면 남북접촉 수준 한단계 격상 일부선 “이러려고 여태 끌었다” 비판

방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 안쪽에 김위원장 답방성사를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 강해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선언에 명시한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전적으로 김위원장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금상임위원장의 방방이 성사될 경우 6·15 공동선언 이후 장관급에 머물러온 남북접촉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럴 경우 남북관계 전진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국방위원장의 답방시 따른 견호 문제나 보수단체들의 반발 등도 피할 수 있고 답방 무산으로 불거질 국민

하지만 정부는 금상임위원장 초청이 김정일 답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려하고 있다.

평안정권의 ‘얼굴마담’이란 혹평을 받은 그의 방방으로 북측이 ‘답방 빛’을 적당히 때우려 할 경우 비관론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상임위원장의 서울행이 금국방위원장과 서울방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대체카드가 될지는 전문가 사이에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은 김용순 특사의 방방 때 ‘김영남 방문-김정일 답방’ 구도를 제시했지만, DJ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두가지 모두를 챙기기에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종기자 <yjlee@joongang.co.kr>

## 대한매일

THE DAILY NEWS 1996. 6. 27. MON. WWW.DAILYNEWS.CO.KR

2002. 3. 27 (수)

### 김대통령 '장문의 친서'

#### 北·美대화 조속재개 강력권유

#### 임특사, 김위원장에 전달예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중 특사로 평양에 파견되는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특보를 통해 미국과 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끝자로 한 장문의 친서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임 특보는 북한 방문중 김위원장을 면담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김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통령은 친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등 북·미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03년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예방하기 위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력히 대화를 권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강연을 통해 “미국은 임 특보의 방북을 환영·지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뿐만 아니라 미·북간 대화의 창도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김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전진을 희망해 왔다.”면서 “미국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항상 기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오영연

김수정기자 poony@kdaily.com

# '김정일마음 돌리기' 역점

## ■ 정부, 특사회담 전략 부심

내주에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 특보의 최대 목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위축된 김정은(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어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화해와 평화 쪽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경의선 연결 등 연안들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관계기간 대책회의를 열어 아갈이 특사회담의 전략을 짜고 '대차대조표'를 조율했다.

정부가 이번 회담의 1차적 과제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꼽은 것도 김 위원장의 시각을

돌려야 남북관계가 정상화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임 특보는 북미·북일 관계 등 세계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조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도 '민중 앞에 박치는 업종한 사태'를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에 적극성을 펼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남북간 시각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측은 핵이 제거될 때까지 미사일 문제를 자위적 사안이라며 북미협상의 핵심으로 간주해왔다.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비난하며 남북을 끌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특보는 남측의 개입을 미국의 강경책을 누그러뜨리는 자렛대로 적극 활용하도록 북측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안보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찾을 경우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 4개월여 중단된 당국간 대화도 순차적으로 복원될 수 있다. 임 특보는 금강산 관광지원 등 남북 당국의 협조를 강조하며, 이산가족 행사 등 '5대 과제'의 이행을 더그칠 생각이다.

임 특보는 특히 올해 남북관계의 뜨거운

## "화해무드맨 경의선등 현안해결 가능"

### 식량지원등 모든 설득카드 제시키로

김지인 월드컵과 이리랑 공연의 연계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에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가하면, 그 위상이 배가될 뻔하다 끝까지 기어오르려 우리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임 특보는 북측을 설득하기 위해 식량·비료 등 남북이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적절히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부는 "대북 지원은 특사회담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파종·춘궁기를 앞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대북지원은 불가피한 의제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이 확정됨에 따라 남북 당국은 서울-평양간 핫라인을 통해 경로 일정 규모 등 실무적 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남북간 핫라인이 존재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당국자들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당국자들은 임 특사의 방북 협의가 어느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핫라인을 통한 협상

24회선 정도가 연결돼 있으며 남북대화사무국에 설치된 실무 연락용 10여 회선 외에 다른 경로에서 핫라인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채널의 협상을 통해 임 특보의 방북 경로는 직항로, 일정은 2박3일이나 3박4일, 수행단 규모는 6~7명 선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우리측은 직항로와 함께 판문점 통과도 제시했으나 북측은 2000년 9월11일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 전례를 준용, 직항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측은 '갈 때는 직항로, 올 때는 판문점 통과'라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방북단 규모는 임 특사를 비롯 김보현(金保鉉) 국장원 3차장,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 실무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용순 비서의 방문 때는 8명이 왔다가 박재경 인민군 대장 등 2명은 송이버섯을 내려놓고 곧바로 돌아가 사실상 6명이었다. 따라서 임 특사의 경우도 이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 林특사 訪北 실무 협의 서울-평양 핫라인 가동

### 직항로 통해 방북... 수행단 6~7명될듯

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흔적이 하나 돌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측 인사가 환영을 받았,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른 라인은 베이징(北京)이나"는 물음에 "베이징 라인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베이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대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남북간 통신은

## 野 "선거용 깜짝쇼다"

### 靑 "국정마무리 차원"

#### ■ 방북 배경 공방

한나라당은 26일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 특보의 대북 특사에 대해 "지방선거와 대선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면서 "논의축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공세를 펼쳤다."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국회에서 불신임권 임동원씨가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키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의혹을 펼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측은 "김 대통령은 이미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문제까지 전략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심각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남북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국민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임기말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 차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yunbin@kdaily.com

## 새달1일까지 北·南방문

### 메가와티 역할 공금중

내달 3일쯤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 특보의 방북에 앞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Sukarnoputri)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부터 4월1일 사이에 남북한을 잇



따라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및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메가와티 대통령은 북한 방문 직후인 30일 서울에 도착, 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고위층의 깊은 속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64년 11월 아버지인 수카르노 대통령을 따라 평양을 공식 방문, 김 위원장을 처음 만났다. 이듬해 4월 김인성(金仁成) 주석이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졸업,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이던 아들 정일원 데리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의 나이가 각각 23살과 18살 때였다. 김 주석과 수카르노 대통령은 당시 반미·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 우정이 깊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상하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을 형제지간으로 만나 한반도 화해와 협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전염우기자 anseumus@kdaily.com



## 경향신문

2002. 3. 27 (수)

### “남북·북미대화 기대”

#### 허버드, 林특보 방북 환영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대사는 26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다음주 방북과 관련, “이번 특사 파견을 계기로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창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버드 대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임특보 방북에 대한 미국의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허버드 대사는 최근 미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네바 기본합의 인증유보조치와 관련,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빨리 허용해야 한다는 신호전달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차세현기자

## 대한매일

2002. 3. 27 (수)

# 김용순 올들어 급부상 남북관계 파란불 암시

### ■ 임동원특사 방북 전망

【도쿄 황성기특파원 전영우기자】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을 앞두고 임 특보의 맞상대인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의 당내 위상이 최근 부쩍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대남사업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비서는 지난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수행하는 일이 드물고, 대외활동마저 뜸해 한때 ‘실각설’이 나돌았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김 비서가 대남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것으로 공식활동을 재개했다. 같은 달 22일 정부·정당 합동회의에 참석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김 위원장이 허종만 책임부장 등 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 축하단을 접견하는 자리에 배석하는 등 간재를 과시했다. 이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특사 발표 이전에도 “김 비서의 재등장은 남북관계에 푸른 신호등이 켜진 것”이라면서 남북 대화 조기 재개를 짐짓기도 했다.

한 해외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협의하

### 금강산사업 실패로 한때 실각설

### 임특사 동갑… ‘주파수’도 잘맞아

고, 석유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 비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김 비서의 역할이 커졌음을 시사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총련 관계자는 “김 비서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은 북

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김 비서의 재등장은 북한 고위층이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한 증거”라면서 “특히 김 비서는 1934년생으로 동갑인 임 특사와 ‘주파수’가 잘 맞아 두 사람이 호흡을 털어놓고 ‘작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 anselmus@kdaily.com



남북한의 대표적인 대화창구인 임동원(왼쪽) 특보와 김용순 비서가 내달 초 평양에서 만나 또다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000년 9월11일 김 비서가 특사로 내려 왔을 때 찍은 것이다. ●대한매일 포토라이브러리

# ‘남북대화가 北美갈등 풀다’

• 전문가 4인 林특보 訪北 조언

• ‘한반도 위기說’ 해법은

**남** 북문제 전문가들은 26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의 방북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측에 설득할 있게 진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덕민(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임특보도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무기 문제다. 이 문제가 안철리면 한반도 긴장상황이 완수 있다. 민족공동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대량살상무기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문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북측이 특사단 공개허용했고 북적십자사가 일본여성 납치문제에 대해 인축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주목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예봉을 한국·일본과의 관계진전을 통해서 피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때문에 북측은 정권교체 등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정일(金正日) 답방은 ‘적당한 장소, 시기에 하겠다’고 불투명하게 넘어갈 것이다. 어쨌든 남북, 북·일관계가 진전되면 북·미관계에도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조만간 북·미대화 가능성도 대두될 것이다.

## 北 WMD 묘수 찾아야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우선 미국이 북·미회담을 제의했던 만큼 이에 대한 미국의 진의를 진담해야 한다.

미·일 등 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생각도 진해야 할 것이다. 식량 및 비료지원 문제도 논의대상이다. 특사 파견은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행위다. 따라서 남북문제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북대화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풀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동민(徐東敏) 삼지대 교수=북한에 대한 미·일의 시기를 전달하고, 한국 나침반으로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방안을 조언해야 한다.

북한의 ‘2003년 위기설’ 등도 다루어야 한다. 또 월드컵과 아리랑공연의 연계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두 행사에서의 사절단 교환 및 관광객 수송방안 등 구체적인



▶서동민 삼지대 교수

## 월드컵-아리랑 축전 연계 논의 초점맞아야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DJ와 고이즈미 매개 北, 부시 예봉 피하기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당장 돌파구 없더라도 北·美관계 개선 청신호



▶정용석 단국대 교수

## 대화재개 긍정적 측면 너무 앞서가지 말아야

부분까지 거론해야 할 것이다. 특사파견은 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 낼 대할 것이다. 정부는 분위기를 호전시키면서 경의선·개성공단·금강산유로관광 등 업안을 끌어야 한다.

## 北 패턴 감안 신중히

◇정용석(鄭鎔碩) 단국대 교수=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왕 특사교환이 이뤄진 만큼 남북대화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도화하고 북측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특사수용은 ‘아리랑’ 축전에 남측 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 측면이 강하다. 또 북한은 민족축전이라고 선전하지만 ‘연방제 선전’과 ‘김일성-김정일 위상화’가 아리랑의 목적이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4월초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과연 한반도 위기 예방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남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시한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등 각종 악재가 골고루 겹쳐 2003년에 집중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특사파견 카드가 더이상 한반도 위기상황을 방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 역시 장관급 회담과 같은 기존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라는 특단의 카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 남한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직접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가장 간접한 해법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수출 금지, 전면적인 핵사찰 수용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자주권 침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임특보는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

기 위해 ‘묘수’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특사파견을 통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정권이라는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사 표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대사 역시 26일 한 초찬 강연에서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항상 기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 기자회견에서 임특보가 “희박하다”고 밝혔듯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남한 방문은 쉽게 상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이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정치·군사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안은 2000년 9월 이후 중단된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다. 국방장관회담이야말로 한반도 긴장완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점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남한이 핵 및 재래식 무기 등을 논의할 국방장관회담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제개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차세협기자 csh@kyunghyang.com

# 對南기구 '아태' 세대교체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對南)기구인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칭 아태)가 금강산 관광 사업 부진과 미북 관계 악화로 위상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내부 대남라인의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태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남측 기업인과 민간 지원단체 접촉 업무를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로 넘기기 시작해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을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지원단체 중 아태를 통해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평화자동차'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년 가을까지 아태와 민경련 두 기관과 동시에 접촉했던 '한민족복지재단'은 지금은 민경련과 민화협을 통해서만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단체의 김형석 사무총장의 말이다.

아태의 약화 조짐은 금강산 관광사업 부진으로 인해 현대로부터 대금납입이 지연되고 9·11 테러 사태 이후 미북 관계가 더욱 악화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달 방북했던 이 소식통은 "평양에 가 보니 특히 미북 관계 악화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대남 대화를 주도해 온 아태 관계자들의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아태 관계자들로부터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했다.

## 최승철·권호웅 등 40~50대 부상 금강산사업 부진 등으로 위상 약화

아태의 이같은 처지를 반영하듯 북한은 2000년 가을경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던 아태 사무소를 폐쇄했고 그 후 부정기적으로나마 베이징에 상주시켜 왔던 아태 대표단을 작년 4월 이후 평양으로 완전히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가 약화되면서 원래 일본통이면서도 금강산 사업을 성사시킨 공로로 대남사업까지 맡아 왔던 송호경 부위원장과 황철 실장은 이 사업 부진으로 곤경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

다. 대남 사업의 막후 실세로 평가받아 온 황철의 근황과 관련, 한 소식통은 "작년 11월 평양에서 만난 이후로 그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해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아태에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은 김완수 부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남사업에 관한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부터 아태 위원장 겸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보다 많은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아태 대남라인은 60대인 김완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최승철 실장·권호웅·양정모 참사 등 40~50대의 장년층

이 보좌하는 진용으로 바뀌는 등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승철 실장은 북적(北赤) 상무위원 명함으로 남북 직심자회담에 대표로 참여해 오면서 '목숨 걸고 일한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아태 위상과 관련해서는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대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남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북한이 앞으로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산하에 다른 기구를 만들어 남북접촉에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이교관기자 haedang@chosun.com

# 한겨레

## ■ 임특보 방북 경로·일정

다음달 3일께 방북하게 될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실장 특별 일행의 방북 경로나 북한 체류 일정 등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북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게 설명의 전부다. 그러나 몇몇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 일행은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북쪽은 이미 직항로로 방북해 줄 것을 남쪽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관문협을 통한 육로 방북도 계속 추진하겠지만, 육로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일행 10명미만 직항로 이용할듯

수행 대표단도 어느 정도 윤곽은 그려진 상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행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의 합류는 확정적이다. 같은 차관급인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쪽과 실무 협의 창구 노릇을 한 국정원 관계자와 통일부 국장급 인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 약간 명의 지원 인원이 함께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 일행의 체류 일정은 2000년 9월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3박4일간 남쪽에 머문 전례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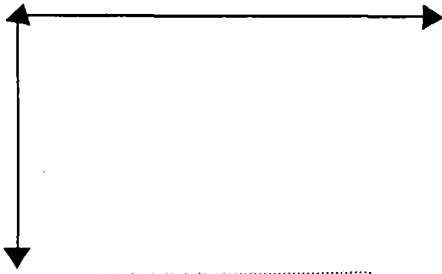
른다면 3박4일 남짓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과 포항제철 등을 둘러본 김 비서와 달리 임 특사는 특별한 관광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 2박3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철 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때가 많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8월 2차 장관급회담 때는 박재규 당시 수석대표가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청진까지 다녀오느라 일정이 하루 연장된 바 있다.

총리급 인사의 교차방문을 추진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단지 월드컵 개막행사에 북쪽 사절단이 참석하는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대통령은 25일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월드컵에 북한의 참여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추진은 하겠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논의와 관련해 임 특사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집중 협의과제로 제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답방 준비를 위해선 한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훈기자 nomad@hani.co.kr



### 특사방북단 7~8명 구성

내달 3일 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통일특보의 특사방북에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 통일부 조명균 교류협력국장, 통일부 김천식 정책총괄과장 등이 보좌요원으로 수행한다.

또 보좌요원의외 행정·통신 등 분야를 담당할 실무지원 요원 3~4명이 포함돼 전체 방북단은 7~8명의 소규모로 구성된다. 정부당국자는 27일 이 같이 밝히고 조만간 북측에 방북단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의동기자

## '林특사' 북미중재 성공할까

9·11후 한반도정세 설득 주력

北도 심각성 인식 진지한 태도



도 문제전반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아이디어 회의)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6월

다음달 3일 대통령 특사로 방북하는 임동원(왼쪽)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중재역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특보는 방북 과정에서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 등 미국의 우려사항들을 가감없이 전달할 예정이다. 북·미문제를 북측에 얼마나 설득해 내느냐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사방북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특사준비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특사준비팀은 설득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예상되는 북·미관련 의제는 WMD 해결방안, 재래식 무기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른 보상방안 등이다.

임특보는 지난 25일 "핵·미사일 문제 거론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시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친서를 통해 북·미협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이 한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남북간의 인식차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인 데 이어 이번 임특보가 김대통령을 대신해 김위원장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9·11테러사태이후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임특보의 특사임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감하고 북측에 불쾌할 수도 있는 의제를 가장 설득력있게 설명하는데는 북측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임특보가 적격이기 때문이다.

임특보가 특사회담에서 북·미관계의 중재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정부당국자는 "북측도 특사 파견 발표 방송에서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진지한 태도로 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김정일 서울답방 적극 추진

## 林특사 방북때 촉구방침... 월드컵 中관광객 北육로이용 협의

정부는 27일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임특사 방북때 수행할 보좌요원으로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천식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등 3명을 결정했으며 실무지원요원 3~4명이 동행하기로 했다.

임특사는 이번 방북기간 중 중국 관광객들이 월드컵 기간에 북측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오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들이 항공편이나 열차편으로 개성까지 온 뒤 육로 수송편을 이용, 판문점을 거쳐 월드컵을 관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면서 "북측도 아리랑 공연과 연계시킬 경우 외국 관광객 유치에 통한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도 "판문점을 거쳐 월드컵을 관람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탕자쉬안 외교부장도 최근 북한 육로통과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혀 북한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 林특사 방북- 5대 핵심과제 조율 전망

# ‘이산상봉’ 이미 합의說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연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비밀접촉과 특사파견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물보따리가 필요하다. 이런 연유로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인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는 다소 성급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양측이 지난해 4차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을 교환해 별다른 실무협의 절차가 필요 없고, 남한이 장소문제에 연연하

기했다. 경의선 연결 문제는 북한이 판문점을 열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한측 사업자인 현대와 토지공사, 그리고 북한측 사업자인 아태평화위협 논의는 1년이상 중단돼 있다. 2008년까지 4000만평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현대아산과 북한의 2000년 8월 합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측 최고위층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육로관광=정부가 햇볕정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야.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완화, 금강산 지역 면세점 허용에 이어 관광경비 지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줄어드는 관광객을 붙잡기

## 군사신뢰 구축 2차 국방회담 제의 검토

## 北, 금강산 대가금 지급보증 요구할듯

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비밀접촉에서 다음달 중순 금강산이나 제주도 상봉에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임특사는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면회소 설치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 연결=서울~신의주 경의선 전체중 남쪽 단절구간인 문산~도라산역 10km 공사는 마쳤지만 비무장지대(DMZ)내 4km와 북쪽 구간인 장단~개성간 10km가 미개통 상태다. 북한은 지난해말 개성 봉동지역에 반영구적인 군막사 20여동을 설치해놓고 있지만 공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한은 5차례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DMZ내 공사를 위한 합의서를 타결했으나 북한은 남한의 주적개념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서명을 무기 연

위해서는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허용을 통해 이동수단과 볼거리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또 북한은 임특사 방북때 관광객에게 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특사는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과 의 면담에서 근본 대책을 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신뢰구축=임특사가 방북의 첫째 이유를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으로 꼽은 데서 알 수 있듯 최대 관심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만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미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남북한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2차 남북국방회담을 제의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김영석기자

# “林특보 방북때 金正日답방 촉구”

정부, 성사뎀 ‘서울평화선언’ 채택 방침

을 결정하고 실무지원요원 3~4명도 동행키로 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보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정부는 그동안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 “임 특

보의 방북때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촉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성사될 경우 ‘서울(남북)평화선언’을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임 특보의 방북때 수행할 보조요원으로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천식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등 3명

世界日報

THE KOREAN PRESS

2002. 3. 28 (목)

## ● 東亞日報

2002. 3. 28 (목)

### 林東源특사 수행명단 北통보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로 다음달 3일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수행원으로 김보현(金保鉉) 국가정보원 3차장 등 8명을 확정하고 조만간 이들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수행원은 김 차장 외에 통일부 조명균(趙明均) 교류협력국장, 김천식(金千植) 정책총괄과장 등 보조요원과 실무지원 인원 약간명으로 구성됐다. 임 특보는 28일 민주당 자민련, 29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각각 방문해 방북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남북 장관급회담 北에 마지막 기회”

#### 해외언론 일제히 환영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언론들은 다음주 재개되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과 관련, 이를 받기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자면 북한의 진지한 자세가 요청된다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이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26일 ‘북한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임 특보의 방북은 북한이 긴장완화를 위해 관대한 지원을 하는 남한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셔널 헤럴드 트리뷴도 임 특보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측의 말보다는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임 특보의 평

양 방문은 임기 말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승부수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김 대통령이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인 대화 분위기를 다시 조성키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며 “북한 측도 일본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대화자세를 피력함으로써 미국을 경계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논평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고립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정

LA타임스 “北 진지해야”

英·獨紙 “긴장완화 도움”

치지 양보와 경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 등 독일 언론도 임기가 1년도 채 안남은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좌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도쿄= 박완규-전현일특파원, 박종현기자 wgpark@sgt.co.kr

## 訪北수행 '林특사 사람들'은 누구

다음달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를 수행할 김보현(金保鉉) 국가정보원 3차장, 통일부 조명균(趙明均) 교류협력국장, 김천식(金千植) 정책총괄과장 등은 '임특보의 사람들'로 불린다.

김보현 차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북 전문가다. 20년 넘는 국정원 근무기간 내내 대북(對北)분야를 담당했으며 햇볕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을 맡아왔다. 이번에도 임특보의 지휘를 받아 북측과 막후접촉을 벌여 특사파견을 성사시켰다.

2000년 3월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정책특보와 함께 대북협상을 주도, '6·15 정상회담'을 만들었다.

조명균 국장(45)은 논리가 정연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해, 적극적인 업무스타일을 좋아하는 임특보의 신임이 두텁고 대북협상 경험이 많다.

김천식 과장도 임특보가 장관 재임시절 단독보고를 올리는 등 각별한 신임을

▶ 김보현 국정원 3차장  
6·15회담 성사주역

▶ 조명균 통일부 국장  
對北 협상 경력 화려

▶ 김천식 통일부 과장  
정세판단 능력 탁월

받았다. 정상회담 당시 김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 마중나오는 것을 예측할 정도로 정세판단이 탁월하다. 북측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비서가 2000년 9월 특사로 남한을 방문했을 때 수행한 림동욱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권호웅 당지도원 등이 파트너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임동원 특보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조명균 통일부 국장

# 경향신문

2002. 3. 28 (목)

## 林특사 방북 6~7명 수행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로 다음달 3일쯤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를 수행할 김보현(金保鉉) 국가정보원 3차장 등 보좌요원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임특사를 수행할 인원은 보좌인원 3명과 실무지원인원 3~4명 등 대략 6~7명이 될 것"이라며 "이들은 전세기를 통해 방북하게 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5면

보좌요원에는 김차장과 함께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천식(金千植)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등이 선정됐다.

그는 "보좌요원은 특사의 대북협약과 협상을 측근에서 도울 것"이라며 "실무지원요원은 방북과 관련된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지원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수행원 전체 명단과 체류일정, 교통수단 등을 담은 안을 금명간 북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 특사회담 기간동안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상황실장은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 ‘특사’ 임동원, 불편한 2野 방문

訪北 일정 설명·의견 청취

해임안 악연- 끌끄러운 대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23일 자민련을 방문한데 이어 29일에는 한나라당을 찾는다. 방북에 앞서 북한측과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두 야당을 찾는 것이지만 임특보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물론 두 야당과의 악연 때문이다.

두 야당은 지난해 8·15 방북단 사태와 관련해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 인해 자민련과 민주당의 공조가 깨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 지난 2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한·미간 대북공조에 난색이 발생하자 한나라당은 임특보를 비롯한 대북정책팀의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북 특사 발표 이후 두 당의 반응도 예외없이 싸늘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북한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고 자민련 정진석 대변인은 “임특보의 방북이 국내 정치와 연계된다는 세간의 의견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은 임특보에게 “햇볕정책의 결과에 대해 국민 불신이 크기 때문에 방북시 북한측의 입장을 충실히 듣고 이산가족, 남북긴장완화, 핵사찰 문제 등 대북정책 청사진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장은 또 “금강산 관광을 가는 것은 좋은데 이를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기념행사인 아리랑 축전과 연계시켜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전적으로 반대급부를 주려는 것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임특보를 만나면 올해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구경하거나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재방문이 추진되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경환기자 khmaeng@kmib.co.kr

# 대통령친서 갖고 방북

## 임동원 특보 “한반도 안보위협 해소 주력”

### “깜짝쇼 없고 정치적으로도 이용 안해”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8일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달 3일로 예정된 북한 방문은 한반도에 탁월한 보물 안보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 최고 당국자에게 전하고, 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일차적 목적”이라며 “북한을 방문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김대중 대통령은 임특보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에서 한반도 안보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하고, 미·북관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

졌다. 임특보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텃으므로써, 미·북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주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런 논리 아래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 풀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특보는 또 교통편에 대해 “왕복 모두 비행기편이 될 것 같다”면서 “방북 날짜는 내달 3일로 결정했으며 북한 체류 기간은 2박3일로 예정하고 있지만, 3박4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임특보를 포함한 방북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서울공항과 평양 순안공항 사이를 오

가게 된다”고 밝혔다.

임특보는 이어 “특사 방북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민족문제는 정권직 차원 또는 정치적 목적과 구별돼야 한다”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향후 민족의 장래 문제를 어떻게 풀어,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느냐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특보는 “이벤트쇼 깜짝쇼는 생각지 않고 있다”며 “남북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미 합의돼 있으나 중단돼 있는 일들을 재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특보는 민주당과 자민련 당사방 방문, 정책위 의장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으며 29일에는 한나라당

김진홍기자 jhkim@kmib.co.kr



# 林東源 3일 방북 DJ친서 휴대

## 北-美대화 촉구 담을듯 "金正日담방 구두담번 듣고오라" 지침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평양 방문 날짜가 다음날 3일로 확정됐다.

임 특보는 서울공황을 통해 항공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 5일이나 6일경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임 특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방북일정을 밝힌 뒤 "방북 때 김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게 되나, 친

서 내용은 미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북이 정치 목적에 이용되는 일이나 이벤트를 '깜짝쇼'는 있을 수 없다"며 "남북 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미 합의했거나 심천이 중단된 일을 재개하는 데 주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번 특사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임 특보가 갖고 간 친서에서 94년 북한의 핵위기와 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로 야기됐던 긴장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수락할 것을 북측에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담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임 특사가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구두로 담번을 듣고 오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 kimit@donga.com

# 중영일보

2002. 3. 29 (금)

## “訪北 깜짝쇼는 없을 것”

### 林특보 내달 3일 출발

### 金대통령 친서도 휴대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8일 다음달 3일부터 2박 3일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일정은 신속성을 두고, 서해안 직항로를 통해 항공기로 왕복할 예정이며, 대통령의 친서도 휴대한다"고 말했다.

아담이 정치적 약용성을 제거한 것과 관련, 그는 "이번 방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자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이벤트성 깜짝쇼 얘기도 나오지만 남북 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는 없으며, 이미 합의해 실천하다 중단된 일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특보는 29일 오전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와 조찬 회동을 하고 방북과 관련한 미국 측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북·미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 한국일보

2002. 3. 29 (금)

## 林특사-美대사 오늘 회동 美, 對北대화이지 전할듯

### 林특사, 金대통령 친서 휴대 내달 3일 訪北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내달 3일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서울공황을 통해 항공기 편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임 특보는 28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평양 체류 기간은 2박3일이나 논의의 진전 등을 고려, 신속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한반도에 딱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김대통령의 생각을 북한의 최고당국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29일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와 조찬 회동을 갖고 방북과 관련한 미국 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회동에서 허버드 대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 임동원특사 내달 3일 訪北

# DJ친서·美 메시지 전달 안보위기 해소 중점들듯

다음달 3일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는 방북시 김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미국 측의 대북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임 특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북시 김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간다"고 밝혔으며, 29일 오전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대사와 조

찬을 갖고, 미국의 대북메시지를 전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임 특보의 방북은 남북대화의 지속추진과 함께 미·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이날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방문, 방북 계획을 설명하면서 "내년은 민족 양

에 안보위기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인 만큼, 이번 방북시 안보위기를 해소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새 대북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 깜짝쇼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다음달 3일 서울 공황을 출발, 서해직항로를 통해 순안비행장에 도착하며, 2박3일 또는 3박4일간 평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기자 baibai@chosu.com

# 朝鮮日報

2002. 3. 29 (금)

한겨레

2002. 3. 29 (금)

임특사 "안보위협 예방 주력"

친서갖고 3일 직항로 방북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대표는 28일 "다음달 3일 김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항공기를 이용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특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에 다가올지도 모를 안보위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김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 최고 당국자에게 전달하고, 타개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며 "북한 체류기간은 2박3일로 예정돼 있지만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친서 내용을 두

고서는 "미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를 포함해 6·15 남북 공동선언과 그 이후 진행된 각종 당국간 회담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친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특보는 방북 기간에 논의할 내용에 대해 "남북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돼 있는, 실천되다 중단된 일들을 재개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특보는 29일 오전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와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방북과 관련한 미국쪽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성 기자 yskim@hani.co.kr

■ 이미티지 일문일답

"특사파견 좋은결실 기대"

리처드 이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사진)은 27일 한국 특과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미 관계 등 전반에 대한 미국쪽 입장을 밝혔다.

-임동원 특보의 평양행은 어떻게 보나?

=갈 뉘 일이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두고 볼 일이다.

-미국과 사전에 상의가 있었나?

=협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미국이 전쟁발발시 북한에 핵무기를 쓰려는 것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격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뜻인가?

=핵무기 사용능력은 미국이 항상 보유해온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공격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만 신중한 군사계획은 모든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핵합의 보증



을 거부한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는 북한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편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로 한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다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어떤 일을 고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와 관련한 좋은 방안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어렵다.

-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무슨 구실을 하고 있는가?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수출하는 것은 이 지역에 원하지 않는 관심을 모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요소다.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4자회담을 재개할 용의는?

=미국은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다. 만일 북한이 이를 바라다면 우리는 분명히 검토할 것이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만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gookhan@hani.co.kr

林특사 남북직항로 이용 訪北

경의선 연결 추진등 김대통령 친서 전달

나영필 기자

다음달 3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대표는 방북기간에 김대중 대통령 친서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임 특보는 28일 "김 대통령 친서를 휴대하지만 친서 내용은 미리 밝힐 수 없다"며 "출발일자가 4월 3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이어 "북한 체류기간은 2박3일로 예정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소 신축성이 있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 면담 등에 따라 하루이틀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특사 방문단 임북·귀환시 서울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라며 "방북기간에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임 특사는 서울 출발과 귀환시 프레스센터에 들러 출발과 귀환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임 특사 방북 체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김 대통령 친서에는 △미국과 대화재개 촉구 △경의선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활성화, 개성공단 건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5대 과제 추진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다가올지도 모르는 안보위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김 대통령 생각을 북한 최고당국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방북시)남북간에 합의했거나 실천이 중단된 것을 재개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대북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2002. 3. 29 (금)

임동원특보 방북일자 내달 3일로 확정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대표의 방북 일자가 4월3일로 확정됐다.

임 특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3일 평양으로 떠날 것"이라면서 "북한 체류기간은 2박3일로 예정돼 있으나 다소 신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 특사는 또 "김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게 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다가올지도 모르는 안보위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김 대통령의 생각이 북한 최고당국자에게 전달 될 것"이라면서 "남북대화를 활성화해 북·미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논의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을 이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민족문제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이벤트성 행사나 검박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 아미티지 일문일답

“특사파견 좋은결실 기대”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사진)은 27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미 관계 등 전반에 대한 미국쪽 입장을 밝혔다.

-임동원 특보의 평양행을 어떻게 보나?

=잘 된 일이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두고 볼 일이다.

-미국과 사건에 상의가 있었나?

=협의를 있었다고 확신한다.

-미국이 전장발발시 북한에 핵무기를 쓰려는 것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격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뜻인가?

=핵무기 사용능력은 미국이 항상 보유해온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공격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만 신중한 군사계획은 모든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핵합의 보증



을 거부한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는 북한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편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로 한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다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어떤 일을 고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와 관련한 좋은 방안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어렵다.

-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무슨 구실을 하고 있는가?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겨발·수출하는 것은 이 지역에 원하지 않는 관심을 모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긍정적 요소다.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4자회담을 재개할 용의는?

=미국은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다. 만일 북한이 이를 바라다면 우리는 분명히 검토할 것이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gookhan@hani.co.kr

대한매일

‘2003년 한반도 위기설’ 잠재울까

미·임동원 특사·방북 의미

지난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북한을 성공화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은 유럽처럼 한반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할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총괄특보가 이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왜 2003년인가 2003년은 북한과 미국이 지난 94년 북한의 핵개발 동결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과 경수로건설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 추속협상 지연 등으로 현재 경수로 완공 시기가 2008~2010년 사이로 늦춰진 상태다. 2003년은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5월 방북한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겠다.”고 한 시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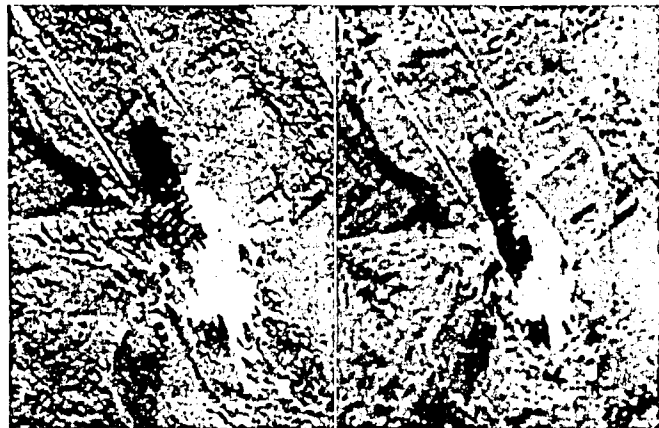
● 위기설이란 ‘2003년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특히 지난 1월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명한 이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경수로 핵심 부품이 인도되는 2005년 이전에 핵사찰이 이뤄지려면 당장 사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의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의 과거

美 압박에 北 ‘벼랑끝 대응’ 땐 파국우려 남북관계 진전 통해 긴장고조 막아야

핵(核무도움 수출량)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수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5월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기술이 발전했다면 이미 보유한 핵무도움량으로도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한다면 핵심부품 공급 중단으로 2003년에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사찰은 핵심부품 인도시기에 임박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고, 미사일 개발 포기요구는 주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그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한반도에 ‘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함북 최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대표동 미사일 발사대의 모습으로 미 스페이스 이메이징사가 2000년(왼쪽)과 99년에 각각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것이다.

러나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은 “북한이 어느 때보다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의 핵사찰 조지 이전, 미사일 개발 포기 요구에 맞서 북한이 제네바협정의 몇 미사일 개발유예 선언을 폐기할 경우 한반도 경제가 걸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게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의 요체다.

● 북한의 입장은 그밖에도 북한은 본격적인 대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이 “언제 어디서라도 전제조건없이 대화에 응하겠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문제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경제지원을 대가로 자신들을 무장해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체제붕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0년 조명숙(趙明淑)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을 면담한 뒤 발표한 북-미 각대관계 청신을 추진한다는 ‘공동 코뮈니케’가 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해 달라는 뜻이다.

서동민(徐東敏) 상지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협의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상 파기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003년 위기설’이 김정은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이어 “LA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임 특보의 방북이 북한으로서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경우기자 ansemlu@kcity.com

# “내년 한반도 위기 막으려면 북한이 뭔가 결정내려야”

## 아미티지 일문일답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아미티지 (Armitage·사진) 부장관은 27일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잇단 미·북간 뉴욕 접촉과 임동원 (林東源) 청와대 특보의 다음주 방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의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998년 자신이 주도해 작성된 ‘아미티지 보고서’에 담겨있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에 대한 나포와 공격 방안이 미국의 검토 사항 중 하나임을 부

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확인했다. 지난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해 인증을 유보한 부시 행정부가, 임 특보의 방북을 앞두고 거듭 대북 정책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미국은 한반도 전쟁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미국의 핵무기 보유 장소에 대해서는 NCND(공정도 부정도 않는)이다. 신중한 군사 계획은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동원(林東源) 특보의 평양 방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내 친구인 임 특보가 평양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아는데, 좋은 일이다.”

-4월 말쯤으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보고서 발표에서 북한을 계속 포함시킬 것인가?

“두고 보자. 우리는 그동안 그와 관련한 회의를 가져왔다.”

-미국 상원의 한 전문위원이 탈북자의 대탈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탈북자들을 맞이할) 여러 측면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탈북을 촉

구하는 것은 더 고려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변 이웃국들과 잘 지내는 국가를 원할 뿐이다. 북한은 우리가 자신들을

## “김정일 축출이 美목표 아냐 南北대화 재개결정 반가운 일”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김정일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북한의 현재 지도자이다. 다만 그는 마르크시즘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마르크스 독재’를 구축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

-내년에 한반도 위기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데...

“위기 발생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뿐, 예측할 수 없다. 위기를 막기 위해 한·미·일 3자가 열심히 한다해도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북한 역시 위기를 막기 위해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겠지만, 어리석게 행동하려 하지는 않는다. 우리 손을 붙잡아 매는 것(선택방안을 좁히는 것)은 좋지 않은 정책이다.” /워싱턴=朱廣中특파원

midway@chosun.com

# “北체제 아닌 태도변화 원해”

## • 아미티지 일문일답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사진)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미국이 갖고 있는 대북 탈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27일 낮 국무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9·11 테러 후 “다른 나라들은 정보 및 첩보 공유, 공조, 테러리스트 자금 차단, 병력지원, 영공 통과 허용, 의료지원 등을 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사시 북한에 핵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한·미 양국의 재래식 전력의 북한을 물리치는 데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력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핵대세검토(NPR)는 수년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신중한 군사적 계획일 뿐이다”

-백악관이 의회에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 확인을 거부한 이유는.

“북한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핵합의 이



“  
林특보 방북 성과기대  
남북대화가 최우선  
미사일수송 가로챌수도  
”

행을 확인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방북을 어떻게 보는지.

“나의 친구인 임특보가 평양을 가게 돼 기쁘다. 그가 이산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안다. 긍정

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의회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위해 외교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처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수많은 난민들이 한국이나 중국 또는 그밖의 나라로 쏟아져나오도록 부추기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필요가 있다. 의회는 이런 탁월한 제안들을 내놓을 수 있으나 행정부는 한국, 중국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4자회담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첫째가 서울과 평양간, 둘째가 남북한·미국 3자간의 문제다. 그 다음이 4자회담 등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서울과의 대화, 그리고 3자간 대화”

-북한은 미국이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미국은 평양의 체제변화를 기도하지 않고 있으며 위협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알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이 이웃 나라들과 잘 지내길 원할 뿐이다”

-미국은 미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할 뜻을 갖고 있는가.

“그는 북한의 지도자다. 그런데 그는 마르크시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마르크시스트 군주가 됐다. 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변화가 아니라 태도변화를 원한다. 평양정권은 국민들을 존중하고 먹여 살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지도자를 살해하거나 무고한 비행기를 폭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도널드 럽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수송을 가로챌겠다고 의회에서 증언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같은 입장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한국민들이 내년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데.

“나의 일이 한반도 위기를 막는 것이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워싱턴 / 이승철특파원

lsc@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2. 3. 29 (금)

아미티지 美 국무부 부장관 인터뷰  
“北체제 전복의사 없어  
林특보 방북 성과 기대”

워싱턴=손현덕 특파원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 체제를 전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북한이 저지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날 국무부 회의실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 일종의 대중령 외교안보등인목보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특상 특사가 지난 20일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다음주로 예정된 임 특보 방북에 대해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해 기쁘다”고 말하고 회담 결과에 대한 예상은 삼간 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할 뿐”이라며 남북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한-미 양국간 협의는 훌륭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 대해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이 적발되면 나포한 후 해당 장비 압류하고 귀환시키거나 격침시키는 방안을 모두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 자세를 일부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일동원 특사 방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임 특사는 내 친구다. 그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그가 가족상봉 등 남북한 화해·협력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재개한 것은 매우 값진 일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전에 상의가 있었나.  
▲“한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임 특사 방북에 대해 당사들이 놓았던 면도 높았다.”

-부시 대통령의 강경 외교정책에 대해 국무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대통령 생각과 일치한다. 국무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9·11 테러 후 북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테러 관련 정보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테러 조직을 제거하는 데 어떤 노력도 없었다.”

-북한이 압 카에다와 연계했다는 증거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체제에 대해 접근을 견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이 대화를 견제국면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것은 당신들 생각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양 체제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다. 위협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룹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국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체제(regime)가 아니라 행위(behavior)다.”

-최근 국방부가 작성한 태태서 보고서(NPRI)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이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당시 만들었던 것으로 새로운 게 없다.”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이 적발되면 나포하는 것은 미국 전략인가. 또 격침하는 것도 가정할 수 있는가.  
▲“나포한 후 해당 장비를 압류하고 귀환시키거나 격침시키는 방안은 모두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한국 정치상황은 어떤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다. 최근 한국은 정치 민주화에 큰 진전을 보였다. 한국 대선 후보를 모두 간 알고 있다. 미국은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 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개인적인 접근인데 부장관은 세계 각국 어린이들을 입양해 자식처럼 기르고 있다. 입양에 대해 남다른 철도이러는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입양을 권고한다. 이유가 있다. 첫째, 부인이 편하다. 둘째, 입양을 하면 부모들이 지식에 대해 이기적이지 않아서 좋다.”

“北 핵무기 저지 모든 수단 고려”

아미티지 부장관 일문일답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한 정책기조를 설명하면서 남북대화 재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 국방부가 최근 공개된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에 대한 핵무기 공격 검토를 제안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검토했던 것이다. 미국은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고 모든 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다.”

-백악관이 최근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등 북한의 핵 관련 합의 이행 여부를 입증하지 않기로 했는데 배경은.  
▲“북한측에 새 가지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는데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사일 수출 문제는



되고 있다.  
▲“큰 의욕이 없다. 북한이 4자회담을 원한다면 우리는 관심을 두겠지만 한반도 문제해결은 서울과 평양간 직접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공조가 중요하다. 4자회담은 그 후의 일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명하는데 이게 북미대화 재개의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미국은 평양장권의 교체를 시도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다. 미국은 단지 북한이 이웃과 사이좋게

북한정권 교체 시도 안해  
내년 한반도 위기 없을것

인증이 어려운 것이고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는 북한이 여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준수하고 있다고 입증할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장래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제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다. 미국의 대통령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요구했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등 임특보가 다음주 북한을 방문하는데.  
▲“임 특보가 평양으로 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해 반가우며 남북대화가 진전된다는 점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장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남북간 협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나.  
▲“(방표를 보고) 우리가 놓았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 친구들은 우리와 훌륭하게 협의해 왔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4자회담안은 검토

지나기를 바랄 뿐이다. 부시 대통령은 단지 북한이 행태를 바꿀 것을 원하고 있다.

-한국내 임특보에서는 내년에 한반도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가.  
▲“나는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를 방지하려면 북한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라크, 이란의 국민이 아니라 정권이 사악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들 3국은 역사적으로 테러를 선호해 왔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엄청난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60%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구나 반갑다.”

-다음달 발표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가.  
▲“도와 볼 일이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깊숙한 논의는 없었다.”

워싱턴=박완규특파원

## “남북대화 환영... 좋은소식 기대”

### □ 이미지 미국무부 장관 문답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 리처드 이미지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한국 특파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 정권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달리 정권 교체의 대상이 아니며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됐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만든 보고서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는 것 같다. 그러나 분쟁지역에서 어떠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려깊은 군사계획에는 모든 대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사일을 수출하는 북한의 선적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미지 보고서)은 그대로인가. 그러한 선적은 나포(intercept) 한 뒤 귀환시키거나 장비들을 수장시키고 선적을 격침시킨다(destruction)는 방안들은 모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합의 이행을 보증할 수 없다고 밝힌 배경은, 북한이 핵합의를 지



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한다고 말하기가 절실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의견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해 기쁘다. 예단할 수는 없으나 좋은 결과와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한국과는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특사파견을 물었다면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도 교체 대상인가.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꾸미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북한이 마르크스주의와는 상충되는 군주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정권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

○북-미 대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수출 문제로 동북아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 mip@kdaily.com

친서(親書)란 대개 국가원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서한을 일컫는다. 대통령 취임이나 국장(國葬) 등 경조사에 보내는 의례적인 서한도 있지만 양국간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직접 만나 논의하기 어려운 경우 전달한다.

지난해 5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조기 재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으나 유감스럽게도 효과가 없었다. 실무의 교에서 안풀린 현안이 친서외교로 쉽게 타결되기 어렵지만 성과를 거둘 때도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직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이 좋은 예다.

## 親書

클린턴의 친서는 김정일을 북한 최고 지도자로 인정했고, 이로써 북미관계는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 북한을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다. 다음달 초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앞두고 있으나 북미관계의 정상화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어려운 만큼 메가와티의 중재외교는 의미가 크다. 부시의 친서가 '악의 축' 발언 이후 악화된 북미관계를 원상복구시킬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다.

메가와티는 1965년 반동비동맹 정상회담 때 김일성 주석이 대동한 김정일과 만난 적이 있어 서로 친분이 두텁다. 당한 여성 정치인으로서 출도 잘추는 그의 섬세한 외교술이 한반도의 일음을 녹여주기를 기대한다.

/劉又根논설위원  
yoo52@sgt.co.kr

## “北·美관계 개선에도 영향줄것”

### □ '친서휴대' 임동원특사 문답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보는 2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3일 북한을 방문할 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사의 방북 목적은, 한반도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안보위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김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 최고당국자에게 전하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또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북-미 관계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다.

○김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가나, 또 친서의 내용은 뭔가.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게 된다. 친서의 내용은 미리 밝힐 수 없다. 대통령께서 현재 친서를 작성 중이다.

○일부에선 임 특사의 평양 방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민족문제는 정권적 차이나 정치적 목적과 구별돼야 한다. 김 대통령은 민족문제, 즉 대북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앞으로 민족의 장래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방북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가. 깜짝 놀란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으나 이벤트성 행사나 깜짝쇼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남북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할 수도 없다. 현재까지 합의된 것 가운데 실천하다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려고 한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를 것이다.

○특사파견의 가장 큰 의미는, 한반도 위기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게 특사파견의 중요한 목표이다.

© 오풍연기자 poongym@kdaily.com

탐색 끝내고 곳곳서 대화재개 청신호

# 봄바람 부는 北·美

• 美 '뉴욕접촉' 한국통보

남북-북·일 대화무드속  
'先사과 後대화'요구 철회  
北태도 눈에 띄게 바뀌어

북·미대화 재개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의 대북대화 재개 분위기는 지난 2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멘텀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한반도 및 북·미 관련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합의내용은 이후 한·미·일 3국을 통해 북한에 계속 전달됐고 북한이 이에 대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보의 4월 3일 방북, 일본은 2년동안 중단됐던 북·일 직십자회담 4월 중 재개라는 성과를 만들었고, 미국은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주시했다. 지난 13일 잭 프리처드 대북협상 대사와 박길연(朴吉淵) 주 유엔 대사간의 접촉은 그 대표적인 예다. 프리처드 대사의 제의로 이뤄진 첫 접촉에서 북한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선(先) 사과, 후(後) 대화재개'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감지된 것은 1주일만에 열린 20일 두번째 접촉이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박대사는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프리처드 대사의 대화재개 요구에 그는 "미국의 입장을 본국에 비중있게 보고하겠다. 답을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앞으로 우리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비방과 모함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사과' 주장을 완화한 것이다.

"답을 기다려달라"는 박대사의 발언은 그 후 1주일 사이에 북한으로부터 임특보 특사방북 수용 및 북·일 직십자회담 재개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대화재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됐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간에 접촉이 잦아지고 대미 비난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은 북·미대화 재개의 청신호"라며 "현재 북·미간에는 양측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상호 모색이 마무



임동원 대통령 특보가 28일 청와대에서 방북과 관련한 설명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들어선 모습이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리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커트 웬던 공화당 하원의원의 방북 추진은 북·미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5월 방북 및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웬던 의원의 방북 재추진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재개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공화당 메카 의원인 웬던은 미 정부와 충분한 교감이 가능한 사실상의 '대북특사'라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당초 북한은 대미정책 검토 끝에 이미 지난해 9월 미국과의 대화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이 터지면서 북한은 기회를 놓쳤고, 지난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상황은 오히려 급속도로 악화됐다.

차세현기자 csh@kyunghyang.com



# 남한·美·日과의 관계 급물살 예고

## 北 활발한 동시다발 접촉

북한이 최근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인특보의 대통령 특사 자격 방북에 합의한 데 이어 일본·미국과도 동시다발적인 접촉과 회담을 재개할 태세여서 남북·북·미·북·일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박길연(朴吉淵)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와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 교섭담당 대사가 지난 13일에 이어 지난 21일 뉴욕에서 다시 만나 북·미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피폭자 지원협의를 위해 일본과 한 각료급 비공식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회담에는 북한 김수학(金秀學) 보건상과 일본 사카구치 지카

라(坂口力) 후생노동상이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일은 이른바 '일본인 행방불명자(일본측 남북 주장)' 조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재개기로 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 움직임이 당장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남한 및 일본과의 대화 타자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남북관계 및 북·일 관계를 우선 개선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긴장 조성 국면에서 벗어나자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세종연구소 이종식(李鍾奭)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으면 하반기에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교착상태가 굳어질 수 있다."면서 "남한 차기 정권의 성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정체는 곧 북한의 국제적 고립, 미국이 주도하고 있

는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일본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의한 한반도 긴장 조성이 가혹이나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선 듯하다."면서 "북한의 활발한 대외접촉은 대남·대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위기국면 돌파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임 특사의 평양행이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경의선 연결 등 우리측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과를 올릴 것이란 보장이 없고 북·일 적십자 회담 역시 지난 10여년간 계속된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 과거사 청산 및 보상문제 등을 해결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어서 설부른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전영우기자

## 문화일보

2002. 3. 29 (금)

# 美압박 '진의 파악' 위한 응수

## 식량난 악화 '버티기' 한계... 13일 고위접촉서 타진

### 北, 대화재개 움직임 배경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이어 대화의 문을 연데 이어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화 움직임 재개되기 까지=북한은 지난해 6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미대화재개를 지시한 후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체제와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에 적대적이라는 대화 제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에 응할 수 없으며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클린턴 정권 말기에 보였던 적대적 관계 청산 의지 표명 수준까지는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부시정권은

유인책은 없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특유의 압박외교를 해왔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합의 이행 보증 유예까지 톱을 놓여왔다. 결국 식량, 전력사정이 어렵고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북한 측이 먼저 문을 열었다. 악의 축을 설정하고 북측을 죄는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야 하는 등 대화에 나서야 할 북한 측의 사정이 더 절박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다시말해 워싱턴의 의중을 타진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북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변했나=지난 13일 고위접촉이 있고난 후에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유용했다"고 평했다. 북한이 ▲일방적 ▲전제조건

적 ▲적대적 대화재개 철회라는 요구를 재반박하지 않고 평양의 훈령을 기다려 보겠다고 한 점이 새로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이 요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화가 재개되기 위한 예비회담에서 북측은 이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

미국측도 변한 것은 없다. 27일 북한 미사일 수출시 선박 격침이 선택수단중의 하나라고 한 것 등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자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체제를 위협하거나 체제자체를 변화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치를 펼치는 등 행동을 바꾸라고 한 것이다"는 말은 새겨볼직하다. 북한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답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정황들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보게 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열릴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임동원특사방북, 북·일접촉등의 결과를 보아가면 미국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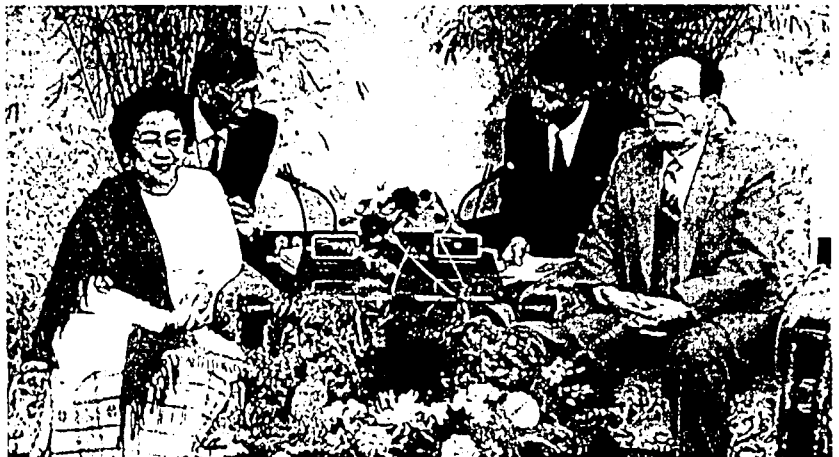
/워싱턴=민병두특파원 woomin@munhwa.co.kr

# 한반도 대화재개 급류 탈듯

## 林특사 방북... 주변국 관계 전망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간의 외교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채국정책을 고수해왔던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교무대에 나서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가장 진전을 보이는 대목은 북한과 일본의 대화재개 움직임이다. 양국은 일본인 실종자문제 논의를 위한 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3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원폭피해자 지원문제를 놓고 각료급 회담을 갖기로 했다. 양국간 정부차원의 대화는 2000년 10월 이후 15개월만이다. 지난해 일본 수사당국의 총련계 조간신문조합에 대한 수사적수와 중국 영해에서 침몰한 피선박 사건때의 초기장국면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다.



김영남 만난 메가와티  
북한을 방문 중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평양 민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상호 관심사 등을 논의하고 있다. 평양=AP특

## 北 화해행보에 美·日도 적극 화답 달아오른 외교戰 긴장완화 ‘파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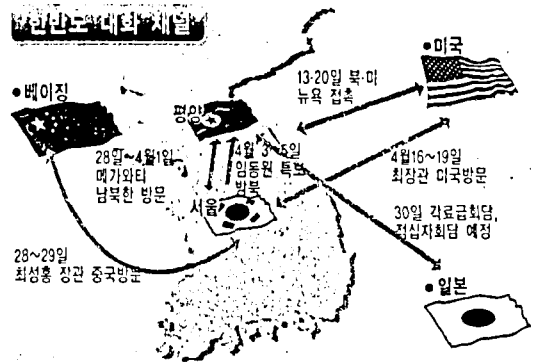
한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인 북·미간의 화해국면도 가시화되고 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와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지난 13일에 이어 20일에도 접촉을 갖고 대화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한반도 화해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핵사찰 등을 놓고 양국간에 벌어진 치열한 실전과 비교하면 이미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들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활동도 만 그대로 총력을 발휘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우선 28일 방북한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 정부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최성훈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중국 주몽지 총리와 당사주엔 외교부장을 잇달아 만나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장관은 다음달 16일 미국을 방

문해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여기에 덧붙여 임특보 방북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간 대화재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특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에 남북대화 필요성은 물론 대화재개를 위한 미국측 의중도 담아 간 것이기에 방북결과에 따라 한반도 대화 분위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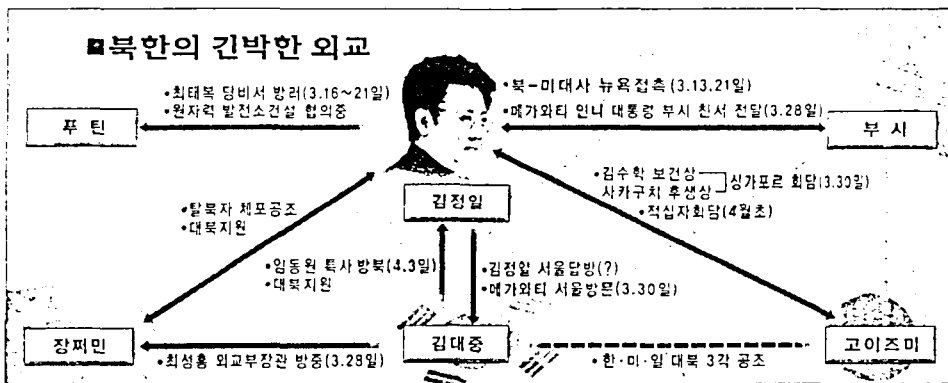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자들이 활발한 외교를 펼치는 이면에는 북한의 적극적인 화해 기조가 한몫 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맞서 채국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북한 체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협이 거세질 것이라는 북한 지도



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월15일)을 기념하는 아리랑 축전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남한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4월부터의 출공기에 서방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 北 '실리외교'로 U턴

## 주변 강국과 대화모색

## 은둔서 탈피...美-日과도 접촉 적극추진 핵공격 美압박 벗어나기 지름길 판단 식량지원 - 日 전정보상금등 실익 많아

북한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 방북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실리외교에 착수했다.

이날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2개월 동안 은둔해 온 북한이 '특사방북 수용'을 전후로 외교적 실익에 대한 내부입장 조율을 끝냈다는 반증이다.

남북-북미-북일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핵공격 위협을 앞세운 미

국의 대북압박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간파했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무대로 나온 경우 한국의 대규모 대북지원과 미국의 각종 수출규제 해제, 일본의 100억달러 전정보상금 등 상당한 실익을 챙기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면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미접촉은 지난 13일과 21일 박길연(朴吉淵)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대사와 잭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간 뉴욕채널 가동부터 시작됐다. 양측간 교감 끝에 급기야 리처드 아이티지 미

“北-美 핵사찰 마찰팬 한반도 8월 위기”

정세현통일장관 발언 파문

욱 위기설 첫 공식거론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29일 “미국에서는 올 8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핵사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북한은 2005년부터 사찰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국제적 쟁점이 되면 서 한반도 위기가 8월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총괄특보가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을 언급한 바 있으나 금년 위기설을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정장관은 자유총연맹 주최 조찬강연에서 “그동안 북측의 중간급 이하 실무진에 이 같은 이야기를 했으나 최

고위층까지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다” 임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간 핵사찰을 둘러싼 마찰에 대해 “올 8월 IAEA의 대북 핵사찰 얘기는 미국 내 민간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주장이며 북한의 2005년 사찰 개시 입장도 주요 부품 인도일경 등을 감안한 추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또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 9·11테러 이후 변한 국제질서에 북한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대외관계와 체제 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충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특사는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대사와 조찬회동을 갖고

방북 때 북한에 전달할 미국측 메시지를 청취했다. 허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핵 및 미사일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만큼 조속히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을 방문 중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오후 김정일 위원장을 예방, 북한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30일 오전 우리 나라를 방문, 김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김위원장 연담 결과 등을 설명한다.  
김의구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北, 핵 무기·물질  
지하병커에 은폐”  
美 인터넷신문 보도

북한은 지하 병커에 핵무기 및 핵분열 물질들을 계속 은폐하고 있다고 국제문제 전문 미국 인터넷 신문인 월드트리뷴(WorldTribune.com)이 미관료들의 말을 인용,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미확인가량의 핵분열물질뿐 아니라 최소 3개의 핵폭탄을 보유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부시 정부가 입수했다면서 이 물질이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영역 밖인 지하 병커에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

한국일보  
2002. 3. 29 (금)

지평선

특사와 밀사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총괄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간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그는 남한의 공개된 첫 대북 특사다. 특사(Special Envoy)는 최고 통치권자가 통치권 차원에서 특수 목적을 위해 보내는 사람로 밀사(Emissary)와 달리 투명성을 우선한다. 밀사는 비밀리에 보내는 사자로 무언가 음험한 냄새가 나지만 특사는 미리 알리고 보내기 때문에 당당함이 피부에 와 닿는다.

남북간에는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은 사절이 오갔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자 김일성이 박정희 장군의 형 친구인 황태성을 보내 대화할 시도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황씨는 미국의 정보망에 걸렸고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했지만 일종의 밀사였다. 이후에도 남북간에는 밀사가 제법 많았다. 이후라씨가 72년 몰래 김일성을 만나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했고 전두환 대통령 때의 장세동 안기부장, 노태우 대통령 때의 박철언 대통령 정책보좌관과 서동권 안기부장 등도 나중에 형적이 드러난 대북 밀사였다.

밀사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는 많다. 최근의 가장 성공한 밀사는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길을 열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였을 것이다. 닉슨의 안보담당보좌관이었던 키신저는 중국에 잠정대미·중국 화해를 디자인,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 놓았다. 닉슨과 키신저를 합성한 ‘닉신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닉신저는 대탕트(김정완화)라는 새 국제질서를 탄생시켰다.



■ 남북의 공인된 최초의 특사는 아이로 니컬하게도 북한의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다. 2000년 9월 추석 때 송이버섯을 가지고 서울에 온 그는 김정일 특사 자격으로 남북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남북 양측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발표했다. 절차의 투명성은 확보된 셈이다. 문제는 내용의 투명성이다. 특사는 밀사와 달리, 미리 예고하고 가기 때문에 모든 게 투명해야 한다. 임 특사의 성공 여부도 투명성 확보에 달려 있다.

/이병규 논설위원  
veroica@hk.co.kr

# 北 “美와 기본합의 지키겠다”

## 조선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29일 북미 기본합의문을 통한 미국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결심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시사논단을 통해 “북미 기본합의서에 따라 시험 원자로를 동결해 입고 있는 북한의 전력손실은 막대하다”며 “그러나 우

리는 지금까지 미국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의를 지켜서 그대로 했고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할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어 북미간에 현재의 적대분위기를 해소하고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려면 상대국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있지도 않은 대북 위협설을 유포시키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

에 방해무익하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 한국일보

2002. 3. 30 (토)

### “韓美연합방위체제는

우리의 절대적 생존조건”

金대통령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생존조건이라는 것을 눈치 보지 말고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내 일각에서 일고있는 반미(反美) 정서와 관련, “우리 국민 중에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든가 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남북 간에 합의된 일 중에서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남북문제를 절대로 정치에 이용하거나 정치에 관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철희기자 klmi@donga.com

### 東亞日報

2002. 3. 30 (토)

### 대한매일

2002. 3. 30 (토)

## “北·美 대화 재개 조짐”

金대통령 언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현재 단연할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도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돌아간 뒤 이것이 상당히 진전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북·미 관계를 내다봤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난 13일과 20일 적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 교섭 대사와 북한 박길연(朴吉謙) 뉴욕대표부 대사간에 이뤄진 뉴욕 대화에서 분위기가 진전된 게 사실”이라면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일본과 북한도 지금 대화의 길이 터져가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는 특사가 4월3일 간다.”면서 “이것으로 볼 때 북한이 지금까지(대화) 거부태도로부터 대화의 태도로 바뀐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대화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이날 김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부 업무계획’에서 “한국과 미국은 미래 군사관계를 비롯, 주한 미군의 장기적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군복무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05년까지 육군 특기병 모집 비율을 현행 14%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봉연 김경윤기자

poongywn@kdaily.com

## 매일경제

2002. 3. 30 (토)

## “남북문제 정치이용 안해”

金대통령

최기영 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하거나 정치에 관련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으로서 남북 문제에 있어 새로운 무엇을 할 생각은 없으며 지금까지 남북간에 합의됐던 일 가운데서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

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군부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과 관련해 “주민들과 관련된 일에서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군부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군에 있어 가장 해로운 것은 군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정부 들어 비로소 군은 완전히 정치로부터 중립이 확립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北, 美에 “곧 대화” 통보

## 최고지도자·체제 비난 자제 요청도

지난 20일 뉴욕 대사급 접촉서 밝혀  
이르면 내달 核·미사일협상 가능성  
韓·美·日 내달 도쿄서 對北정책 협의

朝鮮日報

2002. 3. 30 (토)

북한이 미·북(美北) 대화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과의 대사급 접촉에서 “미·북 대화에 응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미 국무부의 재 프리치드 대북협상대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 간의 이날 접촉에서 북한 박 대사는 또 “미국과 대화를 하려는데 우리의 최고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협상하려는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측의 대북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3일 뉴욕에서 열린 프리치드와 박 대사 간의 접촉에서 미측은 대화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고, 북측 요청으로 1주일 만에 다시 열린 20일 접촉 때 북한은 사실상 미·북 대화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5일로 예정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보의 방북이 끝나고, 이르면 4월 중순쯤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프리치드 대사와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미·북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북 대화는 작년 1월 부시 미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상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도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 자세에서 대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는 최근의 북한 움직임을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방향 선회로 간주하고, 대북 대화 전략 및 공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미·일 3국은 다음달 8-9일 도쿄(東京)에서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북 대화 전략에 대해 협의한다.

한·미 정부는 이번 TCOG 회의와 17일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응해올 경우 미·북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협상안을 담은 ‘로드맵(roadmap)’을 집중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기자 baibai@chosun.com

/朴斗植기자 dspar@chosun.com

## “8월 한반도 위기 올수도”

丁통일 “美서 北 核시찰 추진... 마찰 우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 핵시찰 문제가 8월부터 복잡해질 수도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한반도 위기를 예방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자유센터에서 열린 ‘자유포럼’ 조찬강연회에서 “미국에서는 올해 8월부터 핵시찰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은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인) 2005년부터 (사찰을) 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국제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금강산 관광대가 군사 전용(轉用) 의혹과 관련, “미 의회보고서는 항간에 떠도는 설을 종합한 것으로, 주한미군도 (전용 의혹을) 공식 부인한 적이 있다”며 “최근 북한 공장설비 등에 수입이 느는 것으로 보면 경제개발에 관광대가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仁기기자 ginko@chosun.com

## “북-미대화 재개 뜻 전달 요청”

주한미대사, 임특사와 만나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방북할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보는 29일 오전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와 조찬회동을 하면서 방북과 관련해 미국측의 의견을 들었다.

허바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북-미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북-미 대화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미국의 뜻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 당국자는 “(두 사람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등 북-미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방북해 북한을 잘 설득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의견차가 국제적 쟁점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훈 이재춘 기자 hoonie@hani.co.kr

한겨레

2002. 3. 30 (토)

# 南·北방문 메가와티 '가교'역할 주목

## 어제 김정일과 회담... 오늘 金대통령 만나

2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9일 김정일(金正日)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김 총비서가 메가와티 대통령을 접견, 그의 방북을 열렬히 환영했다"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보도매체들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메가와티 대통령이 남북문제와 관련해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왔고 30일 방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돼 있

기 때문에, 남북 및 미·북대화 문제가 주된 논의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이에 앞서 평양에 도착한 28일에는 만수대의사당으로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 잠시 환담을 가진 데 이어 김영남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최고의 훈장인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고 북한 방송들이 보도했다.

메가와티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은 양국 외무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갖고,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문제와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상정된 문제에 대해 의견 일치점을 보았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이날 김영남 위원장의 안내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데 이어 저녁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연회 연설에서, "최근 아태지역에서의 안정과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한반도의 사태발전을 주시한다"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성과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金仁기기자 ginko@chosun.com

## 丁통일장관 "한반도 8월위기" 거론

## 한국경제

2002. 3. 30 (토)

### 정부 고위당국자론 처음

장세현 통일부 장관(사진)은 29일 "미국에서는 올 8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핵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북한은 2005년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국제적 정점이 되면 8월부터 한반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8월 위기설'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자유총연맹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임동원 대북특사의 방북때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대미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사 파견은 소강국면에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 최고위당국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특사 방북 이후 남북 관계 진전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어 식량 등 대북 지원과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장"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 사항은 북한의 요청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경향신문

2002. 3. 30 (토)

# "北, 美와 대화재개로 선회한듯"

## 金대통령... 'F15機 내정' 反美확산 우려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도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남북간의 대화도 (이런 방향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 자세에서 대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과 관련,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으로서

남북문제에 있어 새로운 무엇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지금까지 남북간에 합의됐던 일 가운데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문제를 절대로 정치에 이용하거나, 관여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지금 세계는 미국 유일 강국의 시대이며 북한도 변화된 상황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F15K 전투기 구입 등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가운데 미군이 침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생존조건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미군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일본 기준을 봐가면서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켜야 한다"면서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근기자 harubang@kyunghyang.com

# 對北메시지 4強조율 '분주'

## 정부의 임특사 訪北 준비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을 앞두고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의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지난 13일과 20일 잇따라 열린 북·미 뉴욕 특급 및 북·일 직접자회담 재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상황이라

고 보고, '특사 파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합동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임 특보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와 조찬 회동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사람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등 북·미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나누고 임 특사의 방북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한·미 양국의 대북 메시지들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일본과도 외교경로를 통해 임 특보 방북시 전달할 일본측 메시지의 조율에도 착수했다. 일본측은 우리 정부에 대해 '남지의혹' 문제 등

북·일 현안에 상의있게 나서도록 실효를 높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중국을 방문한 최성훈(崔成勳) 외교장관은唐家璇(唐家璇) 외교부장과 의 한·중 외무회담에서 임 특보 방북의 배경을 설명하고 북·미 및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아울러 김형경(金恒經) 외교차

관을 오는 31일 러시아에 파견, 안드레 로슈코프 외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임 특보 방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 특보의 방북이 끝난 뒤인 내달 8일 도쿄(東京)에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고 임 특보의 방북 결과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16일부터 최성훈 외교장관을 미국에 파견, 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김정일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특사 파견 이후의 대북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 한국일보

2002. 3. 30 (토)

# '北과 대화' 불지피기 韓美공조

## ■ 양국 정책조율 활발

북한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 수락을 전후로 대미, 대일 대화재개 신호를 보냄에 따라 그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대결상황을 대화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한·미 양국의 정책 조율이 밀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임 특보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의 조찬회동은 이러한 막바지 조율 작업이고, 대북 논의의 우선 순위를 확정하는 자리였다.

한미 양국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심스런 낙관'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대화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실무진은 "북미대화 재개를 성공히 기대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진단했다.

당국자들은 북미가 대화 필요성

## 林특보, 허바드대사 만나 對北현안 논의 訪北때 WMD문제 등 美입장 전달할듯

에 공감하고, 향후 접촉을 유지키로 한 20일 뉴욕 접촉을 전전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자신들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사안인 일본인 실종자 문제를 논의할 대화 창구를 개방한 대목도 현 상황을 한걸부드럽게 했다. 이에 발맞춰 미측은 28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대북대화 제스처를 보냈다.

29일 임 특보와 허바드 대사간의 대북정책 조율 내용은 급류를 타는 현 대화 분위기를 전면 확대하고, 대화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당국자는

"이날 회동은 동맹국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히, 모든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관측통들은 임 특보가 북한 유일의 정책결정권자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직접 상대하면서 벌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 다른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북한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채 대화의지를 천명한 부시 미 대통령의 서울 발언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은 특사방북 성패를 가를 시금석이 될 듯하다.

한미양국은 대화 재개 지체 못지

않게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폭발성을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 위기론의 전원지인 북한 핵 사찰, 미사일 수출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는 북미대화의 지속을 보장할 수 없는 한편이다. 경수로 주요부품이 예정대로 북한 경수로 부지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영변 핵시설 사찰이 개시돼야 하고, 북측의 미사일 수출도 당장 중지돼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측의 포괄적 협상에 대한 북측의 구성도 함께 자연스럽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미 양국은 특사 방북 후 '남북대화 진전, 북미대화 정체'라는 엇갈리는 국면이 조성될 경우의 대처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北, 대화재개 나섰다

## 최근 對美 물밑접촉 분주

침예한 대립상태였던 북한과 미국 관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박길연(朴吉淵)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행사와 '핵' 관련치러기 남북협상 담당대사의 두차례 만남은 이같은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박 대사는 20일

입동원(林東源) 대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특사방북 수용과 북일직접자회담 재개 등 최근 일련의 북한 반응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특히 '악의 축' 발언과 핵태세보고서(NPR) 공개, 제네바



金正日和 메가와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29일 방북중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기에 앞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AP연합

## 韓-美관계자들 조심스런 낙관론 남북간 대화도 분위기 조성될듯

만남에서 미국측의 대화재개 제의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 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대화재개와 관련, "조심스럽지만 낙관한다"는 견해를 우리측에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이행여부 인증 거부 등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잇따른 공세에 북한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 자세에서 대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며 "남북간 대화도 (이런 방향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측이 임특보의 방북과 관련, '민족앞에 놓인 중차대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도 내년에 미사일발사 유예기간 만료와 핵사찰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리측 시각에 공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북미간에 유

일하게 알려있는 뉴욕채널은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 입장을 탐색하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북미대화 분위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얘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의 너무 성급하게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 임 특보의 방북후야 북미대화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기자 july1st@sgt.co.kr

# 北, 식량난·美 압박에 '위기' 느낀듯

## 韓·美·日에 잇따른 대화제의 배경

북한은 정말 한·미·일(韓美日)과의 대화에 나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이후,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부시 정부와는 상종도 않겠다"는 식의 대미(對美) 비난에 열을 올리던 북한이 최근 잇달아 한·미·일 3국에 대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의 대화 움직임

북한의 대화 의지가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열린 미·북 대사급 접촉에서다. 미·북 뉴욕 접촉은 지난 94년 이후 정례화된 외교 채널이지만, 북한은 지난 1월 말 이후 이 채널을 가동하는 데도 거부감을 표시했었다.

다. 22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일·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고, 24일에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에 합의한 것이다.

### ◆북한이 태도를 바꾼 배경은

한·미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

에 호응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다른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돕느라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진 게 큰 이유다. '아리랑 축전'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대화 분위기 조성이 시급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태도 변화의 이유 중 하나로, 부시 정부의 '대북 압박 전략'이 먹혀들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강도높은 압박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사면초가의 위기감을 느끼게 했고,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북한의 단기적·전술적 변화인지, 아니면 현안인 핵·미사일 문제까지 풀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인지를 점치기 힘들다는 데 있다.

### ◆한·미의 대북 대화 전략

한·미는 모처럼 복구된 대북 대화의 동력(動力)을 살려, '2003년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 정부는 미·북 대화가 본격 시작되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미·북 관계정상화 및 대북 지원책 등을 담은 포괄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복원,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한 간 현안을 풀기 위한 각종 방안을 준비 중이다.

/朴斗植기자 dsparck@chosun.com

한반도 관계일지

일자	내용
3월 13일	미·북(박길연·프리츠) 뉴욕접촉 (1차)
20일	미·북(박길연·프리츠) 뉴욕접촉 (2차)
22일	北, '북 인적십자회담 재개' 제의
24일	남·북, 임동원 특사 방북 합의
29일~4월 1일	메기외티 방문 대통령 북한·남한 방문
3일~5일	임동원 특사 방북, 김영일 면담
4월 초(?)	북·일 각료(보건장관) 회담 전망
4월 초(?)	북·일 적십자회담 예정
4월 중(?)	미·북 고위급회담 전망

## 對北 식량지원 한국과 미국만 동참... 韓·美 '내년 한반도 위기' 방지 중점

13일 북측에 접촉을 제한한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협상대사는 이 자리에서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에게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의 만남이 20일 북측 요청으로 열렸다. 박 대사는 미·북 대화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또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뉴욕 접촉을 시작으로, 한·일 정부와의 대화에도 나섰

고 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정황을 들며 여러 가지 추론을 펴고 있다. 가장 자주 회자되는 것은 역시 북한의 경제난이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로 감정이 격앙돼 일시적으로 대화를 거부했지만, 식량난과 외화 부족 앞에서 결국은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등이 급격히 감소한 데서 커다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현재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

# “김정일, 南北 조속대화 희망”

訪韓 메가와티 印尼대통령 밝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른 시일 내에 대화가 속개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평양에 이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의 건강(健康)과 이 같은 뜻을 김 대통령과 3일 대통령 특사로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에게 전해달라면서, “김 대통령을 뵈 이후에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

이 있다”고 말했다고, 메가와티 대통령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메가와티 대통령에게 “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과 사색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국자들은 말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메시지를 일단 남북대화 재개 의지로 해석, 3일 임동원 특사의 방북시 북측과 논의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방안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미·북대화 재개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2박3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1일 이한(離韓)한다.

/金民培기자 baibai@chosun.com

朝鮮日報

2002. 4. 1 (월)

# ● 東亞日報

2002. 4. 1 (월)

# “金正日, 남북대화 재개 희망”

메가와티 印尼대통령, 金대통령에 전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당국) 간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8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전했다. ▶A5면에 관련기사

메가와티 대통령은 30일 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한다’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김 위원장과 회담(29일)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남북) 대화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임성준(任晟準)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이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미 대화에 관한 김 위원장과 북한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도 만나 남북문제와 양국간 우호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철희기자 klim@donga.com

정연욱기자 jyw1@donga.com

# 경향신문

2002. 4. 1 (월)

# “金위원장 남북대화 희망”

방한 메가와티...김대통령과 재회 피력도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 관련기사 5면

메가와티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북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한다’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8~30일 방북 후 한국을 찾은

메가와티 대통령은 또 “김위원장은 김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남측의 특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방북하기로 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임성준(任晟準)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위원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을 뵈 이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메가와티 대통령이 회담에서 김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또 ‘김위원장이

남북문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임수석은 그러나 “김위원장의 남북대화 언급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대통령 특사의 방북도 상당 수준의 대화이므로 이를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만 말한 것으로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대한 북측 반응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메가와티 대통령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남북관계에 조속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햇볕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1일 이한한다.

이중근기자 haubang@kyunghyang.com

# “김정일위원장 남북대화 희망”

한겨레

2002. 4. 1 (월)

## 메가와티, 김대통령과 회담서 밝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남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평양에 이어 한국한 공식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8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단독회담을 한 뒤 방한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30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한다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받는데 대해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김 위원장의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지만, 우리쪽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김 대통령의 안부를 물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또다른 당국자는 31일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을 (지난 2000년 6월) 만난 뒤에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을 메가와티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과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언급을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연관지어 해석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메가와티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우리 특사의 방북 준비에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기자 yskim@hani.co.kr

한국일보 2002. 4. 1 (월)

# “김정일, 金대통령 재회 희망”

訪韓 메가와티 “北, 조속대화의지 밝혀”

林특사 방북때 이달 이산상봉 등 추진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 때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연결공사의 4월 중 재개, 금강산 육로관광과 특구 지정 문제의 조속한 매듭 등 구체적인 재의를 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임 특사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예방을 위한 큰 틀의 논의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김

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 남북대화 의지를 밝혀온에 따라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 메가와티 대통령은 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김 대통령을 다시 만나

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방한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대화 메시지를 전하자 사의를 표했으며 김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이 전한 북측의 대화지세를 토대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장관급 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 군사실무접촉을 임 특사 방북 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자 제의할 예정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2면에 계속됩니다

## 중앙일보

2002. 4. 1 (월)

# “김정일위원장, 南北대화 희망”

## 메가와티 印尼대통령 金대통령에게 전해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남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김위원장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한다’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김위원장이 ‘북한으로서도 남북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임성준(任晟準)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또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위원장은 金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남측의 특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방북할 예정이라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左)이 31일 오후 평문점을 방문해 유엔사 관계자에게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겨레]

정부는 또 북측이 남측 고위급 인사의 아리랑 축전 관람 및 남측 관광객의 아리랑 관람을 제의할 경우 북측 고위급 인사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 월드컵과의 연계관광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임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큰 틀의 대화를 하겠지만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의 위원장 등 실무진과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 이행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일, 김대통령 재회 희망”

## 메가와티 “허심탄회한 대화 피력”

###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서 전달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메가와티 푸트리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2000년 6월) 뵈 이후에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이나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메가와티 대통령이 지난 30일 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이 당국자는 그러나 김 위원장의 언급이 서울담방 또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피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 언급이 메가와티 대통령의 해석인지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얘기인지는 불명확하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메가와티 대통령을 통해 김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의 말을 전했고, 자신도 건안(健安)답을 김 대통령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과 메가와티 대통령간 회담은 통역의 배석없이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한다.’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으로서도 남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

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남북간 허심탄회한 대화’ 언급을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질문에 임성준(任成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 특사의 방북도 상당 수준의 대화이므로 이를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만 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메가와티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에 사의를 표하고 “남북관계에 조속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햇볕정책을 의연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31일 오전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남북분단의 현장을 방문지를 둘러봤다. 1일 오전 서울공항공을 통해 이한한다.

●오통연기자

poonyrn@kdaily.com

# 訪北때 ‘核위기’ 제거 논의

林특보

## 金正日 “조속한 대화 원한다” 메시지

### 美 ‘核태세’ 교섭의제로 - 北대응 주목 金대통령-메가와티 회담 - 訪北결과 설명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남북대화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 남북 대화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로 오는 31일 방북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실장특보가 한반도 핵위기 제거방안에 대해 북한 당국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김 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임 특사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담방문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와 만나 최근 미국 언

론에 공개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포함, 한반도 핵위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어서 북한 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임 특사는 방북에서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금강산 육로관광 및 군사적 긴장완화, 월드컵축구대회때 고위인사 방남(訪南)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겠지만 NPR에서 나타난 미국측의 진의와 향후 정통전망 및 핵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북한측의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임 특사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9·11테러 이후 완전히 달라진 미국의 안보개념과 핵정책을 설명하면서 핵위기를 풀기 위한 북미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임 특사는 이미 의견이 접근된 사안 외에 높은 차원의 현안 문제 논의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해 핵위기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남북이 조속한 시일내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북한에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서울 담방을 촉구하고 남쪽의 특사가 방북할 것이라는 점을 전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이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에 매우 우호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승욱기자 jswook@sgt.co.kr

### 美 “北과 대화준비” 백악관대변인 성명

고든 존드로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남북 대화재개 움직임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추가적인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성명을 발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원규특파원 wgpark@sgt.co.kr

# “특사오면 南생각 들어보겠다”

## 김정일 무슨 메시지 전했을까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평양 방문 후 지난달 30일 방한해 김 대통령과 회담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김 대통령에게 소상히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일부 정부 당국자들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

이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풍역만을 배석시킨 채 1시간 가까이 단독 회동을 한 메가와티 대통령에게 전한 메시지가 이것 뿐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가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의 과거 연행 스타일로 볼 때 그의 대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직설적인 언급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요지가 우리 정부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유화제 스키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일단 대화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지만, 관망상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의 3일 방북시 ‘한반도 긴장’(북측은 ‘민족 앞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한 김 대통령과 미국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판단을 내리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임 특보가 평양에 가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변수는 있지만, 임 특보의 평양행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예상이다. 정부는 이런 전망과 기대 아래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재개와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金仁杓기자 ginko@chosun.com

## ‘남북관계 교착은 美때문’ 취지 발언 위기탈출용 일시 유화제스처 일수도

다. 김 위원장이 “남쪽과 허심탄화한 대화를 하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대화가 속개되기를 희망한다”, “김 대통령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는 정도이다.

물론 이 정도의 발언만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북측의 제의로 열린 뉴욕 미·북 접촉과 22일 북측의 북·일 직심화회담 재개 제의, 21일의 남측 특사 방북 수락 등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대화재개 움직임이 바로 김 위원장 자신의 결심사항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미국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남쪽의 특사가 오기로 돼 있으니, 특사들 통해 김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궁급해 하는 ‘외 대화에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화국면’으로 완전히 입장을 나눈 것인지, 아니면 부시 행정부의

## “金대통령 계속 뵙고자하는 마음”

### 김정일 발언 의미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31일 전했다.

### 정부 “답방시사로 보긴 일러”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의 임기내 서울답방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일까, 아니면 답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 것일까?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신중함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한 얘기를 일단은 서울답방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김 대통령에 대한 보다 친

밀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사(修辭)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메가와티 대통령에게 “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이나 사색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김 대통령을 매우 존경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만약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천기(天機)에 가까운 내용인데 ‘제3자적 외교정상’인 메가와티 대통령에게 먼저 꺼낼 리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 “3者に 먼저 말할리없어”

정부는 3일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김 위원장의 육성(肉聲)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인 만큼, 그때 진의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金民培기자 baibai@chosun.com

## 朝鮮日報

2002. 4. 1 (월)

## 매일경제

2002. 4. 1 (월)

## “김정일 南北 조속대화 희망”

### 메가와티, 金대통령과 회담때 전달

#### 최기영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간에 ‘허심탄화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 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한다’는 한국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김 위원장이 사의(辭意)를 표하고 ‘북한도 남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허심탄화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에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남측 특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방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남북간 허심탄화한 대화’ 언급을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임 수석은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 특사의 방북도 상당 수준의 대화이므로 이를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만 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김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이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에 매우 우호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메가와티 대통령이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이나 메가와티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 중 북미대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 “김대통령 뵙고자하는 마음...”

■ 메가와티 '북 메시지' 의미

청와대관계자 “서울답방 해석 곤란”

북한 방문을 마치고 병한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한 북한쪽의 분위기는 일단 남북관계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30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조속한 남북대화 희망'이라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과 단독회담을 열어 남북한의 현안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했으며, 김 대통령의 메시지도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한다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북쪽에 전달됐다"고 확인했다. 임 수석은 "김 위원장이 메가와티 대통령에게 '우리도 대화를 희망한다. 곧 특사가 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반응을 보면, 그가 '특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남한 정부로서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3일 방북길에 나서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실장 특보가 이번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준의 대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메가와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북안을 어느 정도 내비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메가와티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북쪽의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병한중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1일 오후 유엔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관문점을 둘러보고 있다.

이런 언급을 놓고 한쪽에서는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의 임기내 서울답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나는 성급한 해석도 나왔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신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서울답방 의사'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이 메가와티 대통령에게 "김 대통령의 여러가지 말씀이나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표현 곳곳에서 김 위원장의 강한 대화의지를 느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김홍성 기자 yskim@hani.co.kr

## 南北관계 '황사' 걷힐까

北, 대화 긍정반응 불구 실제행동 여부 주목

### 메가와티가 전한 평양기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의외교안보실장 특보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측의 이같은 태도변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金正日 "DJ 뵙고싶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한 평양측 기류=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 직후 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과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2003년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음을 북한

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음을 김 대통령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김 대통령을 뵈기 이후에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특사의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것 같다는 게 정부당국자들의 풀이이다.

### 對美대화는 언급없이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은 당분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이 메가와티 대통령을 통해 남북대화 속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임동원 특보에게도 전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임 특보

의 방북에 앞서 남북간의 간접대화는 이미 시작된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북대화는 우선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논의를 중심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전망이다. 즉,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 미국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의 중요한 고리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재로 김정일 위원장은 메가와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미 대화 구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미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김대통령 계속 뵙고 싶다” 김정일 발언

## 인사치레냐 답방메시지냐

오는 3일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을 앞두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뜻밖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나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급진전 이 기대되고 있다.

31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우리측의 대화촉구 메시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 조속한 대화 속개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언급은 따뜻한 친밀감의 표시”라면서 “지나친 확대, 유추해석을 삼

가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조기 실현’ 등 부풀리기 해석을 경계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당국자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방북을 앞둔 임 특보에게도 ‘자

“확대해석 곤란” 정부관계자 신중

일부선 “이례적 멘트... 뭔가 있다”

신의 얘기’를 전달해달라고 요구한 점은 이례적이며, 주목할 만한 멘트라며 “임 특사는 김 위원장에게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 특사는 김 위원장은 물론 북한 고위 인사들의 의사를 직접 들음으로써 북한이 어떤 방법과 속도로



북한이 4월29일부터 두달동안 공연할 대규모 매스게임(집단지체) '아리랑' 공연의 막바지 종합연습이 지난 2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에 나설지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인터넷판에서 임 특보의 방북과 관련, “고위급의 방북으로 통일정세가 급전하는 기미가 보이는 속에서 ‘아리랑’ 관광문제도 거론될 것이 예견된다.”고 밝히 눈길을 끌었다.

서강대 김영수(金英秀) 교수는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매우 확고하며, 이런 검색국면을 타개

하러면 북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면서 “그러나 메가와티 대통령을 통해 전해온 북한의 메시지는 외교적 수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활발한 대외접촉에 나선다는 것과 이에 따른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 경향신문

2002. 4. 1 (월)

### 林특사 ‘아리랑축전 참관’ 논의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보도 “방문수속 경로 등 해결 관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일부터 평양을 방문하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방북 기간에 ‘아리랑축전’ 참관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선신보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임특보의 방북과 관련, “고위급의 방

북으로 통일정세가 급전하는 기미가 보이는 속에서 4월 말부터 진행되는 아리랑축전 관광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방문수속과 경로 등 문제들만 해결되면 남측 거래들이 아리랑축전을 관망하고 명승지들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며 아리랑 공연이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게 하며 남측 거래들에게 통일의 압박성과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욱기자

## 한겨레

2002. 4. 1 (월)

### 임특사 ‘아리랑’ 참관 논의할듯

‘조선신보’ 보도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일부터 평양을 방문하는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방북 기간에 ‘아리랑축전’ 참관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선신보>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인터넷판에

서 임 특보의 방북과 관련해 “고위급의 방북으로 통일정세가 급전하는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4월 말부터 진행되는 ‘아리랑’ 관광문제도 거론될 것이 예견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아리랑은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한 강토의 한 거래들이 보면 더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北, 유화... 무르익는 대화기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적극적인 대화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도모하는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또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 때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연결사업의 4월중 재개'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얻어낸다는 방침도 정했다.

## ■ 메가와티 訪北 통해 확인 김정일 적극자세 보여 北·美 대화도 빨라질듯

정부가 남북·북미 대화 재개라는 큰 틀의 변화와 함께 남북간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메가와티 대통령을 통해 전달된 북측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조속히 남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김 대통령을 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이 말들은 안부 차원의 언급이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나 2차 남북정상회담을 시사하는 말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북한이 임 특



북한이 지난 달 2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이담합부터 두 달 동안 공연할 집단체조 '아리랑'의 마지막 중반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

사의 방북을 계기로 뭔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충분히 읽힌다. 남북간 막후 실무접촉에서도 북측의 우호적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임 특사의 방북을 통해 남북 대화의 진전, 나아가 구체적인 결실의 확보를 낙관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이미 준비가 끝난 4차 이산가족 상봉, 북측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는 경의선 복원 공사 및 금강산 육로 관광 등을 임 특사 방북의 예상 성과로 꼽는다. 또 국방장관급 회담 재개를 통한 군사긴장완화,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에서도 진

전된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측의 경의선 연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북 물자 지원 방안이 실무진에서 검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임 특사 방북 이후의 남북 관계는 장관급 회담, 경협추진위, 적십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6·15 정상회담 직후의 상황으로 어느 정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이런 흐름은 북미대화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측이 임 특사에게 미국이 민감하게 주시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회담할 수도 있다.

한 당국자는 "지난달 13일 북미간 뉴욕 접촉에서 미국은 대화재개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고, 북측은 이어 열린 20일 접촉에서 답을 주었다"며 "리처드 아이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접촉에서 북한의 대화의지를 읽었다고 평가한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북측이 특사 방북이라는 카드를 남측에 제시하면서, 미국에도 유사한 카드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향후 대미, 대남 관계개선의 보폭을 교묘히 조절하겠지만, 관계개선이라는 큰 줄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北-美 '核충돌' 저지 주력

## 임동원특사 訪北 임무는...

3일 방북하는 임동원 특사가 한반도 핵위기 가능성에 대해 북한측 당국자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져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임 특사는 핵 사용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이 9·11테러 이후 전례없이 강경해졌으며 공세적인 핵 사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같은 안보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임 특사는 특히 북한 당국자들과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나타난 미국의 변화된 핵정책과 한반도 핵위기 발생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 언론에 보도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 전략이 핵 불사용에서 핵 선제공격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며 "전쟁 억제력보다 선제공격을 중시하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대처 입장 정리할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측 판단인 것 같다. 북한의 현재 입장은 미국의 핵 공격 계획이 공포탄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의 핵 동결과 사할 수용을 기본골자로 하는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세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 특사는 이같은 북

한측의 입장이 미국에 북한을 공격할 발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는 한 사석에서 "북한은 아직 국제적 감각이 뒤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경우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을 무력으로 봉쇄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 특사의 핵문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무게를 갖는다. 한반도 핵위기에 대한 또하나의 큰 변수는, 북한 핵사찰 문제지만 북한은 북핵부담 상황이 다. 이와 함께 임 특사는 ▲경의선(京義線)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 관광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신뢰와 긴장 완화 등을 대북정책 5대 핵심과제를 북한 당국자와 논의할 예정이다.

/정승욱기자 jswook@sgt.co.kr

## “美 강경책 공포탄 아니다” 北에 ‘현실인식’ 집중설명 한반도위기 타개책 논의



건배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북한을 거쳐 방한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南北-北美 관계 숨통트이나

## 특사파견등 계기 급물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대북특사 파견(3일)과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남북한 연쇄방문, 잇따른 북-미 접촉 등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했던 메가와티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는 대화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임 특사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얌어붙은 남북관계에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북미간 합

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고 미국이 북한 자국 발언을 삼가고 있어 북미간 대화도 급진될 분위기다.

◆남북대화=평양을 방문했던 메가와티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에 와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이 조속한 시일내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북미간 뉴욕채널 가동과 북미간 적십자회담 재개 등 북한의 잇따른 화해제스처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남북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임 특사의 방북결과가 성과를 거둔 경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대화의지 확인-접촉 활기 南北 비난발언 자제 낙관론 확산 北美

다. 남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면 남북간회담과 이산가족상봉, 경의선철도 복원 문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화=임 특사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간 돌입접촉이 진전되고 있는데다 메가와티 대통령이 방북중 북미대화 재개 메시지를 전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양국 대화가 활기를 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미대화 재개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한다"는 견해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북한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삼가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30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 컨소시엄은 대북경수로 지원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도 분위기를 띄웠다. 양측간 대화가 재개되면 미사일과 핵문제 재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후 북한과 미국 내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진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워싱턴=박원규 특파원, 김기동기자 wgpark@sgt.co.kr

南北—北美관계 '희망의 北소리'

# 한반도 '봄의 교향악' 울리나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 움직임에 김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음을 확인해준다.

## 메가와티 통해 대화의지 전달 林특보 訪北성과 기대감 커져

메가와티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대중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은 '남쪽과 하심탄화하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 대화가 속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같은 말씀을 (임동원) 특사에게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는 인상도 함께 전했다.

3일로 예정된 임동원 특사 방북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남쪽은 이번 특사 방문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속개하고, 북측이 경의선 복원공사를 시작하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측의 구상이 구체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결합 활성화와 장관급회담처럼 정례적인 고위급 남북대화가 계속 되도록 추진하려 하고 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답방에 대한 김위원장의 견해도 전했다.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을 뵈(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이 답방에 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작년 초 방북한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말한 이후 1년만인데 내용도 당시의 "(답방)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던 것에서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

“  
金대통령 뵈후  
다시 만나고픈  
생각 갖고있다  
”

간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물론 답방에 대한 김위원장의 발언이 의례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가와티 대통령에 이어 방북하는 임동원 특사 등을 통해 두 정상이 간접적이거나 대화를 재개했다는 데 있다. 김위원장이 메가와티 대통령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김대통령의 말씀과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거나 "각별한 안부말씀을 김대통령에게 전하고, 나의 건강(健康)함을 김대통령에게 알려달라"고 말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 가까운 공백이 있었음에도 최고지도자간 신뢰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상지대 서동만(徐東晩·북한정치) 교수는 "남북대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한동안 남북간 관계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경의선·개성공단·이산가족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만 남북관계가 본격적이고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한 유엔군 장교가 31일 판문점을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남북한군의 대치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판문점/AP연합

## '핵합의 준수' 빗장푸는 北

### 대화재개 적극제스처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해 적극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뉴욕 집회에서 박길연(朴吉連) 주 유엔대사가 대화재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북한이 1994년 체결된 북·미 기본합의서(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변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시사사단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뢰를 지켜서 그대로 했으며,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시 그렇게 할 결심"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 등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북한의 이같은 방침은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전향적이다.

북한은 미 국방부의 '핵대세검토(NPR)' 보고서 공개 직후인 지난 16일 "제네바 조·미 기본합의문 등 미국과의 모든 합의문 전면검토,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짧은 공세적 자세를 취한 북한이 최대현안 중 하나인 제네바 핵합의에 대해 이처럼 달라진 입장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도 북한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논평을 낸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북·미대화 재개의 좋은 신호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그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할 수도 있으며 핵사찰 요구는 주권침해"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입장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재래식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

이 없지 않다. 한편으로는 합의의효용을 약속하는 편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음직하다.

미국의 핵사찰 여론을 가라앉히고, 제네바 합의의 또다른 주요사항인 검열권한 건설 자연문제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검열권 건설 목표시한이 2003년으로 돼 있지만 현재 공적으로 보면 2008년까지 5년 미뤄질 것이 거의 확실하며 북한은 이를 거론하며 보상을 요구해왔다.

차세현기자 csh@yunghyang.com

### 美요구에 일정양보 시사 전향적인 태도선회 주목

# 대북특사에 대한 '현실적 기대'



박재규  
경남대 북한대학원장  
전 통일부장관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다. '뒷거래' '신북풍살'이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관계 개선의 '돌파구'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언론에서는 연일 특사 파견으로 남북간의 모든 현안이 다 논의되고, 합의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소강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의혹과 기대 그리고 추측이 난무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불과

두 달 전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을 했을 때는 마치 한반도에 당장이라도 전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처럼 야단이더니, 특사 파견이 발표되자 북·미 간의 긴장이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니 말이다.

원래 대통령 특사란 대통령의 친서나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특사의 기본 임무는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자, 전달받는 사람과 협상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다. 임동원 특보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벤트성 깜짝쇼"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뜻을 밝혔다.

## 기왕의 남북합의 이행에 역점을

최근 한반도 상황은 대화의 기류와 긴장의 기류가 교차하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상사로 구축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이러한 분위기가 다소 추축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기도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는가. 특사 파견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남북 특사의 평양방문을 발표하면서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에 관해 협의한다고 했다. 엄중한 사태란 다름 아닌 최근 부시 정부의 대북 공세를 말한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공세적 대북 정책에 대해 맹비난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내심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 국면만을 확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특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북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에 주지시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주 유엔 북한 대표인 박길연 대사와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 특사간에 대화가 시작됐다고 한다. 또한 북·일 간에도 대화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이 시작됐다. 즉 특사는 바로 이러한 대화 국면에 우리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수행해 나가는 데 역점이 두어질 것이고, 두어져야 한다.

이미 밝혔듯이 특사가 새로운 사업을 벌

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기왕 남북간에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정관급 회담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초에 정부가 제시한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군사직 신뢰구축, 금강산 육로관광 등 5대 과제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집약돼 있다.

## 제4차 이산상봉 합의만은 꼭

그렇다면 특사에게 대화의 여지가 주어진다던 이러한 사항의 이행 문제를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만은 합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다른 합의 사항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목표를 작게 해야 성과도 좋은 법이다.

이제 곧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온다. 따라서 대북 비료 및 식량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북측의 상응하는 조치도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에 대해 너무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분단 반세기를 당장이라도 뛰어 넘고 싶겠지만, 특사에게 너무 무리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 ‘김정일 답방’ 다시 수면위로

“김대통령 뵙고자 하는 마음 있다” 언급

林특사 주목... 정부선 “친근감 표시” 신중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였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카드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원지는 바로 김위원장이자이다. 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김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면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측이 지난달 하순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의미하는 최고위급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 이행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사가 이번 특사방북에서 김위원장의 답방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신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하고 있다.

여기다 남북 일각에서는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경비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이 금강산 또는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답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힌 정부의 반응은 의외로 신중하다. 김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답방에 대한 직접적 의사표현이기보다는 김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인사차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은 회담 성격상 추진 의사 표명자체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메가와티 대통령이라는 제3자 관 통해 추진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 대해 남북한이 김위원장이 아닌 북한 고위 인사의 남측 지역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원드컵기간 중 남측을 방문하고 남측 총리급 인사가 북측의 아리랑 축전에 참가하는 상호방문이 김위원장의 답방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영석기자

## 北, 남북대화 재개의지 확고 국제관심 끌 ‘이벤트’ 가능성

### 4월 남북관계 전망

2박3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지난 30일 방한한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소개한 평양 핵심부의 기류는 일단 고무적이다.

메가와티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이 남북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전언은 크게 3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준비를 마무리했으며 구체적인 대화일정을 담은 ‘로드맵(road map)’을 짜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김위원장이 여러가지 전제변화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을 신뢰만한 대화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어떤 형식이 됐던 상봉 또는 회담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단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북측

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정부당국자들은 1일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위 기여방을 위해 남북대화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굳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에 대한 김위원장의 신뢰표명도 이런 상황하에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김대통령

### 林특사 방북 실무체제돌입

### 이산상봉·경제지원 논의

과 현정부의 도움을 원하는 북측의 속내가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5일 임동원특사의 방북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의 전반기를 재점검한 뒤 장관급회담 재개를 생각한 체 실무회담 제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회담들은 남북경협추진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조영균 교류협력국장이 특사방북을 수행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당국자는 “김추위 회담을 통

한반도 4월 주요 일정	
3~5일	임동원 특사 방북
8~9일	한·미·일 남북정책조정위원회(TCOC)
초순	북·일 적십자회담(예정)
15일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
17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
중순	이리랑 축전관련 남북 민간단체 접촉
29일	이리랑 축전 개막(-6.29)
가능성	▶ 제2차 남북 경협추진위 ▶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장 - 프리치드 미 대북교섭대사 회담

해 남북은 비료 및 식량차관 제공은 물론 경의선 연결을 위한 자재지원 문제,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리랑축전 남북관공작의 참관 문제는 별도의 회담장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도 확실시된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특사방북을 수용한 배경에는 대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싶은 의중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김정일위원장 답방 등 2000년에 버금가는 남북이벤트를 통해 국제무대에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金正日 반드시 답방

##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

2002. 4. 2 (화)

### 메가와티 수행단 회견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동시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3일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도 김 위원장과 만나 서울답방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한 것인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숙소인 신라호텔에서 수행기자와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의 답방시기를 어떻게 확인하고 왔느냐”는 기자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답방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메트로TV’ 등 자국 방송사가 본국으로 송출한 이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어로 ‘반드시’를 뜻하는 ‘파스티(pasti)’라는 단어를 사용, 서울답방에 대한 김 위원장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줬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이

‘(2000년 6월) 김 대통령을 뵈 이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메가와티 대통령이 전한 김 위원장의 방언의도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지난달 28~30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30일 방한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2박3일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1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다음 방문국인 인도로 떠났다.

/박희준기자 july1st@sgt.co.kr

## 대한매일

THE KOREA DAILY NEWS 1996. 6. 21. 11. 8. 888

2002. 4. 2 (화)

### 임특사 내일 대통령전용기로 訪北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3일 대통령 전용 3호기편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초대소에 머물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양측은 1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특사 방북과 관련한 실무문제를 협의, 이같이 합의하고 2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이 임 특사 일행의 회담장과 숙소로 백화원초대소를 제의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전례에 따라 차량과 통신 등의 편의도 제공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통신편의를 제공키로 함에 따라 특사 일행은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서울과 연락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 경향신문

2002. 4. 2 (화)



### 林특보 대통령機 이용 백화원 초대소 머물듯

대북특사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3일 방북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전용기로 평양을 방문,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초대소에 머물 예정이다.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대변인은 1일 “북측이 오늘 임특사 일행의 회담장과 숙소로 백화원초대소를 제의해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임특사는 대통령 전용 3호기인 영국제 ‘HS-748’기(사진)로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욱기자

## 한국일보

2002. 4. 2 (화)

### 林특보 대통령전용기로 내일 訪北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3일 방북시 대통령 전용 3호기를 이용하고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초대소에 머물 예정이다. 남북은 1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특사 방북과 관련한 실무문제를 협의, 이같이 합의하고 2일에도 구체

적인 일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백화원 초대소는 북측이 제의했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됐고 이번에 남북을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이곳에 묵었다.

/이동준기자

# ‘적절한 시기’가 언제나 김정일답방 정가 촉각

## 메가와티 '전언' 큰 반향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남북한 순방에서 가져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관련 언급은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메가와티 대통령이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답방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은 종전에 알려진 김 위원장의 언급보다는 훨씬 진전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하겠지만, 메가와티 대통령이 전한 김 위원장의 언급이 정확하고, 거기에 김 위원장이 말한 ‘적절한 시기’가 연내라면 향후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메가와티 대통령이 31일 김 위원장 발언을 소개하면서 인용한 ‘파스티(pasti)’라는 인도네시아어는 우리말로 ‘반드시,

꼭’이라는 뜻이다. 당초 김 위원장의 언급은 “김대중 대통령을 계속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이 전했다. 그게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로 바뀐 것은 메가와티 대통령이 자국 기자와 인터뷰에서였다.

정부당국은 사실 파악에 나섰다. 메가와티 발언에 애써 의미를 두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메가와티 대통령이 자국 기자들에게 그같이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며 “하지만 우리와의 대화에서는 ‘적절한 시기’라든지 하는 그런 언급이 없었고, 우리 쪽(특사)도 올라가는데 그쪽(메가와티 대통령)에 다 얘기했다면 뭔가 맞질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메가와티를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할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판문점을 방문, 경비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종립기자

## ‘강도높은 의지’ 첫 표명한셈 林특사 訪北서 ‘진심’ 밝혀질듯

수도 없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측은 특히 메가와티 대통령이 전한 김 위원장의 답방관련 발언이 국민들에게 잔뜩 기대감만 부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연장선상에서 정부 반응은 상당히 신중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내에 방한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김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 표시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해석도

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문제는 한 나라당이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파장’을

우려, 반대하고 있어 정치적 의도로 비쳐질 수 있는 점음 정부측은 고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답방관련 언급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최소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의지 발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동원 특사가 방북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답방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만간 김 위원장의 진심이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준기자  
july1st@sgt.co.kr1384

## 임특사 '북-미 다리역' 성과 거둘까

임동원 대통령 특사 임행의 방북은 북한의 수용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 대화의 복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단 시작부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발언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의문이 따른다. 이번 특사의 방북을 남북관계에만 한정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 남북이 지난달 25일 특사 방북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반도 긴장 예방' (남), 민족 앞에 닥친 '엄중한 사태' (북)였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요구 △미국의 과거력 규명을 위한 대북 사찰요구 등 임 특사가 2003년을 앞둔 '안보위기'로 지적한 문제들로 이해된다.

이들 문제는 북-미 대화의 핵심현안이다. 임 특사로서는 북-미 관계의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외교통

### ■ 방북 의미와 전망

#### '안보위기' 남북 협의사항이 북-미 핵심현안 경의선 연결·대북전력지원 미국 용인 관건

상부의 한 당국자는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임 특보가 중재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접촉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남쪽의 특사가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7일 한국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임 특보를 '내 친구'라며 특별한 유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특사 방북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라고 말했다. '악의

축' 발언 뒤 눈에 띄는 미국의 자세 변화다. 이를 뒤 북한 <중앙방송>이 '북-미 기본합의문을 통해 미국과 한 약속을 지켜나갈 결심'이라고 밝힌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미의 교감 위에서 특사 방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1999년 한·미·일 공조에 바탕한 '빅딜론' (큰 거래)을 내놓은 적이 있다.

대북정책에서 어느 한나라의 단독 행동도 용납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정의의 동맹' 아래 미사일의 국제관리와 관계정상화를 포함하는 큰 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교섭창구를 닫고 군사적으

로 봉쇄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1991~92년 아버지 부시의 공화당 행정부 시절 남북한과 미국은 빅딜을 이뤄냈다. 북한이 92년 1월 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핵 안전협정에 가입한 데 대해 남북은 기본합의서 (92년 2월)와 함께 비핵화 공동선언 (91년 12월)을 채택했으며, 미국은 팀스피리트 군사연습 중단 (92년 1월)과 전술핵 철수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핵사찰과 경수로 지원 보상을 둘러싼 북-미 대결에서 남쪽이 내놓을 해법은 뭔가.

전문가들은 남북이 경의선을 연결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합의한 다음, 개성공단 등 북쪽에 대한 남쪽의 전력 지원을 미국이 용인한다면 빅딜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 대한매일

THE KOREA DAILY NEWS 1998 6 27 1998 4 2

2002. 4. 2 (화)

### 국민급손님 전용 北영빈관

#### □ 임특사 숙소 백화원초대소

3일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회담장과 숙소로 사용할 예정인 백화원초대소(사진). 북한의 영빈관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됐으며 최근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이곳에 머물렀다.

백화원초대소는 83년 건립된 2~4층 규모의 건물로 본관 2개동과 여러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앞에 작은 호수와 100가지 종류의 꽃이 피는 정원이 있다는 뜻에서 '백화원(百花園) 초대소란 이름이

붙었다.

한편 임 특보가 방북시 이용할 대통령 전용기(3호기)는 74년 도입된 'HS-748'이다. 통상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 제트기인 공군 1호기, 3호기는 수형원 등 선발대가 주로 이용한다. 61년 영국 호커 시들리사가 개발한 이 항공기는 쌍발 엔진으로 동체 길이 20.42m, 높이 7.57m, 최대속도는 443km/h이다. 항속거리 1852km, 승무원 포함 3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 전용기는 통상 대통령의 외국 등 장거리 순방시에만 운항된다. "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3호기를 내준 것은 임 특사의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영우기자



## 대한매일

2002. 4. 2 (화)

### “핵·미사일 해결” 北설득

#### ▶ 임특사 방북 보따리

3일로 예정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평양행 보따리'에는 무엇이 담길까.

임 특사는 지난달 25일 방북의 목표를 "한반도 위기 예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임 특사의 발언이 '특사의 역할은 북한이 대미 안보의 양대축으로 삼아 온 핵과 미사일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틀을 바꾸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싣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즉,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인급을 회피한 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며, 이 두 가지를 대미 협상카드로 삼아 '벼랑끝 외교'를 벌여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미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에 확실하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94년 제네바합의와 99년 베를린협약이라는 비군사적 해결을 추구했지만 현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사태 이후 '군사적 해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면서 북한이 해결책을 주기

에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타자에 마주 앉으려면 우선 남북관계의 진전을 미국에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 이현경(李惠京) 연구위원은 "특히 경의선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이 미국에 북한의 변화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이 두개 사안도 북한의 국방 및 체제유지와 관련이 깊어 이번에도 북한은 명확한 답변을 유보할 수도 있다. "고 분석했다. 또 "김집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의 사안에 양측 모두 그리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 간격으로 미국·일본·한국을 상대로 잇따라 대화의지를 표시했다."면서 "북한은 한·미·일과의 연쇄 대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강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북한이 임특사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변을 할지는 미지수다.

●전영우기자 ancelmus@kdaily.com

## 특파원 리포트

윤국한 / 워싱턴 특파원



4월을 맞아 한반도 정세에 모처럼 만에 따뜻한 봄기운이 풀고 있다. 우선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

보통일 특보의 3일 평양행은 그동안의 남북간 정세상대를 일거에 꺾어버리기대를 모으고 있다.

#### 북-미 본격협상 착수 관측

사실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올 8월이나 내년이나 하며 위기설을 거론하는 것을 접하면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위기설은 주로 북한과 미국간 적대적 대립상태에 연유한 것이지만 그래도 남북한이 부지런히 대화를 계속해간다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 때문이었다. 이로서 2000년 6월 분단 이래 첫

대화 자세를 긍정평가해 분위기는 크게 좋아진 상태다.

물론 그럼에도 북-미 대화의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며 특히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리라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설령 대화가 저개된다 해도 올해 초 이래 '악의 축' 발언, '핵대세검토' 보고서, 북한의 핵합의 준수 보증 거부 등에서 드러났듯 미국은 북한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태세여서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본격 대화에 나설 가능성 자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일본에 이어 미국과도 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내부의 실용주의자들의 득세를 의미하는 이런 변화는 분명 현실적 노선변경이 아닐 수 없다. 외부 여건에 따른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대화를 기피해온 강경자세는 북한에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내 강경보수파들의 입지만

### 4월 한반도, 봄 오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 등 비극적 상황은 면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던 때와는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능하기어 흥분했다.

특사 방문과 더불어 고무적인 일은 위기설의 근원인 북-미 관계에 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듯한 점이다. 지난달 20일 이래 뉴욕의 북-미 대사급 접촉에서 북한이 잭 프리처드 국무부 대북교섭 담당 대사관 상설참수로 받아들이고, 서로 좀더 자주 만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양 쪽이 머잖아 상호관심사를 다룬 본격협상에 착수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민감한 때"라는 말로 현재 새로운 모색이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최근 만남에 대해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 강성발언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 적대적 대립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북-미 간에 다뤄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그 동안 북한의 주요 틀만 중 하나였던 '미국의 체제 불안정'에 대해 이를 적극 부인하면서 북한의

강화시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기회를 놓침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나라"로 불려왔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기류에 둔감하다는 비판이다.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이번 대화에 대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올해 말로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대화는 한동안 뒷전에 밀릴 것이고, 미국에서도 조지 핵사찰과 경수로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 북, 명분에만 집착 말아야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해도 북한은 이제 명분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미국과 쟁점 현안을 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서로의 요구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타협가능한 부분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진지한 대화자세를 보이면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외정책을 우려하는 국제사회는 금세 북한에 우호적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당장 다음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재발표에서 북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gookhan@hani.co.kr

# '벼랑끝 전술' 北 포기하나

북한이 대외협상의 전매특허인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지난해 9·11사태 이후 북한은 더이상 과거와 같은 벼랑 끝 전술이 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북핵협상이 진행되던 93-94년 당시 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벼랑끝 전술이란 군사적위협이나 극단적 행동을 바탕으로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버텨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방식. 북한이 지난 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요구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것이 대표사례. 북한은 이후 북·미협상을 통해 핵동결의 대가로 경수로발전소를 제공받는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된 것은 남한은 물론 미국·일본과 동시대화에 나서려는 북한의 태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북하는 임동원특사와 '민족앞에 단결'

## 2003년 한반도위기 인식

## 美 강경책 '맞대응' 자제

## 南·美·日과 대화 움직임

엄중한 사태'를 논의할 것임을 밝히는 등 2003년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모색에 일찌감치 나선 점도 주목할만한 변화다.

2003년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예시한이 끝나는 해이자 북한핵 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준공시한. 이때까지 북·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포기와 그에 따른 보상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며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 검증을 위한 특별사찰과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3년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해결방안을 놓고 북·미간 갈등이 예상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로 전망돼 왔다.

# 남북 林특보에 국민대우

오는 3일 특사로 방북하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남북양측으로부터 국민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우선 임특보가 북측에서 회담장과 숙소로 사용할 예정인 백화원초대소는 북한의 영빈관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때 김대중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됐다. 또 최근 남북을 연쇄방문한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이곳에 머물렀다.

백화원초대소는 지난 83년 건립된 2-4층 규모의 건물로 건물앞에 호수와 100가지 종류의 꽃이 피는 정원이 있다는 뜻에서 백화원(百花園)이란 이름이 붙었다. 임특보는 이곳에서 김용순 노동당비서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신의 집무실공개를 꺼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백화원초대소로 임특보를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지난달 김위원장-메가와티대통령 회담도 백화원초대소에서 이뤄졌다.

임특보가 방북시 이용할 대통령 전용기(3호기)는 74년 도입된 34인승 'HS 748'이다.통상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 제트기인 공군 1호기이며 3호기는 수행원 등 선발대가 주로 이용한다. /서의동기자

## 美 "남북대화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북한 방문과 이에 따른 남북간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특사 방북과 관련, "남북대화는 중요하다"고 전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우리는 그 같은 대화를 적극 지지해 왔으며 이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외교협상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려던 클린턴행정부때와 달리 무력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태도에 맞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과거 전례에 따른다면 북한은 2003년까지는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강경수단으로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한 뒤 협상에 들어가는 수순일 것"이라며 "변화된 외교환경에 맞춰 북한의 외교방식도 점차 변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林특사 방북’ 전문가 5인 분석과 주문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3일로 예정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아리랑축전과 월드컵대 상호 방문의 일정 정도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북·미간 마찰을 해소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일부는 임특보의 방북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교차방문·식량문제 성과 가능성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특사 방북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것은 2003년 한반도 위기 해소와 중단된 남북 대화의 재개다. 아리랑축전과 월드컵 대 회때의 교차 방문이나 식량 문제 등에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북·미간 이견이 큰 상태여서 이번 방북에서 해결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북·미간에는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반도 정세 南北조울 큰 의미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특사 방북은 대량살상무기 같은 한반도 정세 문제를 남북한이 처음으로 다룬다는 대 의의가 있다.

판단의 자료를 제공한다든 의미가 크다고 본다. 남북관계에서는 기존에 합의했다 가 지체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 에 이룰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진의 등을 정확히 전달해 김정 일 국방위원장이 올바르게 판단토록 할 필요가 있다. 합의들 이끌어내기보다는

특히 남북한이 필요가 아닌 공개적 특 사파견을 하는 것부터가 상당한 자신감의 발로로 본다.

### 北-美 대화촉구에 초점 맞춰져야

◇연하청 명지대 교수=임특보의 방북 은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 들 전달하고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데 초 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즉 상봉 합의 등 말의 잔치라도 할 것이지 만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이끌어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빈 손으로 올 수 없어 이산가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남북대화를 거론하겠지만 몇달 지나면 물밑으로 돌아가는 등 실천적 방 안의 동반을 얘기할 지는 의문이 든다.

### 방북논의·결과 투명한 공개 중요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특사교관은 남북간 정상의 간접대화 방식이다. 임특 보의 방북에서 논의될 것은 그동안 비밀 집회에서 말하기가 꺼렸던 문제들이 제 기릴 것으로 본다.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특사방식에서

유의할 점은 타이밍이다.

대선 등 선거의 계절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선장국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게 이용하려 든다면 상당한 문제들 일으 킬 수 있다.

### 이산가족 상봉등 제도화 노력을

◇정용석 단국대 교수=특사 방문은 시 기적으로 볼때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와 긴장감이 도는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아리랑축전에 남한 주민 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특사 방 북을 허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왕 특사교관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제 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또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휴전선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들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 “北에 조기 核사찰 설득”

## 林특사 오늘 訪北… 對美대화도 촉구

### 김정일 서울답방 여부 확인키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 통일특보는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한반도 위기 가능성 해소문제를 포함해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협의에 나선다.

임 특사는 2박3일로 예정된 방북 기간 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임 특사는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위기국면이 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이 미국의 조기 핵사찰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임 특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자세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공격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변화한 미국의 전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 특사는 북측이 미국의 강경한 대북전략이나 조기 핵사찰 요구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할 경우, 양측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북미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임 특사는 또 이산가족 방문 단 교환 재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5대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북측의 협의를 이끌어 내고 서울 답방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견해를 정확히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2일 오후 임 특사로부터 방북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민족간 화해, 협력, 그

리고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에 좋은 선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특사는 3일 오전 8시30분 남북 회담 사무국에 설치된 프레젠테이션에서 출국인사를 한 뒤, 오전 10시 대통령 전용 3호기를 타고 서울 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한다.

임 특사는 이날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과 회담을 갖고 저녁에는 북측 최고위급 인사가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김정일 위원장과 의 당일 면담 여부가 주목된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 朝鮮日報

### 林특사 오늘 訪北… ‘DJ친서’ 전달할듯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 남북 관계 정상화 및 미·북대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 3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한다. 임 특사 일행은 평양 방문 첫날인 3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용순(金容淳)

북한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등과 만나 이산가족상봉·경의선 복원 등 남북간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특사는 4일 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때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것으로 보인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 중앙일보

### 임동원특사 오늘 평양 방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일 북한을 방문한다. <관계기사 5면>

임 특사는 방북기간 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임 특사는 경의선(京義線)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비롯한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고, 4차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7차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문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2일 임 특사의 출발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임 특사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민족간 화해·협력과 남북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기 바란다"면서 "우리 국민과 민족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yjlee@joongang.co.kr>

# 임특사 오늘 방북

## 오후 북쪽과 첫 회담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팀 임 특보는 3일 오전 10시 대통령 전용 3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안 직항로를 거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2면

김 대통령은 2일 임 특사의 방북 인사를 받은 자리에서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관해 (북한측과) 의견일치를 봐 우리 국민에게, 민족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임 특사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임 특사 일행은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짐을 풀고 오찬을 한 뒤 인민문화관에서 북쪽과 회담한다"며 "북쪽은 관례에 따라 김용순 비서가 회담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4, 5일 일정은 평양 도착 뒤 북쪽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특사 일행은 모두 7명으로,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과 통일부 조명근 교류협력국장, 김천식 정책총괄과장 등이 수행한다.

한편, 미국은 1일 (현지시간) 임 특사의 방북과 이에 따른 남북한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미 협안을 다루기 위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 대변인은 한·미·일 세 나라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티포) 회의를 열고 북한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이재훈 기자  
gookhan@hani.co.kr

# 임특사 오늘 평양行

## 김대통령 친서 휴대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팀 임특보가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앞서 임 특사는 2일 오후 김 대통령에게 출국인사첩 한 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친서를 받았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관련기사 8면

김 대통령은 임 특사에게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한 만큼 민족간의 화해협력, 이미 합의된 사항의 이행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기 바란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특사는 방북기간 동안 김 위원장에게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의 장래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춘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 특사가 3일 오전 10시 서울공항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뒤 오후 북쪽 관계자들과 첫 회담을 갖고 공동 만찬을 하기로 했다"면서 "4일 이후의 일정은 현지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회담장소를 당초 백화원초대소에서 인민문화궁전으로 바꿨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숙소는 발표된 대로 백화원초대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일정은 2박3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특사는 회담에서 지난 2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외 및 대북정책을 북측에 설명하고 북·미 대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활성화 ▲개성공단 개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이미 합의된 5대 과제의 조기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온 전영우기자  
poongymn@kdaily.com

## 林특보 오늘 訪北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팀 임특보가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 북측과 한반도 긴장완화 및 정체된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협의한다. 임 특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성남의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며 앞서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출발 인사를 할 예정이다.

임 특사 등 방북단 7명은 방북 첫날 오후 회담장인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를 카운터파트로 회담을 하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만나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東亞日報

## 林東源특사 오늘 訪北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팀 임특보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일 오전 10시경 대통령 전용 3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한다.

임 특보는 2박3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추진,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남북간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매일경제

## 임동원특사 오늘 訪北

### 나영립 기자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임특보가 3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김용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임 특사는 3일 오전 10시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를 전후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이라며 "임 특사팀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특사 방북단은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체류일정 등 실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방북 첫날인 3일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4-5일 일정은 방북 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3일 오후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회담일정이 잡혀 있으며 저녁에는 북측 회담 관계자들과 동식만찬을 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시간이나 4-5일 일정은 평양 도착 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특사는 이번 방북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일련의 접촉과 회담을 하고 한반도 안보와 민족 장래 문제등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면담은 방북 이틀째인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측은 북측 사정으로 면담이 지연되면 귀국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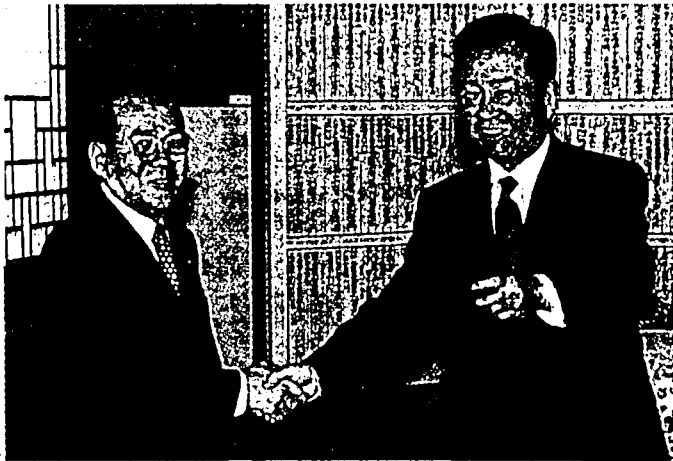
# 남-북-미 현안 돌파구 모색

## ■ 임특사 방북 뭘 논의하나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3일 방북하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 준비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 비교적 공개적으로 이뤄진 편이다. 그러나 임 특사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너무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클 수 있으니 결과물 보고 얘기하자"고 말했다.

임 특사는 김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만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게 확실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평양 체류 이틀째인 4일 밤에 만날 확률이 높다.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면 서울 귀환 직전 한차례 더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남북관계 현안보다 '한반도 위기 예방'과 북-미 현안 등에 대해 밀도높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남과 북이 어떤 '카드'를 내놓고 협의할지가 이번 방북의 최대 관심사다.

'5대 핵심과제' 등 남북관계 현안은 임 특사와 그의 상대역인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관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임 특사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는 3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9월 김용순 비서의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하루 앞둔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위원장과 1~2차례 면담 예상

## 경의선등 구체적 과제는 김용순과 협의

서울 '특사방문' 때처럼 두 정상의 뜻을 받아 남북 현안에 대한 폭넓은 협의와 교통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의선과 개성공단 건설쪽에서 성과가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 자리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두달 동안 진행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남쪽 관광객이 참관하는 문제와 관련한 당국간 협의과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임 특사 방북기간에 서울의 별도 훈령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특사인 만큼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현지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다. 임 특사가 준비문제와 북-미 관계 전문가인데다, 그를 수행하는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대북문제에 관한 한 사실상 국정원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경험 실무국장이자 남북회담 전문가이며, 김천식 통일부 정책총괄과장도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을 듣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경향신문

2002. 4. 2 (화)

## 林특사 오늘 방북 김용순과 회담

### 金위원장에 친서 전달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로 방북한다.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임특사팀 포함한 방북단 7명은 3일 오전 10시 평양으로 출발한다"며 "이들은 백화원초대소에 여장을 끈 뒤 북측 관계자들과 첫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임특사 등은 3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 첫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는 2박3일의 방북 기간동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를 위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이용욱기자

# 林특사 '北核해법' 찾을까

## ■ 訪北 임무와 전망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3일 방북은 내연중인 북한 핵사찰·미사일 수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사방북의 제1 목표로 한반도 위기국면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 핵사찰 갈등 해소에 두고 있다. 2005년 북한 경수로에 핵심부품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찰이 개시돼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측의 군사작전까지 상정했던 1994년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임 특사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하루속히 대미 대화를 시작해 핵사찰 및 미사일 수출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계획이다.

임 특사는 2월 한미정상회담 내용,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인식, 미국 내 대북 강경분위기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비타협적으로 안보현안을 정면 돌파하

는 국제정세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의 북미대화 성과를 무효화시킨 부시 행정부에 게 서운함을 토로해 왔으나 이제 부시 행정부와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는 메시지가 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도 임 특사에게 미국에 관한 여러 질문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당국자는 "남북 및 미국이 상황 인식을

원장으로서도 대미 메시지를 임 특보에 밝힐 것이며, 이를 대개로 북미대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관측통들은 핵사찰 요구에 맞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이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 특보는 김 위원장에게 우리측이 구상하는 핵, 미사일 문제 해법도 조언형식으로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및 미사일부품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해 정선, 검색을 불사하겠다는

## 한반도위기 해소가 1차 목표

## 김정일 호응땀 北·美대화 진전

공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고리"라며 "임 특사는 김 위원장에 가장 정확한 정책 판단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위기국면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진의가 드러난다면 특사방북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임 특사는 특히 북한 첩공가 능성을 배제한 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미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면 김 위

임장이어서 위기국면은 미사일 수출 문제에서도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사일 수출에 관한 북측의 입장이 이번엔 확인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남북현안과 관련,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변화가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측이 밝힌 만큼 북한은 부시 대통령이 강조한 아산가족 및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등에서 진전된 태도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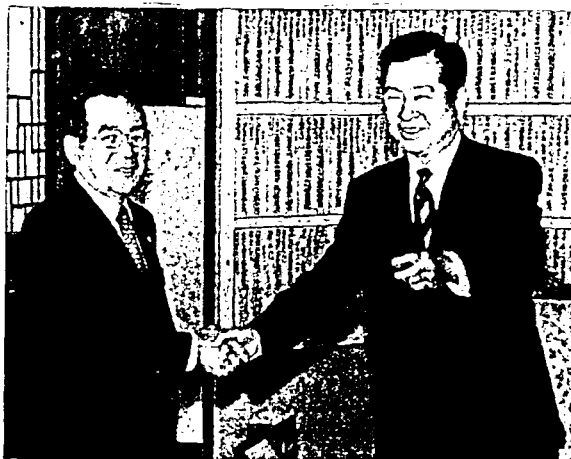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대한매일

THE KOREA DAILY NEWS 1998년 4월 2일 화요일

2002. 4. 2 (화)



임특사, 訪北인사 김대중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접무실에서 3일 대북특사로 방북길에 오를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로부터 미리 출발인사를 받은 뒤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한국경제

2002. 4. 2 (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사진)가 3일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5일까지 평양에 머무르게 될 임 특사는 이 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순 노동당 통일선전부 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안정과 정체인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가 서울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올 '보따리'에 대해서도 이 목이 쏠리고 있다.

## 임동원 특사 '訪北 보따리' 뭘까

### 오늘부터 2박3일간 방북

◇한반도 안정이 최우선-임 특사는 일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 특사는 지난달 25일 방북의 목표를 '한반도 위기 예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 한반도 긴장완화 우선순위

### 대통령 친서전달 답방촉구

북한당국자들에게 9·11테러 이후 달라진 미국의 안보개념과 핵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조속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과거 지난 94년과 같이 '벼랑끝 전술'을 펴기 힘든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북한도 최근 현재의 상황을 '민족 앞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에 잇달아 대화 의지를 표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으로선 핵과 미사일 문제가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이 라는 점에서 북한이 임 특

사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변을 할지는 미지수다.

### ◇기존 협의사항 실천-임 특사

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각종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한 당국이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은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남북한은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난해 명단까지 교환한 상태다. 이번엔 남북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별다른 실무협의 절차가 필요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미사일문제 對北설득 관심

## 임동원 특사 오늘 방북

### 대통령 전용기로 이동 김정일에 포도주 선물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특사는 방북기간 중 남북간 현안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핵특사가 한반도 긴장을 풀기 위한 현안을 집중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측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다루겠다는 입장(3월 25일 평양방송)이어서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거리다.

◇무슨 얘기 오갈까=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특사 방북은 남북간 합의 이행의 첫단추를 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깊숙한 물밑 접촉을 통해 이미 상당한 합의에 도달해 있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특사가 모든 현안을 하나 하나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특사는 우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입장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외교정책 차원에서 비확산을 추진했다면, 부시 행정부는 군사적 조치를 통한 반(反)확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북한측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현안은 경의선(京義線)철도·도로 연결 등 5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표 참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핵특사의 시각이다.

회담 관계자는 "감쪽소는 없을 것"이라며 "최고치로 기대할 수 있다면 월드컵 때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그럴듯한 북측 인사가 오고 이에 상응하는 비중의 남측 참관단이 평양 아리랑축전에 가는 것이지만 이 문제도 공식의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합의사항은 평양에서 6~7개항의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경로·체류일정=핵특사 일행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이용한다.

1974년 도입된 영국제 HS-748기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등이 사용했고, 최근에는 대통령 수행시 선발대 등이 활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용기 탑승은 특사파견에 대한 김대통령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표단은 핵특사를 포함, 7명으로

## 남북한 현안 입장차

현안	남측	북측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조속한 북측 구간 연결공사 필요	남북관계 여건 상숙 필요
이산가족 문제 해결	연회소개설 등 제도화	시범적 상봉·생사확인예 국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	특구지정·육로개설 요구	군부 반대 등 내세워 소극적
개성공단 건설	특구지정 관련 지원 용의	공단 가동 전력 등 해결돼야
군사 신뢰구축	군사당국회담·훈련참관 등 필요	한·미 군사공조 협회 등 요구
월드컵·아리랑축전 참관	김영남 상임위원장 서울 방문	고위급 참관단 평양 방문
김정일 서울 답방	김대통령 임기 내 성사 희망	적절한 시기(6·15 공동선언)

짜였다. 북측과의 사전 물밑접촉을 맡았던 김보현(金保鉉) 국가정보원 3차장(대북담당)과 통일부의 조명균(趙明均) 교류협력국장·김천식(金千植)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외에 국정원徐도 단장 등 3명의 실무요원이 따라간다.

도착 첫날인 3일에는 김용순(金容淳) 비서와의 회담(인민문화궁전)만

잡혀 있어 금국방위원장과는 4일째 만날 듯하다. 이럴 경우 김위원장이 핵특사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찾아와 만나는 형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핵특사파견에 보낸 금국방위원장에 대한 선물을 놓고 고심한 끝에 5만원 상당의 포도주 몇 병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임동원



김용순



1934년 7월25일 평북 위원	출생	1934년 7월5일 평남 평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사	현직	노동당 통일전선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육군사관학교 13기(예비역 소장)	경력	김일성종합대학·조선 모스크바대
'나이지리아·호주 대사		이집트 대사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94년 정상회담 예비접촉 단장
아미타단 사무총장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현 정치국후보위원·최고인민회의대의원
통일부정관·국정원장	성격	김일성 훈장
보국총장 천수장		호병하고 달변·유머감각
꼼꼼하고 치밀·논리적		

## 남 임동원-北 김용순

### 평안도 출신 동갑... 인생역정 비슷 6·15공동선언 때부터 긴밀한 접촉

임동원 특사의 방북 기간 중 북측 카운터 파트는 김용순 노동당 비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6·15 공동선언' 서명시 때 배석했던 두 사람은 공동선언의 이행에 빨간불이 켜진 2000년 9월 제주 담판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했으며 이번에도 해결사로 투입된다. 두 사람은 1934년 7월생이며 평안도 출신이고 남북회담대표·외국 대사 등을 거친 이력이 흡사해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격에서는 핵특사가 꼼꼼한 성격에 호불호가 분명하나 '용순 비서'로 통하는 김비서는 호방한 성격으로 알려져 차이가 있다.

핵특사는 통일부장관 시절인 지난해 8·15 통일대축전 당시 일부 참가자들의 돌출 행동이 파문을 빚어 국회의 해임 결의로 물러났고, 김비서는

지난해 초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한때 속칭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핵특사는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별보좌관으로 복귀했고 김비서도 최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측근에서 수행하면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모두 남북 정상 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과시했다.

이번 핵특사 파견에 합의한 남북 비밀접촉도 사실상 두 사람이 막후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사람은 긴급할 때 직접 통화가 가능한 핫라인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중 기자



林특사 訪北회견

임동원(오른쪽)대통령특사가 3일 오전 남북대회사무국에서 평양으로 출발하기 앞서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낙중기자 sanicong@munhwa.co.kr



“성과 갖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길에 오르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임특보가 3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대회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공항으로 떠나고 있다. 김태형기자

# 핵사찰-北美대화 촉구

## 임동원특사 訪北... 김용순비서와 회담

### 내일 김정일 면담

### 金대통령 친서 전달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3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 회담을 가졌다.

(관련기사 3면)

임특사는 오후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가진 회담에서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WMD) 문제와 핵사찰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속한 핵사찰 수용 및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핵문제, 북·일 국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특사와 김비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경의선 연결 등 남북간에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이행되지 않

고 있는 5대 핵심 과제,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 연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임특사는 4일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예방하고 김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임특사는 북한 방문을 마친 직후 미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대북 관계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는 방북에 앞서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항상 긴밀한 협의체제를 갖추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해왔다"며 "양국이 전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고 이를 이번 방북 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특사는 "평화와 민족의 화해 협력에 대한 김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북한 최고당국자의 견해를 듣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익구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 문화일보

www.munhwa.com

# 상기된 표정... "낙관도 비관도 않는다"

## 임동원특사 訪北 이모저모

대통령 특사로 방북하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출발에 앞서, 3일 오전 서울 삼정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대통령님의 명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임특보는 회담전망에 대해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맡고 있다"면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특사방북에 임하는 책임감과 각오를 비쳤다.

### 첫회담상대 김용순비서

○...임특보는 출발인사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체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평양에 간다"면서 "남과 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임특보는 또 '6·15남북공동선언과 이미 합의한 사업들을 성실히 이행, 화해 협력의 틀을 확고히 다지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측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특보는 첫 회담상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누구하고 회담할지 사전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아마 김용순비서와 회담하지 않겠나 예견한다"고 말하고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회담여부에 대해서는 "오

늘 가서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아리랑축전 논의여부에 대해선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고 남북사이의 합의를 실천, 정체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어떻게 틀것인가라는 두가지 의제하에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히 협의 가능성을 비쳤다.

### 대통령 전용 3호기 이용

○...임특보는 이날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으나 가라앉은 듯한 차분한 음성으로 출발인사를 발표했으며 "컨디션은 좋지만 잠을 잘 못 잤다"면서 이번 임무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북일정중 김위원장과 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당국자들은 김위원장의 파격스타일로 미뤄 3일 오후 늦게 임특사의 숙소에서 전격면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임특보는 방북 단 및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 회담관계자들과 환담을 가진 뒤 오전 9시쯤 정장관과 김형기 차관 등의 전송을 받으며 버스 2대, 승용차 2대에 분승, 서울공항으로 출발했다.

한편 전용철 청와대비서실장이 회담사무국으로 임특보를 찾아와 방북에 앞서 김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무거운 사명감... 넘치는 기대감

## 임동원 특사 방북 이모저모

### 내외신기자 열띤 취재 김정일에 포도주 선물 통일업무 베테랑 동행

임동원 대령 특사는 3일 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북측 주역인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 회담을 갖는 것으로 2박3일간의 북한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마주친 임특사와 김비서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임특보는 지난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비서에겐 건강을 물었고 김비서는 해입파동 당시를 상기하며 임특보를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과 2000년 제주회담 그리고 이번 특사파견에서도 핫라인을 유지할 만큼 깊은 속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여서 낯설음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우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비밀 접촉에서 상당부분 의견 집근을 이룬 터라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회담

임동원 특사와 김용순 비서 비교



임동원		김용순
1934.7.25 평북 위원	출생	1934.7.5 평남 평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현직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육사 13기(예비역 소장)		김일성종합대, 모스크바대
서울대문리대		이집트 대사
나이지리아, 호주 대사	경력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현직)
야대재단 사무총장		정치국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대의원
통일부장관, 국정연장		
1996년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남북회담 경력	1994년 정상회담 예비접촉 단장
2000년 6-15 정상회담 비서		정상회담 비서, 2000년 9월 남한 방문
논리적, 치밀	협상 스타일	호방, 담변

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회담 사무국도 5개월 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해 11월 6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뒤 외부의 반향이 끊어졌던 이곳에 아침 일찍부터 내외신 기자 백여명이 몰려 특사방북에 거는 기대를 반영했다. 방북에 앞서 삼청

동 남북회담 사무국을 찾은 임특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갖기는 처음"이라며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임특사는 이번 방북의 무게를 반영하듯 핵사찰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에는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임특사는 이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보현 국장인 3차장,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천식 통일부 총괄정책과장 등 방북단 인사들과 마지막 의견조율을 마쳤다.

한편 팩스와 전화기, 문서파쇄기 등 방북 기간 중 임특사 일행이 사용할 장비들은 화물차량에 실려 관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먼저 들어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할 포도주는 화물차량에 싣지 않고 비행기편에 함께 신고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 방북에는 통일분야 최고의 베테랑들이 동행했다. 김차장은 20년 국장원 근무동안 대북 분야를 좁은 담당해왔고 특사방문에 앞선 비밀접촉에서 배이징과 평양을 넘나들며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장은 지난해 금강산 당국간 회담 단장을 맡는 등 남북경협에 관한 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김과장 역시 탁월한 정세파악으로 임특사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김익성기자 yskim@kmib.co.kr

## “낙관도 비관도 안해... 美·日 메시지도 전달”

### 임동원 특사 출발 일문일답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3일 방북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전망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않는다"면서 "이번 임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첫 회담 상대는.  
△아직 누구누구와 한다는 것을 사전에 합의한 것 아니다. 하지만 김용순 비서와 하지

않겠느냐고 예견한다.

- 김정일 위원장은 언제 만나나.  
△오늘 가서 입장을 논의하게 된다.
- 회담 전망은.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맡고 간다. 온 겨레의 적극적 지지가 있고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돌아오겠다.
-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도 논의하나. 조기 핵사찰이 우리의 입장인가.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미리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
- 김대중 대통령의 당부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합력을 위해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기를 당부하셨다.

- 아리랑 축전과 관련한 내용은.  
△가기전에 이런저런 논의할 하자고 협의된 것 없다. 의제는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와 남북이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서 정체된 남북관계 물꼬를 터나갈 것인가다. 이 큰 두 의제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도 갖고 가나.  
△미·일과는 항상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해 왔다. 미·일이 전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랑이 있다.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익기기자 egkim@kmib.co.kr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 안보통일특보가 3일 오전 10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서울을 떠나 낮 12시쯤 평양순안공항에 도착, 2박3일간의 방북일정에 들어갔다.

임특사와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천식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사일행은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으로 이동, 여장을 풀고 오찬을 가진 뒤 평양시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용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임특사는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문제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임특사는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를 권고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막오른 서울시장선거

與野후보 전라과 판세

# 개혁 對 경제... 박빙 승부

## 임동원 특사 방북 69.1%가 긍정적

### 對北 정책

임동원 특사의 방북과 종리급 인사의 남북 상호방문에 대해 각각 국민의 70% 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 방북에 대해 8.2%가 매우 잘함, 60.9%가 다소 잘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다소 잘못 16.6%, 매우 잘못은 1.4%에 불과했다(무응답 12.9%).

종리급 인사의 월드컵과 아리랑 공연 교환방문에 대해서도 매우 바람직 9.2%, 다소 바람직 58.8%로 68.0%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26.0%,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3.7%에 그쳤다.

특사 방북에 대한 긍정답변은 30대가 78.1%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69.8%, 65.0%인데 비해 10대는 64.0%였다. 남북인사 교환방문은 학생(75.8%)과 화이트칼라(70.7%)층의 평가가 좋았다.

김의구기자 egkim@kmib.co.kr

# 林특사, 오늘 김정일 면담

## 어제 김용순과 회담... 美특사 訪北수용 촉구

### 北 "KEDO와 협상 재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일 방북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이날 오후 숙소인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와 회담을 갖고, 북측이 조속히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관련한 미·북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협상대사가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4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 임 특사는 또 경의선 복원과 4차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못한 사업들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 일행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 3호기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의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기기자 ginko@chosun.com

# 北에 美·日과 대화 권유

### 임동원 특사, 김용순 회담

### 오늘 김정일과 단독면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일 평양에 도착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전선담당 비서와의 회담

을 시작으로 북측과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관계기사 5면>

양측은 이날 오후 백화원초대소에서 2시간20분간의 1차 회담과 저녁 10시30분까지 이어진 만찬에서 林특사와 송비서는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이봉조(李奉朝)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林특사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이 이른 시간 안에 미·일과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林특사는 4일 송비서와 2차 회담을 연 데 이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단독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 林특사 오늘 金正日 면담

## 어제 평양서 金容淳과 이산상봉등 논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는 3일 오후 숙소인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 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철도 연결 문제 등 남북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임 특보는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미, 북-일 대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A2면에 관련기사

정부 당국자는 "오후 4시부터 2시간2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우리측은

경협추진위원회, 군사당국자간 회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4일 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 특보와 김보현(金保姪) 국정원 3차장,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사 일행은 3일 오전 10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11시45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평양의 특사 임동원 외교통일 특보가 3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북한측 인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항에는 김원수 이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최성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등이 나왔다. <조선중앙방송> 촬영/연합

## 임특사-김용순 현안 논의

### 백화원초대소서 첫 회담

김대중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 대령 외교통일 특보는 3일 오후 4시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회담을 하는 것으로 방북 입장을 시작했다.

남쪽과 북쪽은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기본 입장을 밝히는 등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의견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안 논의가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게 회담장 분위기"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2·3면

이 당국자는 "임 특사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쪽이 이른 시일 안에 미국, 일본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특히 (북쪽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북쪽이 대화 노력을 적극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임 특사는 또 지난 2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으며, 경수로 발전소 완공을 위해 조기에 핵사찰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북-미, 북-일 간 현안에 대한 미·일의

입장과 대화의지가 담긴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는 미이행 합의과제의 신속한 실전을 위해 경협추진위원회와 군사당국 회담,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직접자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임 특사 일행은 이날 오전 10시 성남 서울공항을 떠나 11시45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일행은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찬익 정책총괄과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꽃다발 받는 林특사**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 / AFP연합

## 北에 對美대화 촉구

### 임동원특사 평양도착...김용순과 회담

#### 오늘 김위원장 면담 예정

방북중인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3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비서와 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과 이산상봉 등 남북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 관련기사 3면

임특사는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로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긴장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이 이른 시간 내에 미국·일본과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임특사는 또 이산상봉을 협의할 직접 회담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할 군사당국자 회담,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의 조속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북측에 제시했다.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대변인은 회담 브리핑에서 “협지만은 않은 회담이었던 것 같다”고 밝혀 북측과 의견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북측은 한반도 긴장상황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긴장완화를 위해선 미국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는 이르면 4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9·11 테러 이후 급변한 한반도정세를 설명한 뒤, 북·미대화에 응할 것을 권고하고 답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임특사는 이남 오전 방북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력을 위한 김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북한 최고당국자의 견해를 듣고 오겠다”며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특사와 김비서는 4일에도 회담을 갖는다.

이용욱·김진우기자  
woody@kyunghyang.com





평양 도착 임동원 대동령 특사가 3일 낮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북한 어린이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 AP 전

# 핵·北美대화 재개 거론

## 임특사, 김용순과 회담... 오늘 김정일 만날듯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오후 4시 부터 평양 백화인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와 1차 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관련기사 3면

김종재(金泓宰) 통일부 공보관은 이날 오후 "양측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에 대

해 폭넓게 논의하고, 남북관계 진전 문제 및 이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면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씩 쉽지 않은 회담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다."면서 "4일 회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사는 회담에서 김 비서에게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핵사찰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핵사찰 조기 수용 및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수로발전소의 빠른 완공을 위해서는 핵사찰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MD와 일련된 남치문제 등 북·미, 북·일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기자 anseimus@kdaily.com 2면으로

임 특사는 또 남북 현안과 관련,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군감산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및 군사 당국자회담 재개 ▲이산가족 상봉 및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임 특사는 이르면 4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같은 내용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특사 일행은 이날 회담 후 김용순 비서 등 조선아시아태평양위 관계자들과 공동 만찬을 가졌다.

앞서 임 특사 일행 7명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오전 11시45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백화인초대소로 옮겨 여장을 풀 뒤 본격적인 평양 일정에 들어갔다.

한편 북한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언론들은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임 특사 일행의 평양 도착을 짧막하게 보도했다.

# 林특사-김용순 회담

## 이산상봉 재개등 논의... WMD 이견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 통일 특보는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이날 오후 평양 백화인 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와 첫 회담을 갖고 한반도 위기 예방문

제, 이산가족 교란방문 등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임 특사는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북·미 대화의 재

개를 권고했다.

임 특사는 특히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유지가 위기에방의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임 특사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김 비서는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WMD 해결 방법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지는 "씩 쉽지 않은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매일경제

2002. 4. 4 (목)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3일 평양공항에 도착. 환영 나온 북측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AFP통신】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소녀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AFP

林특사 北·美대화 재개 촉구

대량살상무기 등 이견

나영필 기자

임동원 청와대 특임특보는 3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 2박3일 간의 방북일정에 들어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임 특보는 이날 오후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첫 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합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문진 통일부 정책실장은 "우리 측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된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북측이 이번 시찰 내에 미·일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북측이 적극적으로 감추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남북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의선 안길 등 남북간에 합의가 됐으나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신속한 이행을 위해 김정주전위, 군사단국지간 회담, 이산가족 상봉 위한 직심자 회담 등이 열려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중제 통일부 대변인은 "양측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을 다 털어놓고 핵심면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각 위치만큼 많은 회담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양측이 대량살상무기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사 방북단은 김진원 국방위원장 면담이 1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김 대통령 전서 전달 등 북측과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核사찰등 이견 못 좁혀

北에 이산상봉·관광활성화등 이행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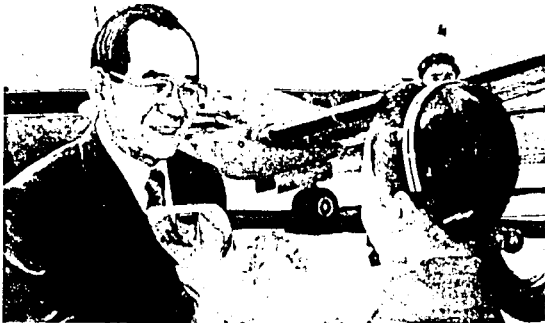
임동원특사, 김용순과 회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중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임특보는 3일 오후 김용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수용과 북미대화 재개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이날 오후4시부터 6시20분까지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북측에 미국, 일본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간에 합의된 미이행5대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협력추진위와 군사 당국지회담, 직심자회담 등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임 특사는 특히 남북현안과 관련해 ▲이산가족문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조성 ▲금강산관광 활성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의 이행을 강조했다. 양측은 4일에도 이들 문제를 놓고 회담을 계속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평양 도착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가 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북한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 核사찰등 현안 견해차

## 林東源특사 訪北 첫날

3일 오후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와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회담에서 양측은 기본 입장을 털어놓고 핵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양측은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 등 남북한 현안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을 보임에 따라 4일 다시 회담을 갖고 협의할 계획으로 보인다.

▽'씩 쉽지 않은 회담' = 임 특보는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해소하기 위해 북측이 빠른 시일 내 미국 일본과 대화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북측은 핵사찰 문제 등과 관련해 김수로 건설 시연에 따른 미국측 책임론을 퍼면서 임 특보에게 반문을 제기하는 등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임 특보는 이어 남북간에 합의되고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즉 경의선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정상화, 개성공단 조성, 군사적 신뢰 구축 등 '5대 과제'의 조속

한 이행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씩 쉽지 않았다.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방북 일정 = 남측은 임 특보와 김 비서의 1차 회담이 끝난 뒤에도 저녁 늦게까지 실무 접촉을 갖고 입장 조율을 계속했다. 임 특보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은 4일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임 특보의 방북에 맞춰 아리랑축전 특별 공연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 특보와 김 위원장 면담은 관람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서 = 임 특보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는 이번 특사 방북의 의미와 역할, 대북 메시지 등을 압축해 놓은 것. 그러나 친서에 그다지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절한 분량이다"고 전했다.

이철희기자 klim@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여장 푼뒤 곧바로 회담 '核거론' 분위기 무거워

## 林특사 평양도착 안팎

임동원 林東源: 대북특사는 3일 오전 평양공항에 도착, 백화원초대소에 여장을 푼 뒤 오후 4시~6시 20분까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와 1차 회담을 가졌다. 첫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현안과 북미대화-북일대화 등을 논의했으나 민감한 사안 때문인지 회담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대화 요구 진지하게 경청

○...임 특사 일행은 회담이 시작되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중단된 경협추진위 재가동, 직십자회담, 경의선 철도 연결문제 등을 꺼냈다. 특히 임 특사가 북한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간 대화를 하라고 촉구하자 북측 대표단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조성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은 9·11테러 이후 달라진 국제안보환경과 남북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분위기여서 회담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인민문화궁전에서 열기로 했으나 북측 사정으로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개최됐다.

○...임 특사는 4일째 김정일(金

正日) 위원장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최대 관심사인 서울답방 문제 등에 대한 북측 입장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로 임 특사를 진격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때 친서를 전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임 특사 일행은 태운 대통령 전용기가 오전 11시 45분 평양공항에 도착하자 북측 김완수 조선야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최성익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 관계자들이 나와서 영접했으며, 공항에서는 북한 화동이 꽃다발을 증정했다.

백화원초대소에서는 림동원 특사 일행이 임 특사를 맞이했다.

## 방북소식 짚막하게 보도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중앙방송은 3일 오후 8시 정규뉴스 시간을 통해 "남측의 요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 임동원과 그 일행이 오늘 도착했다"고 짧막하게 전했다.

○...임 특사는 서울 출발전 오전 8시 회담사무국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이 합의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 정체인 남북관계에 불꼬를 트는 방안 등 두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2002. 4. 4 (목)

## 訪北 林특사, 김용순과 회담 오늘 金正日면담 가능성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3일 방북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임행은 숙소인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를 수석대표로 한 북측 대표단과 1차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과 북미대화 재개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은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2시간20분 진행됐으며, 남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군사당국자 회담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가동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훈답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기사 5면)  
임 특사는 남북대화 재개문제의 합계 9·11테러 이후 달라진 국제

안보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일본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한반도 위기와 남북관계 정체의 주된 이유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음을 강조, 회담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4일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한국경제

2002. 4. 4 (목)

# 北에 核사찰수용·北美대화 촉구

## 林특사 평양방문 첫날 대화 '진통'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3일 평양에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회담을 갖고, 핵사찰 수용과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 임 특사는 이날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핵사찰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임 특사는 또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등 남북간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5대 핵심과제가 조속하게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특사는 이를 위해 2차 경제추진위원회와 군사당국자 회담, 적십자 회담 등 중단된 각종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양측은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한 후 "그러나 (회담)분위기가 딱 좋지는 않았다"고 밝히,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 특사는 방북에 앞서 이날 오전 서을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된 남북관계의 틀고름 뜨기 위해 평양에 간다"고 방북 의미를 설명한 뒤 "평화와

민족의 화해 협력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북한 최고당국자의 견해를 듣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전망에 대해 "다만히 어려운 일을 맡고 있다"면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방북에 임하는 책임감과 각오를 비쳤다.

임 특사 등 방북단은 회견 직후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의 환송을 받으며 떠났다. 방북단은 대통령 전용 3호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순안공항에 도착, 김관수 조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다. 방북단은 이날 저녁엔 북측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임 특사는 4일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예방하고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미묘한 시점... 무슨 합의 할까

임동원 특사 訪北 첫날

## 林-김용순 첫회담 다소 진통

임동원(林東源)특사의 방북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방북 경과에 국내 정계는 물론 외국 정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사와 김용순(金容淳)노동당 비서간의 3일 첫 회담은 한반도 정세와 북·미 대화에 대한 인식차로 다소 진통을 겪은 것으로 방북단이 전해왔다.

이번 특사의 방북 성패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남북간의 인식차를 어떻게 조율하고, 서로의 합의사항 이행 시간표를 어떻게 다시 짜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사안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도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특사가 서울 출발 직전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맡고 간다"며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배경에서다.

첫 회담 직후 방북단은 "꽤 쉽지 않은 회담이었다"고 서울 상황실에 알렸다. 또 정부는 최고당국자의 입장을 전하는 특사의 민감한 성격 때문인지 구체적 논의 내용은 합구하고 있다.

특사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경의선(京義線)철도·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김정주추진위원회△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 등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북 식량차관 등을 협의할 창구가 된 김철추진위가 우선 순위로 거론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길에 오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가 3일 평양공항에 도착해 북한 화동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중앙 뉴스팀]

한 회담 관계자는 "특사는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려는 물론 경의선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필요할 경우 위성전화 등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훈령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는 서울 출발 전 "미국과 일본이 나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전해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며, 이를 전할 것"이라면서 방북 후 위성탄을 방문할 뜻을 시사했다.

이로 미뤄볼 때 논의가 순조로울 경우 금비서와의 실무협의-김정일(金正日)국방위

원장 면담-합의문안 발표-위성탄 방문 설명·실득-한반도 위기해소 조치와 남북간 합의이행 방향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 관계자들과의 전망이다.

하지만 북측이 무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철회 등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4일부터 본격화된 협상의 성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국방위원장과의 독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명종 기자 <yjlee@joongang.co.kr>

## 北, 회담장소 두번 바꿔 긴장감 돌기도

3일 오후 남측 대표단 숙소인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임동원 특사와 김용순 비서와의 첫 회담은 양측이 각 5명의 실무진을 배석시킨 가운데 진행됐다.

○북측은 회담장소를 당초 백화원초대소로 정했으나 특사가 출발하기 하루 전인 2일 인민문화궁전으로 바꿨다가 도착 당일 다시 백화원초대소로 변경했다.

여기에 북측이 "한반도 위기는 무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고 맞서는 바람에 회담장은 다소 긴장감이 돈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와 금비서는 오후 8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단찬을 한 뒤 심야 접충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과의 면담 등을 준비했다.

○이번 회담에는 서울-평양간 연락수단으로 인마셋(INMARSAT)위성전화도 등장했다.

'국제해사(海門)위성기구'의 통화망을 이용한 이 휴대용 전화가 남북 당국대화에 사용되는 것은 처음.

특사는 이를 이용해 백화원초대소는 물론 북측이 제공한 맨초 차관에서도 서울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상관을 즉각 보고하고, 훈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회담 관계자는 "남북 직통전화의 회선수를 몇개로 할까를 둘러싼 입씨름이 이번에는 없었다"며 "북측이 인마셋을 사용하겠다는 우리측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북측은 순안비행장에 김완수(金完秀)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차관급)과 최상의(崔盛善)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내보내는 등 대남 전문가 상당수를 동원했다.

대남 실세인 임동원(林東源)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은 백화원초대소에서 특사를 맞았다.

○특사는 평양으로 출발하기 앞서 오전 8시27분쯤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 도착해 정세연(丁世彦)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회의 도중 전윤천(田允善) 청와대 비서실장이 5분간 특사를 만나고 돌아가 김대통령의 대북 추가 메시지가 전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됐다. 이명종 기자

# 남북관계·북-미 핵절충 실마리 찾기

## ■ 임동원 특사 방북

### '한반도 위기에 방' 99년 페리방북과 닮은꼴 미·일 메시지 전달... '제네바' 갈등해소 주목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3일 방북한 임동원 외교안보특별임명 특보는 "특사의 임무"로 한반도 긴장 조성 예방과 잠재된 남북관계의 물꼬뜨기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의 방북은 1999년 5월 미국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2000년 9월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특사방문'과 비교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페리 조정관의 방북과 임 특사의 방북은 위기 예방의 해법 찾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페리 조정관은 98년 8월 불거진 북한의 금강리 지하핵 의혹 시찰과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 방사에 따른 핵-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해 방북했다. 임 특사는 2003년으로 예상되는 '안보위기',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탈라진 세계전략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고조 상환이 배경이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체제의 안정성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한다는 임무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핵사찰 과정' 수용 요구와 북한의 전력손실 보상 요구 등 '버티기' 사이에서 갈등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페리 조정관은 당시 방북에서 발췌한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임 특사는 이번에 김 대통령

의 친서를 갖고 갔다. 임 특사는 김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북한 최고 방북자의 견해를 듣고 오겠다"고 밝혔다. 페리 조정관이 한국과 일본 두 정상에 구두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임 특사는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페리 조정관이나 임 특사 모두 방북의 과정이 한-미-일 공조 속에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임 특사의 방북은 앞으로 있을 북-미, 북-일 대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페리 조정관의 방북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대통령의 방북 직전까지 이르는 '빅딜' (큰 거래)의 길을 열었다. 임 특사가 출발 인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대목은 이번 방북을 큰 틀에서 보아 탈락과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시작은 남북관계에서부터 풀어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방북은 김용순 비서의 서울 '특사방문'에도 비유될 수 있다. 단지 2000년 9월의 '임-김 특사회담'이 정상회담 뒤 상순국면의 남북관계로 교묘장라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었다. 이번 방북은 임 특사의 상대로 6차 장관급회담 출범 등 '강제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뜨기 위해' 이



2000년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특사로 남쪽에 온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당시 협상 상대였던 임동원 국방위원장과 제주도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 물꼬가 트이느냐 하는 것은 남북협력추진위원회, 군사당국자회담, 이산상봉 교란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에 북쪽이 응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번 방북을 통해 7차 장관급회담이라는 정감다리를 거치지 않고 경의선, 군사직 신뢰 구축, 이

산가족 등 분야별 회담체계를 바로 거둬들인다는 복안을 갖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비서의 서울 방문이 정상회담 뒤 지지부진했던 군사당국자회담의 길을 뜬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효율을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남쪽의 워드캅과 북쪽의 '대검단 제조와 예술관련 아리랑'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은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가 조성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당사자의 원만한 개최는 다른 협의과제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그 자체로 한반도가 평화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 임특사 일문일답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외교안보특별임명 특보는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북을 앞둔 각오와 소감을 밝혔다.

임 특사는 출발 인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잠재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평양에 간다"며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북한 최고 방북자의 견해를 듣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과 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6·15 남북 공동선언과 이미 합의한 사업들을 성실히 이행해 화해협력의 문을 확고히 다지고 평화와 협력의 기가 위해 북쪽과 버려질 맞대고 협

## "북쪽과 허심탄회 머리맞댈터 회담 낙관도 비관도 안해"

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첫 회담 상대는 누구인가? = 누구누구와 회담한다는 것이 사전에 합의된 것은 아니다. 아마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회담하지 않겠는가 예견하고 있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언제 만나나? = 오늘 가서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 회담 전망은 어떤가? =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간다. 그래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온기례의 적극적 지지가 있고 따뜻한 상인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려 한다.
- 정부는 북한에 조기사찰을 촉구할 것인가? =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미리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 아리랑 속건과 관련된 내용은? = 가가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는 없다. 큰 의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둘째는 남북이 합의하고 이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잠재된 남북관계 물꼬를 디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큰 의제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권혁집 기자 nura@hani.co.kr

# 핵·미사일 해법 '평행선 대화'

## ■ 임특사 '평양 첫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와 김정은(金正正) 노동당 동맹선전부장 겸 내남담당 비서가 중심이 돼 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첫 '특사 회담'은 양측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숙제를 털어놓고 대화를 나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을 겪었다.

●1981년생 동갑으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임 특사와 김 비서는 북·미 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

공안에서 화통(花通)화로부터 찾아 받았던 인사만은 임 특사 일행은 낮 12시 30분쯤 숙소인 평양 백화원초대소로 옮겼으며, 북측은 임동욱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보내 예의를 갖췄다.

●임 특사는 방북 전 서울 삼성동 남북 회담사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좋은 잠을 꾸었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일음 말이 잠을 잘 못 잤다."고 대답했다. 이어 몸 상태를 묻자 "컨디션은 좋지만 어깨 잠을 잘 못 잤다."며 부담감이 크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임 특사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이튿날 저녁에 "날씨도 좋고 오는 길에 봄꽃이 많이 피서 아주 좋다."면서 "평안도 조피도 끝나고 주기도

올라가는 등 좋은 일이 많다."고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5개월이 만에 다시 문을 연 남북회담사무국 프레스센터에는 1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둘러 취재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특사 일행에 기자단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평양 상황'이 수시로 바뀌어 기자들이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공항에 영접 나온 인사가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출국인사를 겸한 기자회견회를 가진 뒤 방북길에 오르기 위해 떠나던 서운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순원친기자 angle@kdaily.com

## 김용순비서와 140분 '특사 회담' 속내 털어놓지만 입장차 커 진통



방한 등 한반도 문제 진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00년 5월말 임 특사가 6·15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할 땐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고, 이번 만남이 내빈에만 한군 '각의 없는'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는 조속한 핵사찰 수완과 미사일 개발·수출 중단, 남북이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도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 4일 논의할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는 김원수 조선이산가족지원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나와 임 특사 일행을 영접했으며, 북측 기자들은 취재에 열을 올렸다.

처음에는 입동욱으로 알려졌으나 김 원수, 첫 회담장소는 인민문화공원에서 백화원초대소로 각각 변경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사무국 3층 심판실에서 회담진행을 통해 평양과 주시로 동화하며 시사각각 회담 진행 과정을 통보받았다.

●백선숙(林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임 특사 방북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국민에게 특사의 방북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임 특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대화의 불교를 쓰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차분히 가능한 일부러 하나씩 풀어 나갈 것"이라며 "특사의 방북 방문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영우기자 anseimus@kdaily.com

## "회담분위기 쉽지만 않은듯"

### ■ 이봉조 통일부실장 문답

동원부 이봉조(李鳳祖) 정책실장과 김용순(金容淳) 공보관은 3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임동원(林東源) 특사와 김용순(金容淳) 비서간 회담 진행 상황과 관련, "(회담 분위기가) 쉽지만 않은듯"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회담 진행 상황은, 회담은 오후 4

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열렸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남북관계 개선 등 상호 관심사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로의 기본 입장을 다 털어놓고 핵심면목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 분위기는, 쉽지만 않은 회담이었다고 한다. 여러분이 짐작하듯 남북 한안대 내한 논의가 쉽게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하를 우리측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

고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이끈 시인대에 마·일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방한 상무기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즉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 강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협약과 관련, 이미 남북간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이행되지 못한 문제 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군사당국자간 회담, 이산가족상봉 등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측 반응은, 북측도 남북대화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전영우기자

## 北 대남사업 실제 총출동

임동욱·김원수·최성익등 서울에 왔던 '낮익은 얼굴'

### ■ '엄질' 누가 했나

북한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이 갖는 막중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듯 대남정책의 심세들을 모두 출동시켰다.

우선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동맹선전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임 특사의 맞상대로 3일 오후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첫 '특사 회담'에 나섰다.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임 특사 일행을 영접한 임동욱 조선이산이대



임동욱 부위원장

평양방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78년부터 대남업무에 종사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

면에 나선 실무책임자이다. 임은 당시 6·15공동선언 서명식에 김 위원장과 함께 배석, 대남사업의 실제업무를 드러냈다. 2000년 9월 김용순 특사의 서울·제주 방문 때도 동행해 임

동원 당시 국정원장과의 각종 회담에 참석했다. 동원에는 '임준관'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평양에서 임 특사 일행을 영접한 김원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만만치 않은 실세들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로 남북경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다.

최성의 부장은 85년 8차 남북직접 회담 때 서울을 방문했고 80년 이후 평양을 서기국 부장으로 전면에 나섰다.

●전영우기자

경향신문

2002. 4. 4 (목)

北에 이산상봉 재개 요구

● 林특사 방북일정·문답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 3일 오후 평양에 도착,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비서 등 북측 대표단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북 일정에 들어갔다.

임특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진행된 김비서와의 회담에서 한반도정세 안정방안과 남북관계 진전방향을 놓고 김용순 북한 노동당비서와 회담했다. 임특사는 방북이 이산 시일 내에 미국-일본과의 대화에 나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산상봉, 개성공단 등 현안을 논의할 남북직접 자담, 강추위, 군사당국자회담의 재개도 요구했다.

방인부 김용재(金容宰) 대변인은 "임특이 가진 기본입장을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

대화·답방촉구 친서...美·日메시지도 전달 김용순과 구체논의 "낙관도 비관도 안해"

힌 뒤 "꽤 쉽지 않은 회담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시도하고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남북의 역할을 설명한 것 자체가 첫 회담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임특사는 4일 김 정환(金正煥)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의 초상일 김위원장을 만난 임특사는 9-11 테러 이후 달라진 세계질서 및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 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기로 한 2월 한-미 정상회담 경과를 설명한 뒤 김위원장의 견해를 측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대중(金大

中) 대통령의 친서와 미국-일본의 대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친서에는 한반도에 호응할 것과, 남북 긴장완화의 증거이자 6-15공동선언 핵심사안인 답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한반도에서 미사일 개발·수출 중단과 북핵 사찰, 일본인 납치유족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식량·비료 지원 등 대북지원 을 비공개로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공연에 대한 관공관급의 관측 문제를 꺼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러한' 공연관과, 김대중대 때 북한 대표단의 남한

核사찰등 이견 "회담 쉽지않아"

■ 林특사, 김용순과 회담

임 특사는 2일 회담장서로 남 대우, 조지 W 부시 대 대통령의 대북인식 등을 언급 하며 지난해 9-11 테러 이후 급변한 국제정세에 대해 이 해를 촉구했다. 임 특사는 안 보위기를 막기 위해선 북미

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가 제네바 합의의 되살리기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김 비서가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임특사가 없었다. 다만 임 특사가 북한의 초기 핵사찰 수용과 북한의 전략 보강 사이의

林 "北, 核합의 꼭 유지해야"

金 "美, 경수로 약속 지켜야"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관'을 제시할 수 있는 실용이었다. 정부 관

대화가 재개돼야 하고, 특히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남북은 경수로 사업비의 70%(약 30억달러)를 부담하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김 비서는 북측은 제네바 합의를 이행했으나,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미루면서 조기 핵사찰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는 또 북미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재개돼야 하지만, 경수로 지원에 따른 전략 보강이 이루어

게자는 "북한 핵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한이 약속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대북 전력지원과 각종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북한의 초기 핵사찰 수용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산 김보원(金保元) 국가정보원 3차관과 북측 임동원(林東源)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별도로 실무협의를 갖고 임 특사의 김정환(金正煥) 북한위원장을 만난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기자 dlee@shk.co.kr

한겨레

2002. 4. 4 (목)

"회담 분위기 쉽지않은 않다"

■ 임특사 방북 이모저모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3일 방북한 임동원 외교안보특별 특보는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20분 가량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회담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지만, 회담 분위기가 딱 쉽지않은 않았다"고 말해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양측은 방북 이틀째인 4일에도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 특보는 출발 직전 기자들에게 "꼭 상대는 좋지만 (어쨌든) 집을 제대로 지지 못했다"고 회담에 임하는 부담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임무는 긴 안목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답해 여유를 남겼다.

○...임 특사 일행은 3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전용 3호기로 서울 공항을 출발한 지 1시간45분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김원수 아시아태평양평화위

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영접했다. 특사 일행은 낮 12시30분에 숙소인 평양 백화원초대소에 도착해 김용순 조평통 부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다.

북한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8시 경구 뉴스에서 임 특사의 평양 도착 소식을 보도했다. 방송들은 "남쪽의 요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는 김 대통령 특사인 외교안보특별 특보보좌역 임동원과 그 일행이 오늘 도착했다"고 결백하게 전했다.

임 특사와 김 비서의 회담은 이날 오후 4시 안면대화중에서 일련 예정이었다. 예정이 바뀌어 백화원초대소에서 만나자마자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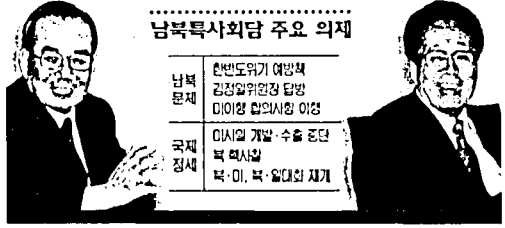
○...임 특사 일행을 맞은 김용순 비서와 김용순 조평통 부위원장, 김원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최성익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은 대남 협상을 담당하는 실체들로 알려졌다. 임 부위원장은 1978년부터 대남업무를 시작해 통일선

선부 제1부부장으로 김 비서를 보좌하는 핵심역을 담당해 왔으며, 2000년 9월에는 김 비서의 서울방문에도 동행했다. 남북 일행 가운데 김보현 국경선 3차관의 상대.

김원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남북 경제교류용 말아 조평통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의 상대격이다. 최성익 조평통 부장은 1차 장관급회담 때부터 북측 대표로 참석하고 있으며, 85년 이래 남북회담을 할 때마다 합의문인 작성을 맡아왔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임 특사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사 파견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자제가 의의가 크다"며 "북한 방문을 통해 뒤겨져 막은 것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친서에는 대통령의 뜻이 매우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순 평화협 기자 nura@hani.co.kr



남북특사회담 주요 의제

남북 문제	한반도위기 예방책 김정일위원장 답방 미이성 합의사항 이행
국제 정세	미사일 개발·수출 중단 북·미·일·러·중·일 북·미·일·러·중·일

방문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임특사는 이날 방북 직전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 성과와 관련,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질문 "김정일 위원장은 언제 만나나."  
답 "오늘 가서 일정을 논의하겠다"

질문 "김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다."  
답 "한반도평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적으로 수행하겠다"

질문 "이러한속천 참여 문제는."  
답 "협의한 바 없다. 큰 의제는 2가지다. 첫째는 한반도 긴장조정을 예방하



# 北 '주적' 철회 요구

## 林특사-김용순 1차회담 진통

오후 김위원장 면담

김대통령 친서 전달

북한이 3일 방북중인 임동원 대통령 특사와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의 회담에서 '주적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 정체의 관련한 남측의 책임론을 거론, 첫날 회담이 진통을 겪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4일 특사회담을 보도하면서 "남측이 역사적인 평양상봉 때 주적론이라는 것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도 계속 그것을 제창하면서 전쟁소동을 일으키는데 대해 압중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측은 "주적이라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에 방대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다"면서 남북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군사적 신뢰구축 토대를 조기에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남측은 4일 오전 임특사와 북측 김용순 비서관의 2차 회담을 갖고 한반

도 및 남북현안을 본격 논의했다. 임특사는 또 이날 오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현안 해결에 대한 남측의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의등기자 phil21@munhwa.co.kr

### 北 "KEDO와 협상 재개"

북한이 3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태북·미대화를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측이 지난 13일과 20일 뉴욕 접촉에서 경수로 제공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중단된 KEDO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우리측에 요청했다"며 "미국측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상대방 요청을 고려해 KEDO와의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미간에는 지난해 1월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드문 차원의 대화가 중단됐고 그간 지속됐던 KEDO의 기술적, 실무적 대화도 지난 3월 초부터 북측의 거부로 모두 연기됐다.

/서의등기자

문화일보

2002. 4. 4 (목)

國民日報

THE KUMMIN DAILY

2002. 4. 4 (목)

## 김정일면담 전력지원등 논의

林특사 金대통령 친서전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는 4일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 2차회담을 갖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기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 발사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경우 남측이 간접 방식으로 북측에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두 사람은 직접적인 송배전 방식은 미국과 남측 보수여론에 밀려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고 수력발전설비와 송배전 설비, 각종 계량계측기 등 전기기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남측의 잉여 석탄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량 및 비료 지원, 이러한 축전 대 남측 합관단 파견도 합

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특사는 전력 및 식량지원을 논의할 경험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이어 군사당국간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당 교원문제를 논의한 직선자 회담을 일사조 박속에 제의했다.

임특사는 이날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는 김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싸고 종착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핵사찰을 조기에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북·미 및 북·안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김대중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용순 비서는 3일 회담에서 주적론 철회 및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석기자

# 南 “군사적 신뢰구축” 촉구

## 첫날 탐색전... 2차회담서 '현안' 본격 논의될듯

### 林특사 訪北 이모저모

대통령 특사로 방북한 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총괄 특보와 북측의 회담은 4일 들어서야 본격화됐다.

3일 임 특사와 김용순 노동당비서와의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위기예방 방안과 남북관계의 진전방안 등 '본안' 대신 '주적론' 문제를 놓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북측의 '주적론' 철회요구에 대

해 남측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에 방대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남측은 또 9·11테러사태 이후 제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한 설명에서 출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의 해법 도출을 위한 북·미대화의 조기재개를 설득했다. 또 남북간 합의됐으나 이행되지

못한 문제들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남북경협추진위·군사당국자간회담·이산가족상봉단 조속교함과 이산가족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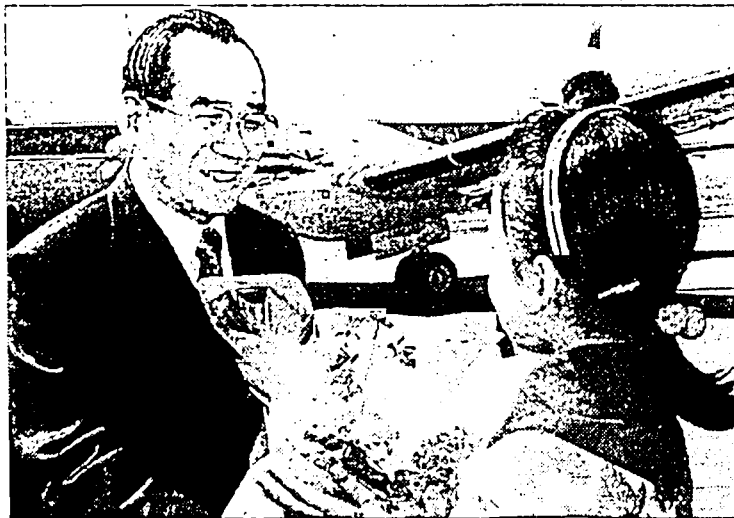
주적론 제기와 관련, 한 회담 관계자는 "소강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북측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화전술로 볼 수 있다"면서 "어제 회담은 1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주적론을 거론, 남측을 압박한 바 있으며 올해 신년사에서 주적론 문제를 언급했었다.

그간의 남북간 회담 관행으로 미뤄 첫날 탐색전을 마친 남북은 4일 2차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남북 현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이 첫날 미국과 일본의 대북 메시지를 포함, 한반도 평화방안을 포괄적으로 전달한 만큼, 북측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WMD 문제 등 핵심사안에 대한 북측 입장은 이날 중으로 예상되는 김정일 위원장과 임 특보간의 면담에서 표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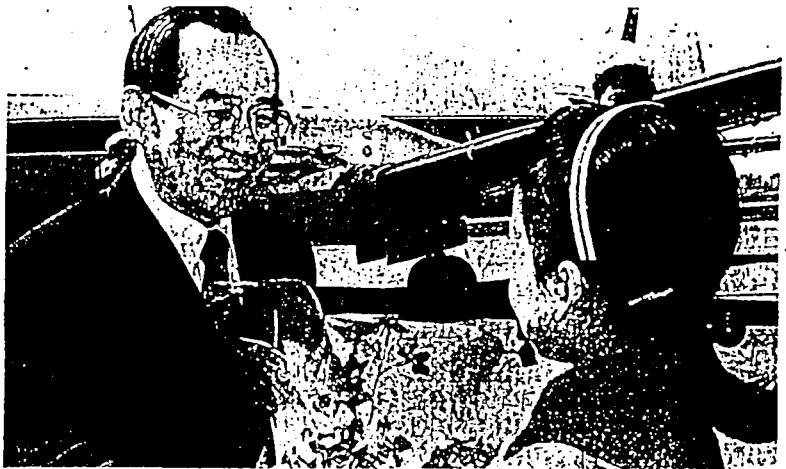
임동원 대통령특사가 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북측의 화동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AP

# 北 대화유도 '특사선물' 뭘까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 중인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북측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조기 수용과 미사일 발사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면서 함께 제시했을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라도 다양한 고감도 당근책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다. 임특사가 3~4일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의 연쇄회담에서 남북경협추진위 개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미뤄 경험과 관련된 대북지원이 주를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춘공기를 앞두고 북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량 및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미 지난해 말 여야가 식량 30만t 지원에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은 최근 다시 재고미 처리를 위해 북측에 지원할 것을 촉구, 임특사에게 힘을 보태줬다. 비료 역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화동으로부터 축하화환을 받고 있다. 임특사는 속소인 백 회원초대소에 머물며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계속 하고 있다. 평양=AP연합

## 식량·비료-아리랑축전 참관단 파견 예상 電力 간접 지원-잉여 석탄등 공급 가능성

시 북측의 지원요청 신호만 있어도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경추위를 거쳐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오는 29일 시작될 북한 아리랑축전에 대규모 남측 참관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아리랑축전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는 북한 입장에선 남측의 대규모 관광단 방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총리급 인사를 개막식에 파견한 뒤 월드컵 때 북한 고위급 인사의 남측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

이 나오고 있다.

이들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북측이 원강히 거부하고 있는 조기 핵사찰과 미사일 발사 및 수출 유예 기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다. 이와 관련,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북한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전력부족이라는 것이다. 실제 북측은 2000년 12월 1차 장관급 회담에서 송전 방식을 통한 200만kW 전력 제공과 기존 발전소를 이용한 50만kW 전력 긴급제공을 요구한 것을 필두로 각종 회담 때마다 전력

지원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군사용으로 전용된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과 국내 보수층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송·배전 방식보다 간접적인 전력 지원을 비공개적으로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수력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 각종 계량계측 및 자동화 수단 등 현대적인 전기기계 설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그동안 정부가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뉴욕 센추리재단의 켈리그 해리슨 연구원이 최근 북한 백닌순 외무성의 말을 인용, "남북 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잉여석탄 1000만t 지원이 논의됐다"고 밝힌 바 있어 이것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꼽힌다. 김영석기자 yskim@kumib.co.kr

# 아리랑축전때 이산 상봉

## 林특사-김정일 면담 대규모 訪北 추진

### 오늘 판문점 귀환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중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는 4일 저녁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위원장은 우리측이 제시한 >경의선 연결>이산가족 상봉 재개>개성공단>군사신뢰 구축>금강산 육로 개방 등 5대 현안의 해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이들 문제를 논의하는 경협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남북 실무회담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북측에 쌀 30만t과 비료 20만t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할 방침이다.

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회담 교위 관계자는 "이번 특사 방북은 성과가 아주 많았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5~6월에 열리는 북한의 아리랑 축전 때 남측의 이산가족이 대거 북한을 방문, 축전을 관람하고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교위 관계자는 이날 중 재개된 4차 이산가족 상봉과 발개로 남측 이산가족이 아리랑 축전(4월 29일 개막) 기간 중 대규모로 방북해 축전을 관람하고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방안을 남북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저녁 늦게 특사 일행이 묵고 있는 백화원 초대소를 방문, 특사를 면담했으며 이날 심야까지 만찬을 베풀었다.

김홍채(金弘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 브리핑에서 "특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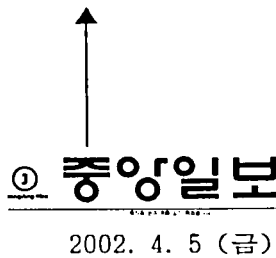
미국방위원장과 만나 만찬을 함께 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친서와 함께 전달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심야까지 실무접촉 등을 통해 향후 남북간이 이행해야 할 현안을 놓고 막판 접촉을

벌였으며 5일 오전 중 추가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특사는 방북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방북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영준 기자

<yjlcc@joongang.co.kr>



### 朝鮮日報

2002. 4. 5 (금)

# 林특사, 김정일 면담

## 金대통령 친서 전달... 오늘 공동보도문

### 北, 실무접촉서 主敵論 철회 요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중인 임동원(林東源) 대북 특사는 4일 저녁 숙소인 평양 백화원초대소로 찾아온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한

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으며,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임 특사 일행은 김 위원장과 함께 백화원초대소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임 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날 오후까지 남북간 인식의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직심자회담과 김협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남북간이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현안들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5일 오전 남북관계 현안

들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이번 특사방북 기간 중 논의된 내용과 합의사항들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 일행은 5일 오후 승용차를 이용,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측은 4일 실무접촉과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해 미·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 2차 경협추진위원회와 2차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북측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이 미국과 남측에 있다"면서 '주적론'(主敵論) 철회 등 '민족공조'에 대한 우리측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했다.

/全仁仁기자 ginko@chosun.com

# 林특사 어젯밤 金正日 면담 친서전달

## “한반도 위기 극복 노력” 합의

오늘 “남북대화-이산가족 교환방문 재개” 공동발표 할듯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 통일특보는 4일 백화원초대소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A4면에 관련기사

통일부 김홍재(金泓宰) 대변인은 “임 특보는 김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뒤 만찬을 함께 했다”며 “임 특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위한 김 대통령의 뜻을 친서와 함께 김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임 특보는 김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핵사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위기극복을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조만간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는 5일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 2차 회담을 갖

고 양측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조만간 남북대화를 재개하며 이른 시일내에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실시하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또 북한의 아리랑축전에 남북 관람객이 방문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조속히 재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험추진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임 특보 일행은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한겨레

# 임특사, 김정일 위원장 면담

## 어젯밤 김대통령 친서 전달...오늘 판문점 통해 귀환

임동원 대통령 특사는 방북 이틀째인 4일 저녁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홍재 통일부 공보관은 “임 특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관한 김 대통령의 뜻을 친서와 함께 김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김 위원장이 남쪽 당국자와 직접 만난 것은 2000년 9월1일 2차 장관급회담 때 박재규 수석대표를 ‘접견’한 이래 1년7개월여만에 처음이다. 만찬에는 남쪽에서 임 특사와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조평균 통일부 국장, 김천식 통일부 과장, 서훈 국장이, 북쪽에서는 김 위원장과 김용순 노동당 비서, 임동욱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김 공보관은 양측의 만찬이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됐으나, 임 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이나 만찬 때 오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면담은 저녁식사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담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만

남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면담이 이뤄지기 전에 임 특사와 김 노동당 비서 사이에 별도의 회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남북은 김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원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위기방지와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절충을 벌였다. 정부 당국자는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군

사당국자간 회담 등을 거듭 촉구했고 북쪽은 한반도 위기 책임론과 민족공조론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김 공보관은 “임 특사 일행은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임동원 특사 김정일 면담

### 金대통령 친서 전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중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4일 저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2면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임 특사는 이날 속소인 평양 백화원 초대소를 방문한 김 위원장과 만찬 및 면담을 가졌다”면서 “임 특사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 협력을 바라는 김 대통령의 뜻을 친서와 함께 전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문제에 관한 남북간 의견이 어느 수준에서 해소될 지 주목된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남측의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북측의 김원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무회담을 가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어제 회담에서 제기된 한반도 위기방지와 남북관계 타개문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특사등 남측 방북단 일행은 5일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한국경제

# 임특사, 김정일 면담

## 백화원초대소서... 김대통령 친서 전달

오늘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후 귀한 김정은 답방메시지 휴대 여부 관심

방북중인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4일 저녁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을 바란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3면

임 특사는 특히 김 위원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 되어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 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임 특사는 이 자리에서 김 위 원장의 서울답방을 타진함으로써 답방 및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의지 등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나 친서를 휴대할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이 이뤄진 에 따라 남북은 5일중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 재개, 남 북경협추진위 속개 등 정체중인 남북관 계를 진전시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북 양측은 공동 보도문 분안 정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아울러 김 위원장과의 면담 및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전선 담당 비서와의 회담에서 핵·미사일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 전력 및 식량 지원 문제, 국제원 자력기구(AEA)의 핵사찰 요구 수용,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 중단 등도



임동원 특사



김정일 위원장

백화원초대사로 전격직으로 찾아온 김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했 다."고 밝혔다.

권고하고 북·미 대 회와 필요성도 제 기한 것으로 전해 졌다.

김종재(金弘宰) 통일부 공보관은 이날 밤 "임 특사가 오늘 저녁, 숙소인 임 특사 일행은 5일 오후 판문점을 떠

해 육로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특사 회담 이 없이 1시간30분 동안 우리측 김보현 국장원 3차장과 북측 김원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심 이 돼 현안에 논의하는 실무 집회를 가 졌다. 한편 정부는 임 특사의 방북 결과 달 6일중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 변 4대 강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기자 anselmus@kdaily.com

### 서울경제

2002. 4. 5 (금)

### 대한매일

2002. 4. 5 (금)

### 한국일보

2002. 4. 5 (금)

## 조속 이산상봉 합의

林특사, 김정일 면담 金 “北·美대화 필요” 표명

### 이달중 서울서 경협총 개회 접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 중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동 일 특보는 4일 저녁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 원장과 면담, 이산가족 교환, 경의선 연결사업 등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미 대화에 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두 사람은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을 위한 경협추진 위를 이달 중 서울에서 열기로 의견 을 모았다. ★관련기사 5면

정부 당국자는 "임 특사는 이날 저 녀 전격직으로 숙소인 백화원 초대 소를 찾아 김 위원장과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면서 "이산가족 상 봉 등 합의사항의 이행과 북미대화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고 밝혔다. 임 특사는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북일 대화에 응하고

남북 화해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임 특사는 2일 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인식, 9·11 테러 이후 급변한 세계경제 등을 설명한 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WMD) 문제를 풀기 위한 북미 대 화를 김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임 특사는 또 월드컵 개막식에 김 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장 등 북측 고위 인사가 참관하길 바란다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미대화 필요 성에 동의하면서,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미국의 대화 의지가 전제된다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북일협상의 재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 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의사를 물었으나, 김 위원장의 반응 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 은 북측이 김일성(金日成) 주석 90 회 생일을 기념해 준비 중인 '이리 람' 공연에 남측 인사의 참관을 기대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임 특사는 면담을 가 진 후 이날 밤 늦게까지 만찬을 함께 했다. 면담 및 만찬에는 북측에서 김 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 임동 원(林東源)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 부부장이, 남측에서 김보현(金保鉉) 국장원 3차장, 조명균(趙明均) 통일 부 남북교류협력국장, 서순(徐勳) 국장이 배석했다.

林특사 오늘 판문점통해 귀환

임 특사 일행은 5일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 등과 합의사항 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판 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이동준기자 djice@hk.co.kr

### 林특사 실무접촉 진전없어

#### 金위원장과 전격회동 가능성

방북 중인 남측 대표단은 4일 오전 북 측과 실무접촉을 갖고 한반도 긴장완화 와 남북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 논의가 전날에 이어 구체적인 합의점 도출 없이 답방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임동원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전격적인 회동에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방북 첫날 임 특사와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의 회담에 이은 이날 실무접촉에 서도 북측은 한반도 위기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는 동시에 민족공조 문제에 대한 우리측 답변을 요구했다고 정부의 한 관 계자는 전했다.

# 임동원특사 金正日 면담

## 金대통령 친서 전달... 서울답방 타진

장관급회담·'상봉'등 의견접근 한듯  
오늘 한차례 더 협상... 현안 최종조율  
林특사 일행 판문점 통해 육로귀경

평양 방문 이틀째인 임동원(林東源) 특사 일행은 4일 오후 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장을 면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면담은 김 위원장이 임 특사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전격 방문해 이뤄졌으며, 만남 후 김

위원장은 임 특사, 김용순(金容淳) 노동당비서 등 남북대표들과 공식만찬을 가졌다.

남북한은 이날 특사회담과 실무 접촉을 잇따라 열어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를 포함해 △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상봉 재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재개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무접촉은 남측의 김보현

(金保鉉) 국정원 3차장과 북측 김 안수 이태평화위 부위원장간에 열렸다.

양측은 5일 오전 한 차례 협상을 더 갖고 현안을 최종 조율한 뒤 공동발표문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은 임 특사가 서울에 돌아온 후 발표 예정이라고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공보관이 전했다.

임 특사는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나 서울답방을 타진했으나 그의 의중이 어땠는지에 대한선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임 특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과 미사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결을 위한 북·북일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 특사 일행은 5일 오후 2시30분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육로를 이용, 판문점을 통해 귀경한다.

한편 정부는 임 특사의 방북결과를 이르면 6일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의 대사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世界日報

# 林특사, 金위원장 만나 답방촉구 DJ친서 전달

남북현안 집중논의...北·美대화 권고

방북중인 임동원(林東源) 특사는 4일 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장을 면담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임특사 일행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전격 방문, 면담을 한 뒤 밤늦게까지 만찬을 함께하며 한반도 위기에방방안 및 남북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임특사는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희망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전달한 뒤 김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9·11 테러 이후 급변한 국제정세를 설명한 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6·15공동선언의 핵심사항인 김위원장 답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특사는 또 미국·일본의 메시지를 김위원장에 전달했다.

정부당국자는 "김위원장은 임특사에게 김대통령 안부를 정중히 물었다"

고 전하고 "면담이 성사됨으로써 진통을 겪은 남북현안 등이 포괄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특사의 한반도 위기에방 및 남북간 교착상태 해소 방안에 대한 김위원장의 답변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면담 후 가진 만찬에는 남측에서는 임특사와 김보현(金保鉉) 국정원 3차장·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서훈(徐勳)청와대국장 등이, 북측은 김위원장과 김용순(金容淳) 노동당비서·임동옥(林東玉) 노동당 통일선전부 제1부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에 앞서 임특사와 동행한 남측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북측 김안수 아·태 부위원장과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상봉, 군사당국자회담 및 감축추진위원회 재개 등을 촉구했으나 김안수 부위원장은 남측의 주적론 철폐와 '민족공조 방안'으로 맞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김차장은 "미국과 일본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면서 한반도 긴장 예방을 위한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또 4월중 이산상봉 재개 및 경의선연결 문제를 논의할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부위원장은 "남북관계 교착은 미국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남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뒤 남북이 함께 '민족공조'로 한반도위기 상황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남측이 역사적인 평양상봉 때 주적론이라는 것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도 계속 그것을 재강하면서 전쟁소동을 일으키는데 대해 엄중시했다"고 주장했다. 임특사 일행은 5일 북측과 실무회담을 갖고 6~7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뒤 오후에 판문점을 통해 귀향할 예정이다.

이용욱·김진우기자

woody@kyunghyang.com

2002. 4. 5 (금)

경향신문

2002. 4. 5 (금)

# 林특사 김정일 면담

매일경제

2002. 4. 5 (금)

## 金대통령 친서 전달...남북대화 재개될듯

### 나영필 기자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청와대 통일특보는 방북 이틀째인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임 특보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관한 김 대통령님의 뜻을 친서와 함께 전달한 후 김 위원장과 만찬을 함께했다.

###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6차 장관회담 결렬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며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삼성동 남북회담 사무국에 마련된 상

환실에서 "임 특보가 4일 저녁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면서 "임 특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관한 김 대통령의 뜻을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만남 자리에서 북측이 이른 시일 안에 미·일과 대화해야 한다는 점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남북간에 합의는 됐으나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십자회담, 김형주전위, 군사당국간 회

담 등이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경제와 관련된 그의 시각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우리측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보가 북한 최고당국자와 만담을 상사시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물론 대북 경제협력과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경험추진위, 군사당국간 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과 만찬에는 북측에서 김정일 위원장, 김용순 노동당 비서, 임동원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이, 우리측에서 임동원 특보,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조만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 한국경제

2002. 4. 5 (금)

## 한겨레

2002. 4. 5 (금)

## 김위원장, 예고없이 숙소방문

### ■ 임특사 방북 이모저모

◇정부 당국자는 4일 밤 11시께 "임동원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면담했으며, 이 시간 현재 만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까지 "실무접촉이나 특사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해 한때 임 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한때 "면담 지연" 관측도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의 면담·만찬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사전 절차 없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남한 당국자를 만난 것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두번째다. 김 위원장은 이해 8월 12일 남쪽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방북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났고, 그해 9월1일 2차 장관회담 수석대표였던 박재규 당시 통일부장관을 만난 바 있다.

◇김종재 통일부 공보관은 "임 특사 일행은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특사 일행은 애초 방북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전용 3호기를 타고 서해상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직항로 방북~판문점 귀환" 경로를 이용하게 된 것은, 2000년 9월 남쪽을 방문한 김용순 노동당 대변단

담 비서가 판문점 귀환 경로를 이용한 것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아태평화와 대변인은 이날 임 특사 일행과의 협상이 오는 도중에 담화를 내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켜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이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 대가로 받은 4억달러를 군사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런 주장을 했다고 관영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 미국 비난 담화에 긴장

이 담화는 임 특사 일행이 평양에 체류하고 도중에 나온데다 협상 상대방인 아태평화위가 담화를 썼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임 특사의 방북과 연결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전 실무접촉에서 김보현 3차장의 상대로 나온 북쪽 김연수 부위원장은 남북 민간경협에서 주로 삼성쪽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보현 3차장의 상대는 림동원 조평통 부위원장겸 통전부 부부장이 맡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남북장관회담 당시 수행된 신분임에도 전금철 북쪽 단장 등이 그를 각국이 예우함으로써 상당한 실세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방북중인 임동원 대북 특사가 4일 저녁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을 면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각종 현안들에 대한 남북간 이견이 좁아질 것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모든 갈등권을 갖고 있는 체제 특성상 임 특사와의 면담은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의선 연결 문제를 다룰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 등 고려됐던 남북관계가 상당 수준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 林특사 - 김위원장 면담

## 이산상봉·경협추진등 남북교류사업 돌파구

◇무슨 얘기 나눴나=임 특사는 김 위원장에게 9·11테러 이후 국제정세가 확연히 바뀌었으며 미국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했지만 북한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0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측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하는 한편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김 대통령의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이와함께 '대화를 원한다'는 미국의 메시지와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일본의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관계 돌파구=임 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은 잠재된 남북관계에 상당한 감칠미 기대된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얘기다.

단장 기대되는 효과로 중단됐던 남북회담 등 각종 남북간 교류

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명단까지 교환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재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쌀 지원을 위한 2차 김형주전위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임 특사가 김 위원장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핵사찰·미사일 등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현안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임 특사의 설득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현안들은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쉽게 양보할 시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김정일 답방문제 의견 교환

## 반북 이틀째 이모저모

임동원 특사 일행이 4일 저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날 첫 회담에서 북한의 주적론 철회 주장으로 어두운 분위기였던 남북회담사무국 상황은 분위기가 일순간에 반전됐다.

○...이날 만찬은 김위원장이 특유의 달변과 유머 감각을 구사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방북단이 알려졌다.

林특사는 국경인장 때인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전 포말 작업을 위해 두 차례 극비리에 방북해 김위원장과 만났고, 정상회담 때를 포함해 이번이 네번째 만남.

만찬에는 남측에서 김보현(金保炫) 국가정보원 3차장과 통일부의 조명균(趙明均)교류협력국장, 서훈 국정원 단장이 배석했다.

2차 장관급 회담 때인 2000년 8월 박재규(朴在圭)당시 통일부 장관의 김위원장 면담 때 배석했던 徐단장은 이번에는 대표단이 아닌 수행원으로

## 김정일 답방관련 주요 언급

-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임동원-김용순 서울·재주회담 합의 (2000년 9월 14일)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 방문"
- 임동원 통일장관 (2001년 3월 27일 취임 기자회견)  
"솔직히 날짜를 합의해 놓은게 없어서 답방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1년 5월 3일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 겸재)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 지켜본 뒤 답방문제 결정할것."
- 김대중 대통령 (2001년 5월 24일 외신 기자 간담회)  
"김위원장이 서울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혀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 임동원 특보 (2002년 4월 1일 언론인 간담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북측이 주적론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방송은 "우리측은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이후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안과 호전세력의 전쟁 도발 책동에

## 주적론이란

北=현존하는 위협  
우리軍 기본 개념

우리 군의 주적론(主敵論)은 북한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격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기본개념이며 장병들의 정신무장 교육에도 필수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도 남한을 '원수' '과녁'으로 지칭하고 있고 남북간에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적개념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삼장' '주적인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 위협' 등으로 명시해왔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4일 오후까지만 해도 전용기를 보내달라던 방북단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 회담 관계자는 "우리는 판문점을 이용한 남북한 완례를 항시 희망해 왔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영증 기자

## 林특사-김정일 화기애애한 만찬 北, 主敵論 철회 요구에 한때 진통도

따라갔으나 또다시 면담에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측에서는 노동당 김용순 비서와 임동옥(林東旭)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자리했다.

○...면담에서 林특사는 한반도 평화 안정과 남북한 화해 협력을 바라는 김대통령의 뜻과 함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한 의사도 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김위원장의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 해운 발연들은 최근 이에 대한 기대가 잃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참조>

하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정상 이 이에 대한 서로의 뜻을 충분히 교환함에 따라 답방과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오전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3일 회담에서 북측이 남측에 '주적론'(主敵論)을 포기하고 민족관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하

로 말미암아 북남 공동선언 이행이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고 그 책임이 미국과 함께 남측에도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또 "우리측은 또한 남측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 때 주적론이라는 것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도 계속 그것을 제창하면서 전쟁소동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엄중시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근본입장부터 바꿀데 대해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남측 대표단은 3일 회담에서 북측 주장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에 방대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며 대처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林특사가 방북 때와 달리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서해 경유 직항로가 아닌 판문점을 이용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 南北관계에 다시 햇볕

## 林특사, 김정일 전격 편담 의미

임동원(林東源)특사와 김정일(金正日)북방위임장의 4일 전격 회담은 소강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간의 교감(交感)속에 보다 큰 틀에서의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분석이다. <구름 걷힌 남북관계>=林특사는 김위임장과 만난 자리에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못한 상황을 위해 김위임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

林특사의 답판으로 향후 남북관계에는 탄력이 불을 게 분명하다.

우선 4월 중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지난해 11월 결렬된 이후 중단된 7차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는 수순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 이산가족이 대규모 방북단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평양에서 두달간 치러질 아리랑축전을 관람하고 재북가족과 상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이른바 선남후미(先南後美)방식의 정부 구상도 힘을 받게 됐다.

林특사는 서울로 돌아온 직후 위정권을 방문해 미국측에 방북 권리와 김위임장의 대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북지원 보따리 쉼까>=林특사가 북측과의 주고받기를 위해 준비해 간 카드는 비료·식량 지원과 전력 제공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북측도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만t 규모의 비료는 북측의 요청만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든 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 첫 선적이 가능하다.

정부 보유 쌀의 제공도 야당도 잉여 쌀의 대북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 등이 가시화하면 절차상의 문제만 남게 된다. 그러나 북측이 갈망하게 바라는 전력지원 문제는 보다 복잡한 사정이 있다.

2000년 12월 4차 장관급회담 때 북측의 2백만kw 지원 요청으로 이듬해 2월 평양에서 전력신탁합의까지 일었으나 실태조사 등을 둘러싼 양측 이견으로 백에 부닥쳤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 등 조치를 취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조율 문제 등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전력신탁합의가 재개되면 50만kw 규모의 긴급지원 방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 월드컵때 北 고위인사 방문 추진 對北 식량·비료 지원 등은 합의

지난 남북간 화해·협력 방안을 이행할 시간표를 다시 짜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악화됐던 북·미관계와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각지 않을 것

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군사당국간 회담(국방장관 회담)> 이산가족상봉 등을 논의할 각급자 회담 등이 그것이다. 그밖의 현안들도 큰 틀의 가닥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방하는 방안. 북측도 이에 상응해 5월 말 개막하는 월드컵에 고위급 인사들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한이 상생(相生)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金正日 예고없이 방문 대화 급진전

### 林특사 방문 둘째날- "화해-협력 필요" 양측 공감

4일 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특별대표의 편담이 이 위장에 따라 한반도 위기론에 대한 인식차로 긴장을 겪었던 양측간 대화가 급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임 특보의 속소인 평양 백화원 초대소를 예고없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임 특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인사를 전달하고 한반도 안보위기에 예방 및 남북 화해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내게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

장으로서도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앞서 이날 낮 김보현(金保鉉) 국가정보원 3차장과 북측 김완수(金完洙)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간에 진행된 차관급 실무접촉에선 한반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문제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위기 예방을 위한 북측의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북측은 한반

도 위기의 원인을 우리와 미국 측에 떠넘겼다. 북측에 대해서는 '주적론'을,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출력 실시와 금강산관광 반대론 문제 삼았다.

우리 측은 또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각급자회담,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을 논의할 군사회담, 식량 비료 등의 대북 지원할 다음 남북 경제추진위원회 등을 재개하자고 북측에 거듭 촉구했다.

이들 현안에 대한 질종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북 성과물은 임 특보가 평양을 출발하는 5일 중 공동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北, '主敵論' 내세워 회담 기선잡기

### 포기 요구에 정부 "군사 신뢰구축" 촉구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특별대표와 김완수(金完洙)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간의 평양 회담에서 북측이 '주적론(主敵論) 포기'를 요구한 것은 회담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주적론'을 활용할 경우 남북이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을 잘 아는 북측로서는 이 카드가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남북의 요

구 중 하나와 상충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적론과 모종의 약속을 한 것처럼 비치게 만들어 남북 여론을 흔들려 보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중앙방송은 4일 "남측이 역사적인 평양상봉 때 주적론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고는 계속 그것을 제창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서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기로 논의한 바 있었다"며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적론을 명시한 국방백서 발간을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변경, 발령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북한의 '주적론' 카드는 이번 회담에서도 여전히 남북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① **중앙일보**  
2002. 4. 5 (금)

← **東亞日報**  
2002. 4. 5 (금)

# 백화원숙소 한밤 전격 방문

• 김위원장, 林특사 면담 안팎

임동인(林東寅) 특사가 4일 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임특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와 한반도 현안해결에 대한 남측 의지를 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위원장이 남측 당국자들 만난 것은 2000년 8월 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박재규(朴在圭) 당시 통일부 장관과 만난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임특사 개인적으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와 그보다 한달 전인 5월 방북 때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면담은 김위원장이 임특사 일행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방문함으로써 성사됐다.

김위원장이 또다시 전격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다. 김위원장은 면담에 이어 민천도 함께 임특사를 예우했다.

면담과 밤늦게까지 이어진 만찬은 총 2시간을 넘었다. 임특사는 김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개인인부담 전했으며 한반도정세와 남북연인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임특사는 우선 9·11테러 이후 달라진 세계정세와 한반도 위기 상황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으로 위축된 김위원장의 마음을 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김위원장의 마음을 돌려야 남북 연인들이 풀리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부 김홍자(金弘宰) 대변인은 "임특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력을 위한 김대통령의 뜻을 친서와 함께 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대통령은 친서에서 9·11테러 이후 국제정세가 확연히 바뀌었으며, 미국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했지만 북한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0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회고하며 김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는 이와 함께 미국·일본의 대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극을 피하기 위해 미사일개발·수출과 핵사찰, 일본인 납치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김위원장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남북이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면서 같은 민족끼리 한반도 위기시대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에 대한 남측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북은 임특사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와의 첫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입장 차 때문에 4일 오후까지 현안논의 단계 이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협상이 지지부진했으나 김위원장의 방문으로 현안들의 일괄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위원장 회고담국지인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얽힌 현안의 실태를 푸는 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해결방안, 개성공단 조성, 긴장완화 등 현안 해결과 남북경제협력, 군사당국회담 등 각종 회담체계의 재가동 방안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홍욱·김진우기자 woody@yungnyang.com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0년 6월 14일 평양 육관관에서 가진 만찬에서 임동인 당시 국정원장이 김위원장과 귀담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자료사진

## 현안타결 급물살 탈듯 면담내용은 안밖혀져 김대통령 안부 묻기도

임동원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 면담내용(추정)

	임특사	김위원장
한반도정세	북·미 및 남북대화 통한 위기예방	민족공동체 해결
남북대화	진전체제	공감
남북연인	이산가족·경수위 군사당국 회담 재개	공감
북·미대화	조속한 시일내 재개	필요시 인정

김대통령은 친서

에서 9·11테러 이후

국제정세가 확연히 바뀌었으며,

미국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했지만 북한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0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회고하며 김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는 이와 함께 미국·일본의 대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극을 피하기 위해 미사일개발·수출과 핵사찰, 일본인 납치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김위원장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남북이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면서 같은 민족끼리 한반도 위기시대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에 대한 남측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북은 임특사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와의 첫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입장 차 때문에 4일 오후까지 현안논의 단계 이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협상이 지지부진했으나 김위원장의 방문으로 현안들의 일괄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위원장 회고담국지인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얽힌 현안의 실태를 푸는 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해결방안, 개성공단 조성, 긴장완화 등 현안 해결과 남북경제협력, 군사당국회담 등 각종 회담체계의 재가동 방안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홍욱·김진우기자 woody@yungnyang.com

## 중앙일보 2002. 4. 5 (금)

아리랑 축전때 이산상봉 어떻게 할까

### 관문점 통한 訪北 가능성

양국이 남측 이산가족들에 광양 아리랑 축전 참관과 재북(在北)가족 상봉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합의함으로써 어떤 형태로 이뤄지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수천명 규모의 방북단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각각 1백명 규모로 제한해 시범적인 서울·평양 교환 단 방문에 머물던 이산가족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의 기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면회소 개설 등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제도화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협의는 그동안 아리랑 축전 참관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해 오던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와 이를 연계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방북 이산가족들이 북한 가족에 제공할 수 있던 금액 가이드라인(5백달러 수준)을 일시적으로 없애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제3국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80만달러)도 검토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북한이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방북단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나 이북5도위원회 등 이산가족 관련 기관을 통해 선정된 뒤 북한을 방문해 먼저 아리랑 축전을 참관하게 된다.

이후 고려호텔이나 인민문화궁전 등 북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미

준비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김치박물관 상하리 현 공원으로 만들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8시부터 치러진다.

50회 공연을 목표로 화당 4천명을 기준으로 2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북측 목표. 관람료는 1백~3백달러로 다소 비싼 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미 아리랑 축전 참관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 지역으로 김대성 생가인 면강대와 광안저하철·조선 예술영화 촬영소

등 광양시내 27개 장소와 남포·만문집·묘향산 등 세 곳을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체사상탑 전망대와 대동강 유람선 '평양 1호'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네온사당이나 아리랑 축전 관련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된 예정이다.

○아리랑 축전이른=4월 20일부터 두달간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10만명의 북한 주민·학생이 동원돼 열리는 종합예술 공연.

단초 김일성(金日成·1904년 7월 사망)주석의 90회 생일행사로

준비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김치박물관 상하리 현 공원으로 만들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8시부터 치러진다.

50회 공연을 목표로 화당 4천명을 기준으로 2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북측 목표. 관람료는 1백~3백달러로 다소 비싼 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미 아리랑 축전 참관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 지역으로 김대성 생가인 면강대와 광안저하철·조선 예술영화 촬영소

등 광양시내 27개 장소와 남포·만문집·묘향산 등 세 곳을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체사상탑 전망대와 대동강 유람선 '평양 1호'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네온사당이나 아리랑 축전 관련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된 예정이다.

○아리랑 축전이른=4월 20일부터 두달간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10만명의 북한 주민·학생이 동원돼 열리는 종합예술 공연.

단초 김일성(金日成·1904년 7월 사망)주석의 90회 생일행사로



# 김위원장 '화답' 여부 주목 남북관계 진전 가능자될듯

## ■ 김위원장 만난 임특사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방북 이틀째인 4일 저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은 그 자체로써 그동안 김체상태를 면치 못하던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 위원장과 면담은 성사 여부 보다는 그 시점을 중시했다. 이날까지 면담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후 남북간의 실무 접촉이 영향을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남북의 실무진들은 이날 김 위원장과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회담 형식의 방북 집중에 들어갔다. 이어 협상 실무진들이 합의 사항을 정리한 뒤 임 특사와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회담을 통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이 전례에 따라 현지에서 바로 발표될지, 귀환 뒤 발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남북은 4일 오전부터 실무접촉을 갖고 지난해 9·11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악의 축'

## 실무진 밤샘 절충작업

## 북 주적론 문제제기

## 남 국방장관회담 촉구

방인 등 남북단국 관계를 소강상태에 빠뜨려온 상황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남쪽은 한반도 긴장 타개를 위해 북한이 미국·일본과 조속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남북간 미이행 과제를 신속히 심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쪽은 남쪽의 '주적론'과 이른 바 '전쟁소동' 등을 문제삼으며 대화 단절의 책임소재를 집중 거론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북한의 '주적론' 제기에 대한 북한의 보도를 보면 자극적인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북쪽의 입장을 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쪽의 주적론 제기가 회담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남쪽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에 방대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다"며,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해 '이전 해소의 물'의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예상했던 것 같긴 하지만 협상 진행이 매끄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이 회담기간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미 대화에 나설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전체 구도는 예상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가 바로 알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촉각을 세우는 것은 임 특사와 김 국방위원장의 만남에서 어떤 교감이 오갔는가 하는 것이다. 임 특사가 휴대한 대통령 친서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응답을 내놓았는지 특사 파견의 전체적 성과를 좌우하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 북 케도협상 재개 의미

# 북-미 대화 물꼬 가능성

"본격대화 연결은 무리"

북한이 임동원 특사의 평양방문 첫날인 3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실무협상 재개를 발표한 것은 회담과 관련한 긍정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북-미 뉴욕접촉에서 미국측이 경수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중단된 케도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청해온 데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케도 관련 협상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경수로 전문가들은 일단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실무 협의와 북한 요원들의 원전교육과 관련된 실무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핵사실 문제가 북-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1994년 5월 17일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북한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로 파악한다. 이들은 북한측이 자주 실무협상을 연기해왔음을 들어 이번 발표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를 삼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측이 9·11테러 이후 미국측의 대북 적대정책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던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점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공사 지연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만을 요구해온 그동안의 자세와 비교해 상당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측의 케도협상 재개 발표를 골장 북-미 간의 대화 재개로 연결시키는 합당한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우리는 미국의 움직임을 엄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긴 점도 주목거리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남북관계 극적 돌파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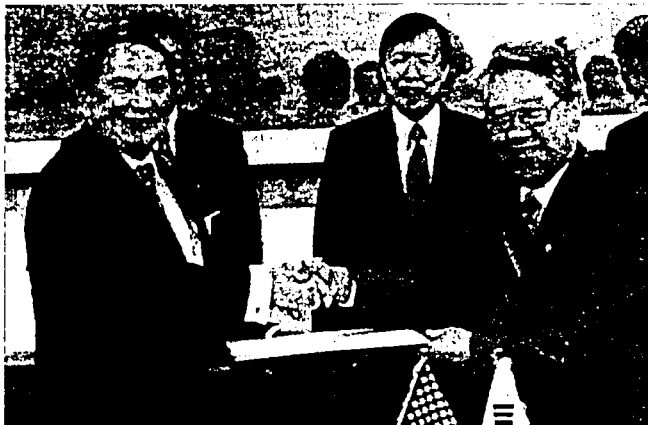
## ■ 임특사 김정일면담 안팎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4일 속소인 백화원초대사로 찾아온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장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한반도 위기의 해법 및 남북관계 진전 방안 등에 대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임 특사와 김 위원장간 면담이 이날 밤 전격 성사되고, 임 특사의 서울 귀환 일정이 5일 오후로 정해짐에 따라 전안 에 대한 남북의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 된 것이 아니냐는 희망적 관측을 낳고

있다. 이란디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 산 육로관련,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직십 자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당국 간 군사회담(국방장관 회담) 등의 재개 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핵·미사일 문 제 해결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이 사실상 북한의 '국방체계'에 큰 변화할 요구하는, 합치 않은 사안들이어서 김 위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풀고 요구해 온 전력 및 식량·비료지원 문제, 제4차 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서명 회상(오른쪽) 외교장관과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IA)에 서명하고 협정서도 교환하고 있다. ●김정남기자 snk@kdaily.com

한반도 위기 해법등 이견 상당 해소  
핵 수용·미사일 수출 중단 적극 설득  
경의선 철도·핵문제 군부 반응 주목

있다.

게다가 북한이 지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히는 등 유화적 태도만 보인 점으로 미뤄 이런 시일 안에 북·미 대화 도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임 특사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한반 도 평화와 남북화 해협력력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국제인자력기구 (IAEA) 핵 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 개 발·수출을 중단할 것을 적극 설득한 것 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는 또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 할 위해선 남북 관계를 우선 진전시키

산가족 상봉단 교환, 월드컵과 이리랑 행사의 연계 협조방안 등도 5일 임 특사 와 김용순(金容淳) 비서관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될 공동보도문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김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김 위원장 의 담긴 여부, 서울 답방에 대한 김 위원 장의 입장 표명 등도 주목거리다.

정부 당국자는 "임 특사가 김 대통령 의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 뒤 이에 대 한 좋은 소식을 받아 올 것으로 기대한 다."면서 "인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북측이 다시 서울 로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우기자 anselmus@kdaily.com

## 평양·워싱턴 '대화 전주곡'

### ■ 北·KEDO 협상재개 의미

【워싱턴 백은일특파원】 북·미 대화재개에 서 관심이 비쳤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3일 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북·미간 대치 국면에 중지부담 찍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KEDO 협상이 북·미간 직접적인 대화 들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수로 건설사업과 관련 한 고위급 전문가 회담이나 핵 안전 관계회의 와 같은 실무적 차원의 만남일 뿐이다. 김수로 지원의 대안제로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는 북한 의 핵사찰 수용 여부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KEDO 협상 재개는 북·미간 대화 국면으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뉴욕 채널이 김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 프리치드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지난달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 KEDO 협상의 재개를 요청했다.

북한은 3일 초 KEDO 협상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 의 축' 발언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된 데 따른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프리치드 특사의 요청을 받아 들었다. 협상을 연기할 때 '조용히' 통보한 것 과 달리 협상재개는 '공개적'으로 알려 북한이 미국과의 냉각관계를 조금씩 잡고 있다는 관측 을 낳고 있다.

●mic@kdaily.com

## 청와대, 김위원장 면담소식에 안도

### ■ 평양 협상 이모저모

4일 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와 김 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면담 소식이 전해지자 프레스센터가 차려낸 서울 김청 동 남북회담사무국은 환기가 넘쳐 흥했다. 오후 대대 가슴을 돋이던 통일부와 국가장 보원 관계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평양과 직 통전화등 주고받으며 비쁜 일손을 놀였다.

- 이날 면담은 김 위원장이 임 특사 일행이 머물고 있는 백화원초대사로 찾아와 전격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우리

대표단에게 만찬을 베풀어 관심을 표명했 다. 만찬에는 우리측에서 임 특사·김보현 국경인 3차장·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 장·서윤 통일부국장, 북측에서 김 위원장·김용순 비서·임동숙 조선아시아태평양위 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측도 임 특사가 김 위원장을 만났 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안도하는 분위 기였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밤 관저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 앞서 남북은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진수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 원장이 중심이 돼 사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접촉은 통상 회담이 전착되 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관례여서 '회담이 예 상보다 합인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관 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후 한때 실무자 접 촉이 계속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정부 당국자와 위체진의 애를 태웠다.

- 특히 우리측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관계 활화를 뜨기 위해 요구한 이산가족문 제 해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방장 관 회담 등에 대해 북측이 지난달 27일까지

1주일이 동안 계속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겨냥, 한반도 위기 책임론을 거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임 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이 5일로 연기되는 것 아니 냐."고 걱정했었다.

-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오전 북측 대 회단이 '주적론(主敵論) 철회'를 요구했다 고 밝히는 등 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하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주적이라는 표현의 문 제가 아니라, 남북간에 방대한 군사력이 컴 에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

●전경우기자

김위원장 어젯밤 초대소 전격 방문 성사  
한때 실무자 접촉 확인 안돼 애태우기도

# 美특사 방북·대화재개 요청

이산가족 상봉등 南北채널 재가동 제의한듯  
한반도 긴장해소 미지수... 林특사 오늘 귀환

## 林특사, 김정일 면담

4일 저녁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 해소와 남북간 화해 협력에 관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전달한 데 이어, 남북간 비어있는 현안들이 5일 중 타결될 것으로 보여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김 위원장을 면담하기는 지난 2000년 9월 1일, 당시 2차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였던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이 자경도의 모처로 김 위원장을 찾아가 만난 지 1년 7개월여만이다.

이번 임 특사와 김 위원장간의 면담과 만찬에는 우리측에서 김보연(金保院) 국정원 3차장과 조병균(趙炳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서훈 청와대 국장 등이, 북측에선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와 임동원(林東源) 통일선전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 특사와 김 위원장간의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임 특사는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사찰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미·북대화와 함께 북·일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하고, 미국측 특사의 평양 방문도 수용할 것을 요청했

을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는 또 교착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4차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과 도로연결 ▲개성공단 등 남북간 협력사업도 이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 4차 직접자회담, 2차 김일주권위원회, 2차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 대화채널을 재가동할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족앞에 조성된 임종원 사태(한반도 긴장)에 대한 북측의 인식과 입장을 김 대령장에게 전달하려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대화와 북·일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을 계기

로, 우리측이 제기했던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복원,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위한 각종 회담의 재개 문제가 5일 중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부 당국자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임 특사의 방북이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회담과정에서 한반도 긴장의 책임 부분과 북측이 제기한 '민족공조' 문제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이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때문에 앞으로 미·북관계가 어떻게 흘러 가느냐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측은 3일과 4일의 잇따른 회담과 김특 등에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이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핵사찰 등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한반도 위기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남한의 외세의존적 입장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폈다.

북측은 특히 "6·15 공동선언 발표 후 속개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안락의 요천세로의 진행도만 계속으로 공동선언 이행이 어려운 정도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지환(朱致煥)의 첩보 등을 요구했다.

7/全仁기기자 ginko@chosun.com

## 世界日報

# 南北대화 '봄바람' 분다

林특사, 金正日면담 의미



통일부 브리핑 김용재 통일부 공보관이 4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프레스센터에서 평양 특사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협경기자

2002. 4. 5 (금)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4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전격 면담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미, 북일간 대화재개를 둘러싼 남북간 현안이 상당 부분 타결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북측은 지난 3일 1차 특사회담에서 노출된 핵심쟁점들 4일 실무접촉과 막후접촉에서 집중 논의, 상당부분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남북 양국간 대화가 활성화될 것이 확실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임 특사 면담 이후 백화원초대소에서 주최한 공식만찬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도 방북 성과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남북간은 이날 최대 쟁점인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임 특사가 방북 직전 "긴장완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나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이산가족상봉, 핵·미사일 위기 해소 등 긴장완화 조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몇 차례의 특사회담 및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 등을 거듭 촉

시종 화기애애... '모종의 성과' 암시  
'긴장완화' 둘러싼 쟁점 점점찾은듯  
격화된 北美관계 개선에도 청신호

구, 북측의 원칙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사 귀환 이후 4차 이산가족교향회 위한 직접자회담이 이달 말이나 5월 초 재개된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북측은 미국 테러사건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이유로 들

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방문 단 교향회를 연기했다.

제7차 장관급 회담 개최도 유력시된다. 역시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6차 회담 이후 김주위나 경의 신철도-금강산관광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장관급회담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북간 대화재개 분위기는 '악의 축' 발언 등으로 격화된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김수모 건설 및 중유지원을 확약하고, 북한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대화재개 의사결정 밝힌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무관치 않다.

이번 회담은 한때 북측이 한반도위기 책임론과 민족공조문제 등에 대한 남측의 답변을 요구하고 남측의 '주지환(朱致煥)을 문제삼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어두웠다. 하지만 우리측이 국방장관회담으로 줄자고 재의, 북측의 예봉을 꺾하는 협상술을 발휘해 위기를 넘겼다. 우리측은 오히려 남북군사단국지회담→군사적 신뢰구축→한반도 긴장완화라는 구상을 북측에 집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5일 오전 한차례 협상을 더 갖고 남은 쟁점을 최종 매듭짓는다.

7/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南北·北美대화 '봄별'

## ■ 林특사, 김정일 면담

임동원(林東源) 특사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4일 면담, 남북간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써 북미간 갈등으로 악화한 한반도 안보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위기의 핵심인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생겼다. 또 이산가족 상봉행사, 경의선 연결사업 재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남북 대화의 전면적으로 재가동되게 됐다.

임 특사는 2월 한미 정상회담 내용,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 인식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비타협적으로 안보선안을 정면 돌파하는 국제정세를 설명한 뒤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도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이 북핵을 적대시하지 않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교착된 북미관계는 뉴욕 채널이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상수위를 넘어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개연성이 커졌다.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적



평양을 방문 중인 임동원 대북특사는 4일 저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김대중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임 특사가 2000년 6월14일 평양 목란관 만찬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北核·미사일 문제등 돌파구 뚫릴지도 관심

프리저도 미 한반도 평화협상 특사가 북핵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폐렴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정상에 대해서도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임 특사는 또 "북미관계를 풀면서 동시에 정상회담으로 다져진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선남후미(先南後美)'의 유효성을 설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월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면서

"민족을 우선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경의선 연결사업 재개 등을 도출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북 식량·비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측은 이달 중 서울에서 2차 경협추진위를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6·15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서울 담판 문제를 언급하면서 남측의 즉제인 월드컵 개막식에 북측 최고위급 인사의 참석을 권유했으나, 김 위원장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공연 준비가 막바지에 왔다"면서 남측 인사들도 볼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기자 dlee@hkk.co.kr

## 林특사 김정일 면담...향후 남북관계

# 이산상봉 이달 성사 기대

### 나열된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방북한 임동원 특사가 극적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을 성사시켰다.

회담 첫날 양측간 우군이 평행선을 달리 반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우리측 대통령 특사가 북측 최고위급 자를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의 건전한 전례로 대다수 회담을 통해 의견충돌을 기했다는 점이 이번 진방을 갖게 한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재개, 경협추진위 개최, 군사당국 회담 등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남북관계 급진전환까  
지난 11월 장관급회담 이후 이루어졌던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로 회복될지가 관심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경협추진위, 장관급 회담, 군사당국 회담이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15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의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10월 결렬됐던 4차 방북단 교환이 양측 방북단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여서 4월 중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무협의의 위한 직접접촉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선 연경,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간 합의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 30만t을 제공하되 강수량을 떨어 차관 형식이라는 틀을 거실 변경하여서 북한도 강수량이 더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의선 연경,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군사적 문제도 남북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려속은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일 통과하는 김의선 도로 및 철도는 물론 금강산 육로 개선을 앞당긴다는 계산이다.

연락에서는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관급회담을 개최해 비이행 합의사항을 하나씩 풀어가는 건

저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건방도 나오고 있다.

■ 대북 선물 무얼까  
특사회담 첫날 한반도 김정일의 재입에 남한에 있다고 주장한 북측이 임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수행한 이면에는 함 시원을 위한 경협추진위 등 대북 선물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만찬을 주재하며 임 특보를 화가에 애단 분위기 속에서 대접해 북측이 만이 굶다 면한 선물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북한이 체제 선전과 함께 달려 발아를 위해 기꺼워하고 있는 여러 안 측면에 우리측이 총리급을 대표로 한 대규모 감관단을 겸직시키는 것도 북측 입장에서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력공급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 반대에반어 비등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전력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남북대화 예상일정

시기	내 용
4월	남북직접회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5월	경협추진위 개최
6월	아리랑축전 북측 참가단 방북 월드컵 북측 참관단 시찰방문 군사당국 회담

### 쌀지원등 대북선물 준듯

### 아리랑축전·월드컵

### 상호방문단 교환 관심

일본과 대화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

■ 면담 성사되기까지  
임 특보의 본격적인 김정은 위원장 면담은 이날 오후부터 '연기'가 됐다.

당초 예정됐던 임 특보와 김정은 노동당 비서의 2차 특사회담이 갑자기 취소되고 차관급 실무접촉으로 대체되며 임 특보가 뒷선으로 밀려난 것이다.

오후 들어 특사회담은 물론 실무 접촉도 갖지 않고 개별적인 방북간 의사소통 권구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양발 상황보고는 더욱 위아스름을 끼쳤다.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냉각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김 위원장 면담을 위한 준비 차관급 개연성이 컸기 때문이다.

임 특보가 김대중 대통령 특사 도로 및 철도는 물론 금강산 육로 개선을 앞당긴다는 계산이다. 연락에서는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관급회담을 개최해 비이행 합의사항을 하나씩 풀어가는 건

# 김정일, 林속소 저녁 전격 방문

## ■ 면담 이모저모

임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일 면담은 김 위원장이 임 특보 속소인 백화인 초대소를 전격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1998년 고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과 면담할 때도 같은 형식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 후 2시간여

동안 만찬을 함께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군장을 임 특보에게 자제히 맡겼고, 부시 미정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관한 솔직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번 면담까지 포함, 4차례나 만났기 때문에 대화 가 아주 깊숙하게 진행됐다.

면담 사실은 당국의 철저한 보안으로 만찬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공개됐다. 당국자들은 이

날 저녁 내내 면담여부를 묻는 국내외 취재진에게 "서울의 공공 증을 평양을 통해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등의 이유를 들면서 연막을 쳤다. 하지만 김중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10시50분에 급히 남북회담 사무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면담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뒤늦은 공개는 북측의 보안 요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k.co.kr

# “北, 조만간 美에 대화 통보”

## 美외교소식통

미국의 에리 플라이셔(Fleischer) 백악관 대변인은 3일 북한이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 재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입장은 항상,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 어디서든 환영한다는 것이니, 앞으로도 이런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또 “우리는 상호 광범위한 관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우리의 오랜 제안에 대한 북측의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이 조만간 미국측에 대화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식 통보할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리처드 마이어스(Myers)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고조됐다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朝鮮日報

2002. 4. 5 (금)

## 한겨레

2002. 4. 5 (금)

### 북-미 대화재개 중국도 환영 밝혀

장치워 외교부 대변인

장치워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북미회담 재개와 관련해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구실을 할 것을 희망해왔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환영하는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당사자”라면서 “한반도 문제는 바로 남북 쌍방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어떠한 것이든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러한 진해방향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름의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하성봉 특파원  
sbha@hani.co.kr

# “北 외교목표는 돈 달라는것 한국선 언론자유 침해 우려”

## 美 브루킹스 연구 ‘동북아 보고서’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3일 출간한 ‘동북아시아 개관 2001~2002’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동북아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남북한과 미국 등 3국의 지난 1년간 관계를 ‘잃어버린 기회(missed opportunities)’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햇볕정책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 국내정치 갈등으로 인한 국민적 컨센서스 약화를 우려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南北정상회담 뒤 韓美관계 멀어져

◆한·미 관계=보고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 관계에 일정부분 침식이 있었다”면서 “정상회담에 즈음한 들론 분위기 아래서 일부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주한 미군 감축을 제안했고 한·미 행정협정의 형평성에 의심을 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국 군부 간의 관계도 일정부분 멀어졌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작년 3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접근방식에 대한 한·미 간의 명백한 이견이 한국 국내 정치에서 햇볕정책의 경직경평화를 촉진시켰다”면서 “부시·대통령의 2월 방한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에 스며든 냉기류를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북 관계=보고서는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 사이에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는 실재했다”면서 “보수파

의 대다수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있으며 근본적인 북한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과 실질적인 가치들을 협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보수파의) 판단의 정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은 실행가능한 대북 접근 방안을 잃게 됐다”면서 “미국의 당면 과제는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부시정부 보수파는 北붕괴 원해

◆남북한 관계=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일(金正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배경과 관련, “북한의 일관된 외교 노선은 ‘돈을 보여달라’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 다른 어느 국가들도 현금 제공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햇볕정책에 확고하게 매단린 김대중(金大中) 정부에 눈길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반도 안팎의 주요 행사들은 포용정책의 주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며 대북포용 접근 정책이 옹해 살아 남지 못한다면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지 모른다”면서 “한국은 옹해 말 대신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이슈가 갈수록 더욱 논쟁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치=보고서는 “김대중 정부가 자민련의 이탈과 김 대통령의 인척을 포함한 권력 최상층부가 연계된 부패의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일제 재무조사가 정부의 (연론) 탄압 의문을 불러일으키면서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정치는 매우 혼란스럽고(chaotic) 예측이 힘들어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4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한달여의 잠정에 들어갔다. 이회창(李會昌) 이부영(李富榮) 최병렬(崔秉烈) 이상희(李祥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경선후보자 5명의 각 분야별 정책기조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비교해본다.

## 대북정책

2002. 4. 5 (금)

# 금강산 관광·전력 지원 '불가' '조건부 허용' 갈려

野 경선후보 대북문제 입장 비교

후보	금강산 관광	국가보안법	전력지원	김정일 탄압
이회창	인간에 맞힌다	북한 변화 확인까지 현행유지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된다	정치적 이용없다는 조건부 찬성
최병렬	정경분리원칙 따라 추진	점진적 개정보완	무응답	반대하지만 정치적 악용구려
이부영	현행대로 간접지원 방식	개정보완	남북관계 개선위해 지원해야	찬성하지만 정치적 악용구려, 율령은 반대
이상희	인간에 맞힌다	개정보완	개정보완	정치적 이용없다는 조건부 찬성
김홍신	정부가 맞는다	폐지후 대체입법	폐지후 대체입법	정치적 이용없다는 조건부 찬성

남북문제와 국가보안법 개정은 대선가도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정치권이 보·혁구도로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안은 각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과 직결돼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사안별로 비교적 뚜렷한 편차를 보였다. 이회창, 최병렬 후보가 당론과 마찬가지로 보수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이부영, 이상희, 김홍신 등 비주류측 후보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나타냈다.

◇금강산 관광=이회창, 최병렬 이상희 후보는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남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돼야 하고 수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후보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후보는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검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신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갔다. "이 사업이 남북 교류·협력과 화해 분위기 조성에 유의미하다면 현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해 무리를 일으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압의를 통해 정부가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회창 후보가 가장 보수적이었다. 이 후보는 "우리만의 일방적 논의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가 확인되기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헌법과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말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최후보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고쳐져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부영, 이상희 후보는 그동안 논란이 되온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

## 이회창 "보안법 개정 北변화가 선행" 최병렬 "점진적 보완" 김홍신 "폐지" 남북교류 정경분리 원칙엔 공감대

며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국보법 2조 정부참칭 조항은 남북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고, 7조 이적단체와 12조 불고지지 등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신 후보는 가장 진보적이었다. 그는 "현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및 위헌소지 등이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하며 이후 형법 등의 수정보완을 통해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 연내 답방=후보 모두가 비슷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회창, 김홍신, 이상희 후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부영 후보는 "김위원장의 답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율령은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답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병렬 후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북 전력지원=극과 극으로 갈렸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의 변화와 본격적 개방·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력지원은 안된다"고 밝혔다.

김홍신, 이상희 후보는 "남북간 최대 경제협력 시범사업인 개성공단이 이뤄질 경우 공단에 지원하는 형태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후보는 적극 찬성했다. "전력지원이 북측의 남북 의존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상호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병렬 후보는 후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재영·손승욱기자  
c.young@k.yunghyang.com

# “햇볕정책, 차기정부서 수정필요” 86%

본보, 한반도문제 美전문가 72명 설문  
 “금강산관광 정부지원 지지안해” 60%

글로벌신문 동아일보 82

동아일보가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 7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조사 W 부시 행정부의 ‘약속’ 발언을 포함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A10면에 관련기사

또 한국정부의 금강산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찬이 반대였으며, 응답자의 86.1%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는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창간 82주년을 기념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대외비트 스타일비트(조선대학교 교수) 로버트 리치(전 국무부 관료) 로버트 듀사리(하드슨 연구소 연구원) 등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거의 반이였다.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이란 유은(유은)이 지었다. 조사는 동아일보와 미한국경제연구소(KIEA) 공동 주관(동아일보가 주도)에 공동으로 실시했다.

위싱턴=한기홍특파원  
 eliaius@donga.com

### □ A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 72명 중 30명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1.7%), 22명이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30.5%)라고 답해 3분의 2가 넘는 52명(72.2%)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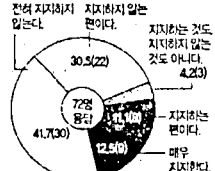
또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약속”으로 금강산에 대해서도 ‘찬이 지지하지 않는다’가 35명(48.8%), ‘지지하지 않는다’가 16명(22.2%)으로 지지하지 않는 응답

자가 49명(68.0%)에 달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43명(59.7%), ‘지지한다’가 29명(39.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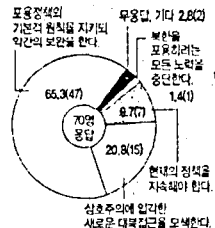
한국의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포용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되 약간의 보완을 해야 한다’가 47명(65.3%),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가 15명(20.8%)인 반면 ‘현재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7명(9.7%)에 불과했다.

단위: % (원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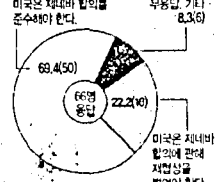
###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십니까? 혹은 지지하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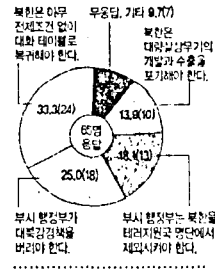
###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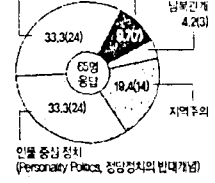
###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12월 대선에선 무엇이 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美 제네바협상 합의 준수해야” 69% “南-北-美대화 교착 美정책 탓” 46%

### 주요 항목별 응답 내용

▽부시의 대북정책=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전체 응답자 72명의 45.8%인 33명이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해리리치재단의 래리 워플, 내셔널 칼리지 연구원 등 보수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건전한 지지를 보였으나 그 수는 비판적 견해에 비해 훨씬 적었다.

“약의 약” 발언을 지지하는 이유로

는 그가 ‘북한 정권의 싹새를 정확히 지적했기 때문’(8명, 53.3%)이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햇볕정책=대다수 응답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는 햇볕정책이 큰 틀에선 맞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43명(59.7%)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29명(39.9%)이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응답자 가운데 50명(69.4%)은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관해 재협상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6명(22.2%)에 불과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일각의 폐지 또는 수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둘 자체를 깨는 데 반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대선=12월 대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물중심 정치(Personality Politics)’와 ‘경제 문제’가 각각 24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역주의’(14명, 19.4%)와 ‘남북관계’(3명, 4.2%) 순이었다.

‘인물 중심 정치’를 지목한 것은 이번 대선에선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인물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협안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대북 화해협력 추구라는 원칙에선, 여야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보수-진보시각 전문가 균형있게 조사”

이렇게 조사했다 / 피터 백 美 한국경제연구원

동아일보가 창간 82주년 기념 사업으로 실시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는 어떤 취지 아래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미국 공동 조사자인 피터 백(美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사진)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들어보았다.

—이번 조사의 의미는...

“미국과 한반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걸이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은 한반도 정

세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여론조사의 동기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미대화가 동결되고 남북대화 재대로 진척되지 않는 사태가 장기화했다. 따라서 교착상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실시했는가.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먼저 160명의 조사대상을 면담해 선정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한 반도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견해를 지닌 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문은 동아일보가 편집국의 여론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을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과 숙의해 24개 문항으로 압축 정리했다.

응답자들 상당수는 익명을 요구했다. 익명이었기 때문에 더 솔직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위싱턴=한기홍특파원 eliaius@donga.com

### 주요 설문 응답자 (무는)

이름	직책 및 소속
리처드 워커	전 주한미대사
에드워드 베이커	허버트대 연립연구소
모리스 카임스	시카고대
미카스 폴렌드	국제경제연구원(IEA)
래리 워플	해리리치 재단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
데이비드 스타일비트	조지타운대
러리 워플	워싱턴시사(CRS)
로렌스 크리우저	콜리도니아대 (샌디에이고 소재)
알프 코셔	피서프 포럼전략원
스콧 스나이더	제너럴스(CSIS)
스티븐 코츠빌로	이슈리치 카운슬
로버트 듀사리	하드슨연구소
윌리엄 테일러	전 전략문제연구소(CSIS)
로버트 리치	전 국무부 한국과장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1.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모두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72명 응답)
  - A. 미국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외 거부. (25명, 31.9%)
  - B. 북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33명, 45.8%)
  - C. 한국의 불법정책에 북한에 대해 비합리적인 개입을 하게 만들었다. (4명, 5.6%)
  - D. 많은 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및 북-미 간에 상호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다. (10명, 13.7%)
2. 북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십니까? 혹은 지지하지 않습니까? (72명 응답)
  - A. 매우 지지한다. (9명, 12.5%)
  - B. 지지하는 편이다. (8명, 11.1%)
  - C. 지지하는 것도, 지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33명, 42.2%)
  - D.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22명, 30.5%)
  - E.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30명, 41.7%)
3. 북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할 것에 동의하십니까 (69명 응답)
  - A. 강력히 동의한다. (10명, 13.9%)
  - B. 동의하는 편이다. (6명, 6.9%)
  - C. 동의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35명, 6.9%)
  - D.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16명, 22.2%)
  - E.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33명, 45.8%)
4.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72명 응답)
  - A. 강력히 지지한다. (37명, 37.5%)
  - B. 지지하는 편이다. (35명, 48.6%)
  - C. 지지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7명, 9.7%)
  - D. 반대하는 편이다. (6명, 4.2%)
  - E. 강하게 반대한다. (7명, 0%)
5. 햇볕정책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5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69명 응답)
  - A. 한반도 긴장완화. (35명, 48.6%)
  - B. 2001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29명, 40.3%)
  - C. 남북간 문화교류 증가. (1명, 1.4%)
  - D. 이산가족 상봉. (3명, 4.2%)
  - E. 금강산 관광. (1명, 1.4%)
6. 햇볕정책의 가장 큰 결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부터 1~5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69명 응답)
  - A. 긴장감 북한 국민위원회의 사들임만 미흡. (11명, 15.3%)
  - B. 남북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업의 이행 미진. (15명, 20.8%)
  - C. 남북경제협력의 미비. (4명, 5.6%)
  - D. 남북대화가 제도화되지 않았다. (14명, 19.4%)
  - E. 북한의 거센적인 대남정책에 변화가 없었다. (25명, 31.7%)
7. 한국정부가 김영남에 처한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71명 응답)
  - A. 지지한다. (25명, 33.9%)

- B. 지지하지 않는다. (43명, 59.7%)
8. 한국의 차기 정권은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70명 응답)
  - A. 현재의 정책, 지속해야 한다. (7명, 9.7%)
  - B. 포용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약간의 보완을 한다. (47명, 65.3%)
  - C. 상호우호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접근을 모색한다. (15명, 20.8%)
  - D. 북한을 포용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한다. (1명, 1.4%)
9.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명 응답)
  - A.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56명, 80.4%)
  - B.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관해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10명, 22.2%)
  - C.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라키지 달(한글 타겟)'을 추구해야 한다. (0명, 0%)
  - D. 미국의 제네바 합의를 파기해야 하며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권요가 없다. (0명, 0%)
10.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1~4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65명 응답)
  - A. 북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변화해야 한다. (15명, 25.0%)
  - B. 북시 행정부는 북한을 대대시민국 명 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3명, 18.1%)
  - C.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포기해야 한다. (10명, 13.9%)
  - D. 북한은 아무 경제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21명, 33.3%)
11.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취한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0명 응답)
  - A. 한국은 경제개혁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9명, 12.5%)
  - B. 일부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50명, 77.8%)
  - C. 의미있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명, 5.5%)
  - D. 경제개혁으로 인해 상황이 97년 때보다 더 나빠졌다. (1명, 1.4%)
12.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큰 업적과 실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업적 1위, 가장 큰 실패를 6위로 해서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56명 응답)
  - A. 거시경제의 안정. (40명, 55.5%)
  - B.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9명, 12.5%)
  - C. 기업 개혁. (3명, 4.2%)
  - D. 금융 개혁. (2명, 2.8%)
  - E. 노동 개혁. (1명, 1.4%)
  - F. 공공부문 개혁. (1명, 1.4%)
13. 한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가 실현되지 않거나, 둔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1~5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59명 응답)
  - A. 부정산 이익. (21명, 29.2%)
  - B. 노동 관련 이슈. (9명, 12.5%)
  - C. 정부의 관료주의. (4명, 5.5%)
  - D.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 부담. (1명, 1.4%)
  - E. 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이견. (24명, 33.3%)
14. 김대중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어떤 일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1~5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67명 응답)
  - A. 남북관계 개선. (8명, 11.1%)
  - B. 경제 개선. (28명, 35.9%)
  - C. 미국 알반과의 외교문제. (3명, 4.2%)
  - D. 지방자치선진화와 대정부개혁의 공경관. (23명, 31.9%)
  - E. 의료법, 아시아 경기의 심각한 개회. (6명, 6.9%)
15. 한국에 12월 대선에선 무엇이 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1~4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65명 응답)
  - A. 남북관계. (33명, 42.2%)
  - B. 경제. (24명, 33.3%)
  - C. 인물 중심 정치(Personality Politics, 김대중의 반대개념). (24명, 33.3%)
  - D. 지역주의. (14명, 19.4%)
16.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때문에 우려하고 계십니까? (70명 응답)
  - A. 그렇다. (19명, 68.0%)
  - B. 아니다. (21명, 29.2%)
17. (반미감정 때문에 우려한다고 응답한 분들에게)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대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1~5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중대대중 42명 응답)
  - A. 북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16명, 26.6%)
  - B. 미국의 동맹압력과 보호주의 조치. (10명, 20.4%)
  - C. 송트래크 동계올림픽 스포츠계 경기에서 강등된 선수의 심리사태를 둘러싼 논란. (2명, 4.1%)
  - D. 인구압집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문제. (19명, 20.4%)
  - E. 주한미군이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4명, 8.2%)
18.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1~4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63명 응답)
  - A.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보다 깊숙히 이해한다. (30명, 41.7%)
  - B. 한국인들은 북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9-11테러 이후 미국의 변호를 보다 깊숙히 이해한다. (6명, 8.3%)
  - C. 양국 정상이 보다 자주,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19명, 26.4%)
  - D. 한국인들은 (한미관계) 면목적, 정서적으로 보다 앞으로 노력해야 한다. (8명, 11.1%)

- \*무응답 21명, 기타 4명 (31.7%)

# 이산상봉·경의선협상 합의

## 이달 2차경협위 재개 개성공단 등 협의

### 임동원특사, 김정일과 회담

대통령 특사로 방북중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대표 임행은 5일 북측과 이산가족 교환방문, 비료 및 식량지인,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과 관련, 남북간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의 4월중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오전

"현재 공동보도문 작성을 위한 접촉이 진행중이며 공동보도문에는 이산가족 교환방문, 남북경협추진위 개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와 함께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당국간 회담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보도문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북측과 협의중인 것

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동보도문에는 아리랑축전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북의 공동노력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동원 대통령특사는 4일밤 속소인 백화인양빈관을 전격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발 벗고까지 만찬을 같이했다. 임특사는 5시간여에 걸친 면담과 만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의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헌사와 함께 김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두 사람은 한반도 위기에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당국자는 "면담은 2시간, 만찬은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상호 솔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지하게 논의됐다"고 밝혀 한반도 위기예방을 위한 북·미대화 조기재개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 해결에 대한 남측의 의견에 북측이 인척공감했음을 시사했다.

임특사 일행은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구체적인 방문결과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발표한다.

서울등기자 chn12@smunna.com

# 이산상봉 이달 재개

## 임동원·김용순, 서울-평양 100명씩 방문 합의

### 경협추진위 개최-경의선 복원·전력지원 협의

### 총리급인사 아리랑 축전-월드컵 교차참석 논의

임동원 대통령 대북특사는 5일 오전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와 추가 협의를 갖고 이산가족 상봉단 상호교환방문과 남북경협추진위를 곧 재개키로 합의했다. 또 총리급에 해당하는 남북 고위 인사가 5월 중 월드컵과 평양 아리랑축전에 상호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경추위 재개 등 몇가지 사항에 의견전근을 본 것으로 방북단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4일 저녁 임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면담 2시간과 만찬 3시간 등 5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은 전례에 따

라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경협추진위가 가동되면 식량 및 비료지원 시기와 방안,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재개, 간접적인 전력지원 방식 등을 폭넓게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회의는 관례에 따라 서울에서 열린다. 임특사와 김비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6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 위한 막판 절충을 벌였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다음 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실무합의를 갖고 지난해 이미 교환했던 명단 100명씩에 대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비료 20만톤과 식량 3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한은 정례적인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아리랑 축전(개막 4월29일)이 열리는 5.6월쯤 남측에서 대규모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해 축전을 관람하고 북측 가족과 만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임특사는 백화인 초대소로 갔아온 김위원장의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의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헌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한 김위원장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으며 김위원장이 답례 헌서의 친서를 임특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특사 일행은 오후에 송양차 편으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예정이다. 임특사는 곧바로 청와대에서 김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한 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김의구 김영석기자

# 林특사-김정일 5시간 대좌 ‘한반도 정세’ 진전 새전기

南, 민족공조 한미동맹 양립강조

北, 국제사회 편입의지 보여줘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일 저녁 5시간의 만남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추진위제개등에 합의함으로써 남북은 한반도 위기예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남북은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는 물론 경색돼 있는 북·미관계도 풀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특사방북의 하이라이트인 두 사람의 만남에서 남북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과 9·11테러사태이후 조성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선 김대통령이 김위원장에 게 보내는 장문의 친서도 전달됐다.

임특사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9·11테러사태로 조성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에 번지고 있는 2003년 한반도 위기론을 소개한 뒤 '위기예방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북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밝힌 ▲대북 선제공격 포기 방침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의 대화 해결 등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설명했다. 특히 임특사는 한·미정상회담의 한·미동맹 확대강화 합의를 설명하면서 '민족공조'와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는 또 북·일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한 뒤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임특사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의 동력(動力)을 확보하는 선남후미(先南後美)의 유효성을 설명하고 특히 남북간 합의사항중 경의선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이행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평화의지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북한이 그간 전개해온 국제사회에의 편입노력이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차질을 빚고 있는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또 미국이 가진 대화설계도가 어떤 것인지에 궁금증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어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굳건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한반도 구름 걷어낸 '햇볕'

## "대화로 긴장해소"... 北-美관계도 청신호 실천 여부에 성패... 지나친 낙관은 금물

임동원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밤 전격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제개 등 각종 남북한안에 대해 합의할 도출함으로써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던 남북관계에 봄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특히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둘러싸고 야기돼온 한반도 긴장상황을 남북한 스스로가 완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북측이 남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여전히 강경 대치선을 긋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한층 밝아졌다. 나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조기사용과 미사일 발사유예 기간 연장 및 미사일 수출중단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북·일 수교회담도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처럼 남북한이 특사대화라는 간접적 정상회담 방식을 통해 국

적으로 합의의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는 양측 모두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선 남측은 북측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미사일 수출을 계속할 경우 한반도에 초래될 위기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었다. 단기적으로는 교앞에 닥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외국자본 철수라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서 이대로 남북간 장관계가 지속될 경우 최대치적으로 좁혀온 햇볕정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물론 보수층의 공격으로 심각한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물론 임특사가 김위원장에게 전달한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도 한 몫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북측의 대화 수요도 남측 못지 않았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아리랑 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남측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가다 교앞에 닥쳐온 춘공기를 무시하 넘기기 위해서는 남측은 물론이고 서방세계로부터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도 북측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냈다.

특히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싸고 미국과 장기간 대치할 경우 외부세계는 물론이고 내부로부터의 체제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우선 목표인 체제 안정을 꾀하려는 북측 최고위층의 의도가 포함된 포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 없는 게 현재의 남북 및 북·미 관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측이 단기간에 남측과 서방세계의 도움이라는 소기의 목적만을 달성한 뒤 슬그머니 대화 단절 국면으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런 탓에 양측이 합의한 대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여가다 북측을 장기간 대화테이블에 묶어둘 또 한번의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위원장의 시골답방이나 남북평화선언 공동발표 등이 그것이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2002. 4. 5 (금)

## 관문점 귀환 '육로' 뚫었다

### 김위원장, 숙소 전격 방문 김대통령 안부등 정중히 물어

임동원 내북특사는 4일 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긴격적인 숙소 방문으로 만찬과 면담을 가진 뒤 5일 오후 2시30분 일정을 마무리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임특사의 육로 귀환은 남북간 막혔던 통로가 다시 뚫렸다는 상징적 의미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특사는 방북전 이미 육로로 왕래하고 싶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김위원장이 면담과정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9월11일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때도 김비서는 판문점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갔다.

귀환 일정보도 전한 북한측의 주저론 폐기 주장으로 회담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김위원장 면담이 성사됨으로써 예정대로 진행됐다.

○...김위원장은 4일 밤 임특사의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찾아왔다. 면담은 회기에야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안부를 정중히 물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5일 김위원장의 임특사 접근 소식을 비교적 빠르게 보도했다. 이 방송은 임특사가 김대통령의 친서를 김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했으며 김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특사와 따뜻한 대화를 한 뒤 특사일행을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은 회담 내용과 김대통령의 친서내용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면담 자리에는 김보현 국경원 3차장,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서훈 청와대 국장이, 북측에서는 김용순 비서, 임동욱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김위원장과 임특사의 면담 성사 여부는 4일 오후 늦게까지도 분투명했으나 김위원장은 2000년 6·15 정상회담때 공화영집을 나왔던 특유의 진격적인 형식으로 임특사의 숙소를 방문함으로써 이뤄졌다.

김의규기자 egkim@kmib.co.kr

### 김정일, 남측 주요인사 면담일지

- △95. 7. 8=故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장로(평양)
- △98. 10. 30=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가족 일행(평양 백화원초대소)
- △99. 10. 1=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일행(함흥 흥남구역 서호초대소)
- △2000. 6. 13~15=김대중 대통령(백화원 영빈관)
- △2000. 6. 29=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원산)
- △2000. 8. 9=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원산)
- △2000. 8. 12=남한 언론사 사장단(평양 목란관)
- △2000. 9. 1=박재규 통일부 장관(합남 동해안 지역)
- △2000. 9. 30=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금강산)
- △2001. 4. 11=가수 김연자씨(함흥)
- △2002. 4. 4=임동원 내북특사(평양 백화원 초대소)

# 적십자-민간접촉-경험추진위-군사회담

## 南-北 동시다발 '대화의 꽃'

2002년 봄은 남북대화의 계절이 될 전망이다. 대화 일정은 2가지 이상의 남북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지 않은 북측의 관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지난해 10월 북측이 9·11테러 이후 남측의 비상경계 태세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이 예정돼 있다. 이미 상봉에 참여할 남북 이산가족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기 때문에 한두번의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거치면 곧바로 이뤄지게 된다. 물론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 교환, 상설 면회소 설치 등을 논의할 적십자 회담도 뒤를 잇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평양

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리랑 축전을 계기로 5월 중 추가적인 대규모 상봉도 예상된다.

특히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을 연계해 대규모 합관단은 물론 고위급 인사가 교환 방문하는 문제도 남북한 접촉을 통해 다뤄지게 된다. 오는 10일부터는 아리랑 축전 참가 문제를 다룰 민간단체 접촉도 이미 예정돼 있다.

남북회담의 핵심인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도 열린다. 여기서는 곧 닥쳐오는 춘공기를 넘기기 위한 식량 30만t과 비료 20만t 지원 문제가 본격 협의된다. 또 북측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력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지게 된다. 아울러 개

예상되는 주요 남북대화

종류	논의 내용
적십자회담	· 생사 및 주소 확인 확대 · 서신교환 확대 · 상설면회소 설치
경협추진위원회	· 식량 및 비료지원 · 간접적인 전력 지원 · 개성공단 건설
군사당국간 회담	· 남북한 및 러시아 철도연결 ·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 판문점내 경의선 연건 공사 · 군사신뢰 구축
아리랑축전 참가협의	· 당국간 실무접촉 · 민간단체 접촉(10~12인)

성공단 건설, 남북한 및 러시아 철도·가스관 연결 사업,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대책도 논의된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를 다룰 군사당국 회담도 뒤를 잇는다. 비무장지대내 공사재개 여부와 북측 단절 구간 공사를 위한 지원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석기자

###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2002. 4. 5 (금)

### "북·미 관계 악화 北태도가 중요"

보즈워스 前주한美대사 주장

"부시, 클린턴정책 배제 문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4일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관계도 소원하게 된 것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의 태도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케임브리지 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이날 개막한 '21세기 강국으로서의 한국' 세미나에 참석, '지역안보와 남북한'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보즈워스 전대사는 발표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대화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를 늘 행사해 왔다"고 지적한 그는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부시 행정부가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회피하려드는 경향이 있으며 부시 정책의 ABC는 클린턴 정책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전대사는 "북한은 김 경일 국방위원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상층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클린턴 전대통령이 임기말에 북한을 방문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사 재임시절 느낀 한국정치의 가장 큰 현안은 남북 문제보다 지역주의의 해소라고 지적했다. 런던=법

# 이산가족 이달 교환방문

## 南北, 국방회담·경협추진위원회 재개 합의 경의선 조속착공도... 林특사 오늘귀환

남북한은 5일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해 경의선 복원과 도로연결 공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논의하는 2차 국방장관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의선 복원과 도로연결은 작년 초 양측 군사 실무접촉에서 체결한 군사실무보장 합의서를 이른 시일내 서명·교환해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또 작년 10월 갖기로 했다 가 연기된 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이달 중에 갖고, 2차 경협추진 위원회도 5월 중 재개해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경협사업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육로관광 협상 등 이미 합의했던 몇 가지 사업들도 조속히 이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오전부터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임동원(林東源) 특사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 간의 오찬회담과 실무접촉 등을 통해 7~8개항으로 이루어진 '공동보도문' 문안 협상을 벌였으며, 6일 오전 최종 타결짓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북한의 아리랑 축전과 남측의 월드컵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는 임 특사 일행을 위해 이날 저녁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만찬을 마련했다.

임 특사 일행은 당초 이날 오후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공동보도문 협상이 길어져 6일 판문점을 거쳐 오전 10시에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전했다.

/金仁机기자 ginko@chosun.com

## 중앙일보

# 남북 합의서 이견 조율

### 임동원 특사 오늘 귀환

대통령 특사로 방북 중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5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전선담당 비서와 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경협추진위원회의 조기 가동 원칙에 합의했다. <관계기사 3면>

그러나 양측은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 작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이날 심야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당초 5일로 잡혔던 공동보도문 발표와 林특사의 서울 귀환은 6일로 늦춰졌다

회담 대변인인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협의과정에 난항이 없지 않았으나 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경추위 재개가 공동보도문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초 4월 중 이산가족 방문단이 서울·평양을 교환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관측과 달리 양측이 상봉 장소와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북측은 15일 김일성(金日成) 90회 생일과 북한군 창건 행사(25일), 아리랑축전 개막(29일) 등의 내부 일정을 내세워 5월께 상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소도 금강산을 주장했다.

아리랑축전을 계기로 남측 관광객이 평양을 방문하고, 여기에 포함된 이산가족들은 재북(在北)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접근시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林특사는 6일 새벽 평양을 출발, 오전 10시쯤 서울로 돌아와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명중 기자

<yilee@joongang.co.kr>



# 경의선 철도 조속 연결

## 南北 이산상봉-경협추진 재개 합의

林특사 일정 하루늦춰 오늘 귀경-金正日친서 휴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담당특보는 북협측과 경의선을 조속히 연결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임 특보는 또 북측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 일행은 당초 이날로 예정된 귀한일을 하루 늦춰지며 밤늦게까지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의 특사회담 및 실무협력을 잇달아 가진 끝에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6일 발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4면에 관련기사  
정부 관계자는 "임 특보 일행의 귀한 일정이 연기된 것은 북측이 경의선 연결문제에 대한 군부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의선 연결은 남북간 신뢰구축을 한층 더 높일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해결과 북-미 대화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이에 따라 6일 관공정을 통해 서울로 귀한데 특사회담 결과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임동원 대통령특사가 4일 저녁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기자 scea@donga.com

# 대한매일

2002. 4. 6 (토)

# 이산상봉 이달 재개 경의선연결 곧 착공

## 남북 합의... 김영남 월드컵 참관 논의



빙점중단 임동원(왼쪽) 대통령 특사가 지난 4일 밤 속속의 평양 백화원초대소로 찾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남 특사

### 임특사 오늘 판문점 귀환

이른 시일 안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작업 등이 다시 시작되고, 제1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일 북한을 방문한 임동원(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한반도 현안을 조율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담당특보는 예정보다 하루 늦은 6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자동차편으로 귀환해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김용순(金容淳) 통일부 공보관은 5일 김 위원장과 면담한 임 특사 일행이 "이산가족 교환 방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재개 등에 대해(북측과) 의견교환을 보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서 성과가 기대된다"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실무 절차는 경추위 등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소식통은 또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월드컵 참관 방안을 놓고 남북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성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임 특사 일행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북측과의 '공동보도문' 작성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교환방문, 비료 및 식량지원,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과 관련, 남북간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경추위를 이달중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은 이른 시일 안에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협력을 열고 '군사보장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추위를 재개해 식량 30만톤과 비료 20만t 지원, 개성공단 조성, 전력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남북은 특히 이달 안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직심자회담을 열고, 중단된 제1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당국간 회담 재개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임 특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백화원초대소를 방문한 김 위원장과 3시간동안 면담 및 만찬 회담을 갖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임 특사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 대통령의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두 사람은 한반도 위기해소 및 남북관계 진전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또 김 위원장의 연내 방문문제에 대해서도 김용순 대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일 밤 김용순(金容淳) 비서가 만경대예술극장에서 주최한 만찬에는 임 특사 일행 7명 전원과 임동훈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을 비롯, 북측의 대남사업 관계자 9명이 대거 참석, 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웠음을 시사했다.

●전영우기자 ansemus@daily.com

# 경의선 연결 곧 착수

## 이산상봉 이달 재개·경협추진위 개최키로

### 임특사 오늘 귀환 합의내용 발표

남북은 임동원 대령령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및 김용순 노동당 비서과의 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위기상황 여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이른 시일 안에 경의선 연결에 착수하고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실현하는 한편, 2차 경협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미미한 과제일 심천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2·3면

남북은 이 가운데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이미 합의한 '경의선 군사 군사보장합의서'를 조속히 교환해 발표시킨다는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이래 단절상태인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북-미, 북-일관계가 진전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구축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남북은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경협추진위 개최 등에 의견인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경협추진위 개최는 남북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 안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평양에 있는 특사 임행으로부터) 구체적인 방문단 교환 및 경추위 개

최 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특사 일행은 여초 이남 오후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공동합의문과 관련한 실무조율이 늦어지면 서 귀환을 늦춰 6일 오전 10시 관문 잠을 거쳐 서울에 도착할 계획이다. 임 특사는 귀환 직후 청와대에 틀러 김 대통령에게 남북 성과를 보고한 뒤,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이남 아침 "임 특사가 김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특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눈 뒤 특사 일행을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김 통일부 대변인은 "5시간 동안 진행된 김 위원장과의 면담과 만찬은 상호 솔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지하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임 특사가 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하고 돌아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 특사는 이남 낮 김용순 비서와 오찬을 겸한 두번째 회담을 진행했으며, 저녁에는 만수대에술극장에서 김 비서 주최로 한승 만찬을 함께 했다. 이제훈 권혁길 기자 nomad@hani.co.kr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이 4일 저녁 임동원 특사 일행이 묵고 있는 백화원초대소로 찾아와 면담과 만찬을 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서울경제 2002. 4. 6 (토)

# 경협추진위 재개·이달 이산상봉

## 남북총리급 상호방문등 합의... 임특사 오늘 귀환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임동원 대령령 특사가 5일 북측과 워드랩·아리랑축전이 열리는 오는 5일 중 남북한 총리급의 상호 방문, 경의선 및 도로의 조속한 연결, 이달 중 이산가족 교환 방문,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재개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 일행은 이남 반까지 계속된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 형태로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특사는 북측 당국자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는 예정보다 하루 늦은 6일

오전10시경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온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이남 합의에 따라 이남 중 남북한 이산가족 각각 160명씩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경추위를 통해 북한에 쌀 30만톤을 지원하고 비료 20만톤도 보낼 예정이다.

남북은 경추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각 실무협의체를 열어 경의선 및 도로의 연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어 워드랩과 아리랑축전이 열리는 오는 5일 중 남북한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고위인사가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기자 shlee@ed.co.kr

# 김정일 “美와 대화하겠다”

## 金대통령에 메시지 이달 이산상봉·경협촉개최 합의

### 보도문 진통... 林특사 귀환 오늘로 연기 월드컵·아리랑 총리급 교차방문 절충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막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당초 일정을 하루 넘겨 6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 김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회담 건의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관련기사 3면

임 특사는 귀환에 앞서 5일 저녁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 비서와 만나 공동보도문 작성에 합의하고 이산가족 상봉재개, 2차 남북경협추진위 개최 등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였다. 양측의 보도문 작성작업은 예정을 넘겨 이날 늦게 까지 계속

되는 진통을 겪었다.

장부의 고위당국자는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의 4일 면담에서 남북관계 복원, 북미 대화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서 “임 특사의 귀환이 연기된 것은 실무 협상의 논의가 깊어졌기 때문이지 큰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사회에 평화구축의 의지를 보이고,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예방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또 교착 상태인 북일 협상과 관련,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에 남북 고위인사가 교차 참관하자”는 김 대통령의 제의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은 실무협상을 통해 4월29일 시작되는 아리랑 축전에 이만동(李漢東) 총리가 참석하고 5월31일 월드컵 개막식에 북한의 김 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또 이달 중 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대북 쌀 지원, 전력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협추진위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며 경의선 연결사업의 조속한 재개문제도 논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임 특사는 4일 저녁 속



임동원 특사가 4일 저녁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 중앙통신 AP·연합

소인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를 방문한 김 위원장과 5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책과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등 남북 현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 임 특사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위

기를 막기 위해 북미·북일 대화에 응하고 남북 화해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이동준기자 djee@hk.co.kr

# 경의선 조속연결 합의

## 남북 공동보도문 채택...이산상봉 이르면 이달 재개

### 경협촉 곧 개최 식량·개성공단등 논의 아리랑축전-월드컵 참관단 교차방문

#### 林특사 일정늦춰 오늘 귀한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 임행은 5일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비서 등과 실무회담 및 집속을 잇따라 갖고 경의선 철도·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이르면 이달중 4차 이산 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대북 식량지원 및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논의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 개최에도 의견이 좁근했다.

남북은 6일 오전 이란 내용을 담은 7개항 가량의 공동보도문을 채택, 발표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3·4면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대변인은 "공동보도문에는 이산가족 교환방문, 남북경협추진위 개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방문단 교환 규모와 시기, 김대위 개최 일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외에도 몇가지 의견 집근을 봤지만 사소한 대목에서 생각이 달라 집속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측은 가급적 이란 시일 내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경협위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르면 4월 중 이같은 합의사항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보도문에는 한반도 긴장을 예방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의지와 남북간

회해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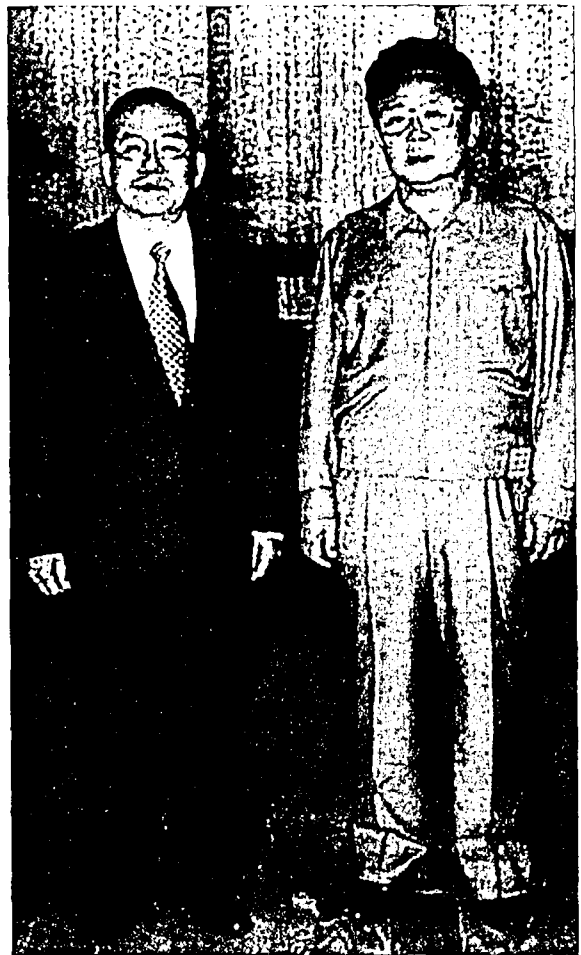
남측은 이와함께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아리랑 공연과 월드컵 때 양측 교위인사가 이끄는 참관단 교환도 공동보도문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4일 밤 임특사가 묵고 있는 백화원초대소를 방문, 면담 2시간과 만찬 3시간 등 5시간 동안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김위원장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이를 위해 조속히 북·미 대화에 동참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또 이산상봉사업의 재개를 약속하고 북한측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특사 임행은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6일 오전 평양을 떠나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귀한한다. 임특사 임행은 귀한 직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성과를 보고한 뒤 서울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용욱·김진우기자  
woody@kyunghy.org.com



임동원 대북특사가 지난 4일 밤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양 / AP연합

# 경의선 조속연결 합의

남북 '공동보도문' 채택 이달 이산상봉 재개도

월드컵-아리랑축전 대규모 참관단 교환  
김정일, 林특사에 답서 전달했을 가능성

## 林특사 오늘 판문점 귀환

남북한이 이달중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포함한 남북협력추진 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3일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林東源) 특보 일행은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비서와 최종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 6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남북한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 남북 국방장관회담, 대북제일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5일 오후 귀경할 예정이던 임 특사 일행은 남은 정점을 놓고 북측과 막판 조율을 하는 바람에 일정을 하루 연기, 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올 예정이다.

남북한 합의에 따라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교환 및 경주위 재개 등과 관련, 4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을 재확인하고

실무협의를 대비한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북측이 양방직으로 취소했던 제4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이 빠르면 4월 중 이뤄질 것"이라며 "비료 및 식량지원,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조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빠른 시일내 월드컵 및 아리랑 공연을 연계하는 대규모 참관단 및 고위급 인사 교환방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도 가장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임 특사가 김 대통령의 친서에 화답하는 김 위원장의 친린 답서를 들고 올 가능성이 제기돼 답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임 특사는 4일 밤 백화인 초대소를 찾은 김 위원장을 맞아 5시간동안 면담과 만찬을 같이하면서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에 대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林특사 숙소찾은 김정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임동원 특사가 머물고 있는 백화인초대소를 전경 방문,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2시간동안 면담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AP연합

## 北美-北日대화 '탄력'

### 林특사, 양국메시지 전달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가 4일 북측 최고당국자에게 미국과 일본의 대화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 북미, 북일 3각구도 속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임 특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을 친서와 함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만찬 중 김 위원장과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용순(金容淳) 당비서와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

하고 북미, 북일대화 재개 등을 촉구했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世界日報

THE WORLD JOURNAL

2002. 4. 6 (토)

# 이산가족 이달 상호방문

## 林특사 일정 하루늦춰 오늘 판문점 귀환

### 나영필 기자

남북한은 5일 이른바 이날 안의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제2차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반북 사흘째를 맞은 임동원 특사 일행은 이날 북측과 특사회담, 남북 경협 등을 잇따라 일고 이산이 합의했다. 그러나 임 특사 일행은 추가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방북일정을 계속함에 따라 귀환일정을 하루 늦춰 6일 오전 귀국하기로 했다.

김종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강추의 재개 등에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방북도착 일정을 계속해 임 특사 일행의 귀환 일정을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임 특사 일행은 6일 오전 판문점을 통과할 예정"이라며 "양측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 발표도 6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경협 추진의 개척 등 두 가지 합의사항 외에 김의산 연립, 아리랑축전 및 월

드림 축구대회 대규모 양관산 교관 등 추가 합의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작업을 계속했다.

김 대변인은 "합의과정에서 난항이 없지는 않았으나 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관측했다"며 "합의없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임 특사는 4일 저녁 김장일 위원장을 만담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강대중 대중들의 뜻과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交換했다.



임동원 대북특사(왼쪽)가 4일 밤 판문점에서 김장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파워]

### 남북관계 주요일지

- △2000년 7월29~31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8월15~18일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8월29일~9월11일 제2차 장관급회담(평양)
- △9월11~14일 김용순 특사자적 방한
- △9월25~29일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재주)
- △2001년 2월26일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9월15~18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10월12일 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기 발표
- △2002년 4월13일 임동원 특사, 평양방문

世界日報

2002. 4. 6 (토)

## 귀환늦추며 '공동보도문' 이견 절충

### 林특사 방북 이모저모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 일행은 29일간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5일 오후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정찰을 협의하느라 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기로 하겠다고 서울 남북대화사무국에 마련된 상황실로 알려졌다.

○...임 특사 일행은 4일 회담에 이어 5일 '공동보도문' 분안 작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이산가족 교환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 문제를 제외하고는 밤늦은 시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자 결국 귀환일을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대중령전용기를 이용, 서해직항로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던 임 특사가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돌아오게 된 데는 판문점 통과를 희망하는 임 특사의 뜻을 김장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신뜻 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의 귀환 통로가

오후 6시를 넘겨 속소인 백화원 초대소를 전격 방문한 김장일 국방위원장을 만담,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만찬도 같이했다. 2시간 만담, 3시간 만찬으로 이어진 5시간 가량의 회담은 "상호 협력하고 화기에예한 친위 기에서 진지하게(남북간 현안이) 논의했으며, 밤 11시가 지나 끝났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5일 "4일 저녁 임 특사가 김 대통령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특사와 따뜻한 담화를 한 뒤 특사일행을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정진·김기동기자

kidong@srgt.co.kr

## 김위원장과 심야까지 5시간 회동 북한방송 친서전달사실 즉각 보도

판문점이라는 것은 이번 특사회담의 고조된 분위기를 반영했다. 판문점이 새로운 남북대화의 장(場)이 될지 관심사다. 2000년 9월11일 김용순 북한노동당 비서가 남방방문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고, 1998년 고(故)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도 판문점을 통해 소떼를 몰고갔다.

○...임 특사 일행은 앞서 4일

## 김정일 만나려면 백화원초대소 가라?

북한의 김장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백화원초대소' 속연이 하나의 협상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저녁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마련한 백화원초대소를 전격 방문, 김 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98년 10월 고(故)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의 평양 방문에도 속소인 백화원

林특사 전격방문에 회담  
최정주영회장-울브라이트등  
訪北대마다 예고없이 찾아

초대소를 느꼈음이 찾아왔다. 그 이후 이같은 행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는듯 김 위원장은 2000년 10월 매달린 울브라이트 당시 미

국부장관이 평양을 찾았을 때도 그랬다. 휴먼리 백화원초대소를 찾아와 미국 사교에 익숙한 울브라이트를 놀라게 했다. 지난해 5월 예안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방북했을 때도 김 위원장은 페르손이 체류하던 백화원초대소를 찾아 회담한 뒤 사라졌다.

김 위원장의 백화원초대소 방문 행태는 일단 '전격성'이 돋보인다. 회담이 교착상태에 이르렀거나 일이 갈 인쇄 방문자가 답답해할 때 나타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어미도 최고지도자의 인상을 각인시키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인 듯하다. /조정진기자 jj@srgt.co.kr

## ‘경의선 곧 연결’ 합의

### 林특사 오늘 귀환

이달 중 남북한간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방문과 경협추진위원회 실무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부터 평양을 방문 중인 임동원 대통령 대북 특사 등 방북단은 5일 북측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관련기사 2면

남북한은 또 총리급 인사가 5월 중 원도회담과 평양 아리랑축전에 상호 참석하는 방안 대해서도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은 전례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협추진위 회담에서는 스대 북식량 및 비료지원 시기와 방안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개개 문제 △전력지원 방식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임 특사 등 방북단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이산상봉·경협 ‘금물살’ 탈듯

## 林특사 訪北 성과

지난 3일부터 북한을 방문중인 임동원 대북특사가 5일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남북 현안 해결 합의에 도출함으로써 경제성태에 벅찼던 남북관계가 금물살을 타게 됐다.

린 6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협추진위 개최 강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경추위 회의조카 열지 못했다. 경추위가 다시 열리면 대북 쌀 등 식량지원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식량 부족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등어 국제사회의 대북식량 지원이 급격히 감소

## 北 식량비료지원·개성공단 건설 논의 南 아리랑축전 참가 실무접촉 열기로

또 이들 현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남북간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특사 방문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북·미간 대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협추진위 어떤 것 논의하나▶ 남북한은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

리고 있다. 여자가 지난해 말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5만 t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료 역시 북측의 '기일유구'가 있을 경우 공바로 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경추위 협의'라는 걸치만 거치면 북측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조성문제도 경추위에서 다음 주요한 의제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 남북 사업자



북한을 방문한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4일 북한의 총대소에서 김중일 국방위원장과 만담환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임 특사는 6일 서울로 돌아온다. 사진=연합

인 원리와 토지공사, 북측 기업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논의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2002년까지 4천만평 규모의 공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고 북측도 별도의 실무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추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의 특수기장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불류·견련한 등이 걸림돌이다. 정부는 또한 대북 전력 기

남북간 주요현안

종류	내용
교섭개시	생사 및 주소확인 확대, 서신교환 확대, 상설면회소 설치
경협추진위	식량 및 비료지원, 간접적인 전력지원, 개성공단 건설
군사담판	경의선철도 및 도로연결, 군사신뢰 구축
아리랑축전	당국간 실무 접촉, 민간단체접촉 (4월10~12일여정)

원을 위해 남북간 실무협의회를 가동시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남북간 접촉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산가족 상봉 쟁점-남북이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방문단 명단까지 교환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이 이뤄진 상태.

이와관련 남북은 포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규모 확대 등도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5.4일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에 이산가족을 참가시키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보수층이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核문제등 대화” 공감

## 임동원특사 방북... 성과와 전망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4일 저녁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남북이 힘든 줄다리기 끝에 6일 '공동보도문'을 내기로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이 함께 보낸 시간이 면담 2시간, 만찬 3시간 등 무려 5시간에 이르러 양측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남북은 이달부터 남북관계를 개선시킨 및 가지 조치들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차 이산가족 상봉과 경협추진위원회 재개에는 사실상 합의가 됐으며, 경의선 복원공사와 개성공단 등 중단됐던 경협사업들도 이행해 나간다는 데에도 의견결집을 이루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이달 중 재개된다. 상봉 방식도 작년 11월 6차 장관급회담 때 거론됐던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갖는' 방식이 아니라, 1-3차 때처럼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상대지역을 방문해 가족들을 만나는 '교환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또 2차 경협추진위원회에선 경의선 복원과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협력사업의 재개는 물론, 북한에 대한 쌀 30만 t 차관제공 등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場)도 마련됐다.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이 이처럼 남북관계 이야기만을 나눴을 리는 없고, 미·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특사는 미국 부서 행정부의 입장과 국제정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대화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대화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제의에 공감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미국측에 “조만간 대화에 나올 것”이란 메시지를 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언급했을 것이 확실하다. 다만 ‘언제 가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은 채 ‘약속은 지킬 것’이란 원칙적 수준에서 언급했을 것이

라고, 당국자들은 추측한다.

한편 임 특사 일행은 5일 오전부터 북측과 '공동보도문' 분안 작업으로 씨름을 벌였으나, 협상이 깊어지고 북측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가 환송만찬을 준비해, 평양체육 입장을 하루더 연장하게 됐다.

평양 만수대에체육관에서 열린 환송만찬에는 북측에서 김 비서 외에 임동원 동맹진신부 제1부부장, 안경호·전금진 조빙봉 부위원장, 김관수 아태평화기 부위원장, 강은수 문화상,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등 과거 남북회담 대표들이 참석했다. 양측 협상대표들이 환송만

찬을 가진 것과 임 특사 일행의 서울 도착시각이 6일 오전 10시로 확정된 것 등을 미루어 공동보도문 협상이 이날 자정 전에 사실상 끝났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앞서 임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은 김 위원장이 4일 오후 6시쯤 임 특사의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를 전격 방문해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은 임 특사 일행을 위해 5시간을 할애했다. 면담 2시간 만찬 3시간으로, 밤 11시가 넘어서야 김 위원장이 백화원초대소를 떠났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상호 솔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남북안간 현안들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 경협 원칙 합의... 남북관계 진전 '대량살상무기'등 美·北현안 주목



◇백화원초대소 기념촬영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동원 대북특사가 4일 저녁 평양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로 찾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사진기자를 /평양=嚴贊





# 김용순과 회담 교착·진전 거듭 환송 만찬에 對南通 대거 참석

## 林특사 방북 스케치

남북한은 임동원 특사의 김정일 국 방위원장 면담(4일)과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5일 오전 합의사항의 윤곽을 잡았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의 구체적 문안을 둘러싼 심야 줄다리기로 林특사의 서울 귀환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춰지는 우려폭질을 겪어야 했다.

이날 자정쯤 서울 상황실의 간부들이 하나둘씩 귀가하면서 "딱한 문구 조정작업과 발표만이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했다.

○오전 10시쯤 회담 관계자가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경합추진위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확인하자 특사의 방북관동이 마무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대두.

하지만 해질녘이 가깝도록 아무런 진전상황이 전해지지 않자 일부에서

## 귀환 회견장에

## 외신 기자들 몰려

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 시각 평양에서는 오찬을 함께하며 시작된 林특사-김용순 비서 간의 협상이 진전과 교착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6시10분쯤 프레스센터로 내려온 회담 관계자가 "林특사의 귀환이 내일(6일) 오전 10시로 늦춰졌다"고 발표하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또 특사일행을 맞으러 관문집에 나간 정부 관계자와 취재기자들은 허탕을 쳐야 했다.

○林특사의 귀환이 임박하면서 기자회견장으로 잡힌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는 1백50여명의 내외신 기자와 각 방송사의 중계차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미국의 CNN과 AP통신은 물론 일본 통신과 신문·방송사들이 대거 참여해 특사 방북에 몰린 국제적 관심을 반영.

이 때문에 회담 대변인인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공보관은 3층 상황실과 1층 프레스센터를 오가며 하루 수십 차례 브리핑과 상응을 전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5일 오후 평양 만수대에술국



방북 중인 임동원 특사(左)가 4일 저녁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찾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 AP=3]

장에서 열린 김용순 비서 주최의 환송 만찬에는 임동원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김관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북측 협상대표 외에 대남통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을 비롯해 장관급 회담 전금진·김영성 전한직 북측단장,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이 이들.

또 금강산관광 합성회를 위한 당국 회담 북측 단장으로 나왔던 김택룡 내각 사무국 부장도 자리했다.

특히 강능수 문화상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아리랑축전과 관련한 현안

이 이번 회담 기간에 다뤄졌음을 알 수 있게 했다.

회담 관계자는 "만찬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에 서로의 관심사가 폭넓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방북했던 林특사가 관문집을 통해 귀환하는 것은 남북방위원장의 결단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회담 관계자의 귀담.

당초 북측은 관문집이 미군 관할지역이라 기피했으나, 관문집 귀환의 상징성을 의식한 林특사의 건의를 수용했다는 것. 이 때문에 관문집 육로개방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영종 기자

# 北측 대화의지 확인 '한반도 위기론' 차단

林특사 방북 성과

남북이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2차 남북경제추진위원회 개성에 합의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의견을 좁혀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지난 해 11월 6차 장관급 회담 이후 상대해 온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번 방북은 또 북측이 남측을 포함한 '외부'와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위기론의 확산을 막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쪽의 화해협력에 비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전사와 미국 언론의 대북 메시지를 북한 최고당국자에게 직접 전달할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 현안을 하루 늦춘 것일 경우만큼이나 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문제는 '북침동료'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는 북한 군부의 입장 때문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합의된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당초 정부가 '최소한의 북방'으로 신청했던 과제, 상봉에 참가한 이산가족 100쌍씩의 방만을 서로 교환하는 등 순

### 향후 남북회담 및 논의사항

종류	논의사항
직접회담	이산가족 교환방문 이산가족 상봉 및 주소 확인 확대 이산가족 사진교환 확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간접회담	간접적인 협력 지원 개성공단 건설 남북한 및 러시아 협조 연결
군사당국자 회담	군사적 신뢰구축 비무장지대(DMZ)구간에 경의선 신규

비개 상봉이 심각한 상태에서 북측이 9-11테러사태에 따른 남북의 비상경계 태세를 해제한 지 1년 10월 앞방적으로 이를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중 조가 상봉을 실현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또다시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사진 교환 등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된 2차 남북경제추진위원회는 쌀과 비료 등의 대북지원 문제를 중점 논의하게 된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건설, 간접적 협력 지원, 남북한 및 러시아 철도·가스관 연결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된 바 있어 이를 다루기 위한 실무 협의회담이 잇따라 열릴 전망이다.

성동기기자 esrit@donga.com

## '공동보도문' 조율 진통... 귀환 연기

남북 중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의 교환보도문인류로 알려진 5일 예정된 귀환을 하루 늦춘 채 방북했다. 북측과 공동보도문 내용 조율을 계속했다.

임 특사는 6일 오전 평壤을 떠나 북측에 육로로 귀환하며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김의대(金義大)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방북 상봉을 보고한 뒤 서울로 향하는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6일 오전에 시작된 임 특사 방북과 북측의 실무협약에서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경제추진위원회 재개 등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는 남북회담사무국에 차려진 서울 상공원은 "특사 방북이 성공적이었다"고 자축하며 임 특사 방북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그러나 오후 5시경 김중재(金重宰) 통일부 대변인이 임 특사의 귀환이 하루 늦춰졌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언락

에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러나 "큰 줄기는 합의됐다. 다만 합의문 조율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 특사 방북을 위한 이날 저녁 김동순(金東淳)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평壤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 그동안 접촉에서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식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

만찬에는 우리측에서 임 특사 방북 현안을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김 비서를 비롯해 임동원(林東源)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김중수(金重守) 아태평화외교부 부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외교위원회 서기장, 전금삼(全君三) 내각책임장사 등 그동안 남북대화에 대표로 참석했던 인사가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성동기기자 esrit@donga.com

# 쌀·비료지원등 합의 남북관계 다시 '봄바람'

## ■ 특사 오늘 귀환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5일 산고(産高) 끝에 '봄 소식'을 전해왔다. 이번 임 특사 방북이 1년여간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재개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는 기대보다 큰 성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임 특사와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답변문제

없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 북한은 미사일·핵사찰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미 회담에 나설 것임을 우리측에 약속한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전례에 따라 남북 각각 100쌍씩 서울과 평壤을 오가는 방식으로 이날 중 상봉이 것으로 보인다. 또 남측 양측은 경제적인 이산가족 교환방문되는 방개로 20일부터 두달간 평壤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전에 남측에서 대규모 이산가족이 방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북측에서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외의 축' 방백과 연이어 제기된 핵·미사일 의혹 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입장을 구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이번 합의로 북한 당국의 평화에 대한 정권의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게 됐고 우리측도 앞으로 닫힌 워드캡을 '안전한 대화'로 만든다는 목표에 더욱 근접하게 됐다.

## 김위원장 답방 합의여부 관심 "이산가족 상봉등 실천 뒤따라야"

### ◇ 남북한 주요 합의사항

- ▲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직접자 회담 재개)
- ▲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재개(쌀 30만톤, 비료 20만톤 지원)
- ▲ 실무 협의를 통한 경의선 및 도로의 조속한 연결
- ▲ 남북 총리급 고위 인사 5월 중 상 호 방문
- ▲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 가동

경제협력추진위의 재개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1차 목표다. 경제협력추진위를 통해 북한은 쌀 30만톤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쌀 지원 외에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비료 20만톤을 보낼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중재가 정상적으로 이동되면 각종 실무 협의를 통해 군사 진척이 지지부진한 경의선 및 도로 연결, 개성 공단, 북한에 경찰관 전력 지원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임 특사의 이번 방북으로 한반도에 잔뜩 긴 역류가 풀기되기 시작할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이 곧 이어갈 대량살상무기·핵사찰 등을 의제로 한 미국과의 회담에 나서게 함으로써 한반도 위기 국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 특사가 '일본인 납치' 의혹에 대한 식의 있는 태도 촉구하는 일방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북측도 수렴함에 따라 북한 관계도 개 결 등 몇 가지 합의에 따른 평가다.

남북은 총리급에 해당하는 남북 고위 인사가 오는 5월 중 워드캡과 아리랑 축전에 상호 참석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와 답방 시기에 관해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답방이 이루어질 경우 김 위원장의 워드캡 개막식 참석 여부 등 답방 시기와 장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감안, 답방을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커 현재로서는 낙관할 수

◇지나친 낙관은 금물=임 특사의 이번 방북으로 한반도에 잔뜩 긴 역류가 풀기되기 시작할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이 곧 이어갈 대량살상무기·핵사찰 등을 의제로 한 미국과의 회담에 나서게 함으로써 한반도 위기 국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 특사가 '일본인 납치' 의혹에 대한 식의 있는 태도 촉구하는 일방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북측도 수렴함에 따라 북한 관계도 개 결 등 몇 가지 합의에 따른 평가다.

남북은 총리급에 해당하는 남북 고위 인사가 오는 5월 중 워드캡과 아리랑 축전에 상호 참석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와 답방 시기에 관해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답방이 이루어질 경우 김 위원장의 워드캡 개막식 참석 여부 등 답방 시기와 장소도 중요하다.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 경추위, 화해협력 중심축

■ 남북 경험 재개 의미

## 쌀지원·이중과세방지 의견접근 쉬워 전력협력 사안 민감 시일 꽤 걸릴듯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협상에서 남북이 재개하기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는 실질적인 남북 화해협력의 중심 채널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 3항은 경험과 관련한 세부항목만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육교관광, 입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9개에 이른다. 대북 쌀지원 문제도 경추위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다. 경험 4개 합의서 발표, 북한 상선의 제주 영해공과 문제로 촉발된 민간선박의 영해 통과를 보장할 해운협약서, 동해 공동어로 등도 경추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00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된 경추위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차원에서 경험 사안을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군사나 사회분야와 달리 경험 분야는 남북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견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등의 견제로 그동안 협업을 통한 남북관계 확로 찾기가 한계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단지 남북의 쌀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남북 내부의 퍼주기라는 비난이 크게 완화됐고 이번 특사 방북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면서 특별한 협의가 없어도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당도 최근 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

내에 넘쳐나는 재고 쌀을 이용해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 등 4대 긴급 합의서는 이미 모든 합의가 끝난 만큼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교환만 하면 발표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는 북쪽이 경제특구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전력지원은 미국이 전략 물자로 간주해 반대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사업 추진 상황과 연계해 개성지역의 남북 공단에 우선 공급한 뒤 단계별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그동안 북한지역에 대한 전력 현황 실사를 먼저 하고 전력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급에 앞서 전력협력심무협의회 구성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경추위 회의에서 경험사업에 대한 협력이 본격화되면 전력실무협의회 외에도 입진강 수방 실무협의회,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등도 가동될 것으로 보여 남북협력의 제도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길 기자 nura@hani.co.kr

# 합의문 작성 앞두고 막판 세부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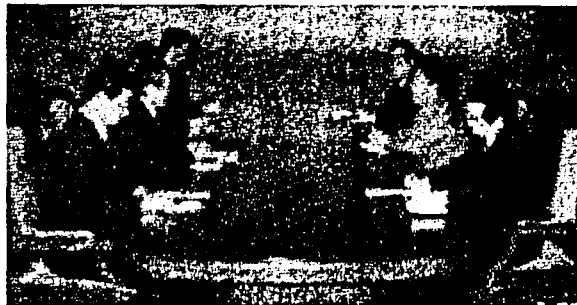
■ 임특사 늘어난 평양일정

## 김위원장 방문 협상 급진전 실무회담뒤 발표문안 진통

임동원 외교안보총괄 특사가 귀환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은 변화무쌍한 남북회담의 모양새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임 특사는 3일 오전 평양으로 떠나면서 "회담 전망을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처럼 평양에서의 협상 분위기는 암치라퀴처럼 반전과 진통을 겪으며 남북 관계자들의 마음을 뒤흔어 줬다.

협상은 방북 첫날 바로 시작된 특사 회담에서 북쪽의 주적분 재개로 잇달라 시작했다. 방북 이틀째인 4일에는 저녁 무렵까지 오전에 있었던 한 차례의 장관급 실무회담이 전부였다. 김성일 국방위원장을 언제 만나게 될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어 한동안 북쪽이 남북 대통령 특사를 지나치게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초조한 분위기는 4일 늦은 밤 임 특사가 김 위원장을 면담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만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질 때까지 계속됐다. 기쁨이 풍나듯 오는 평양의 보고는 협상 상황을 더욱 오리무중으로 만들었고 단편적인 전달사항에 따라



지난 4일 저녁 임동원 특사 일행(왼쪽)이 백화원초대소담 찾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 가운데)과 면담을 하고 있다.

회담 전망이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임 특사와 김 위원장 간의 면담과 만찬이 모두 5시간에 이르고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은 5일 아침에야 전해졌다. 이 소식으로 서울의 당국자들은 협상 경과를 낙관하기 시작했고, 합의 결과를 담은 공동 발표문을 마무리하는 즉시, 특사 일행이 이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 회담처럼 막판 진통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쉽게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공동발표문 협상은 감광 무소식이고, 오후부터는 도대체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분위기는 또 다시 바뀌었다. 오전의 실무회담에 이

어 임 특사와 김용수 대남담당 비서관의 오찬 회담까지 마쳤지만, 양쪽은 합의문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정부는 특사 일행의 관문점 귀환 예정시각을 넘어선 저녁 6시쯤 "일정을 하루 연기해 6일 오전 10시 서울에 도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막판 점쟁이에 대해 항구했다.

게다가 방북 기간 내내 서울의 상환심이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은 '회담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실 확인에 그쳤다. 이 때문에 상당수 언론들이 6일치 신문에서 임 특사가 귀환했다는 오보를 내 놓을부 대변인이 취재기자들에게 교역을 치렀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남북정상 대화재개 신뢰 확인

## ■ 임특사 방북 성과

임동원 특사 일행의 방북 성과는 남북이 '2003년 안보위기'를 해소나 감 이상표를 만들어갈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임 특사는 출발인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대목은 이번 방북을 관 통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갈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긴 안보에서 봐 달라"고 했다.

임 특사 방북이 미국쪽의 적극적

## 한반도 평화정착 이정표 기틀 마련 미국 지지속 진행 주변 걸림돌없어

지자와 북-일이 대화를 일어가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점은 중요하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실상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중동지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까지 기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남북의 이번 합의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래 남북 내부의 냉전적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등장으로 얼어붙은 역풍과 먹구름을 걷어낸 또 한번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앤앤젤레스타임스>의 표현을 빌리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남북의 협의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보다 특사 방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정상 간 대화재개의 기틀이었다. 특사 방문의 핵심은 정상 간 간담대화였다. 임 특사를 통한 5시간의 면담과 만찬, 친서 전달을 통해 두 정상은 신뢰를 확인하고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지난 1월22일 정부·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에서 "정세가 어렵든, 남조선에서 누가 겁내하는" 대화를 하겠다고 한 것을 김 위원장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김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 김위원장 '의지' 5대 과제 '탄력'

## 이산가족 교환방문·2차 경추위 쉽게 합의 경의선 복원으로 개성공단 건설 힘받을듯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5대 핵심과제(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의 이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임 특사를 장시간 면담하며 '의지'를 살여줌으로써 '강한 실행력'이 담보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남북은 김 위원장 면담 뒤 이뤄진 방북합상을 통해 이당 중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실시와 2차 김추추진위원회 개최에는 일찍부터 쉽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의 서울-평양 교차방문은 그동안 금강산을 상봉 장소로 거론해 오던 것에 비춰볼 때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2차 김추위 개최 합의도 이 위원회가 남북간 화해·협력의 중심체이자 남북관계 진전의 실질적 '건인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뜻이 깊다. 정부가 지난해 말 이미 밝혔으나 당국간 대화 단절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던 정부 보유미 30만 등 대북 쌀 지원 문제도 자연스레 풀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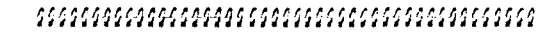
그러나 5대 과제의 핵심은 단연 경의선 복원 사업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의 경제·평화적 가치를 강조해 왔다. 정부

당국자가 임 특사 방북 전 "특사 방북의 성과를 좌우할 만한 심리적 변수"라고 단언했을 정도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조기 착수 및 개통'이라는 5차 장관급회담 합의 수준에는 어렵지 않게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안 군사 착수'를 위해 필수적인 '군사보장 합의서' 교환 방식 등 이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선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공사는 남북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릴 핵심적 인프라 구축 사업일 뿐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를 크게 낮출 평화사업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이 철도가 휴전선을 통과해야 하는 탓에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런 태도를 보여왔다.

지지부진했던 경의선과 연계돼 있었던 개성공단 건설 사업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의선 복원에 맞춰 개성공단이 가동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북쪽의 특구 지정과 법률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개성공단 건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북한 전력협력 사업과 관련해



### 올에 한반도 일기

- 1월22일 = 북, 정부정당단체합동회의에서 당국 및 민간급 대화·접촉 재개 발표
- 1월23일 = 정부 금강산관광 지원 방침 발표
- 1월29일(현지시각) = 부시 미 대통령, '학의 축' 발언
- 2월1일 = 북 외무성 대변인 '학의 축' 발언에 대해 '우리 (북)에 대한 선전모고나 다름없다'며 규탄 성명 발표
- 2월20일 = 한-미 정상회담, 부시 미 대통령, 대북 선제공격 배제, 대외로 문제 해결, 인도적 지원 계속 신청
- 3월13, 20일 =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와 핵 프리저도 미국 대북교섭 전담대사 뉴욕 접촉
- 3월25일 = 남북, 임동원 특사 방북 동시 발표
- 4월3일 = 임 특사 방북
- 4월4일 = 임 특사, 북한원초대사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 김 대통령 친서 전달
- 4월6일 = 임 특사, 판문점 중회 귀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관심사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북한 체제 특성상 장관급회담 등 일반 당국간 창

구에서는 협의가 어려운 사안이었다. 그러나 임 특사가 김 위원장을 직접 면담함으로써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평양거처 의주까지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협상이 성과를 거둬서 남북간 경의선 연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2월 경의선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의 남방향개선 철책 앞에서 열차가 회차하고 있다. 도라산역/이정우 기자 woo@hani.co.kr

■ 경의선 연결 어떻게

작년 합의서 타결...서명하면 바로 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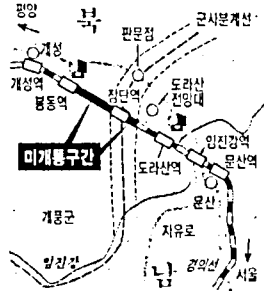
경의선 문산~개성 12km 구간을 잇는 일은 비무장지대(1.8km)와 북쪽 구간(7.5km)만 연결하면 끝난다. 임진각 북쪽 끝에서 남방향개선까지 남쪽 구간 2.7km 연결공사는 이미 지난해 10월 마무리됐다.

남북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다섯차례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 안 공사를 위한 41개항의 합의서를 타결했다. 남북 국방장관이 합의서를 서명·교환한 하면 비무장지대 안 지뢰제거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다. 북한도 2000년 9월4일 이후 개성

시 봉동, 미천군, 남촌군 등 세곳에 막사 139동과 중장비 174대, 병력 5천여명을 투입해 대진차 장애물 및 나무 제거, 통신 선로 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2월 갑자기 '형정적인 이유'를 들어 서명을 연기했으며, 2001년 4월말 트지정리 사업과 가뭄 극복을 위해 일부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2월말 개성시 남촌쪽에 막사를 신축해 공사 재개 조짐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경의선 복원은 북쪽 최전방 지대의 개방을 의미해, 북한 최고지도자와



군부의 남북 화해 의지의 시금석으로 여겨져왔다. 또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과도 관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도라산역에 이산가족 변호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가대할 걸 수 있게 됐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 김위원장 답방 논의됐을까

원론수준 답변...구체시기 언급안한듯

임동원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서 답방 문제를 어떻게 언급했을까?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4일 저녁 면담·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 "대화는 오갔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한다'고 명시된 대로 답방 약속을 지킬 것인지와 지킨다면 언제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면담에서 답방 시기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미 관계 정상

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이 가시권에 들지 않는 한 쉽사리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특사 방북 전부터 이에 대해선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특사 방북 발표 때부터 '6·15 공동선언 준수'라는 부분은 확실히 강조했다. 답방 약속에 대한 김 위원장의 뜻을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원론적 수준의 답변은 있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재훈 기자

북-미, 북-일 대화전망 한층 밝아져

임동원 특사의 방북으로 정체됐던 남북관계의 돌기가 마련되면서 북-미 대화, 북-일 대화의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임 특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 과정에서 대화를 희망하는 미국, 일본의 메시지를 함께 최근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 필요성을 역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출발에 앞서 북-미 대화 재개의 걸림돌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논의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11테러 이후 조성된 국제정세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교정하는 것도 그의 중요한 방문 목적이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일본쪽에 보여

준 유화적 태도는 대화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뉴욕 접촉에서 대화 의사를 부인하지 않았고, 연기시켰던 한반도에너지기구(케도) 관련 협상 재개도 발표했다. 일본과는 최대 걸림돌인 납치자혹문 제 해소를 위한 직접자회담 재개 의사를 표명했다. 한-미-일은 오는 9월 도쿄에서 대북정책조정그룹(트랙) 회의를 열어 임 특사의 방북 결과를 반영해 대화재개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南北관계 전면 복원되나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軍事) 상황부분 간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남북은 5일 공동보도문 작성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미국의 대북 강경책과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에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대화로 풀 어지름 비결이었다. 지난해 11월 6차 정전협정만 갱신 이후 차 막혀있던 남북관계도 복원됐다.

특히 임 특사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해·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북미간 대화로 풀자는 해법에 공감했다는 사실은 일단 한반도 위기의 위심 변수를 해소할 것이다. WMD 문제는 북미간 의제로 간주돼 왔기 때문에 임 특사가 김 위원장을 설득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미간 갈등의 관건지였던 남북이 이번에 주도적 문제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林특사 오늘 판문점 귀환

### WMD해법 공감... 긴장해소 길터 전력 지원·美강경태도 등이 변수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남긴 했다. 그러나 남 방향을 대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태도 변화'라는 조건은 현실력을 높이기 위한 수사(修辭)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양측 북미간 대화는 뉴욕 체닌이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관제라도 이루어지겠지만, 핵 프리저드 비 대북교섭 담당대사 등 고위급 인사가 방북, 진보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측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 보장요구와 미국의 핵 조기사실 요구 사이에 놓여진 간극이다. 임 특사는 이번 방북에서 이를 매울 방안으로 남북의 전력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9·11 테러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에 인식을 접근시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임 특사는 북측이 고수해 온 통미봉남(通美封南)보다는 먼저 남북관계를 풀자는 신남후미(先南後美) 정책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이에 동의한 데는 큰 공과, 파장에 남북의 식량·의료 지

원이 긴밀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을 직접 움직이기 힘들다는 전략적 판단을 굳이 이유도 없는 것 같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조속 재개에 동의한 것도 고무적이다. 이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남북은 김일주전위에서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개발, 입정강 수방대책 등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켜볼 대목이 적지 않다. 북측이 전면적으로 대미 대화 재개할 화의할 것은 아닌 데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접지 않은 상태가 때문에 양측의 임 겨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지원을 놓고 '남남 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전략적 문제만 하더라도 북미 갈등을 우리가 대신 떠안는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6일 임동원 특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는 우선 정중단 표현의 인부인사가 남김 것으로 보인다. 안부 교환은 양측 정상에 6·15 정상회담과 특사교환 등을 통해 쌓은 신뢰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김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위기 도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등으로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김 대통령의 우려에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민족의 정례를 염려하는 김 대통령에게 고마움도 표시할

## ● 김정일, DJ에 전할 메시지는

### 北美대화 재개의지 남북단합 강조할듯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목에서 김 위원장은 북미대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남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 남북, 북미관계의 경제 상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남북이 대화를 하고, 협력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초소에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왜가워터 수카르노푸르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밝혔던 것처럼 '다시 한번 김 대통령을 뵙고 싶다'는 수순에서 재회의 뜻도 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워드컵 개막식에 북측 인사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협상 오후6시 넘자 “하루 더”

## ■ 林특사 訪北 이모저모

### 한송만찬시도 다함 모색

5일 임동원 특사 일행과 북측간의 공동보도문 협상은 예상과 달리 다소 진통을 겪으면서 임 특사 일행의 귀환을 6일로 하루 늦추었다.

김보진(金保鎭) 국경선 3차장, 임동원(林東源) 아태협력위 부위원장 등은 이날 공동보도문 작성을 북측이 오전부터 협상에 들어 갔다. 양측은 이산가족상봉 등의 당면에서는 일찌감치 합의할 여지가 있으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임 특사와 김정은(金正恩) 노동당 비서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갈등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남측은 오후 6시에 체류위장 연장을 결정, 앞치마 뒤지러하는 방문 협상에 돌입했다. 또한 양측은 김 비서가 만수대체육극장에서 주최한 임특사 환송 만찬에서도 타협점을 모색했다.만찬에는 임 부위원장,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장관급회담의 김정성 한 수석대표와 전금진 전 수석대표, 강능수 문화상, 정은업 민경련 총사장 등 북측의 간판급 '회담 일꾼' 대부분이 모습을 나타냈다.

양국자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임 특사 회담 결과가 좋지 때문에 협상이 무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진통은 우리측의 주장을 보도문에 보다 많이 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

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일행은 당초 6일 오전 10시에 평문협을 넘을 것이라고 자중에 통고했다가, 이날 밤 늦게 일행의 서울 도착시간을 오전 10시로 수정해 통보했다. 이는 실무협상이 급진전, 서울도착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 특사 일행은 거의 진권을 갖고 평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동상의 회담과는 달리 서울 연락을 중이면서 대부분의 사안을 현장에서 처리했다. 이는 임 특사를 비롯한 실무진 대부분이 대북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긴장완화·원인經協 핵심현안 ‘통큰’ 합의

## • 공동보도문 뭉치 않나

남북은 3박4일 동안 진행된 특사회담의 성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원(林東源) 특사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4일 밤 이뤄진 면담에서 한반도정세와 함께 남북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5일 몇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그동안 거론된 각종 의제들을 정리, ▲이산가족상봉 조속 재개 ▲남북경제추진위 재개 ▲경의선 연결 추진 등 핵심 현안에 합의했다.

김중재(金泓宰) 통일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산상봉, 경추위 재개 외에도) 몇가지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보도문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방안을 담은 7개 정도의 합의사항이 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산가족 교환방문=지난해 북측이 9·11테러 이후 남북의 비상경계 태세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4차 이산상봉이 이르면 4월중 이뤄진다. 양측은 이미 상봉에 참여할 남북 이산가족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한 상태에서 관문접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일정 등을 논의한 뒤 곧바로 실시할 방침이다.

남북은 또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설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금강산면회소 설치·운영과 이리산 축전을 합용한 이산상봉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게 정부측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제협력=이번에 재개기로 남북이 합의한 경제추진위원회는 2000년 12월 1차 회의에 이은 두번째 회의가 된다. 김위원에선 우선 북한의 중공기금 갚안, 석탄

임팩사 방북 협상 내용

구분	내용	논의결과(추진)
한반도 긴장완화	북의(北의) 군사선의 구축	제가 필요성 공감 추진
남북(南北) 협안	북한의 핵·미사일	다소 불협조적 공감
남북(南北) 경제협력	군사당국자·정관급·적십자 위원	추진
남북(南北) 경제협력	경의선 연결	추진
남북(南北) 경제협력	개성공단 및 남북 전역지점	추진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이산상봉	4차상봉 4월 실시
	석탄(30만톤)·비료(20만톤)	조속 실시
	월드컵·아리랑곡전 시합등 교환	추진

30만 t 과 비료 20만 t 을 지원하는 문제가 본격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추진이 중단된 개성공단 조성문제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된다.

또 북측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력 지원 문제도 심도있게 다루길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경제협력의 현안은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양측이 동시에 살리길 생각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긴장완화=이번 특사회담의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 긴장완화를 담보하는 조항이 보도문에 포함된 전망이다. 임동원은 김위원장과 회담에서 ‘9·11테러 이후 국제정세가 확연히 바뀌었으며, 미국이 세계전과 차원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했지만 북한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뒤 김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군사당국자회담도 추진된다. 경의선 연결공사를 위한 군사보합협의서를 채택했지만 양쪽 국방장관의 서명후 교환이라는 절차를 갖지 못해 공사가 진척을 보지 못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선 이밖에 상호훈련합관, 군사화력인 설치 등 초보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용욱기자

# 北·美 대화재개 가시권

## • 林특사 방북성과·전망

### 이르면 내달중 시작 될듯 ‘한·미·일-북’ 협상 성격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으로 지난 1년간 교착태에 빠진 북관계가 전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대화가 재개되고 지지부진한 사업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정세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게 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큰 소득이다. 북·미대화 재개도 시이기에 날여온 느낌이 든다. 다만 이번 방북 결과가 미국의 대북압박에 밀린 북한의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국제정세가 바뀔 경우 변수가 출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 걸리는 대목이다.

임동원의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과 임동원·김종순(金宗淳) 노동당비서간 회담은 외적으로는 남북 접촉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미·일 3국과 북한간 협상 성격이 짙다. 임동원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외면하는

내용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친서뿐 아니라 미·일의 메시지를 김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그 증거다. 이번 방북 결과가 과거의 남북 협회보다 더욱 비중있게 보이는 배경이기도 하다.

김위원장이 4일 밤 면담 2시간, 만찬 3시간 등 정장 5시간을 임동원과 함께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띤다. 김대중 대통령과 간접대화를 통해 한반도정세와 남북관현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셈이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는 게 남북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는 일단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남북회담과 행사의 재개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중 북·미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특사 방북과정에서 나타났듯 북한이 남측에 대해 ‘주적분’ 활용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무시한 채 ‘민족강조’만을 주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용욱기자 wooddy@kyunghyang.com



— • 林동원특사 방북·협상 이모저모 —

## 공동보도문 '사소한 대목' 이견 발표시기·귀환일정 한때 혼선

임동원(林東源) 특사일행은 5일 방북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고 공동보도문 작성작업에 매달렸다. 한 회담관계자는 "남측은 더 많은 성과를 원하고 북측은 각종 회담과 행사 개최에 합의할 경우 부담스러울 것을 우려해 시기나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국자들과 기자들은 이날 공동보도문 발표와 임특사 일행의 귀환시기를 놓고 혼란을 겪었다. 혼란은 평양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 마련된 특사방북 상합심 사이의 대화가 잦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과거 남북회담 때는 현장과 상합심 사이에 수시로 훈령과 보고가 오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회담 현장에서 온 보고를 받고 훈령을 내리던 임특사 본인이 회담에 가는 바람에 대부분의 일처리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임특사 일행은 이날 아침부터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 등 북측 대표단과 회담 및 상무접촉을 잇따라 갖고 공동보도문 작성작업에 들어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중재(金重宰) 대변인은 오전 "현재 접촉이 진척 중이며 몇 가지 의견집근을 이뤘다"고 말해 공동보도문 작성작업이 순조롭게 풀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저녁이 다 되도록 평양에서 이렇다할 소식이 오지 않으면서 작성작업이 난

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갖고 "5일 하루종일 협의가 계속되었다"며 "사소한 대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부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대변인은 오후 6시 30분쯤 보도문 발표와 서울 귀환시기가 6일 오전 10시로 미뤄졌음을 발표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작성작업이 난항을 겪자 오찬을 함께 하면서 공동보도문 문구 조정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찬등 함께 하며 최중문구 조율 환송만찬 '대남사업 간부' 출출동

○...임특사 일행은 이날 저녁 만수대 여숙장에서 김용순 비서 주위로 열린 환송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임동옥(林東玉) 노동당 통일선부 제1부부장, 전·현직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인 전금진(全金鎭)·김영성 내각책임참사, 안길호 조령동 시기관장, 장관급회담 대표 강능수 문화상, 정은업 김주익 북측 단장, 김택용 금강산관광 협상회담 위한 당국회담 단장 등 각종 남북회담의 수뇌급들이 출출동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사실로 미뤄 공동보도문이 마무리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우기자 [jjwnt@yurhyang.com](mailto:jjwnt@yurhyang.com)

## '답방 가능성' 조금씩 보인다

### • 김위원장 단안 내릴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을까. 임특사는 4일 밤 5시간에 걸친 김위원장과의 회담 및 만찬 자리에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회고하면서 김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희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위원장의 답방은 이번 임특사 방북의 최대 목적이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林특사 방북 분위기 고조 낙관론 경계속 일말 기대

를 갖고 있다. 김위원장 답방이 이뤄지거나 또는 답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체단이 마련된다면 이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특사 방북 이전 김위원장의 답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5월 김대중령이 "김위원장은 서울 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히라"고 말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답방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일 부에서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김위원장 대신 '업권마담'격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답방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답방 분위기는 임특보 방북

이전 다시 짙어졌다. 3월 말과 4월 초 남북한을 교차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김대통령을 뵈 이후 계속 씩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김위원장의 발언을 진담한 것이다.

김위원장이 답방의사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차원의 발언이 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후 선부론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답방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방북 직전 "개인적으로 쉬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임특사는 4일 김위원장과의 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곡어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현기자 [csk@k.yurhyang.com](mailto:csk@k.yurhyang.com)

# 아리랑축전 고위급 참관 추진

## 남북교류 활성화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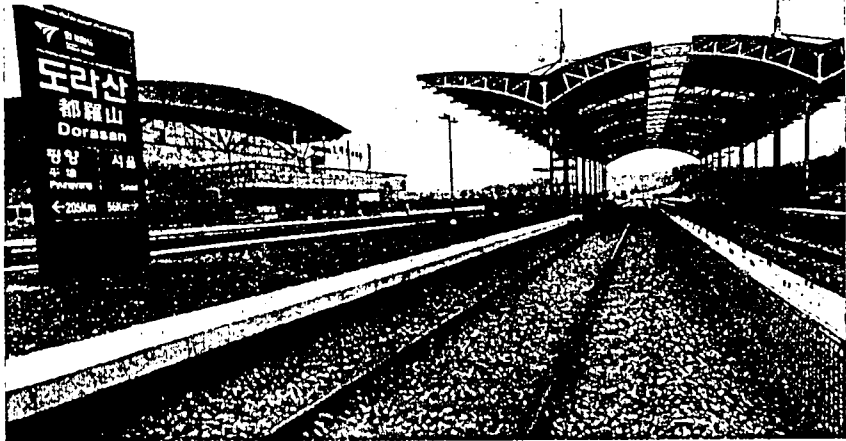
임동원(林東源) 대총령 특사는 지난 4일 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무려 5시간에 걸쳐 민담과 민간을 함께 하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방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임 특사는 이 자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솔직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남북간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이 5시간 동안이나 함께 얘기했다는 것은 한반도 위기 예방과 남북관계 진전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는 뜻"이라면서 "남북간 '간접 정상회담'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사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지난해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 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9월16~19일 서울에서 제5차 장관급회담을 열고 제4차 이산가족상봉단 교환, 경제협력추진위 개회 등에 합의했으나 이후 '9·11테러 사태'의 여파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방문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개는 남북관계가 나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 때 항상 앞서는 '진보' 사안이다. 인도적 사안으로서 남북의 보수층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100명 안팎의 상봉단 교환보다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면회소 설치, 제2차 수준의 왕래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남북 직접



경의선 연결되려나 경기 파주시 소재 '도라산역'. 임동원 특사가 5일 북측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의선 남북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매일 포토라이브러리

## 이산가족 제한적 왕래 긍정 검토 개성공단 건설·금강산관광 활성화

지회담이 조만간에 열린 예정이다. 코앞에 닥친 월드컵과 '아리랑' 행사가 대안 남북합조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등 고위급의 교차 방문과 남북 관광단의 아리랑행사 참가가 상상될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는 국방장관회담(당국간 군사회담)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두개 축이다. 경추위에서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 강원 관광 4대 합의서 발표, 임진강 수해 공동

방지, 식량·비료 지원 문제 등 남북교류의 핵심 문제들이 다뤄진다.

특히 지난해 9월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앞으로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경의선 연결과 관련, 군사분계선 주변의 정찰 작업 및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다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구축방안과 관련, 폭넓은 의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전영우기자 anseamus@kdaily.com

## 대화 재개 전망

임동원(林東源) 대총령 특사가 6일 도쿄를 '귀환 보따리'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미·일 관계개선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제, 어떤 형태로 북·미, 북·일 대화가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특사가 지난 3일 방북 직전 "미·일이 북한에 전해줄 것을 원하는 사항들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듯 4일 밤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및 민찬 회동에서 한반도 위기 해소와 관련해 북·미, 북·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도 이 부분에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 北·美·日관계 '봄바람' 분다

한 당국자는 "임 특사와 김 위원장 간 5시간동안의 면담은 주로 대미 및 대일 관계개선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분위기는 좋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도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金聲煥)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진정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라는 두 축을 한꺼번에 풀려나갈 의지가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만을 진전

시킬 경우 미국이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우선 개선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다음 북·미 대화에 조심스럽게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특사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론의 핵심인 미사일 개발·수출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 등으로 이어지는 방편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 체납을 불렀던 북·미 접촉에서 대화 의사를 표명

했던 북한은 오는 8·9일로 예정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와 17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북·미, 북·일 대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 박길연(朴吉連) 유엔주재 북한대사와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 간에 이뤄지고 있는 뉴욕체납이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감춰지고 있다. 북·일 대화와 관련,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예정이던 북·일 각료회담을 중단시킨 것도 이번 특사 방북결과를 지켜본 뒤 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면서 "TCOG회의 이후 북·일 직접회담과 각료급 회담이 동시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수경기자

각종 남북대화 주요의제	
적십자 회담	· 생사 및 추스확인 확대 · 서신교환 확대 · 상설면회소 설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식량 및 비료지원 · 전력지원 · 개성공단 건설 · 남북한 및 러시아 철도연결 ·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군사당국간 회담	· DMZ내 경의선 연결공사 · 군사신뢰 구축
아리랑축전 참가협의	· 당국간 실무접촉 · 민간단체 접촉

# “김위원장과 5시간 대화 임특사 귀환보따리 클것”

## ▶ '평양' 이모저모

지난 3일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간 임동원(林東源) 통일특보 일행은 6일 새벽까지 북측과 공동보도문 작성을 놓고 걸충을 벌였다. 지금까지 남북협상이 그려졌듯 세부 사항과 문구를 두고 양측이 평행히 맞섰기 때문이다.

●김용순(金容淳) 대남담당 비서가 5일 밤 만김대예술평극장에서 주최한 만찬에는 북측 고위급 대남사업 관계자들이 총 출동해 눈

길을 끌었다. 30년 이상 대남사업을 해온 실세인 임동욱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을 비롯해 인경호 조병봉 서기국장, 전금진·김영성 내각 채임장사, 김완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강형수 문화상 등이 참석했다. 대남 경제협업을 총괄하는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연립회장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인 김덕환 내각 사무국 부장도 참석해 김법과 관련,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리측도 임 특사 등 일행 7명이 모두 참석했다.

●내·외신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남북회담사무국은 김동재(金東宰) 통일부 공보관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이산가족 방문,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등 몇가지 의

견 집결을 이뤘다.”고 밝히 성과를 낙관했으나 저녁 늦게까지 보도문 작성이 끝났다는 소식이 없어 애를 태웠다. 김 공보관은 오후 6시15분쯤 “난항이 없지는 않으나 상황이 호전됐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큰 줄기에 합의해도 문구 하나, 글자 하나 때문에 시간을 끄는 일이 많다.”면서 “공동보도문 작성에 시

과 김천식(金千植) 정책5관과장 등이 나서 북측과 “눈높이” 조율을 했다.

●임 특사 일행은 지난 4일 오후 6시30년쯤 백화인초대소(白化仁草臺) 전각 방문한 김경원 위원장과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2시간동안 공동 관심사들 논의 한 뒤 다시 3시간에 걸쳐 만찬을 하며 대화했다. 회동은 상호 솔직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남북 간 현안이 논의됐으며, 밤 11시가 지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 공동보도문 밤 늦게까지 절충 대남사업 관계자 만찬 ‘총출동’

간이 김됐다고 큰 합의 합의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특사는 이날 낮 김용순 비서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안들을 조율했다. 오찬에는 북측에서 임 특사와 김보현(金保鉉) 국

가장보원 3차장이, 북측에서는 김 비서와 임동욱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공동보도문 분구 조정 작업에는 우리측에서 통일부 조명균(趙明均) 교류협력국장

5시간이나 대화를 나눈 만큼 가지를 보따리가 ‘형형’ 클 것’이라며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

●류길성기자 ukevin@kdaily.com

### 임동원 특사 시간대별 방북일지

날짜	시간	내용
3일	오전10시	성남 시흥구청 출발
	오전11시45분	평양 순안공화 도처(김완수 부위원장 영접)
	낮 12시00분	백화인 초대소 도착(임동욱 부부장 영접)
	오후4시~6시20분	임 특사 김용순 비서 오찬
4일	오전9시30분~10시30분	김용순 비서 일행과 만찬
	오전10시~11시00분	사무협약(김보현 국경연립회장, 김완수 부위원장)
5일	오전6시30분~11시30분	임 특보 김경원 위원장 면담·만찬
	오전	사무협약
6일	오전	사무협약
	오후	김용순 비서 주최 환영 만찬(만수대 예술극장)
6일 (9.3)	오전8시30분	만찬일 통과
	오전10시	서울 귀환

## ▶ 합의 막전막후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 일행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 당초 2~3일도 예정됐던 일정을 3박4일로 하루 늦추는 등 여러가지 상황 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우선 지난 3일 도착, 김용순(金容淳) 대남담당 비서와 첫 회담을 열고 남북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북측은 ‘주적론’ 폐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지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임 특사 일행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정부 소식통의 전언이

다. 이런 상황은 4일 오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이같은 경색 국면은 이날 오후 6시30년쯤 김경원(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예고없이 백화인초대소로 찾아와 무려 5시간에 걸친 면담과 만찬 회동을 하면서 반전됐

## 주적론 문제로 ‘빈손귀환’ 가슴앓이

## 김위원장 전격 면담뒀 분위기 급변

다. 이 자리에서 임 특사는 한반도 위기 고조 및 북·미 대화 등과 관련, 협의의 우위를 내세운 미국의 대외정책 및 이에 대한 러시아·중국 의 대응방식 등을 설명하며 핵·미사일 문제 등 북·미간 현안을 대화

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히 선동했고, 상당부분 이해할 이점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사와 김 위원장간 장시간 대화일계기로 분위기가 호전됐다. 북측은 5일 아침 일찌감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방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등에는

합의했으나 북측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마무리합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북측은 오후중부터 대신 김영남(金永南) 최고연변회의 상임위원장의 일드컵 참관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이견 집중을 벌였으며, 이마치 미부러되지 않자 귀환을 하루 늦춘 채 밤샘 협상을 벌였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 ‘한반도의 봄’ 빛장 풀었다

## 南北합의 내용·의미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북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비서와 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동 등을 합의함으로써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대북 강경조치 이후 한반도에 조성됐던 긴장기류가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북은 빛장을 풀고 반물이 부르는 봄을 향해 걸출한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주

###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

금강산 유도관광과 월드컵-아리랑공원에 맞춘 관광지 및 참관단 교류를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의선 인강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자체 반입과 불규칙 수송 등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서울~신의주 구간중 금강산~개성간 12km를 잇는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은 이미 남북이 5차례 실무회담을 열어 4개항의 합의를 타결한 상태다. 단지 북측의 시명연기로 발효되지 않고 있다.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지난해 금강산에서 열린 6차 장관급회담에서 개회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무산된 제2차 경추위 재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민간선박 영해통과 △동해 공동어로 △남북한~러시아 철도연결과 가스관 연결 협력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이산가족 교류

지난해 11월 북측이 9·11테러 이후 남북의 비상경제조치를 풀어 일방적으로 연가한 제4차 방문단 교환이 이뤄지면 이달중 성사된다. 이미 100명씩의 방문단

## 경의선 문산~개성간 12km공사 본격화 경협 위 개성공단-러가스관 연결 재개 이산상봉 이미 명단교환...이르면 이달 성사

교환, 한두차례 연락관 접촉이만 가능하다.

### 군사신뢰구축-긴장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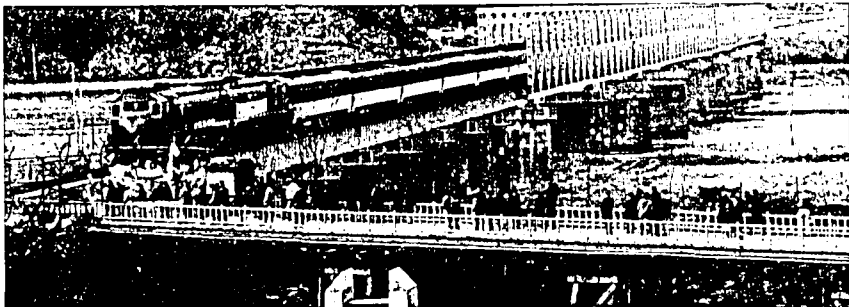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던 부문이 다.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6·15남

북공동선언 실천을 보장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2차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미룬 채 '주적' 판을 이유로 합의서 시명을 연기했다. 이번 특사회담에서도 이 문

제가 제기됐지만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을 맞재, 심마리를 풀었다.

### 김정일 위원장 답방

임 특사가 김 위원장의 답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답방의사만 확인받고 제3국 상봉이나 월드컵-아리랑공원과 연계해 고위급 인사의 교환방문 이후 추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의 '깜찍스타일'과 6·15공동선언을 감안하면 '시기문제'로 보인다. /김기동기자



경의선 남측구간

경의선 남측구간 중의 일부인 임진강철교, 경의선 남측구간은 최북단역인 도라산역까지 지난 2월 복원공사가 마무리돼 교향방문을 꿈꾸는 실랑이들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레일없는 北구간

침목과 레일이 깔어진 채 비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개성 인근의 경의선 북측 구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복원을 합의했지만 북측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각종 대화재개 급진전될듯

## 林특사 訪北이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포일특보의 대북특사 파견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 성사, 남북합의 등의 중요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임 특사가 지난 3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제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

## 경색됐던 南北관계 돌파구 마련 北-美관계도 화해기류 엿보여

기 위해 평양에 간다"며 "비정산 각오로 서울을 떠난 때만 해도 남북관계는 안개속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임 특사를 급파하고 북한이 그를 국빈급으로 대접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재개 △경협추진위원회 재가동

등한 남북대화 재개 등 중요 현안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 방북을 전후해 북한 외무성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대화를 제기하고 고 북미대화 기운도 엿보이고 있

어 한반도는 네탕트 기류를 타고 있다. 남북자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던 북일 적십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여 한반도 평화정착 움직임은 다각도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남북협상에 서 '주적론 폐기'와 6·15남북공동선언중의 하나인 '민족공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좀 꺼림칙하다. 상황에 따라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계속 끌고 늘어질 경우 해빙 조짐을 보이는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 고위급대화 재개 물꼬 남북경협 추진위원회 가동

매일경제

2002. 4. 6 (토)

### 나열된 기자

임동원 특사 일행이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이어 북측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험추진위원회 재개 등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장관급회담 결렬 후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남장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경험추진위 등 각종 남북간 회담과 대화를 연쇄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측 대동원 특사가 북측 최고당국자를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의 전환을 뜻하며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장장 다섯 시간에 걸친 임 특사와 김 위원장간의 면담·만찬에서 북측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 등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북측은 물론 금강산 육로 개성을 앞당긴다는 계산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한 간 교류와 접촉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측은 아리랑축진과 월드컵 축구대회에 총리급을 대표로 한 대규모 참관단을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아리랑축진이 열리는 4월 말부터 월드컵 개최기간인 6월까지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있을 전망이다.

■경추위는 대북 쌀지원 청구 남북 양측간 회담에서 가장 먼저 합의한 이산가족 교환 방편이 우리측에 주는 북한의 선물이라면 경험추진위는 우리측이 북한에 주는 선물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 30만t을 제공하되 경험추진위 열어 차관 형식이라는 틀을 거칠 방침이어서 북한 입장에서 경험추진위는 쌀 지원 캠프나 다름없다.

또한 간접적인 식량지원 수단인 비료 20만t도 북측이 요청한 해

### 남북관계 일지

2000. 3. 17~4. 8	남북특사 접촉(박지원 장관-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6. 13~15	남북경상회담(평양)
7. 29~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8. 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9. 11~14	북한 김용순 비서 '특사' 자격 서울 방문
2001. 2. 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3. 13	북, 제5차 장관급회담 연기
9. 3	국회,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9. 15	제5차 장관급회담 개최(서울)
10. 12	북, 제4차 이산가족상봉연기발표
11. 14	제6차 장관급회담 결렬(금강산)
2002. 1. 30	부시, '악의 축' 발언
4. 3	임동원 특사, 평양 방문

### 회담별 주요 의제

회담	논의 내용
직접접촉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회담	• 생사·주소 확인 확대
	• 서신 교환 확대
검침추진위	• 쌀 30만t 대북지원
	• 비료 20만t 대북지원
	• 개성공단 건설
군사회담	• 비무장지대 경의선 연결 공사
국간회담	• 비무장지대 금강산 육로 공사
회담	• 군사신뢰 구축
금강산회담	• 금강산 지역 특구 지정
회담	• 금강산 육로 관광

## 김정일위원장과 5시간 대화 쌀 30만톤 北에 지원키로

저 북·미간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급진전, 경의선 조속 연결

경험추진위를 시작으로 군사 당국자회담,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이 연이어 개최돼 지난 6·15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의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전망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10월 4차 방문단을 양측 각각 100명씩 총 200명으로 이미 확산한 상태이므로 4월중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무협의를 위한 직십자회담이 선행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건설, 식량지원, 전력 지원 등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경협추진위도 양측의 이해에 따라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한 의제였다.

또한 경의선 연결, 금강산 관광 위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군사적 문제도 남북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통하는 경의선

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도 이미 확정한 상태여서 북측이 경험추진위를 통해 '지원'이라는 말만 꺼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다.

북한이 제재 선진과 함께 '탈리발이'를 위해 기획하고 있는 아리랑축진에 우리측이 총리급을 대표로 한 대규모 참관단을 참석시키는 것도 북측 입장에서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력 공급도 우리측이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임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조기 수용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대북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김정일 5시간 밀담

임 특사는 4일 저녁 7시계부터 두 시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고 곧바로 김 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서 세 시간 동안 밀담을 나누었다.

단독면담 형식이 아니라 김용순 노동당 비서, 김보연 국장인 3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였으나 만찬을 포함해 다섯 시간에 걸쳐 북한 최고당국자와 남북연인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면담과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였고 양측 모두 상대측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 등 솔직한 자리였다고 한다.

회담 관계자는 "면담 및 만찬 다섯 시간 동안 상호 솔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특히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은 지난 6·15정상회담 후 4차례나 만나 친숙한 사이여서 서로 직설적으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는 추문이다.

임 특사는 또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북측에 건넸다고,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이를 흔쾌히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특사는 대동원 방문 3호기를 이용해 왕권으로 귀환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6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판문점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 “金正日 답방 분위기 조성

## 4년 언론 세무조사 착수

### 한나라 언론탄압백서

한나라당 언론자유 수호 비상대책 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는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언론개혁에는 좌파 진보 세력들을 동원, 신생 언론과 친여 언론들을 틀러라 삼아 동아 조선 중앙 등 백3 신문을 만중인 룬으로 급조하려는 음모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A4면에 관련기사

특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박관용 장관의 언론탄압 백서(가제 ‘자유인론은 영원하다’)에서 ‘자’ 1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DJ식 언

론개혁의 배경에는 햇볕정책을 중심 고리로 삼은 DJ의 3단계 통일방안을 실현하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사실이 여러 정황 증거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또 “작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내신 대주주 비리를 깨는 특별조사팀을 따로 두고 운영했다”며 “방송에는 송병만이, 미라 신문에는 최동지 친필을 가하는 등 국내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형평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 한겨레

2002. 4. 6 (토)

# “미, 남북대화 제동 말아야”

### 브루킹스연구소

[워싱턴=연합] 미국의 유력 민간 두뇌집단(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3일 지역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남북대화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01~2002년 동북아 개관’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가 ‘기회를 놓친 실망스런 해’였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빌 클

린턴 전 행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3월 김 대통령 방미 당시 양국이 대북 공조에 이견을 빚었고 올 2월 부시 대통령 방한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완전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이클 아머코스트 브루킹스연구소장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문제에 끼치는 한반도의 영향’이라는 소제목의 논고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고수하려면 주한미군 유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김 대통령의 합리적인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2002. 4. 6 (토)

# ‘美, 남북대화 제동 말아야’

###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지적

남북관계에서 올해가 포용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분수령으로 미국은 남북대화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미 유력 민간연구기

관에 의해 4일 제기됐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01~2002년 동북아 개관’이라는 지역분석 보고서의 한반도 항목에서 지난해를 ‘기회를 놓친 실망스런 해’로 규정한 뒤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

의 남북대화 재개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악의 축’ 발언이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국내 정치 역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은 9·11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시각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연합

# 한국경제

2002. 4. 6 (토)

## “美, 남북대화 제동결면 안돼”

###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

미국은 남북대화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 3일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01~2002 동북아 개관’이란 지역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가 한반도 안정을 꾀하는 데 ‘기회를 놓친 실패스런 해’

였다고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악의 축’ 발언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국내 정치 여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 東亞日報

2002. 4. 6 (토)

### 보즈워스 前 駐韓미국대사 인터뷰

## “北-美관계 냉각 北책임 가장 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후반에 주한 미대사를 지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 터프츠대학 클리처스쿨 학장은 4일 일기 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된 데 대해 “미 정부는 1년 이상 북한특사를 기다렸으나 북한이 조영록 국방위부위원장을 너무 늦게 보냈다”고 밝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리는 ‘21세기 강국으로서의 한국’ 회의에 참석 중인 그는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하기를 희망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를 푸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의 지역주의(regionalism)”라며 “남북문제보다 동서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매우 다른데...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가급적 회피하려는 듯하다.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부시 행정부는 좀 심한 것 같다.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것만 빼고) 정책’이다. (웃음)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말만 해서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협상이다.”

—최근 남북, 북-미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부시 행정부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안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대화를 할지, 안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화를 안하기로 결정했었다. 북한이 최근 다시 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할 만큼 미사일 협상에 성과가 없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역점을 두었던 중동 평화안의 막바지 성과가 기대됐을 클린턴 대통령이 움직이기 쉽지 않았다.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아닌 중동에 있다. 물론 더 큰 책임은 미사일 검증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북한에 있다고 본다.”

케임브리지=박재균특파원  
phark@donga.com

# 부친상 불구 남북회담 철저히 준비

## 신언상 남북회담 사무국장

“돌아가신 아버님께는 자식 도리를 다 못했지만 남북 화해·협력에 위해 제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 준비를 총지휘한 신언상(申彦祥·52) 남북회담 사무국장은 5일 몸이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도 林특사 일행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며 이렇게 말했다. 특사 방북 정부 종합상황실장인 그가 상을 당한 것은 실무 준비와 전략회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29일.

林특사는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조화(裵花)를 보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세현(丁世鉉)장관 등 통일부 핵심 간부들과 김보현(金保鉉) 국정원 3차장 등이 모여 빈소는 전략회의장을 방불케 했다.



申국장은 이곳에서 북한과의 연락관 접촉 등 준비 상황을 보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 또 부하직원들에게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특사 방북을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 1일 발인을 마친 뒤 곧바로 복귀해 삼청동 사무국에서 밤샘 근무를 하며 서울~평양 간 연락 업무 등을 총괄했다.

申국장은 신언용(申彦莚)서울고검 송무부장의 동생으로 통일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지난해 7월 남북회담 사무국장이 됐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 世界日報

## 특파원 리포트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최근 북한 관련 발언을 극도로 야기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 3국 중 하나로 거명한 뒤 워싱턴의 각 기자회견장에서는 북한이 도마 위에 올랐고, 미 고위 관리가 말 한마디를 덧붙일 때마다 한반도의 긴장 체감 수위는 급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워싱턴에서 북한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다. 임동원 대통령특보의 방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됐지만, 고위관리들은 남북대화 추진을 환영한다는 관에 박한 반응 외에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때 북한을 단골 메뉴로 삼던 부시 대통령도 하루 몇차례씩 갖는 연설과 간담회 발언에

박 완 규

<워싱턴특파원>

서 북한 관련 발언을 생략하고 있다. 지난 3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동북아시아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 '北발언' 자제하는 부시

나선 피터 브룩스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했지만 북한이란 단어를 단 한번도 담지 않았다.

전과는 반대로 부시 행정부는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가 내놓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극히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북한의 한반

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상 재개 의사표명과 맞물려 북미 대화재개 움직임이 급류를 타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조심스런 태도는 설불리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렵사리 마련한 관을 깔 수 있다는 우려를 깔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워싱턴은 지금 성패의 기로에 선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어느쪽 길이 열릴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오히려 워싱턴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wgpark@sgt.co.kr



# 동해선 철도·도로 南北연결

## 이산상봉 28일 금강산서... 군사회담도 재개

### 6개항 공동합의문 동시발표

남북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안보 통일특보인 임동원 특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심부접촉 등을 통해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여도 7호선)를 연결기로 하고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2·3면>

남북은 6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행정부 출범이후로 정채상대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가 전면 복원되게 됐다.

남북은 끊어진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새롭게 동해선 철도(단길구간 145km)와 도로(단길구간 11km) 연결에 합의했으며 기존에 합의한 서울-신의주(경의선) 및 문산-개성 도로공사 재개를 합의했다. 또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제2차 경제협력 추진위를 5월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편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인간, 입산장 수해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경주위 산하에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 회담을 6월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경제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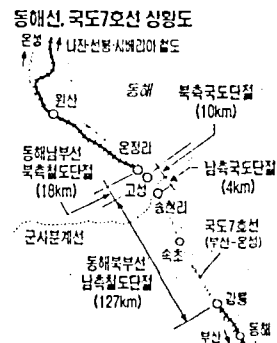
단을 5월 중 남측에 보내는 데도 합의했다.

남북은 또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진척되는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대화체념의 정상화에도 의견을 도왔다. 남북은 또 공동보도문을 통해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

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임 특사를 비롯해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 조병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서훈 청와대 국장, 김선식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등 특사인행 7명은 6일 오전 5시30분 숙소인 백화인 초대소를 떠나 8시30분 판문점을 통과, 서울로 귀환했다. 임 특사는 귀환 직후 청와대에 들러 김대중 대통령에게 회담결과를 보고한 뒤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결과를 설명했다.

/서울동기자 phil21@munhwa.co.kr



임동원(가운데) 대동령특사가 3박4일간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南北, 경의선·문산~개성도로도 조기개통

### 이산상봉 28일 금강산서... 경협위 5월 서울개최 김정일 답방 원론수준 답변... 임동원특사 귀한

〈남북 주요 합의사항〉

-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 경의선, 문산~개성 도로 연결
- 경협추진위 5.7~10 서울 개최
- 금강산관광 당국회담 6.11일
- 이산가족 4.28 금강산 상봉
- 북경제시찰단 5월 서울 파견

남북협은 6일 한반도 동부에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를 이룬 사업에 연결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남북협은 오전 11시 임동원 남북특사의 반북협상 결과발 표문을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동시에 발표. 지난개 19일 상시국회 협의회가 연거푸 개 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28일 금강산에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사실 문제 협대중 대법원에게 구두서 서지를 권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협은 오전 11시 임동원 남북특사의 반북협상 결과발 표문을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동시에 발표. 지난개 19일 상시국회 협의회가 연거푸 개 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28일 금강산에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사실 문제 협대중 대법원에게 구두서 서지를 권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해 남북공관급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을 개개기로 합의했으나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북·미대화 개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김대중명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초연간 대화를 꾀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 고위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우리측이 관대대로 서원과 결실을 오가는 방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북측이 금강산을 고집했다"면서 "이 시점에서 강소보다는 상사 자제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우리가 양보했다"면서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방문행사는 이산 2인로 예정돼 있어 29일부터 개국되는 관광차리량축전에 남북 이산가족 일부가 참가하는 문제가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없다. 이 관계자는 또 "임동원 특사가 김위원장에게 서울답방 의사를 물었으나 김위원장은 일론적인 답변만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협동위원회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동회담에서는 (북측의)경의선 착공이 개안(성과)이다"고 말하고 북한 고위 당국자의 활동범위 확대 합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에 협의해야 한다.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관장은 또 "이산연 민주당 대변인과의 통화에서 '이산가족과 경의선 문제를 뛰어넘은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에게 전해 공동보도문 이외에 어떤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동원 특사는 남측 임동원보다 하루 늦은 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귀환했으며 곧바로 김대중명에게 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 南北 철도·도로 연결 어디까지 왔나

남북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함으로써 육로 통행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해선(경화리는 동해북부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은 이변에 처음 합의돼 앞으로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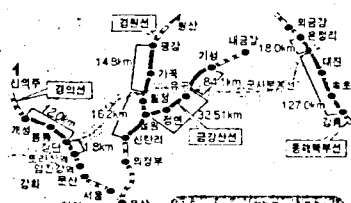
〈동해북부선=동해선은 수도권 금 동해까지 갔고 부산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수송로다. 철도의 경우 현재 남북의 강은

동해북부선:145km 단절상태...북원팬 금강산관광 활력

경의선:문산~개성 24km중 비무장지대·북구간만 남아

3km) 구간은 2차로로 포장돼 있으며 4차로로 확장중이다. 북측의 고성~운정리 간은 1차로로 포장돼 있다.

〈경의선=경의선 문산~개성 24km 구간을 잇는 길은 비무장지대(1.8km)와 북쪽구간 개성~군사



남북협상지역도

분계선 10노란 연결하면 끝난다.

문산에서 남방한계선(도라산역)까지 10.2노는 지난해 10월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임진강역이 개통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문산역~임진강역(6.1km) 연결통행이 들어갔으며 임진강역~도라산역은 지난 2월 일반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문 당시 김대중과 김대중 의정협을 맺은 당해특별합의(김대중)가 합의된 일정을 통해 이어 오는 8월7일부터 경의선 관광열차가 임진강을 건너 문산-도라산까지 경계 운행을

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1.8km) 구간을 잇는 길은 비무장지대(1.8km)와 북쪽구간 개성~군사

경의선 남북도로의 경우도 경계 파주시 장안면 통일대표회담~군사분계선 5.1km 가운데 도라산역까지 3.8노가 개통돼 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총 144억 원(철도 74억 원, 도로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144억 원이 투입됐다.

남북협기자 nam@kmb.co.kr

# 동해선145km 국도7호선14km 복원

## '동해선 연결' 인저리 경의선과 함께 남북잇는 '양대축' 형성

김포선(대동강) 7시의 연결을 거쳐 남포에서 세해에 걸친 동해선 145km 복원 사업은 그것이 실현 될 경우 남북을 잇는 교통 인프라의 한 축이 자리잡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 동해선 철도

동해선 철도는 북한 국경인 중대 북방역(남포)과 남포역(남포)을 연결하는 145km의 동해선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동해선 철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05 이후 남북의 관통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127km가 건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이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남

북 단절구간인 강천-미포간(강천-DMZ) 127km와 북측 단절구간인 미포-강천-강원도 고성군 고성읍-남포리 18km를 새로 건설, 145km를 연결해야 한다.

경의선과 함께 동해선에 연결할 경우 과거 남북을 연결하던 1개의 철도노선중 평안선-동해선만을 남긴 것 그대로 남는다. 한편 남북을 동해남부선 연결과 관련, 북에서 남까지 171.1km를 2011년 개통할 목표인 관련 공사를 진행 중이다.

### 국도 7호선

동해선 도로는 공식명칭이 국도 7

호선(부산-동경)으로 단절구간이 없는 단절구간이 있는 남측의 강원도 고성군 송원리-북측 고성 18km이다. 송원리에서 DMZ까지 4km, DMZ부터 북측 고성까지 10km이다. 현재 강원에서 건설까지는 4차선, 강원에서 송원리(고성) 동양건설대까지는 2차선이다.

남북간 도로는 국도 1, 3, 5, 7, 9, 11, 13호선 등 총 6개선이 단절돼 있으며 경의선쪽과 동해선쪽이 연결된 경우 6개선중 2개선이 연결된다.

북측은 이미 압록역 방북 이전 시인 2000년 8월 김정일 위원장과 주

한 러시아 대외경제협력위원회에서 북-러간 차베리아 철도(TSR) 연결을 협의한 바 있기 때문에 동해선은 자연스레 TSR과 연결해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된다. 또 경의선은 중국과 철도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륙을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2개의 '길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해선 연결로 가깝게는 금강산-속초관광에 가능하게 되며 멀게는 유럽 등 서방세계의 30% 이상 마크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남북을 잇는 교통인프라가 가능해져 남북간 경제와 문화간 교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범기자

yunstcho@munhwa.co.kr

# '이산상봉 지속성'에 큰 뜻 '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 '금강산 상봉' 안팎

이산 상봉이 평화보도문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까지의 '이산가족 상봉'과 비교할 외환상 수준인 '이산'으로 보인다.

이산 상봉은 남북이 100여년 만에 평화에 대한 만남, 눈동자이고,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 'win-win'의 신기미가 있다. 이는 이산가족의 대역적인 해방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하는 것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하기 위한 남북의 노력, 지속적인 것에 대한 만남을 안고 있는 북측의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남북 상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남북이 수백 개에 달하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에서 작별 인사로 '이산가족'이라는 말을

내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는 바람을 보여줬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측으로서도 햇볕정책의 성과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어 그 만큼으로 금강산 상봉이란 묘수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또 금강산 상봉을 육로 개방의 단초를 이끌어내 결국 금강산 관광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교수는 남북 교차방문 현상이 아니라 다소 아쉬운 점도 있으나 이산가족 상봉의 생명이 지속성에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강대국에 대한 교섭방안보다 오히려 나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은 인도주의적 차이를 계속한다는 명분을, 남은 방후 면죄부 성격 같은 정부의 경제외교 제도화로 갈 수 있다는 명분을 각각 얻었다는 관에서도 오히려 다득이 된다고 말했다."

/최민기자

min01@munhwa.co.kr

## '2차 경추위' 의미

남북은 평화보도문을 통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인추위)를 5월 7~10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김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기간 △임진강 수계상하역 등 중요 합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경추위 산하에 구성, 가동하기로 합의,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 왕구담 북원했다.

또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2차 남북당국자 회담, 북한 경제시정판의 방남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회담을 방목해 할 정도로 시 북측이 주요한 경제개척 전적으로 남측과의 협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관측을 받게 하고 있다. 여에 따라 경추위는 향후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재난 2006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1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한 경추위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

진과 동반발전 차원에서 경제사안을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부서 행정부 운영과 테러 사태 등 한반도 정세의 하로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관료직이 1년 6개월 보냈으나 이번 특사방학을 통해 한반도 통일정상을 상징하는 관료직으로 남북간의 교류가 많아졌다.

경추위에서 논의된 김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을 실시할 경우인 1차회담 이산가족 상봉수준에 비견될 수 있다.

또 김도와 연결된 북한 평안지역의 산업적 단계도 이뤄질 수 있어 남북간의 통일방안 노력이 기대된다.

개성공단 선진화에도 남북 자본유래와 선진기술 교류, 인프라 발전 등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 될 경우 남북 경제공동체 초기단계로의 진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의동기자

phi21@munhwa.co.kr

# 남북 '협력궤도' 완전복원

임동원특사 訪北 결산-전망

## '월드컵·아리랑' 관람 민간채널로 넘긴듯 한반도 위기예방 구체적인 해법은 빠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의 특사방북을 통해 남북이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군사당국간 회담,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구체적인 합의 틀 이뤄냄으로써 정제된 남북관계가 건만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남북 대화는 4월중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미이행 합의사항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남북협력추진위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활성화, 군사당국간 회담을 축으로 한 초보적 신뢰구축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즉 이번 합의의 중심은 남북간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를 넘어 인도적 차원의 문제와 군사 분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남북 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주위에서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실무협력, 개성공단 개발, 임진강 수해대책 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5월중 북측 경제시찰단의 방남(訪南)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재개도 합의됐다. 특히 지난 6-15 남북

남북합의따른 일정	
4월28일	금강선서 이산가족 상봉
5월7~10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서울서 개최-각종 실무위 가동
5월중	북한 경제시찰단 서울 파견
6월11일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
시기미정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복원과 함께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에 남북이 합의한 것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남북이 공동으로 나서겠다는 의미가 담겨 주목된다.

이와함께 군사당국간 회담재개 합의를 통해 남북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논의 틀을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지를 단단히 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개치시기와 회담의 각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아 북측대부의 최종조율이 덜 끝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북은 그러나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군사적 신뢰구축 의지를 간접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공동보도문에선 그러나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명



임동원 특사가 방북 첫날인 4일 밤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를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AP통신

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들은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동보도문 전반에서 "최근 조성된 한반도 경제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에 대해 폭넓게 합의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상당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월드컵과 북한 아리랑 축전 관람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궁금증을 남기고 있다. 남북의 정치·경제 부문에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민간차원의 논의를 지원하는 형태로 의견교환이 된 것 같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전망이다. /서울동기자 phil21@munhwa.co.kr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가 방북을 방문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특보와 역과 조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경제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

### 공동선언문

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 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사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 의식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5일 평양

# 南北관계 일단 원상회복

## 교류의 상징... 물류교환 발전 기대

### 철도·도로 연결

남북선이 동부와 서부의 철도와 도로를 이룬 시월에 연결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이 큰 데다 이 사업을 끝낸 경우 실제로 남북간 물류교역에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동해선 권도연결은 사실상 가장 나을 예이다. 강원도 해안선을 따라 북한에서 북한에 유남 안면까지 가는 이 철도를 연결시키면 경우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거기다 한반도 본토도로도 중간-일부도로까지 연결시키면 경우 금강산과 양안선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서부지역 철도 및 도로 연결은 사업을 진행하나 중단된 상태다. 강원도 철도의 경우 최근 부처내부에서 북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도라산 관망대를 방문함으로써 재개에 이르렀다.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중단된 철도 연결 사업을 재개할 경우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 협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도로도 연결될 수도 있다.

남북이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일단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놓을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5월 서둘러 일방 예정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와 조만간 개최하기로 한 군사당국자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간담회와 남북교류 증진에 대한 뜻이어서 실현에 옮길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동해안 금강산 도로 및 강원도 연결사업은 북한 정부 때문에 중단됐다는 게 정설이다.

## 이동·숙박·경비문제 해결 과제로

### 이산가족 상봉

남북선이 25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측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가하게 해 기대는 사이다.

남3. 체가 상봉이 지난해 10월16~18일 일일 예정이었으나 9·11테러사태 이후 남한의 긴박한 상황 때문에 북측의 양보적 연기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정권교번이후 12월10일부터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가 북한이 최종 합의에 실패했으며 지난 삼월 휴전협정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이미 100명의 상봉대상자 명단이 남북한 사이에 교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자 생중확인 작업 등만 가지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은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한두 차례 관공청 연락할 방침을 통해 실무협의가 잘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 시신교환 확대, 심상면 회소 상차 등을 논의할 작업자회담도 제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소치 서울-평양이 아닌 금강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준비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일족 이산가족들의 이동이나 숙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비문제 해결도 새로운 과제로 지적된다.

## 개성공단·비료지원등 본격 논의

### 경협추진위 재개

남북경제협력추진위는 1차 회차가 2000년 12월 일일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다음달 7~10일 서울에서 열리면 개성공단 건설, 일일간 수해방지 대책 등 남북간 협력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또 북한에의 식량 및 비료 지원 문제도 다뤄진다.

정부는 이미 식량 지원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한 만큼 강추위에서 차관 원상과 식량지원 시가 등에 합의할 허브 되는 상태다. 비료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므로 특별한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간여지연 문제와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도 논의된다. 이는 남북 협회 전방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실적을 거둔다. 그러나 간여지연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관련이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현재 남북 사업지연 연대회 토론회, 그리고 북측 사업자간 조경이사이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논의가 1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북측은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구 서정, 불유이동과 관련되는 실무팀 문제를 꼽아나 가야 한다.

아무튼 이미 합의된 민간선박의 연해봉과, 동해 광중어로, 남북화과 리서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문제도 강추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남북공동보도문 (요지)

1.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 쌍방은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3. 쌍방은 새로 동해선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의 철도 및 문산~개성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했다.
4. 쌍방은 남북 사이의 대외의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2차 회의는 5월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일일간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아태 실무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도 위한 제2차 당국 사이의 회담은 6월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③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사담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했다.
  -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정권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북한경제 개발모델 유도 효과

### 경제시찰단 파견

2000년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평양에서 일주일 2차 남북정권회담이던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연금인 시연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분야다. 북한이 신뜻이 받아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유엔합의 등에 경제시찰단을 파견해 시장 지원 등을 요청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위원장은 당시 백재규 통일부 장관에게 핵심 직공들과 경제관료 및 전문가 15명 규모로 방북단을 구성해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부총 노동당 대남담당부처에서도 2000년 시안을 방문했을 때 합의된 바도 있다.

김부 장관은 "북한 경제시찰단이 남한을 방문하면 주요 산업분야 시장, 경제연구소와 세무사,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시찰단이 우리 경제의 발전상과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되고 시장경제제도 및 운영시스템을 이해시켜 북한 경제의 개발모델을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특구지정·육로연결등 중점 협의

### 금강산 관광 활성화

6월11일 남북이 재개하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도 위한 제2차 당국자 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특구 문제 등이 논의된다. 또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도 중점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육로 관광 실현의 전제조건이 되는 동쪽면 도로와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 남북은 이번에도 별도로 합의했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이를 관측권을 연계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지도 남 일정을 감안하면 이와 무관하게 남북 양측이 우선적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이달부터 이산가족과 회상 등 1300만명을 대상으로 관광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관광장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 부진으로 인한 연대회의의 자금난을 풀어주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정부 기금을 연대회의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다.

## 비무장지대내 공사재개 주의제

### 장관급·군사회담

7차 남북정권회담과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일단 재개하라는 합의했을 뿐 일일 등은 전혀 합의 못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공사 재개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양측이 주권분과 책임문제를 놓고 여전히 광범을 보이는 상태로 구체적인 의에 이르는 상황이 어려울 전망이다. 2000년 9월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을 보장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합의에서 시범하지 못한 전과가 있다.

강관급간 역시 합의사항의 이행 및 진척 과정에 따라 일일과 합의한 사항이라 회담이 실제로 일일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부총 김명직기자

# 긴장완화·군사적 신뢰 구체적 내용없어 아쉬움

## 남북합의 문제점·과제

식량·비료지원 모양새 신경  
철도·도로연결 현실성 의문  
이산상봉 아리랑축전용 의혹

남북합의 6일 동시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기존에 합의하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상당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과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우선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다루길 것으로 예상됐던 식량 30만t과 비료 20만t 문제는 보도문에서 속 빠져 있다. 일단 경추위를 열어 남북합의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식량지원문제를 언급할 공산이 커는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에 이어 퍼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도 실현 가능성 면에서 다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현재 남북합의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합의하고도 전혀 북측지역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더욱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 또 그동안 5대 핵심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로서는 또 한번의 말바꾸기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일자도 대부분 문제점을 안고 있다. 28일은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하고 외환을 받아들이기 위해 북한이 전력을 다해 준비해온 아리랑축전 개막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이산가족 상봉단을 아리랑축전에 참관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협의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여전히 정치색 공방이 일고 있는 아리랑축전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특사 방북 목적의 하이라이트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재개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을 공동보도문에 담았다. 또 향후 남북대화 일정을 잡을 7차 장관급회담의 시기를 못박지 못함으로써 각종 분야 회담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 새벽3시까지 회담... "좋은소식 가져왔다"

北 관계자 판문점까지 배웅  
환송만찬 '대남 실세' 총집결

방북 일정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6일 귀환한 임동원 특사는 밝은 표정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잘됐다"며 회담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임특사는 오전 8시37분 판문점 북측 지역에 도착했으며 3분 뒤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북측에서 김원수 아태부위원장, 최성의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이 배웅했으며 이례적으로 임특사 일행에게 회담이 끝을 선사했다.

임특사는 우리측 자유의 집에서 마중 나온 정세현 통일부 장관 등과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임특사는 "어제 왔

어야 했는데 회담이 오늘 오전 3시에야 끝났다"고 고충을 털어냈으나 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가뭇이 해결되게 단비가 축축히 내리는 기운대 회담도 성과가 좋아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임특사는 미군과 판문점 공동경비대 소속 사병들에게 인안이 인사했다.

임특사 일행은 당초 5일 오후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공동보도문 마무리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하루 늦어졌다. 방북단은 이날 오후 늦게부터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주최로 만수대예순극장에서 열린 환송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북측의 대남정책 실세들이 총집결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구기자 egkim@kmib.co.kr

# 28일 금강산서 이산상봉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김정일, 美 프리처드대사 訪北수용 北, 9월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검토

남북한은 지난 6일, 한반도 긴장 조성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 동부의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빨리 연결하며,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남북 군사당국자회담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2차 경협추진위원회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2차 금강산 관광활성화 당국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으며,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도 가동하고, 이같은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데 따라 7차 남북 장관급회담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측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인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특보 방북기간 중 이같이 합의하고, 10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6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4일 임 특보와의 면담에서 미·북대화를 추진하고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협상담당 대사의 방북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북·일적십자회담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했다고 임 특보가 6일 전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20만

t 규모의 대북(對北) 비료지원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특사 방북기간 중 우리측은 오는 9월 부산아시아게임에 북

측 대표단이 참가할 것과 백두산 성화 채화·봉송, 개·폐회식 문화행사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북측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 東亞日報

2002. 4. 8 (월)

## 北, 美 프리처드대사 訪北 수용

### 남북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군사회담 재개 이달 28일부터 금강산서 이산가족상봉 합의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을 수용하라는 우리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다 6일 귀환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가 밝혔다. ▶A5면에 관련기사

임 특보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가진 귀환보고에서 "김 국방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새 정부와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고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구체적 정보를 받지 못한 만큼 교섭대상 방북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또 "김 국방위원장이 일본과 곧 직접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을 언급하는 등 북-일대화 재개에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 특보의 방북 결과를 외교경로를 통해, 주요국가에 설명하고, 8일과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장관그룹(TCOG)을 통해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번 임 특보의 방북기간 중 경의선 철도 및 도로와 발도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새로 조속히 연결하고 이를 위해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이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재개하고, 다음달 7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북측은 5월 중에 고위당국자들로 구성된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보내기로 했으며, 이들은 방북기간 중 월드컵 개막식(5월31일)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또 북측 대표단의 9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6일 방북한 도널드 그레고 전 주한미대사는 북한방문을 마친 뒤 서울에 들러 우리 정부에 방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南北 동해선 철도 잇기로

이산상봉 28일 금강산서... 합의서 6개항 발표

남북한 합의문 요약

남북간 연결공사가 진행 중인 경의선(京義線)철도·도로 외에 동해선 철도·도로의 인건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또 지난해 10월 무산됐던 4차 이산가족 상봉이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진다.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동원(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표 참조)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2.4.5.30면>

남북한이林특보의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인 남북관계의

진전 복원을 선인함에 따라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7일부터 후속 합의와 이산가족 방문단 준비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임동원 특보는 이날 회견에서 "김정일(金正日)위원장과 5시간 동안 만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경제제에 있는 남북관계를 정상화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林특보는 소위인장의 답변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인장이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대통령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구제적인 합의는 보지

- ▶김강 조경명지 노력
- ▶남북관계 정상화목
- ▶동해선 철도·도로와 경의선 철도, 문산~개성 도로 연결
- ▶대회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
- 1 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월 7~10일 서울
- 2 금강산관광 활성화 당국회담 6월 11일 금강산
- 3 4차 이산가족 상봉 4월 28일 금강산
- 4 북한 경제지원단 5월 중 남측 파견
- 5 7차 장관급 회담 개최
-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 ▶북교에·인도주의 원칙에서 협력

못했다"고 말했다. 林특보는 북한측이 비료와 식량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명종 기자 <yjllc@joongang.co.kr>

## 한겨레

# 한반도 화해협력 급물살

김위원장, 미 프리처드 대사 방북 수용  
이산상봉 28일 금강산서...동해선 연결  
북 대표단 부산 아시아대회 참가 검토

### 임특사 방북결과 회견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전면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기로 하고,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밝힘으로써, 이미 합의된 북-일 대화와 함께 한반도의 화해협력 구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4·14면

남북은 6일 오전 11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6개항의 공동 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일시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특사는 귀한 뒤 서울 삼정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긴장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상공인식과 권고에 동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뉴욕에서 접촉을 개시했으며, 적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 재의를 수용하라는 우리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임 특사는 또 "김 위원장은 일본과 직접자회담을 열 뜻을 밝히는 등 일본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북-미, 북-일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이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했고,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를 다음달 7~10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음달 중으로 북쪽 경제지원단이 남쪽에 오기로 합의했으며, 금강산관광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금강산관광 관련 당국회담을 6월11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경의선 철도·도로는 "빨리 연결"하기로 하는 한편, 새롭게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도 나서기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동서축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히 뜻이 깊다"고 말했다.

임 특사는 "공동보도문에 있는 내용은 (김 위원장과) 중요하게 논의됐고 사실상 김 위원장이 감담을 모두 내렸다"고 밝히, 이번 합의에 북

쪽 최고당국자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철도·도로를 "빨리 연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그동안 늦춰져온 '비무장지대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의 교환·방효와 군사 재개조조기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중재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임 특사는 방북기간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쪽 대표단 참가와 백두산성화 재위·봉송, 개·폐회식의 문화행사 참여 등을 재의했다"며 "북쪽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그레그 전 미대사 방북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6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해 3박4일의 방북 일정에 들어갔으며, 9일 다시 베이징을 거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그레그 대사가 북한 유엔대표부와의 접촉을 통해 초청을 받아 개인적으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南北 28일 금강산서 이산상봉등 합의 北,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가능성 시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4차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재개되고 내달 7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가 열린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 도로와 함계 동해선 철도·도로를 새로 연결하기로 했다.

3일부터 3박4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동일 특보는 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5·30면 대담 8면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 김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면서 "북측 당국자들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감사할 표시 하면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5월중에 경제 시찰단을 남측에 보내기로 했으며,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재개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6월11일부터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7차 장관급 회담은 이 같은 합의사항의 진척에 따라 개최기로 했다. /이동준기자 djk@hk.co.kr

▶ 2면에 계속됩니다

북측은 5월중에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보내기로 했으며,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재개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6월11일부터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7차 장관급 회담은 이 같은 합의사항의 진척에 따라 개최기로 했다.

북측은 9월27일 부산에서 개막되

는 2002 아시안게임 참가를 비롯해 백두산 순화 차와·성순, 개·폐회식 문화행사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 특사는 그러나 아리랑 축전·월드컵 연계 문제와 관련, "아리랑이나 월드컵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7일 공동보도문을 1면 머리기사로 상세히 보도한 뒤 "남측 특사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북측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는 6일 남포에서 열린 평화자랑차 순공식에서 "(특사회담이) 다 잘 됐다"고 말했다.

世界日報

THE WORLD JOURNAL

# 28일 이산상봉... 실무협의의 재개

## 동해線복원, 유엔시와 대책논의

### 정부, 南北합의 후속조치

정부는 7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동일특보가 북측과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북미, 북일대화 재개를 촉구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임 특사가 귀경한 지난 6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남북합의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 청와대 통일부 외교통부 국방부 외 경제부처들간의 긴

밀한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풀기 위해 북미, 북일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우선 8~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대북정책조정강독그룹회의(TCOG), 1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합의사항 중 가장 먼저 시행될 제4차 이산

가족 상봉(28일·금강산)을 앞두고 방문단 선정작업을 재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조 아래 빈민집 인력관 접촉을 통해 북측과의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관련,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이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과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진·박희준·김기동기자 worldpk@sgt.co.kr

# 北 아시안게임 참가 검토

## 동해·경의선 연결 새달 실무접촉

### 정부, 남북합의 후속대책 착수

오는 9일29일부터 10일14일까지 열리는 부산아시안게임 성화가 백두산에서 채화, 봉송되고 북측대표단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 동해북부선 철도·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의선 철도·도로 등을 연결하기 위한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다음달 7~10일 서울에서 열리고, 북측의 경제시찰 단도 5월중 남측에 파견된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에는 양측에서 100명씩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4·5·6·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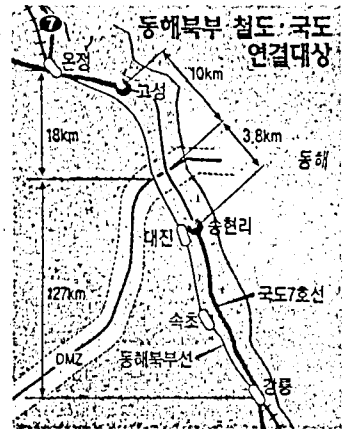
정부는 7일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

### 남북합의 이행일정

4월29일	제4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5월7~10일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 개최 (서울)
5월중	북한 경제시찰단 서울 파견
6월11일	제2차 금강산 관광 당국간 회담 (금강산)
시기미정	제7차 정관급회담 개최 군사영국자 회담 재개

시 발표됨에 따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 결과를 점검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임 특사는 이날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석 여부와 관련, "이번 방북시 부산아시안경기 대회조직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북측 대표단의 참가와 백두산 성화채취·봉송, 개·폐회식의 문화행사 참여 등을 제의했다. "면서 "북측은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오피온 김수정

전영우기자 poonyun@kdaily.com 2면으로 [D



북측 대표단의 아시안게임 참석에 앞서 남북의 총리급 인사가 월드컵 대회 개막식과 아리랑 축전에 상호 교차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측에서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도 논의됐다. "면서 "김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방문단 선정작업을 재 점검하고, 대한적십자사의 협조 아래 관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과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북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에 합의한 점을 주목하고 동해북부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 연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정부는 임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미, 대일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8~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와 17일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미·일과의 대북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南北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공동보도문 - 이산가족 28일 금강산 상봉

남북한은 6일 강릉과 북한 고성군 온정리를 잇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국도 7호선) 및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이른 시일내에 연결 시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남북한은 이날 임동원 대북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합의된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6개항)을 발표했다. 이번 남북한당국의 의견 접근으로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체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지난해 실시기로 했다가 연기한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28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또 남북경제협력 추진위를 5월7~10일 서울에서 열고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금강산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자 회담을 6월11일부터 금강산에서 열고 북측은 경제시찰단을 5월중 남한에 파견키로 했다. 양측은 이런 합의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남북장관급 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임 특사는 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서울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매일경제

2002. 4. 8 (월)

# 北 "9월 아시안게임 참가 검토"

## 28일 이산상봉...내달 7일 南北경협위 개최

남북 양측은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200명을 교환하고 다음달 7일에는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북측은 프리처드 미국 대북교섭단 단 대사에 대해 방북을 허용하라는 김대중 대통령 권고를 수용해 북·미 대화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북한은 오는 9월 27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2002아시안게임(AG)'에 참가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동안 특사회담을 열고 10개항 합의를 도출해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다.

한편 7일 임동원 특보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와 문화관광부 요청에 따라 부산아시안게임 때 백두산 성화 채취·봉송, 개·폐회식 문화행사 참여를 제의해 북측이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나영필기자 philip@mk.co.kr

## 서울경제

2002. 4. 8 (월)

# 28일 이산상봉·내달7일 경추위

##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오는 5월7일부터 서울에서 3박4일 동안 열린다. 북한의 경제시찰단은 다음달 중 방한할 예정이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은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진다.

남북한은 지난 6일 오전 동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에 따른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공동보도문에는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서울-신의주 철도와 문산~개성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담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임 특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c@sed.co.kr

# 北, 자존심보다 식량선택

## 美·日과 대화재개... '한반도긴장' 완화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이번 방북기간 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미·북, 북·일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한반도는 다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마련됐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과의 5시간에 걸친 대화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와의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사찰 문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에 북핵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남북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남북권이 동시에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남북관계 정상회복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한반도 긴장조심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

력하고,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며,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협추진위원회와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등이 합의됐다. 특히 김의신 도로·철도 연결과 군사당국자회담 재개는 비무장지대 개방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마련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힌다.

이번 합의들은 대부분 이미 합의됐다가 작년 초 미·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것들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김단'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평가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대화 재개는 물론, 김 대통령의 잭 프리치드 미국 대북협상담당 대사의 방북 수용 권고를 받아들일면서 미·북 대화를

### ■ 양측 주요 합의 사항



- ▲한반도 긴장상태 방지 공동 노력
-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경주위 2차 회의 5.7-10 서울 개최
- ▲금강산관광 협성회 당국회담 6.11 금강산 개최
- ▲4차 이산가족 상봉 4.28 금강산역역
- ▲북한 경제지원단 5월중 남한 방문
- ▲합의사항 진척 따라 7차 장관급회담 개최
-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 ▲인도주의, 상부상조 원칙에서 서로 협력

## 美·北 민간도 교류... 日·北적십자회담 재개 '벼랑끝 전술' 후퇴... 근본변화인지 두고봐야

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번 선택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체제변화에 늘 반대해온 군부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은 데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했던 '민족공조'와 '외세공조' 문제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또 과거 남북 간 합의사업들도 김 위원장이 승인한 것이었으나, 이행되지 않았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며, 미·북 간 민간교류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대화도 재개하겠으며, 일본인 행방불명자 문제 등을 다루는 북·일 적십자회담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리치드 대사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핵사찰 등 미·북 간 현안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

상된다.

김 위원장은 왜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작년 9·11 테러 이후 부시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강경정책에 계속 맞서는 것이 식량난 해소와 체제보장을 위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에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이 통하지 않는



◇방북성과발표 임동원 대북 특사가 6일 서울로 귀환한 후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방북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朱宗中기자 wjoo@chosun.com

朝鮮日報

2002. 4. 8 (월)

# 北군부 설득이 선결요건

## 남북합의 이행되려면

남북합의 임동원(林東源)북사의 남북을 계기로 관계회복에 합의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후 부침을 거듭해온 남북 화해·협력 움직임이 일단 제자 탄력을 받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측 모두 최고지도자가 사면 약속한 사안을 호지부지한 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입기 마지막 해를 보내는 부담스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공동보도문 곳곳에서 감지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기공에 합의했다가 미뤄진 사안을 그대로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되기까지 추가적인 협의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합의실천에 숨겨질 5.6월=이달 28일 금강산에서의 4차 이상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5월부터 각어도 두달간 남북관계 개선되는 낙관적이다. <그림 참조>

지난해 10월 무산된 후 만만 면에 이산 상황이 재개됨으로써 '금강산 변화소 개성' 등 양방 제도화의 단초가 마련됐다. 그러나 서울·평양 교환방문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봉이기 때문에 남아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유일하게 합의사항으로 처음 등장한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은 경의선(京義線)복원과 함께 남북간의 통행을 반세기 만에 다시 잇는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육로관광 등 금강산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도 될 수 있다. 김일주전위 2차 회의에서는 정부 보유 섬의 대북지원 문제가 우선적인 의제이나 이산상봉 정사의 분위기 기울 댈다면 문제는 없다.

개성공단 건설과 입진강 수방대책 등 '단발매뉴'를 다룰 실무협의회도 경우의 안에 가동된다.

5월 중으로 합의한 북한 김제사당과의

남한 방문은 그동안 대북지원이나 투자 위주로 진행돼 왔던 남북간 경제사업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한의 발전상을 북한 경제관료들이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장으로 누가 올지도 관심이다. 마지막 항목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상부상조'를 강조한 것은 대북지원을 우회적으로나마 못박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결림돌과 복병은 없나=북한은 공동보도문 전문(前文)에 '민족 앞에 닥친 어려운 시대'라는 구절을 넣는 데 관심을 보였다. 또 1, 2항에서 상호존중과 긴장상태 방지노력, 통일분쟁의 자주

대해서는 화답을 하지 않았다.

◇합의문이 종이 한장에 그쳐선 안돼=백화점식 협의보다 하나라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약속했던 이산상봉을 재개하는 대가로 비료·쌀만 주고 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동위원무원 전현준(全顯俊)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DJ 대북정책의 마무리에 진력해야 한다"면서 "북측도 남북합의 이행을 토대로 반쪽짜리의 진력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 향후 남북관계 일정

남측	북측
4월 28일 4차 이산상봉 (금강산)	4월 15일 김일성 90회 생일 4월 25일 북한군 창건 70주년 4월 29일~6월 29일 이리암 휴전
5월 7~10일 김정주전위 2차 회의(서울)	5월 31일 한·일 월드컵 개막
5월 중 2차 경제사담 폐쇄 기간	6월 11일 금강산관광 2차 남북회담
6월 15일 공동선언 2주년	6월 13일 지방선거
?	7차 평안남도 동계선·경의선 철도·도로 복원 군사당국자 회담 시작

## DMZ 개방 등 민감사항 많아

## 추가협의 통해 北협조 끌어내야

적 해결을 강조했다.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동양의 문을 여는 해'로 칭한 북한이 이런 항목을 근거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미·일 공조와 북한 주적론(主敵論)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내용 중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인접점 개성공단 건설▷입진강 수방 대책▷금강산 관광 활성화▷군사당국자 회담 등이 비무장지대(DMZ)개방 등 북한 군부의 절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지금까지 이들 문제를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군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번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측 보도문이 '회담 재개'를 못박은 데 비해 북측은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한 대목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는 국방장관 회담을 희망했지만 북측은 장관급이든 실무자급이든 각(各)에



김대중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동원 외교안보동일특보로부터 반쪽 결과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정일, 金대통령에 구두 메시지”

### 林특사 귀환 회견

지난 6일 귀환한 임동원(임골) 특사는 청와대 보고를 마친 직후인 오전 11시 곧바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평양방송도 같은 시각 보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임본임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서는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만들어진 친서는 없었습니다. 구두로 모든 것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께 전해달라는 메시지



가 있었다.”

—일정이 하루 연장된 이유는.

“민족공조나, 외세와의 공조나 틀 양자택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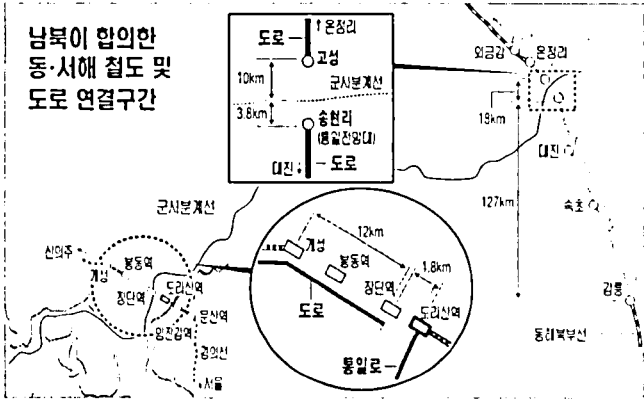
하지 않는다는 북측 요구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주적론을 가지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민족공조나, 국제공조나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주적론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논의·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주었다.”

—북측이 국제장세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핵사찰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제장세의 심각성은 대단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핵사찰·대량살상무기·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입장을 진술했다. 그러나 핵사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었고 기대도 없었다.”

—결의선 공사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재개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했다. 북측도 2차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사면이 임종해 안 됐다고 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는 법도로운 논의할 것이다.” 이영종 기자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 강릉서 짐 싣고 러시아까지

### 동·서부 철도·도로 복원되면

남북한이 '동·서부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합의한 것은 국토의 동맥을 복원한다는 경제 각 측면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의 상징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동·서부 철도와 도로가 연결될 경우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남북간 교류·협력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북부선=남북한이 공동보도문을 통해 연결기로 발표한 동해선은 강릉과 원산을 잇는 동해북부선을 지칭한 것이다.

동해북부선이 이어지면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강릉과 원산을 거쳐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한반도 긴장완화 상징물

### 남북 교류·협력 한층 가속

북한이 동해북부선 복원에 합의하면서 TSR와의 연결을 임무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한반도철도(TKR)와 TSR 연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동해북부선 중 남측구간은 강릉~군사분계선(MDL) 1백27km, 북측은 온정리~군사분계선 18km가 단절된 상태다.

또한 동부 도로는 부산~니진간 7번국도를 의미한다. 7번국도 중 남측은 고성군 송현리(송현진장대)~군사분계선 3.8km, 북측은 온정리~군사분계선 18km 구간이 끊겨있다. 이 도로가 연결되면 지난해 6월 한때와 북한이 합의한 육로를 통한 금강산관광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7번국도 중 남측구간은 10개월 정도면 연결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측구간도 1년 내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의선=경의선 연결공사에 소극적이던 북한이 공사재개에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상태에 진입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km의 문산~개성간 경의선 연결공사구간 중 비무장지대 1.8km와 북측구간의 개성~군사분계선 12km만 연결하면 재통된다.

문산에서 남방한계선의 도라산역까지 10.2km 공사는 지난해 10월 이미 끝났다. 철도청은 다음달 6월 도라산역까지 가는 경의선 관광열차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한 군부=동·서부 철도 및 도로의 복원공사는 북한 군부의 입장이 최대 변수다.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에 북한 군부가 동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

중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조항에도 이같은 정황이 나타난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5항을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북측은 "쌍방은 북한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할 데 대해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표기했다.

북한에서 군사문제에 관한 결정은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조병목 인민군총정치국장,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부 라인을 거쳐야 한다.

이들을 비롯한 북한 군부가 연결공사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리게 어려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군부가 지난해 경의선 공사 때처럼 비협조적 자세로 나오면 착공시기까지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 “南北관계 다시 화해 궤도 올라” “WMD논란 회피 노린 제스처”

### 외국 주요언론 반응

외국 주요 언론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 경과에 대해 “중단됐던 남북 화해 절차를 재개했다”고 평가했으나 “대량살상무기(WMD) 논란을 피하고, 외국 원조 등을 얻기 위한 북한 의 계산된 의도”라는 냉소적 반응도 보였다.

### “北, 부시정권 두려워해”

▽미국 언론=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6일 일부 북한 관측통의 말을 인용, “북한의 예상된 반응은 WMD 개발 논쟁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무기문제로 돌려려고 애써 왔다”며 “중요한 것은 WMD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경우에 비추어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돼 왔다”며 “임 특사의 방문으로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다시 화해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유럽 언론=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6일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 공격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식량난과 경제실패로 더 많

은 외국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의 ‘평대합’을 관망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6일 “북한이 강경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인도감이 흐르고 있다”며 “남북이 6·15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화해 절차를 완전히 재개했다”고 전했다.

### “대의 이미지 개선 겨냥”

▽아시아 언론=산케이신문은 “아리랑축전 등을 앞두고 북한이 대내외에 좋은 인상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인시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며 “(남북) 합의의 효과는 앞으로 북한의 반응과 태도를 지켜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 탐방 여부 및 국방장관 회담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임 특사와 북한 당국간 민심·이민가려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기업계도 북한이 중국식 개방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권인영기자 havefun@donga.com

林東源특사 北과 6개항 합의

# 대화 본궤도 진입엔 곳곳 장애물

임동원(林東源) 대동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은 지난해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및 9·11테러사태 이래 한반도 주변에 조성됐은 난기류를 일단 견어 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남북 간에는 각종 회담 재개와 협력사업의 이행을 통한 관계 복원을 촉진하고, 북 미간에는 단절됐던 대화의 저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특보가 북한과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및 실천이 확실하 담보된 상태는 아니다. 주변여건에 따라 북한이 언제라도 'U턴' 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2차 반(反)테러전쟁이 또다시 북한을 움츠리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의 대통령선거도 주요변수 중 하나이다.

## 한반도 난기류 해소에 일단 긍정적 영향 대부분 원칙 합의-北 언제든 U턴 가능성

V철도·도로 연결 강의를 철도·도로와 연계한 철도·도로를 이룬 시엔 대 연결하기로 한 것은 남북간 제정된 제 규정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방북의 최대 성과물로 꼽힌다.

특히 강의철도·도로 연결은 북측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경우 연내 개통이 가능하다. 강의철도·도로 연결은 DMZ에 2km를 제외한 나머지 10km 구간이 대개 도로만 공사할 여지가 있다.

### 철도연결 北군부 동의 필요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철도·도로 연결은 북한 군부의 허가적인 결단이 관건이다. 북측에서 양쪽 국경이 순환개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사 협의가 강의철도 문제에 동해선 연결을 언제까지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릉에서 DMZ까지 127km 이상의 구간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동해선 복원에는 강의철도 복원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걸리게 때문이다.

### 장관급회담 상반기 어려워

V 남북경제협력=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강제입력추진위원회는 실무급회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부거운 사안이 많다. 철도와 도로 연결을 비롯해 개성 공단 건설, 압정강 수해방지 대책 등 이번엔 합의된 대부분의 사안이 경추위의 논의사항이다.

경추위에서는 식량지원 문제도 다루게 된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무위원장장은 임 특보와 평壤 자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시련과 비호 지원에 적극 요청하기까지 했다.

북한 경제사정만 파는 문제는 이 비 남북특사회담(2000년 9월), 5차

장관급회담(2001년 9월)에서도 합의됐던 사항. 7차 장관급회담도 개최 날짜와 장소가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 내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산상봉 실무절차만 남겨

V 4차 이산가족 상봉=지난해 2월 3차 교관방문 이후 1년2개월 만에 실시된다. 남북은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지난해 10월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9·11 테러사태에 따른 남한의 비상경계태세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다. 이미 방문대상자 명단까지 교환한 상태라 생존 여부 확인 등 간단한 실무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봉 장소가 서울과 평양이 아닌 북측 지역인 금강산으로 정해지는 등 북측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금강산은 서울 평양에 비해 숙박 및 행사시설이 일약한 관광산 지역이어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주적론' 견해차 못 좁혀

V 군사당국자회담 전망=임 특보의 방북 성과 중 남북 군사분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다. 제2차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빠졌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북측은 공동보도문에서 "군사당국자회담을 군사당국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 차이를 보였다.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남북의 '주적론'과 한미공조에 대한 남북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1@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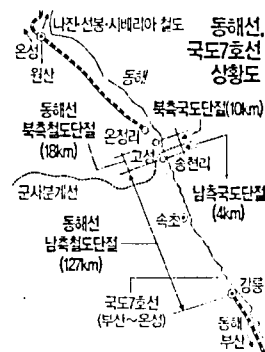
訪北성과 보고

임동원 대동령외교안보통일특보가 평양 방문을 마치고 6일 서울에 도착. 서울 상형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남북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일정	
4월28일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금강산)
4월29일~6월29일	이리원축전(평양 5·1경기장)
5월7~10일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서울)
5월 중	북측경제사정남측방문
6월11일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자담(금강산)
6월15일	6·15 공동선언 2주년
	7차 남북정권급회담(장소 미정)
시기 미정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도요원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남북 군사외국지휘담 재개(장소 미정)

### 6차 장관급회담(2001년 11월 14일)결렬 이후 남북관계 추이

11월22일	국방부 국방협력 방안 내년도 연기
2001년 11월27일	북한군 비무장지대 미군 초소에 공격
12월22일	북한의 추적 괴뢰군, 일본 순시선과 교전 끝에 침몰
1월23일	금강산관광지안방정 발표
1월29일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을 '의혹의 속 국가'라고 비난
2월20일	천이정상회담
2월22일	북한 위무선, 미국의 북미대회협의 거부
3월14일	합북지 25일, 베이징 주재 스웨덴대사관 진입
2002년 3월19일	임동원 특보, 한반도 안보 위기 도약가동성재기
3월21일	학생 교사 등 1300만명에 게 금강산관광객비 60~70% 지원 발표
3월29일	남북, 남한특사 방북 소식 동시 발표
3월29일~4월11일	메기우리 수커로도포르티 인도네시아 대통령, 남북한 동시 방문



### 동해선 단절 구간 南 127km-北 18km

동해선은 강원 강릉에서 평壤 원산까지 연결하는 철도. 그러나 6·25전쟁 이후 남북은 강릉~군사분계선 127km 구간을 연결한 채 방치해 왔다.

따라서 동해선이 복원되면 남북 단절구간과 북측 단절구간인 군사분계선~강원 50평원 교차점 50km리 18km 구간 등 총 145km가 새로 건설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동해안 철도화 확보를 위해 부산~강릉 포항 간 동해남부선을 강원 삼척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동해선 복원이 완료되면 부산에서 원산까지 동해안 철도가 이어지게 된다. 삼척~강릉 구간은 현재 삼척선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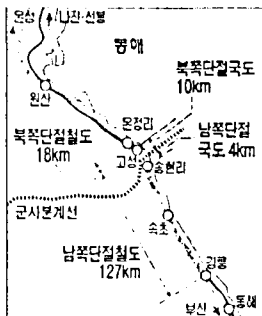
부산~瓮城 간 국도 7호선의 전체 단절구간은 14km. 남북의 강원 교성군 현내면 송원리(송원전방대)~군사분계선 4km와 북측의 군사분계선~고성 10km가 끊겨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 경추위 해결과제 산적 '눈길' 쏠려

## 남북 합의사항 각본점검

남과 북이 6일 발표한 합의항목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사전협의는 물론 각종 회담장구가 걸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28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준비부터 실무진들의 발걸음이 매우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7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출발한 경의선 열차로 임진각을 찾은 승객들이 임진각역에서 내려서 출입구로 향하고 있다. 남북의 합의대로 동해북부선이 이어진다면 남북은 두개의 연결 철도노선을 갖는다. 임진각/탁기합 기자 khtak@hani.co.kr

## 금강산관광 활성화 기대 도로연결에 우선 주력할듯

◇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북쪽의 개안읍 남쪽에 받아들였다. 금강산 육로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잇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합의가 이행된다면 중국항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라는 두개의 '대륙교량'과 연결함으로써 범상상부하게 '길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게 된다.

1937년 개통한 동해북부선 철도는 분단 이래 남쪽의 강릉~군사분계선 127km와 북쪽의 군사분계선~온성리 18km가 끊겨 있다. 경의선(24km)·간원선(32.6km)과 달리 끊긴 구간이 길어 사업완료까지 재원 부담이 크고 사업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함께 남측 금강산 육로관광도로로 쓰일 수 있는 동해선 도로(7번 국도) 연결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은 장기 과제다.

육로 잇기는 금강산 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현대아산과 북관이 지난해 6월8일 합의한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련 남북간 1차 회담에서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삼일포까지 13.7km만 이으면, 관광객들이 자동차로 40분 만에 금강산에 도착할 수 있다. 현재 폐색선으로 4시간 걸리는 금강산 길에 비해 시간과 돈이 크게 줄어 금강산 관광 활성화의 대담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풍기를 만족하면 식량이면 원료 가공하다는 케진산개발의 예가다.

서북쪽 경의선과 달리 동해쪽 철도 연결사업은 그동안 러시아의 주도적 노력으로 북-러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온 것이어서 대담한 결

로와 한반도 통단 철도 연결 사업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각축도 예상된다. 북쪽이 남쪽에서 많이 언급해 온 경의선이 아니라 동해북부선 연결을 제안한 것은, 이 노선이 유전선인 대 군사분계지역 통과 구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했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 1~3차 교황방문 준용

### 금강산어관서 상봉 예상

◇ 이산가족 상봉=북쪽의 요구를 수용해 서울~평양 방문단 교환 방식이 아니라 금강산 상봉으로 갈음이 낫다. 정부 관계자는 "북쪽이 교환방문 횟수가 늘면서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 등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지속적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금강산 상봉은 관계가 없는 일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당국자는 "적십자회담이 아니라 관련국인력관 사이의 문서 협의할 통해 구체적인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순차방문을 기본으로 1~3차 서울~평양 교환방문 때 관계가 준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상봉'과 '평양상봉'에 해당하는 행사로 2박3일씩 나눠 하면, 일정을 소화하는데 최소 1~2주일이 필요하다. 1~3차 때 서울에선 방남자 1명에 남측 가족 5명, 평양에선 방북자 1명에 재북 가족 3명이 만나는 게 기본 방식이었다. 이번에도 이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봉장소는 금강산어관 등이 이용되고, 일정에 금강산관광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실무협의회 동시개동

### 4대 합의서 교환 우선과제

◇ 경협추진위 2차 회의=경추위는 남북간 화해협력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중심체이자 관차 노릇을 하게 된다.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는 실무협의회도 함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내용이 실천된다면 가장 바쁘게 움직일 창구가 될 전망이다.

경추위의 우선 과제는 국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투자보장·이종과제 방지 등 4대 강합 합의서를 교환해 발표시키는 일이다. 개성공단 건설과 법 제정 문제, 김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운항에 필요한 물관질사, 남북 전력협력사업 등도 경추위 소관사항이다. 5월 중 경제사찰단 방문도 경추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해 북한상선의 제주 일해 통과문제로 논란이 됐던 민간선박의 영해 통과를 보장할 해운협약시, 동해 공동어로 등도 경추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 시기·급 특정하지 않아

### 군당국 창구통해 협의

◇ 군사당국자회담=재개한다고만 합의했을 뿐, 시기와 '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임 특사는 "앞으로 발도로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부가 독립된 북쪽의 임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군사당국자 회담 문제는 남북의

군당국 간에 확보돼 있는 창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며 "2차 국방장관회담을 여는 쪽으로 태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9월 제주에서 열린 1차 국방장관회담도, 앞서 2차 장관급회담과 임동원-김용순 간 '특사회담'에서 원론적 합의할 이룬 뒤 구체적인 일사·장소를 국방장관 간 서신교환과 군사인부접촉을 통해 확정할 바 있다.

## 비료 20만톤 곧 지원할듯

### 식량은 경추위서 합의전망

◇ 인도적 지원=비료는 인도적 지원, 식량은 경제차관 방식으로 북쪽에 제공된다. 비료는 20만, 남것이 곧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5월 초부터 요소·복합 비료 등 20만톤을 지원했다. 정부 당국자는 "내부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인당시기 이전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량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 보유미 30만톤을 북쪽에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경제차관 방식인 만큼 5월7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경협추진위 2차 회의 때 합의서가 작성될 전망이다. 남쪽에서도 쌀 재고 누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원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장 처리해야 할 쌀이 50만~60만t에 이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훈 권희철 기자 nomad@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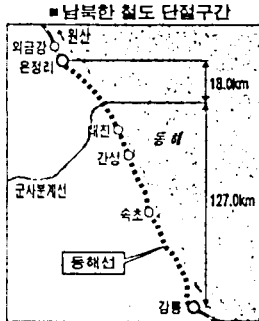
# '개성공단·금강산' 활성화 길터

## ■ 동해선-경의선 연결 합의

남북의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는 인적교류와 경제적 협력의 급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중국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로 양측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줄 전망이다.

동해선 철도 및 도로사업

이번에 처음 언급된 동해선은 북



동해선 철도 총145km·도로14km 연결해야

경의선 미공사 작업편 철도 6개월內 개통

한국의 동해북부선과 남한의 동해남부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산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수송로다. 한국전쟁 전 동해북부선은 강원 양양에서 함경남도 원산을 연결했지만, 전쟁직후 북한이 강릉이북의 철로를 철거, 현재 노반만 남아 있는 상태. 따라서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해선 남측의 강릉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27km와 북측의 군사분계선에서 강원 고성군 온정리까지 18km 등 총 145km를 복구해야 한다. 한편 남측은

동해남부선 연장을 위해 포항에서 삼척까지 171.1km를 2014년 개통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동해선 도로의 정식명칭은 국도 7호선으로 남북을 잇기 위해선 남측의 통일전망대~군사분계선 4.17km와 북측의 군사분계선~고성 10.36km의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정부는 남측 구간인 경우 2차로 기준으로 예산 720억원에 12개월 내에, 북측구간도 1년 내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동원(왼쪽 두번째) 특사가 4일 평양 백학원초대소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있다. /동일부 제공

## 경의선

남한 문산과 북한 개성간 24km를 잇는 공사는 현재 비무장지대 1.8km와 북측 구간 개성~군사분계선 12km만 건설되면 완료된다. 남측구간 문산~남방한계선(도라산역)의 10.2km는 지난해 10월 마무리됐으며, 내달 6일부터 경의선 관광열차가 도라산역까지 정기운행을 시작한다. 도로는 중앙대교 북단~군사분계선 5.1km 공사 구간 중 3.3km에 대한 포장작업을 마쳤다. 남북은 2000년 11

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이후 지난해 2월까지 5차례 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내의 공사를 위한 41개항의 합의서를 타결시켰으며, 합의서 서명·교환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합의서가 교환되고 미공사 구간에 대한 후속작업이 시작되면 철도는 6개월내에, 도로는 9개월 내에 개통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당국의 전망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 발표안된 쟁점 2점

공동보도문에서 민감한 현안 두 가지가 빠져있었다. 바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남북 고위급인사의 월드컵 개막식과 이리랑 축전 교차참석 문제였다.

### ● 김정일 서울 답방

### 金, 관심불구 확답안해

### ● 월드컵-이리랑 교차참관

### 논의는 했을 가능성

우선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임동원 특사는 "김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선숙(林山淑) 대변인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지난달 메가와디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북시의 김 위원장이 우리측에 전달한 안부인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언급도 6·15 공동선언의 합의란 지키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 내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의 수사라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 인사의 월드컵 개막식과 이리랑 축전 교차참석에 대해 임 특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리랑 축전 참관 문제가 현재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정을 감안해 나온 듯 하다.

정부가 심철리 언급할 경우 정경분리원칙, 민간교류의 독자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임 특사 방북 전 우리측 실무준비에서도 교차참석의 '예상 문제' 항목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林특사, 北·美대화 설득 김정일 "좋다" 즉석 수용

## ■ 林특사 방북 뒷얘기

4일 저녁 평양 백학원 초대소에서 열린 임동원 특사 일행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은 상호 관심사답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답변을 짓는 자리였다.

임 특사는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WMD) 문제를 풀지 않으면 위기가 오기 때문에 즉각 미국과 대화할 것을 직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특히 2월 한미 정상회담을 상기하며 "세계 패권국 미국의 대공립이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주저하느냐"면서 "이대로 버티다간 국제적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2시간, 만찬3시간 등 총 5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은 진치하면서도 심기했다.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임 특사의 설명을 사려 깊게 경청한 뒤 "김 대통령과 임 특사의 생각이 옳다"면서 "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비방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유의 호담한 목소리로 "좋다.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남북관계가 풀어야 인도의 차원에서 비교와 시방을 줄여 건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측의 지원이 요망한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뒤 "6·15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자"고 결론짓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공동보도문에 언급된 대부분의 합의사항을 즉석에서 검론짓고 시형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

# 남북관계 '원상회복'

## • 林특사 방북성과 의미·전망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전면 복원되고,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의 기분이 마련됐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프릿치드 미 국무부 대북고급대사의 방북요청을 수용함으로써 북·미대화 재개 임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9·11테러 이후 급변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쟁위기로까지 치달을 뻔한 북·미관계가 대화를 통한 개선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 협력·교류 6·15직후로 복원 北·美관계 대화선회 가속화 긴장완화 토대 마련에 큰 뜻

이로써 한반도 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도 해결의 경기를 맞았다.

임특사가 북·미간 대화재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임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남북 정상들의 간접 대화이자 한·미와 북한간 협상 성격을 띠었다는 얘기다. 한국이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정세뿐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합의사항 중에서는 남북간 동·서 철도연결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분단 국가간 교통로가 열리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남북간, 한반도·유럽간 교류와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리라는 사회·경제적 의미도 크지만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군사당국자회담 개최합의도 주목된다. 김의선·동해선 철도연결만이 아니라 남북 군사합의인과 상호훈련 참관 등 군사적 긴장완화 장치 마련을 논의할 수 있어서다.

미국이 남북 교통로 연결을 북한 변화의 실재적 증거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음을 뜻한다.

4월 이산가족상봉 실시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회담 개최는 남북관계가 6·15 정상회담 직후 상태로 복원됨을 의미한다. 경제·사회적 교류 활성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의 성의있는 합의이중 여부다. 북한의 양보는 체제생존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합의한 뒤 이행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 한·미경조와 미국의 세계전략도 대단히 큰 변수다.

이번 성과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약역을, 한국은 좋은 역할을 각자 맡은 역할분담 구도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미 공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조호연기자 chy@kyunghyang.com

## 28일 금강산서 이산상봉

### • 공동보도문 합의내용 밑거

남북이 6일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동해선·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교환방문 재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보도문에는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담보하는 조항들이 망라됐다"면서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못지않게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동해선·경의선 연결=김의선과 함께 새로 합의된 동해선의 연결은 남북을 잇는 교통 인프라의 양대 축 형성을 의미한다. 또 동서 비무장 지대할 관통하는 육로가 뚫린다는 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해선은 강릉에서 비무장지대(DMZ) 127km와 비무장지대~운정리간 18km 등 총 145km를 이어야 한다. 7번 국도인 동해선도로는 남측 강원도 고성군 송천리~북측 고성군 14km가 끊겨 있다. 문산~개성 24km 구간을 잇는 경의선은 비무장지대(1.8km)와 북측구간 개성~군사분계선 12km만 연결하면 완공된다. 문산~남방한계선(도라산역)의 10.2km 구간은 작년 10월 이어졌다.

교통개발연구원 김연규(金然圭) 연구위원은 "두 육로의 연결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급진전될 것"이라며 "동해선은 시베리아철도(TSR), 경의선은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와 연결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동해선 연결은 금강산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동보도문 주요 합의사항

구분	내용	비고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4·28 금강산에서 재개	2001·10 북측 일방연기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5·7~10 서울 개최	2001·2 개최연기
경제시찰단 파견	5월중	2000·9 제3차 장안군회담에서 합의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진척따라 7차회담 개최	2001·11 6차회담 결렬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2차회담 개최 합의 시기·장소 미정	2000·9 1차회담 후 일정 미합의
금강산 당국회담	6·11 금강산에서 개최	2001·10 2차회담 연기

### 경협추진위 내달 7일부터 北 경제시찰단 5월 서울에

◇군사당국자회담=회담 개최는 합의됐지만 시기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북측은 이와 관련 "군부와의 협의 등 내부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당국자회담은 김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김의선의 경우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양쪽 국방장관이 서명해 교환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산상봉=지난해 연기된 4차 이산상봉이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실시된다. 금강산 이산상봉은 서울을 방문한 북한이산가족들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동요를 차단하려는 북측 의도가 담겨 있다. 대한적십자사 이병동(李炳鎧) 총재특보는 "모든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2000년 12월 1차회의 개최 이후 중단됐던 경우 2차회의가 다음 달 7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은 또 김주원 신하에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회담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중단된 개성공단 건설 및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철도·도로연결에 대한 세부협약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북식량지원도 논의 대상이다.

◇금강산 당국회담=오는 6월11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다. 2001년 10월 제1차 회담에 이어 8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선 육로 관광, 금강산 특구 지정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 경제시찰단 파견=5월중 서울을 방문한다. 시찰단 규모는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장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전 겸공업부장이나 김경희 부장의 남편 장성택 노동당 부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용욱·김진우기자  
woody@kyunghyang.com

# 긴장 완화 '큰틀' 마련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3박4일간의 방북에서 이뤄진 성과는 크게 한반도 위기 예방과 남북관계의 '원상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비롯한 각종 회담 재개, 경의선·동해북부선 등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경제시찰단 방문 등 남북관계를 우선 진전시킴으로써 북·미·북·일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위기 조성을 방지한다는 '큰 틀'에 남북이 합의했다는 뜻이다.

●한반도 위기 예방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잭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지난 2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도라산역 방문시 촉구한 이산가족 및 경의선 연결 문제 해결에 대해 북한이 이번엔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도 매우 유화 제스처로



결과보고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평壤점을 통해 귀환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이산가족 상봉·경의선 연결 부시 도라산발언 모두 수용 北·美·日 대화 분위기 조성

평기된다. 다만 북·미 대화의 시기와 속도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미사일·핵 문제 등의 근원적 해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경제협력 및 군사신뢰 구축 최대의 합의는 역시 경제협력 분야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개하는 데 남북이 우선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한 결과다.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은 지난해 9월 제5차 장관급회담 때까지 합의할 당시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군사분계선이 일부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군사당국자 회담이 먼저 여러 군사적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금강산 관광 합성회를 위한 당국자 회담에서는 육로관광과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추위와 함께 경제시찰단이 다음달 남쪽을 방문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92년 7월 김달연(金達彦)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이 경제관료들과 함께 남쪽의 경제상황을 시찰한 뒤 딱 10년 만의 일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실제로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점 및 전망 그러나 군사당국자회담 일자 등이 확정되지 않아 경험과 군사신뢰 구축에 관련된 사항들이 얼마나 빨리 실행될지 의문이다. 북한이 진정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임 특사는 이에 대해 "시로 번신하면서 의심만 갖고 있으면 될 일도 안된다."면서 "직극적인 사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월드컵과 아리랑행사 연계 지원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월드컵' 자체를 공식 언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면서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일일 민간 집회에서 '아리랑' 행사 참가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장소

### 남북한 특사회담 합의내용

합의사항	주요내용	일 정
긴장조성 방지	상호준중 및 긴장 조성 방지	
남북관계 복원	(공동선언 합의사항)	
철도·도로 연결	동부·동해선철도 및 도로연결 서부: 서울~신의주철도 문산~개성도로 연결	조속한 시일 내
남북대화·협력 사업 추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개성공단건설 및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 논의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	5. 7~10 서울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6. 11~금강산
	4차 이산가족상봉 교환 (각각 100명규모 예상)	4. 28~금강산
	북측 경제시찰단 남측파견	5월중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일정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재개		시기·장소 미정
기타 상호 협력	동포애·인도주의·상부상조하에 상호협력	

'금강산'으로 양보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문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모든 사항들을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측이 지난 1월22일 '김대중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남측이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한 언급과 함께 남북관계가 앞으로 희망적인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임유기자 anseumus@kdaily.com

# 南北 화해 - 협력 밑그림 마련

## 공동보도문 내용 살펴보면

남북한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크고작은 현안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북미-북일간 대화재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가 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지난 6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등 청와대 뿐 아니라 외교부, 관련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화재개 및 실무 후속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미국 일본에 평양담국의 의중을 전달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미-북일 대화 재개에 적극 공조를 취해 나갈 방침이어서 이번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남북합의는 무엇보다 수차례 연기됐던 4차 이산가족 방문사업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명시, 이향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동과 금강산관광 회담 등도 세부 일정까지 밝혀 의미가 크다.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6·15 정상회담 직후 한때 호조를 보였던 남북

관계가 틀어짐을 우려하는 변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협부문과 이산가족 상봉 외에 7차 장관급 회담 등에 대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핵사찰, 미사일, 미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북한의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한 것 등은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에 암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남북합의점을 하루 연기하 민사까지 정점이 됐던 남한의 '주적론(主敵論)' 문제는 남측의 국방 당국자회담 제의로 임시 봉합한 성격이 강해 언제든지 논란거리로

등장할 소지가 높다. 경제협력과 관련, 북한이 아직 이종과세방지 협정, 투자보장장서 등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합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남북 합의로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꺼려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담을 5월7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고 전반적인 경협문제를 논의한다.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재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태우(盧泰愚) 정부 당시인 92년 7월 김달현(金達玄) 북한 부총리 이후 두번째가 될 북한의

경제시찰단 서울 방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파악할 기회여서 성사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철도-도로 연결=경의선 철도-도로 외에 새로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동해선 철도-도로까지 연결키로 합의해 주목된다.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잇기로 합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육로관광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인적-물적 교류의 통로 역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의선은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 발효에 이어 공사 재개에 착수해 연내 개통 가능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동해선은 남측의 구체적인 일정 요구에도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 현실화 여부는 다소 미지수다. 정부는 동해선 구간의 경우 구간이 방대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교환=당초 지난해 10월 실시하려다 중단된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이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재개한다. 기간은 2박3일로 예상되지만 서울-평양에서 동시에 열리지 못하고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등을 협의할 적십자회담 개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금강산 상봉은 북측이 6차 장관급회담때부터 고집한 것이어서 북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남측은 면회소 설치 등을 염두에 두고 받아들인 흔적이 보인다.

◆남북 군사-금강산회담=2001년 10월3~5일에 이어 두번째로 6월11일부터 열리는 금강산 당국회담은 육로관광과 특구지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북측의 주적론 철회 요구와 관련, 우리측 제의로 열리는 군사당국자회담은 각종 경협사업 추진에 앞서 가장 필요한 안보문제의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능하는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기타=인도적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 원칙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선에서 절충됐다. 북측이 식량비료에 대한 구체적 지원량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 반발과 국민여론을 감안, 이 정도 선에서 타협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9월29일~10월14일 열리는 부산아시아안개임 참가와 백두산 성화취회-분송, 개폐회식 문화행사 참여에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도 소적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남북회담 일정

대 회 형 태	시 기 및 장 소
4차 이산가족 상봉	4월 28일, 금강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5월 7~10일, 서울
북측 경제시찰단 남측피견	5월중, 서울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당국회담	6월 11일, 금강산
동해안 철도 및 도로연결	백린 신월내
서울~신의주 철도, 문산~개성 도로 연결	백린 신월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시기-장소 미정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재개	시기-장소 미정
적십자회담 재개	시기-장소 미정

## 경협 내달 실무협가동 철도 경의선 공사 속개 상봉 금강산부터 재개 회담 주적론 논쟁 협의



'성과'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특사활동을 마치고 귀환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사로부터 방북 성과를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南 이산가족 100명 금강산서 2박3일

## 임동원특사·北 합의내용 어떻게 진행되나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을 통해, 중단됐던 남북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해 이달 말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공동 수해 방지, 철도·도로 연결 등을 위한 협의가 잇따라 진행되며, 대북 식량·비료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4차 이산가족 상봉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다. 장소가 협소해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시차만 두고 순차적으로 상대측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금강산에 가서 2박3일 동안 북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북측 이산가족 100명을 만난 남한의 가족들이 다시 금강산으로 가서 상봉하는 방식이다.

남북의 100명 명단은 작년 10월 작성·교환했다. 양측 모두 이들 중 사망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금강산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양측에서 이산가족을 만날 가족의 숫자도 확정해야 한다. 1-3차 서울-평양 교환방문 때 연 이산가족 1명당 5명으로 한정했으나, 사실상 제한 없이 만났다. 그러나 금강산은 숙박능력이 제한돼 있다.

상봉 장소와 북한 이산가족 숙소는 금강산연관이, 남한 이산가족들 숙소는 장전항의 현대 '해금강호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봉장소로 금강산이 결정된 것은 북한이 서울-평양 교환방문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협력 대화

내달 7일 경험추진위원회(경추위)가 열린다면, 대북(對北) 식량차관 재공 문제와 함께 작년 1-2월 논의됐었던 개성공단 건설과 임진강 수방(水防)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의선 복원시 통행문 제할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경추위가 끝나면 5월 중순부터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임진강 수방대책 등 분야별 실무협의를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등이 잇따르게 된다. 북한 경제시찰단은 국내 IT(정보과학)산업, 전자·통신 등 첨단 산업시설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

담이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다. 작년 10월 1차 회담에서 북측은 '해로관광 정상화'를, 우리 측은 '조속한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통행 협상'을 각각 주장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한이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에 합의함으로써 금강산 관광 활성화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패는 비무장지대 통과문제가 있어 군사당국자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달려있다.

### ◆대북 식량·비료 지원

임동원 특사는 지난 6일 방북결과를 설명하면서 "북측이 그동안의 식량·비료지원에 감사의 뜻을 여러 번 표시했으며, 금년에도 사정이 어렵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산 제0미(在廉米) 30만 t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지원 규모는 늘어난 수



◇백화원초대소 환담 임동원 대북특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4일 백화원초대소를 찾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홍일부 제공

###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北서 꺼려... 금강산서 순차 상봉

### 경제협력

내달 7일 경험추진委内... 중순엔 실무자 회의  
북 경제시찰단 내달방문... IT단지등 둘러봐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당국회담은 6월11일

### 식량·비료지원

비료는 무료... 쌀 30만t이상 차관형식 지원

있다. 보관상 빨리 처리해야 하는 쌀이 50만~60만 t 정도이고 정부 내에서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 2000년에는 태국산 쌀 30만 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t 등 50만 t의 식량을 차관으로 북측에 지원했다.

비료는 적십자 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된다. 2000년의 경우 30만 t, 작년에

는 20만 t을 지원했다. 정부 내에선 작년 수준 이상은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북한의 시비(施肥) 시기와 우리 비료수급 상황을 감안해, 일단 이달 중 비료 20만 t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늦어도 5월 초부터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민기기자 ginko@chosun.com

# 美·日언론 “對北관계 새 轉機”

## 南北합의 해외 반응

### 미국무부 “입장정리 안돼”

미 국무부 관계자는 7일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서 잭 프리처드 미 대북협상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인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아직 한국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한 만큼 프리처드 특사의 방북에 관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며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한국측이 설명하기까지는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언론들은 6일 남북간 합의사항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 북·일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미 특사의 방북을 허용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에 합의한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논쟁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김위 원장이 조만간 (북·일)적십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일관계 개선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여영준 기자  
<jinjin@joongang.co.kr>

## 중앙일보

2002. 4. 8 (월)

## 금강산 이산상봉 어떻게 되나

# 남북 100명씩 ‘순차 만남’ 유력

이산가족의 금강산 상봉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손길도 바빠졌다.

6개 합의사항 중 가장 먼저 다뤄질 일이지만 서울·평양 방문단 교환 때와 달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상봉방식은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 회담에서 ‘금강산 상봉’이 거론됐을 당시 남북이 교감(交感)을 이룬 대로 순차방문이 유력하다.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던 팀이 2박3일 동안 먼저 상봉한 뒤, 평양팀이 뒤를 따르거나 그 반대의 순서다. 현지의 열악한 상봉·숙식 여건으로는 한꺼번에 모두를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7백명 승선에 3백명이 숙박할 수 있는 현대 설봉호와 3백50명이 묵을 수 있는 선상호텔인 해금강호를 가동하면 된다. 현대 관계자는 “28일 출항하는 설봉

호는 2백석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곳에 북측 주민을 동숙(同宿)시키거나 숙식토록 합치는 미지수. 오히려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인 금강산여관을 임시로 사용하거나, 김정숙휴

### 동반가족 數·숙소문제

### 이번주 중 실무 협의

양소나 온정리여관 등 현지의 북한 숙박시설에 분산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봉장소로는 금강산여관 연회장이나 현대가 지은 온정각 휴게소가 후보에 오른다.

이와 함께 상봉시 동반가족의 숫자도 얼마로 합지도 풀어야 한다.

서울·평양 상봉 때는 선발된 각 1백명의 이산가족이 상대측 가족

5명까지 만나는 게 가능했다.

이번에는 북측이 동반가족을 줄이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에서처럼 ‘릴레이식 상봉’으로 최대 1천명(가족당 10명 정도)까지 만났던 일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적십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병웅(李柄雄)한적 특보는 7일 “교환 방문 때는 양측이 자기측 경비를 부담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면서 “비용문제 등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대표단의 금강산행 경비는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 상봉을 위해 따라가는 가족들에게는 이산가족 경비지원에 준해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번주 중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체담을 가동해 이런 실무사항을 협의한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金正日답방 사실상 물 건너가”

구체적 합의못봐 - 정부 DJ임기내 기대절어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관의 면담에서 서울 답방과 관련해 밝힌 내용이다. 임 특보는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메기외대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진언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단순한 ‘외교직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

에 정부 관계자들은 “어차피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었다”며 김 대통령 임기 내 답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대통령도 최근 ‘지켜지면 좋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며 기대를 상당부분 접은 듯하다.

다만 임 특보가 “북한은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해달라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전한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의 약속이 차기 정권까지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화기자 kimdonga.com

김정일 서울답방 물밑접촉 예상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4일 임동원 특사와의 면담에서 “서울에 가고 싶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임 특사가 6일 밝혔다.

임 특사는 “그러나 답방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진 못했다”고만 말하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표로 미뤄볼 때, 임 특사는 방북시 김 위원장에게 답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위원장은 나름대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짐작된다. 관심은 김 위원장이 답방에 대해 피력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평소 다변(多辯)인 데다 임 특사와 무려 5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

北, 사실상의 '전제 조건' 제시한듯 임동원·김용순 채널 계속가동 전망

문에, 임 특사가 발표한 정도라면 답변하고 끝냈을 리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위원장으로서 서울 답방이 남북정상 간 ‘약속사항’이란 점에서 작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또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그런 요인들이 제거돼야 답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답방을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을 제기했다면, 답방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남측 분위기를 보며 주저하는 마당에 자칫 우리가 나서서 답방에 매달린다는 인상이 비쳐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임 특사 방북을 계기로 남북대화 국면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남북 정부 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려는 노력도 물밑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그 경우 남북 장관급회담 등 공개채널보다는 임동원·김용순 채널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송仁기기자

南北 공동보도문 (전문)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했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3.쌍방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하여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했다.

4.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①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체들을 가동하기로 했다.

②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③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④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했다.

⑤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5.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6.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2002년 4월 5일 평양

# 경의선 미복구 구간 14km 불과 연내 개통도 가능할듯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경의선 복원과 도로연결 공사 재개를 잡고 있다. 경의선 복원과 도로연결은 2000년 1~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 그해 9월 착공했으며, 비무장지대 내 공사를 위한 양측간 군사보장합의서도 작년 2월 체결했으나, 북측이 합의서 서명·교환을 미뤄 진척이 없었다.

경의선 복원은 문산에서 개성까지 끊어진 철도 24km(남북 각각 12km)를 연결하고 철도 옆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는 공사이다. 우리측은 이미 작년 말 남방한계선까지 10여km의 철도를 깔았고, 남측 구간의 마지막 역사인 '도라산역'도 지어, 비무장지대 내 1.8km 구간만 더 공사하면 된다. 또 자유로의

## 동해안 철도·도로 복원때 금강산 관광 활성화 예상 시베리아철도에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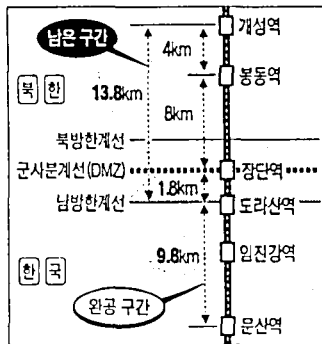
끝지점인 통일대교에서 도라산역까지 새 도로도 건설했다. 북측은 군사분계선~봉동간 8km에 철길을 새로 놓고, 봉동~개성간 4km를 보수해야 하는데, 작년초부터 중단했다.

이번에 경의선 철도·도로공사 재개와 함께 군사당국자회담 재개에도 합의해, 남북한이 바로 공사에 착수하면 연내 개통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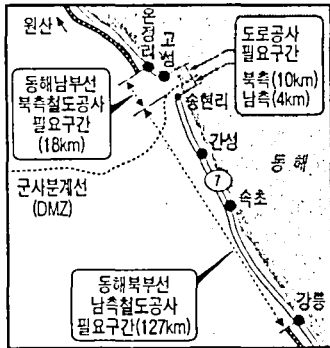
정부는 이달중 군사실무접촉을 갖고 합의서를 서명·교환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7일 열리는 경험추진위원회에선 경의선 복원 후 동행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게 된다.

경의선 복원은 남북 물자교류는 물론, 중국과 유럽지역 수출로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으나, 개성~신의주 구간의 철도가 노후하고 단선(單線)이라 당장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

### ■ 경의선 연결



### ■ 동해선 연결



적도 제기된다.

동해안 철도·도로 연결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북한이 바라는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의선 복원 못지않은 의미를 갖는다. 철도의 경우, 강릉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27km,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온정리까지 18km 정도가 끊어져 있다. 단절구간이 길어 철도연결은 막대한 예산과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도로의 경우 단절구간이 남측이 4km, 북측이 10km밖에 되지 않아 북측의 의지에 따라 연내 완공도 불가능하지 않다.

/김민기기자 ginko@chdsun.com

## 美 “對北특사파견 계획 없어”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은 7일 특사의 북한 파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계획이 없으며 한국측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잭 프리처드 대북 교섭 담당대사의 방북을 받아들여줬다는 언질을 주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직 한국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못한 만큼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 문제에 관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mip@kdaily.com

## 한겨레

## 미 “북 직접 제의전까지 판단유보” 일 “양국 교섭재개 구체거론 주목”

### ■ ‘남북합의’ 미·일 반응

미국은 임동원 특사의 발표를 통해 나온 북한의 북-미 대화 재개 의사에 대해 일단 북한으로부터 직접 제의를 받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이 대화 쪽으로 나아가려는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8~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티북) 회의에서 한국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 관측자들은 북한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대사와 잭 프리처드 국무부 대북교섭담당대사의 방북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과의 대화 쪽으로 분명한 방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6~9일 평양을 방문하는 그레그 전 대사를 통해 프리처드 대사의 초청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북-미 대화와 관련한 진전된 주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

은 내다봤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내 대표 표적 친화파 인사로, 지난해 10월에는 북-미 간 교착상태 해결을 위해 자신을 대북 특사로 보내 줄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미가 본격 대화를 시작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달이 걸릴 것이라 전망도 있다. 북-미 관계에 밝은 한 소식통은 “대화 조건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프리처드 대사가 평양을 방문해도 곧바로 대화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임 특사에게 “(일본인의) 행방불명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본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인다. 대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뜻을 북한 최고권력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그것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워싱턴도쿄/윤국환오대규특파원  
gookhan@hani.co.kr



# 북-미 북-일 얽힌 매듭 풀릴듯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으로 남북 관계가 원상 회복의 길로 접어들면서 북-미, 북-일 대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1년3개월 남짓 정체됐던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구축 노력이 본궤도에 들어서게 되는 계기를 맞았음을 의미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와의 면담에서 임 특사는, '미국의 새 정부와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할 것',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문제가 현재와 미래를 묶어대서는 안 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공감을 표시하고 대화 재개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 특사 방북이 거둔 아주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 ■ 남북공동합의 한반도 정세 변화

### 김위원장 "미국과 새방식 대화" 수용 일 남치의혹 사건 행불자 협력 약속

결론적으로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한 남쪽의 중재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특사 방북기간에 북쪽이 제기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민족 공조와 외세 공조 사이에 절충점을 찾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남쪽이 '한반도의 긴장 예방'과 '민족 앞에 닥쳐온 엄청난 사태'에 대해 공감의 폭을 넓힌 셈이다. 임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핵사찰 문

제 등에 대해서도 남쪽의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특히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 담당 대사의 방북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임을 명확히했다. 프리처드 방북은 지난해 11월 한반도 상황을 풀기 위해 남쪽이 제시한 방안으로, 미국이 북쪽 의사를 타진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그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프리처드 대사-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채

널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 협안은 핵사찰 문제가 될 것이다.

최악의 국면을 치달았던 북-일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뒤 북쪽이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면서 새 국면을 열었다. 북-일 교섭의 최대 걸림돌인 '남치의혹'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남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행방불명자에 대한 협력은 약속했다. 이로써 2000년 말 이후 중단된 수교 협상의 재개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8-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미국-일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트릭)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3차의 구실 분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한겨레

2002. 4. 8 (월)

## “북 국제사회 협력의사 드러내”

### ■ 임특사 일문일답

임동원 대통령 특사는 평양에서 돌아온 뒤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5시간에 걸친 의견교환을 통해 정체된 남북 관계의 원상 회복이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긴장 조성을 원치 않으며, 우리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답사가 있었나? 답방에 관해서는?

=서면 친서는 없었다. 구두로 모든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는 메시지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 대통령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

### '민족공조나 외세공조나' '주적론' 많은 논쟁

#### 김위원장 서울방문 뜻...구체적 합의는 못봐

을 피려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

-일정이 늘었는데 뭐가 가장 쟁점이었나?

= '민족 공조'나 '외세와의 공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주적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한-미-일 3국 공조는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마땅히 양립되고 상호보완적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상당히 이해가 된 것이 아니냐고 본다. 주적론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

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으로 대처했다.

-국제정세의 심각성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은? 핵사찰에 대한 북한 의견은 무엇이었나?

=국제정세의 심각성은 대단히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상당히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모든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전달했다. 핵사찰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다.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 때 고위급 교차 방문이나 아리랑 때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은?

=관련 예측보도가 나왔다고 하

는데 아리랑과 월드컵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 군사당국자 회담의 구체적 '급'이나 시기는?

=군사보장 합의서 발효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했고, 북쪽도 2차 국방장관 회담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지난해 사태가 악화되어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졌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일본인) 남북자를 언급했는데 남북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인가?

=남치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남치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행방불명자 문제라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남치자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 남북관계 '원상회복' 새 일정표 마련

## 경협활성화 인프라구축 청사진 제시

남과 북은 6일 공동보도문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며 "그동안 일시 농경했던 남북 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임동원 대통령 특사는 방북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공동보도문에 있는 내용을 의도했고, 사실상 김 위원장이 합의할 모두 내렸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의 '합의→이행→새로운 합의'라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는 짧게는 지난해 9월 5차 장관급회담 때 합의했으나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악의 축' 발언 등에 따른 북-미 갈등의 여파로 아랑곳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실천할 새 일정표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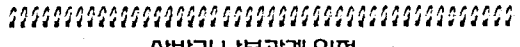
남북은 공동보도문 1항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과 관련된 것이다. 남북은 한-미 공조 속에서도 북쪽의 처지를, 북쪽은 한-미 공조가 불가피한 남쪽의 처지를 최대한 고려·존중하며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잠정적 공감'을 외교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권과 민족 공조, 외세 공조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어려운 경

이었다"는 임 특사의 말에서 드러나듯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북-미 관계 함대에 따라선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정치외교 부담이 작은 이산가족 상봉 등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등에서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들어 냈다. 반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군사 당국자간 회담, 남북 철도 연결 등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했다. 이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도 한다.

구체적 이행과제 가운데 핵심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이어 동부지역의 동해선 철도(동해북부선)·도로(7번 국도) 연결 사업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대한 청사진을 마련한 셈이다. 이는 휴전선의 일부 개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획기적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관건은 '비무장지대 공사 군사보장 합의서' 교환·발효 등을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이 언제 어떻게 개최되는가 하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한달 동안 벌어질 일들을 보면 될 것"이라고 일단 자신감을 나타냈다. 철도·도로를 '빨리 연결' 한다는 공동보도문 문구는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전보다는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상반기 남북관계 일정

- 4월10~12일 = 금강산 남북 민간교류 실무접촉, 아리랑 참관 등 논의
- 4월28일 = 금강산 4차 이산가족 상봉
- 4월29일 = 평양 아리랑 공연 시작
- 4월 말 = 대북 비료 지원 시작
- 5월7~10일 = 서울시 경협추진위 2차 회의 이후 분야별 실무협의회
- 5월 중 = 북쪽 경제시찰단 방문
- 5월31~6월30일 = 서울 월드컵 대회
- 6월11일 = 금강산관광사업 협성회를 위한 2차 남북 당국회담
- 6월15일 = 6·15공동선언 두돌 기념 남북 민간연락(추진 중)  
(시기 및 장소 미정)  
- 남북 합의 뒤 군사당국자 회담  
- 7차 장관급회담

### 공동보도문 합의내용

1. 6·15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맞게 서로 상대방 존중해 긴장상태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2. 6·15공동선언 합의사항에 따라 동결됐던 남북관계 원상회복.
3. 동해선 철도·도로, 서울~신의주 철도, 문산~개성 도로 빨리 연결
4. 대화·협력사업 적극 추진  
- 경추위 2차회의 5월7~10일 서울개최, 분야별 실무협의회 가동  
- 금강산관광 협성회 2차 당국회담 6월11일부터 금강산 개최  
-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4월28일부터 금강산서 진행  
- 북쪽 경제시찰단 5월 중 남쪽 방문  
- 합의사항 이행·진척 따라 7차 장관급회담 개최
5.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북쪽은 '군사당국자회담 재개할 때 군사당국어 건의하기로 했다')
6.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 원칙에 따라 협력

된다. 재개될 군사당국 회담은 한해 넘게 연기돼 왔던 2차 국방장관 회담 일 가능성이 높다.

북쪽은 '아리랑 공연' 및 월드컵대회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임 특사는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실무접촉에서조차 전혀 언급이 없

어 다소 뜻밖"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북쪽이 앞으로 남쪽 관광객의 아리랑 공연 참관유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관심사다. 정부는 요청이 오면 교통로 확보 등 당국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 참구할 열여 합의할 방침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① 중앙일보

임동원 특사 방북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도 활로가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 재안을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1년3개월 동안 중단된 북·미 협상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때맞춰 노태우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평양을 방문 중이다. 앞으로 북·미 교섭은 그레그 전 대사의 분위기가 조성·프리처드 방북·핵·미사일 분회담이라는 수순을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순항(順航)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북한은 닦을 율린 태세다.

그레그 전 대사는 최근 무산된 전직 주한대사 4명의 단체방북과 별도로 지난해 가을부터 독자적인 평양행

### 北, 프리처드 美대사 방북 수용

# 北-美대화도 '복원'

을 추진해 왔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특사가 되기를 자청했으나 부시 정부는 이를 거부해 현재 '전직 교외 관리' 자격으로 북한 정권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국무부 한국담당 부서 관리 한명이 그와 동행 중이다.

그레그 전 대사는 워싱턴 출발 전에 프리처드 대사를 만나 대북협동을 조율했다. 따라서 평양체류 중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을 위한 전지작업을 벌

일 것으로 관측된다.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은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프리처드 대사는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당시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방북을 처음 제안했다.

따라서 이번 방북은 반년 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하지만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이 북·미 대화의 긍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것

은 아니다.

프리처드 대사는 북측과 핵·미사일·재래식 전력 같은 북·미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분회담을 먼저 어디서 어떻게 개최할지를 정하는 예비교섭의 임무를 맡게 된다.

북·미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6일 "북한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같은 안건이 너무 미묘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쉽게 미국과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프리처드 대사 방북 수용은 미국에 대한 호의라기보다 남한측 특사 방북에 대한 선물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jinjin@joongang.co.kr>



**다녀왔습니다**

/ 청와대시진기자단

김대중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특사 방북 후 귀한 임동원 특보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임동원(林東源) 대북  
특사의 방북 성과물은 4일  
밤 5시간에 걸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과  
만찬회동에서 나온 것이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백화원초대소 회의실에서  
면담을 했고, 나머지 3시간  
동안 회의실 옆에 있는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경향신문**

2002. 4. 8 (월)

“서울 방문하고 싶다” 자신생각 거침없이 밝혀

**김위원장 ‘통큰 발언’ 화답**

• **林특사의 면담 뒷얘기**

임특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체돼 있는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특사 방북에 대한 김위원장의 적극적인 자세를 소개했다.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간 주요 현안에 대한 김위원장의 발언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하나도 없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김위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임특사에게 전달했다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정부 당국자는 면담 진행 방식에 대해 “임특사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 김위원장이 이를 들은 뒤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핵사찰, 미사일 등 ‘2003년 한반도 위기설’

**金만나면 막힌것 ‘술술’ ‘남치 日人없다’ 거부감**

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김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임특사는 “(우리 입장을) 모두 솔직하게 전달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는 북측의 입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핵심 회담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 김위원장은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사태가 악화돼 안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및 9·11테러 사태 이후 급변한 국제정세를 회담중단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반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해 김위원장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하겠다” “적 프리처드 대학교십대사 방북을 수용하겠다” “한반도에너

지개방기구(KEDO)와의 협어도 다시 하겠다”는 등 임특사의 권고를 시원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또 “도널드 그레그 진 주한 미대사가 곧 방문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 답방과 관련, 김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다시 만나고 싶다”며 3월 말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 “뵙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발언보다 진전된 언급을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북·일관계 개선의 현안 중 하나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김위원장은 “납치할 한 적은 없다”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합방합명자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치세협기자

csr@kyunghyang.com

# 北美-北日 대화에도 '햇볕'

2002. 4. 8 (월) 北.林특사 방북계기 태도변화

최근 '위기설'까지 부른 한반도 주변정세가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총장 특보의 특사방북을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임 특사를 통해 미국의 강한 대북 자세와 이로 비롯된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북미, 북일 대화에 대한 북한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전향적으로 바뀔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남북한은 공동발표문에서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폭넓게 협의했음을 분명히 했다. 임 특보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위기설의 원인이 된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특보는 "김 위원장이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간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상향인식과 권고에 동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김 위원장에게 "미국 부시정부가 강경하므로 기존 정부와 벌였던 협상방식을 바꾸고 새 접근방식에 따라 대화해야 한다"고 적극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미국이 문제는 많지만 미국과 대

사의 방북도 곧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개될 북미대화는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프리처드 대사간 채널에 이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대화 또한 김 위원장이 "일본과 곧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표명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최대 현안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등에서 북미간 입장차

## 그레그 前대사 訪北수용 화해손짓 日과도 적십자회담 개최 의사 표명 核문제 등 걸림돌 불구 가능성 고조

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시사하며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북미, 북일대화를 재개하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북한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방북을 수용해 그레그 전 대사가 6일 방북했고 잭 프리처드 미 대북협상담당대

가 너무 크다. 북한은 '단군'이 보장된 클린턴 미 행정부 때와 달리 위기설에서 마지못해 대화에 나서는 측면이 적지 않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북한의 WMD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북한의 버랑급 전술로 지리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박희준기자 july1st@sgt.co.kr

## 경향신문

2002. 4. 8 (월)

# 주적론 '뜨거운 감자'

북한은 이번 임동원(林東源) 특사 일행과의 회담에서 주적론(主敵論) 철회와 민족공조를 내세워 남측을 곤혹케 했다. 한반도 위기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서 비롯됐고, 여기에는 '북한 주적론'을 고수하고 있는 남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사실 북한은 1993년부터 줄곧 우리의 '주적개념'을 문제삼아왔다. 이 때문에 당국자들은 이번 주적론 철회 요구가 "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례적인 것"이라며 "북측의 '주적론' 철회 요구가 심각한 수준으로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 주도권잡기용' 관측 수용땀 南南갈등 우려 화해무드 암초 가능성

임특사는 북측의 민족공조와 주적론 철회 요구 등에 대해 민족공조와 국제공조가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며 주적론 문제는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대응했다. 그 결과 남북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군사적 신뢰구

축을 간접적으로만 명시했다.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도 합의했지만 개최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적론 문제는 향후 남북한 현안에 대한 각종 협의체의 가동과정에서 언제든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지칫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오는 5월 발표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또 담긴다면 남북한 협의과정은 암초에 걸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주적론 문제는 남한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북측의 철회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우기자 jwkim@kyunghyang.com

# 南北경색 해소 '돌파구'

## ■ 林특사 訪北 성과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가작(佳作)이었다. 이번 성과를 기초로 남북관계는 6·15 정상회담 직후의 상황으로 회복되고, 북·북일 접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 특사 방북이 향후 남북, 북미관계의 순탄함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위기의 흐름을 대화 쪽으로 끌어들이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할 수 있다.

남북은 대북 강경책을 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북한의 자존심, 남한내 여론 등을 적절하게 소화하며 접점을 찾았다. 남측은 북미간의 제재로만 간주돼온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개입,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북측은 남측의 설득을 수용하는 희식으로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두 결과를 마련했다. 양측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으나, 공동보도문에 구체화하지 않고 진행형으로 남겨두는 지혜를 발휘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도 남북이 직담한 선에서 타협한 산물이다. 남측은 경의선 연결을 독촉했으나, 북측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저했다. 북측은 대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추진 중인 러시아가 강력히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동해선 카드를

## ■ 향후 남북관계 일정

- 4월 초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판문점, 이산가족 행사 절차 협의)
- 10~12일 남북 민간단체 접촉(금강산, 아리랑 참관 문제 논의)
- 28일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금강산, 100명씩 순차상봉 예상)
- 4월 중 아리랑 참관 당국 협상(미정, 신변 보장, 관광 경로 등)
- 5월 7~10일 경험추진위 2차 회의(서울, 식량 비료 전력 지원 논의)
- 5월 중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서울 등, 남북 경험 사안)
- 6월 11일 금강산 관광활성화 2차 회담(금강산, 육로연결, 특구지정 문제)
- 개성공단, 임진강 수해 실무회담(미정, 경험추진위 산하 실무접촉)
- 시기 미정 군사당국자회담 회담(미정, 경의·동해선 군사보장)
- 7차 장관급회담(미정, 합의이행 평가 등)

## 南, 北·美의제인 WMD문제 거론 北에 北·美대화 재개 명분 제공 주적론·외세논쟁은 더 불거질 수도

꺼냈다. 동해선 연결에는 금강산 관광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북측의 북안도 담겨있는 것 같다.

남북은 4차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위 재개에 대해서는 쉽게 접점을 찾았다. 이 두 사안은 남북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질풍점이었다. 다만 북측은 이번에도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관건인 국방장관회담 등도 원칙적 합의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군부의 동의가 필요한 북측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주적론(主敵論)과 민족·외세 공조 논쟁은 두고두고 불거질 전망이다. 임 특사는 한미일 공조가 대북포위망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북측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부과된 숙명적인 집이다.

/이동준기자 djlec@hk.co.kr

世界日報

2002. 4. 8 (월)

## '이면논의' 있었나 없었나

### 林특사 '성과' 설왕설래

남북간 현안중의 현안인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월드컵-아리랑 연계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좋은 결과만 가져온 성공작"이

### 김정일답방 - 아리랑 축전 등

### 민감한사안 침묵 - 부인일관

### "또다른성과 있었을것" 추측

라고 평가해, 이번논의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임동원(林東源) 특사는 6일 귀환 기자회견에서 김 국방위원장

의 서울답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건 조성 성과 시기 등에 이견은 있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답방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 특사는 또 북측이 특사 방북을 수용한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 '월드컵-아리랑'에 대해서도 "아리랑이나 월드컵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며 논의 자체를 부인했다. 정치적 민감사안임을 의식한 탓

인지 피해가는 느낌이 들긴 했다.

임 특보의 이 발언을 골이골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임 특사의 방북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 고위당국자의 월드컵 개막식 참관 여부는) 추후에 협의해야 한다.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정 장관은 또 "이산가족과 경의선 문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해 공동보도문 이외의 이번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 서울경제

2002. 4. 8 (월)

## 냉각 남북관계 반년만에 돌파구

### ■ 林특사 방북결산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 봄 기운이 완연하다. 남북 '공동 보도문'에는 이산가족 교환 방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경제 사찰단 파견, 서울~신의주 철도, 문산~개성 도로 연결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다음달 7일부터 재개되는 경주위가 본격화되면 남북간 긴장도 완기를 떨 전망이다.

◇절묘한 타협=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반년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렸다는 점은 성과다. 경주위 재개, 경제 사찰단 파견,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가동 등은 남북 경제 교류의 확대를 불러 남북 관계를 더욱 긴밀히 구축하려는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의선과 도로 연결 외에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조속히 연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동·서부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뚫고 지나가는 두개의 육로 통행로가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뜻밖의 소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 안의 이행을 담보할 결정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협관련 접촉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군사당국자 회담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언급했다. 북의 체제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남북 교류의 '합정'이 될 개연성이 있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 ● 남북한 합의내용

합의 사항	주요 내용	일정
긴장 조성 방지	상호 존중·긴장 방지	
남북 관계 정상 회복 (공동선언 합의사항)		
철도·도로 연결	동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서부: 서울~신의주 철도, 문산~개성 도로 연결	조속한 시일
남북 대화·협력 사업 추진	남북 경제 협력 추진 위원회 개최 금강산 관광합성화 위한 2차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 교환 방문 북, 경제 사찰단 파견 남북 정권급 회담 개최	5.7~10, 서울 6.11-, 금강산 4.28-, 금강산
군사 당국자 회담 재개		
기타 상호 협력	동포애·인도주의·상부상조 일각	

### 동해선 철도·도로 조속연결 합의 뜻밖 소득

### 송위원장 "필요성 공감" 北美대화 진전예고

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논의할 적십자 회담 개최가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다.

또 북에 쌀 30만톤을 지원할 경추위와 금강산관광 합성화 회담 등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 일정은 공개됨으로써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 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강협을 비롯한 남북 교류에 나름대로 의지를 보임으로써 실리를 찾았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북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차기 정권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북·미 대화, 본격화 예고=임 특사는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 사항은 '민족 공조나, 외세 공조나'의 양자 택일 문제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주최론"도 남북간 의견 충돌을 유발했다"고 임 특사는 전했다. 그러나 북측의 본심은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 위기설' 등과 관련,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달 북·미 뉴욕 접촉의 연장선에서 북·미 대화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표했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의 협정도 재개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북측은 미국 잭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을 수용하라는 임 특사의 권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해 앞으로 북·미 대화가 계속 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남북관계 복원

분야별 내용

# 동해선 강릉~온정리 145km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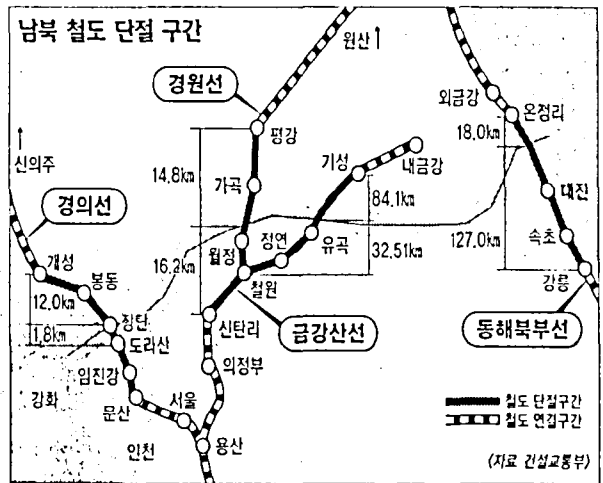
## 철도·도로 연결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경의선과 동해북부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육로로 잇는 양축의 '실크로드'를 확보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동해북부선·국도 7호선 이변에

길다. 국도 7호선(부산~온성)은 남쪽(송현리~군사분계선) 3.8km, 북쪽(고성~군사분계선) 10km 등 총 13.8km으로, 북쪽의 공사 구간이 길다. 남쪽 3.8km를 왕복 2차선으로 공사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국도 1호선 문산~ 개성간 24km를 잇는 경의선철도 공사는



경의선, 비무장지대·北구간만 남아  
국도7호선, 송현~고성 13.8km 이어

세롭게 합의한 동해북부선(동해선) 철도는 부산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송호라는 집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신의주~중국 텐진(天津)·베이징(北京)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함께 북류운송의 양대 축이 된다.

동해선 연결 대상구간은 남쪽(강릉~군사분계선) 127km, 북쪽(온정리~군사분계선) 18km 등 총 145km이다. 남쪽이 공사할 구간이 훨씬

남쪽 비무장지대(도라산역~장단역 1.8km)와 북쪽 구간(개성역~장단역 12km)만 연결하면 된다.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남쪽 문산역~도라산역 10.2km 구간은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문산과 개성을 잇는 국도 1호선 공사도 지난해 통일촌~군사분계선 5.1km 구간이 개통돼 비무장지대와 북쪽 구간만 남았다.

북한은 2000년 9월 당시 개성시 봉동, 남촌골, 미촌골 등 3곳에 군

천막 139동을 설치하고 연결공사를 진행하다 이듬해 공사를 중단했다. 군 관계자는 7일 "북쪽 구간은 지뢰 등이 거의 없는 눈·밭이어서 공사가 재개되면 몇개월내 개통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를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과거 남북을 잇던 철도는 4개 노선 가운데 경의선과 금강산선 2개만 남는다. 국도도 1·7호선이 이어지면 3·5·31·43호선 등 4개만

이 남는다.

남북은 지난해 2월 비무장지대 공사인력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약속한 41개항의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했으나 아직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내 공사가 본격 시작되려면 이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어야 한다.

김경문기자  
kkwoon@kdaily.com

## “개성공단 이르면 하반기 착공”

### 새달 7일 경추위 전망

남북 양측이 다음달 7일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다시피 했던 개성공단조성사업·임진강수해방지·개성관광사업 등 주요 경협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조성사업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공단부지의 측량·토질조사 등 기초작업은 끝났지만 구체적 조성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은 “이번 경협추진위 결과가 좋으면 올 하반기 시범공단 조성에 착수, 내년 하반기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당초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개성에 총 8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 국내 기업을 유치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었다.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차 입주희망 조사를 실시, 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3개 협회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300여개의 개별기업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전력공급 지난 2000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2월8일 평양에서 ‘남북 전력협력 실무협약’을 맺었으나 우리측의 ‘선 실태조사 후 전력공급’과 북측의 ‘선 전력공급’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바람에 결렬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북한의 송·배전시스템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실태조사

를 하지 않고는 전력을 공급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휴전선 근처에 화력발전소를 지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과 문산~개성 및 문산~남천 구간에 154kV의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 각각 40만kW, 20만kW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지원은 그러나 국내의 여론과 미국의 반대가 만만찮아 양측의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수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많아 기초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 800만평규모... 국내기업 유치

### “임진강수해방지 연내 공동조사”

총인장 55.4.6km인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 8117km<sup>2</sup> 가운데 북측

유역이 5108km<sup>2</sup>에 이른다.

따라서 경기도 파주·문산·동두천 등지의 여름철 물난리를 막기 위해서는 북측지역의 수방대책이 절실하다. 건설교통부 김창세 수자원국장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남북이 기본계획에만 합의하면 연내 공동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광사업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이 연내 실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동해선 철도·도로를 조기 연결키로 함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육로관광의 경우 비무장지대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성관광사업은 경의선 복원사업과 맞물려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전광삼기자 hisam@kdaily.com



# 대한매일

THE KOREA DAILY NEWS 1996. 4. 21. MON. 11:00 AM

2002. 4. 8 (월)

## 부부장급등 15명내외 경제 실무급인사로 구성 IT·전력분야 주관심 대상

### 북 경제시찰단 규모

북한 경제시찰단의 방한은 2000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때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시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에게 처음 언급한 뒤 이제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는 분야다. 북한이 최근 경제시찰단을 유럽과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 보내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시찰단 규모는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15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10월 임동원(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최근 북한동향'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10월

하순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경제시찰단을 작성해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핵심측근들과 경제관료 및 전문가 15명 규모로 구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고 밝힌 점을 근거로 한다. 경제를 집행하는 내각의 실무급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짐쳐진다.

주관심 대상은 정보기술(IT)과 전력 분야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IT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컴퓨터학과 등 IT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잇달아 설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산업단지도 시찰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근기자

windsea@kdaily.com

## 금강산서 '순차' 상봉 가능성

### 이산상봉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금강산으로 바뀔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이산가족들의 만남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특사 방북에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큰 틀에서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과 상봉 절차 등은 곧 열린 남북 직접자 실무접촉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남북 이산가족 100명씩 평양과 서울을 각각 방문, 500명 안팎의 피붙이들이 만나는 '상봉단 교환' 형식이었다. 앞으로는 남북 출신 북한 가족과 북쪽 출신 남측 실향민들이 금강산을 '순차' 방문하는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 가족의 공식 상봉인원이 5명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남쪽에서는 가족·친지들이 비표를 바꿔 차고 상봉장에 교대로 들어가거나 관광지·공강 등에서 피켓 등을 동원해 비공식 만남을 가져 왔다.

또 직접 만나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물어보고, 이를 전달하기도 했었다.

대한직접자사 이병웅(李柄雄) 총재특보는 7일 "이번 4차 상봉은 상봉 대상자 100명이 모두 강제, 지난해 합의한 사항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금강산을 오가는 현대아산의 관광선을 이용해 야 하겠지만, 육로로 오갈 수 있게 되면 면회소 설치 등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anseimus@kdaily.com

## 확답 안해 연내 어려울듯

### 김정일 서울답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성사될까.

임동원 특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서울 답방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원론적 입장만 피력한 채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청와대측의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7일 "서울답방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심정은 이미 메가워터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통해 들은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

발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 않으나."고 반문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정사실화했다가 성사시키지 못했던 만큼 이제는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매달리는 인상을 풀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국민역량 결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에 김 대통령도 "가능한 문제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연내 답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오용연기자

poongymn@kdaily.com

# “金正日 친서는 없다”

林동원특사 일문일답

평양방문 후 귀경한 임동원(林東源) 특사 일행은 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정체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키고 북측이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정일 국방위원장 담서는 없나.

▲서면친서는 없다. 구두로 김대중 대통령께 전해 달라는

## 주적분등 논쟁으로 일정 늦어져 北, 美 등 국제사회와 협력 공감

메시지가 있었다.

—일정이 하루 연장된 이유는.

▲민족공조나, 외세와의 공조나 하는 문제와 주적분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민족이나 국제나 하는 문제는 양자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미-일 3국 공조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조라고 강조했다.

—북측이 국제정세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핵사찰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나.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상당히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핵사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아리랑, 월드컵 때 고위급 교차방문 얘기는 없었나.

▲아리랑이나 월드컵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경의선 연결과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의 급(極)과 시기는.

▲군사보장합의서 발효에 대한 논의가 있어 국방장관회담을 제의했고, 북측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작년 사태가 악화돼 안됐다고 말했다. 발도의 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에 의 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이 인식한 것인가.

▲납치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행방불명자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납치자 개념은 없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방문 실현을 위한 절차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협의 될 것이다. 간단한 절차만 논의하면 즉각 실현에 들어갈 수 있다.

—합의사항 보장 장치는.

▲실천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불신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달라.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 쌍방은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3. 쌍방은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시찰단인 5월 사이의 철도 및 남북 공동보도문 <요지> 중 남측에 보문산~개성 사이 내기로 했다.

4.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5. 쌍방은 남측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2000년 4월5일 평양

래 실무협의회담을 가동하기로 했다.

②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사이의 회담을 6월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③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④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 시찰단인 5월 중 남측에 보

⑤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5. 쌍방은 남측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2000년 4월5일 평양

# 북·미대화 재개 본격화 核·미사일 넘어야 순항

지난해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북·미대화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즉 프리처드 대북 교섭대사 방북요청 수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초까지 프리처드 대사 보다는 급이 높은 고위급 대화를 희망했지만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재담을 통한 두번의 접촉에서 이같은 주장을 철회한데 이어 이번에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을 수

용, 북·미대화 재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가장 관심이 모아 지고 있는 대화 재개

뉴욕재담 가동 '시발점'

는 이번 일단 뉴욕재담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부·당국자는 “조만간 뉴욕접촉을 통해 북·미 양국이 프리처드 대사의 구체적인 방북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은 대화재개는 빠른 편 빠름수록 좋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일은 8~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대북 정책조정감동그룹(TCOG) 회의에서 대화재개 시점 및 구체적인 의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의 프리처드 대사 방북 수용으로 일단 대화의 목표는 뒤편이 아득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핵·미사일 등 북·미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클린턴

정부 때 이뤄진 합의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때의 합의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동원 특사가 4월 김위원장과 면담에서 “새 정부와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첫번째 의제는 핵사찰 문제다. 2005년 경수장을 철회한데 이어 이번에 예상되는 상황

에서 늦어도 올해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는 미국과, 핵사찰은 일단 뉴욕재담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부·당국자는 “조만간 뉴욕접촉을 통해 북·미 양국이 프리처드 대사의 구체적인 방북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은 대화재개는 빠른 편 빠름수록 좋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일은 8~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대북 정책조정감동그룹(TCOG) 회의에서 대화재개 시점 및 구체적인 의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의 프리처드 대사 방북 수용으로 일단 대화의 목표는 뒤편이 아득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핵·미사일 등 북·미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클린턴

정부 때 이뤄진 합의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때의 합의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동원 특사가 4월 김위원장과 면담에서 “새 정부와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첫번째 의제는 핵사찰 문제다. 2005년 경수장을 철회한데 이어 이번에 예상되는 상황

에서 늦어도 올해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는 미국과, 핵사찰은 일단 뉴욕재담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부·당국자는 “조만간 뉴욕접촉을 통해 북·미 양국이 프리처드 대사의 구체적인 방북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은 대화재개는 빠른 편 빠름수록 좋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일은 8~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대북 정책조정감동그룹(TCOG) 회의에서 대화재개 시점 및 구체적인 의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의 프리처드 대사 방북 수용으로 일단 대화의 목표는 뒤편이 아득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핵·미사일 등 북·미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클린턴

정부 때 이뤄진 합의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때의 합의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동원 특사가 4월 김위원장과 면담에서 “새 정부와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첫번째 의제는 핵사찰 문제다. 2005년 경수장을 철회한데 이어 이번에 예상되는 상황

에서 늦어도 올해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는 미국과, 핵사찰은 일단 뉴욕재담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부·당국자는 “조만간 뉴욕접촉을 통해 북·미 양국이 프리처드 대사의 구체적인 방북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은 대화재개는 빠른 편 빠름수록 좋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일은 8~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대북 정책조정감동그룹(TCOG) 회의에서 대화재개 시점 및 구체적인 의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의 프리처드 대사 방북 수용으로 일단 대화의 목표는 뒤편이 아득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핵·미사일 등 북·미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클린턴

정부 때 이뤄진 합의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때의 합의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동원 특사가 4월 김위원장과 면담에서 “새 정부와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첫번째 의제는 핵사찰 문제다. 2005년 경수장을 철회한데 이어 이번에 예상되는 상황

에서 늦어도 올해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는 미국과, 핵사찰은 일단 뉴욕재담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부·당국자는 “조만간 뉴욕접촉을 통해 북·미 양국이 프리처드 대사의 구체적인 방북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은 대화재개는 빠른 편 빠름수록 좋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일은 8~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대북 정책조정감동그룹(TCOG) 회의에서 대화재개 시점 및 구체적인 의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林특사 방북 성사...북·미대화 접근...

# 韓美공조 '원인 합작품'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과 북·미대화 성사결정은 한·미간의 치밀한 사전 교감의 결과였다. 지난 2월 한·미는 “남북대화 우선”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도로 경색된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먼저 협상화한 뒤 북·미관계를 건인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한 것이다.

미국측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

대외재개 입장을

확정한 뒤 이를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어 임특사가 방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위고경로를 통해 즉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또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인자격으로 6일 방북할 것이란

점도 알려졌다. 임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시 한반도위기상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미대화의 중요성과 함께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요청을 언급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이미 뉴욕접촉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측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 대외재개 입장을

확정한 뒤 이를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어 임특사가 방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위고경로를 통해 즉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또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인자격으로 6일 방북할 것이란

미국측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 대외재개 입장을

확정한 뒤 이를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어 임특사가 방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위고경로를 통해 즉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또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인자격으로 6일 방북할 것이란

미국측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 대외재개 입장을

확정한 뒤 이를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어 임특사가 방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위고경로를 통해 즉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또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인자격으로 6일 방북할 것이란

## 치밀한 사전조율 성과 북한측도 흔쾌히 수용

미국은 이어 임특사가 방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위고경로를 통해 즉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또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인자격으로 6일 방북할 것이란

미국측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 대외재개 입장을

확정한 뒤 이를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어 임특사가 방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위고경로를 통해 즉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또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인자격으로 6일 방북할 것이란

미국측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 대외재개 입장을

확정한 뒤 이를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어 임특사가 방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위고경로를 통해 즉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또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인자격으로 6일 방북할 것이란

미국측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뉴욕 대외재개 입장을

확정한 뒤 이를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어 임특사가 방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위고경로를 통해 즉 프리처드 미국무부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또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인자격으로 6일 방북할 것이란

## 남북관계 정상화 가속도

# 철도·도로 연결...군사회담도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 온 임동원 특사 일행이 북측과 10개 항의 합의들 도출함에 따라 지난해 2월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길뚝기 시작하던 남북관계가 징검다리에서 다시 올라섰다.

특히 김정인 국방위원장이 미국 프리처드 대북특사 방북을 허용하라는 김 대통령의 충고를 수용함에 따라 북미관계도 대화국면으로 접어들며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합의내용과 과제를 짚어본다.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 지난해 10월 실시하려다 중단된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이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재개한다.

일정은 2박3일이 유력하며 향후

### 北美·北日간

### 대화표명 '큰수확'

### 실천여부 낙관 못해

실무협의를 거쳐 방문단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추적을 통해 뽑은 교환방문단 200명이 확정돼 있으며 당초 선정한 방북 상봉단 100명, 방남 상봉단 100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300-7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제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대북 쌀 지원(차관 형식),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방대책 등 남북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김추위는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여서 지난해 11월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당시에도 북측이 김추위 개최에 적극성을 보였다.

정부는 김추위를 통해 쌀 30만 t은 차관 형식으로, 비료 20만 t은

### 합의사항(시기 명기)

시기	장소	내용
4월 28일	금강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5월 7-10일	서울	제2차 남북경제추진위
5월 중	남한	북한 경제시찰단 방한
6월 11일	금강산	금강산 양국간 회담

### 합의사항(일정 미정)

-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
-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 북미, 북일 관계 개선조치

시기	내용
4월 6일	그레그 전주한 이대사 방북
미정	프리처드 이특사 방북 수용
미정	일본과 적십자회담 개최
미정	뉴욕회담 재개 등 미국과 대화 재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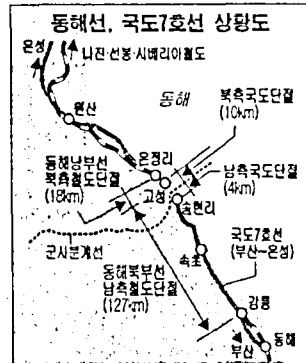
또한 이번 특사회담을 통해 김추위 산하 실무협의를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2월 평양에서 한 차례씩 열렸던 전력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 임진강수해방지분과 회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철도·도로 연결 = 공동보도문에 언급된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남측의 강릉과 군사분계선(MDL) 사이 127km와 북측 온정리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8km 구간으로 복원된 김유동해선 부산-나진간 7번 국도가 되살아나는 셈이다.

동해선은 강릉-고성간 127km와 고성-온정리간 18km 등 총 145km가 현재 단절된 상태다.

북한이 7번 국도 복원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은 남측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동해선 철도와 도로 복원공사도



김의선 철도공사와 같은 질차에 의해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남측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비무장지대(DMZ) 협상권을 이월받아 이를 토대로 북측과 군사진행 절차 등을 협의하게 된다.

◇군사당국자회담 = 금강산 육로, 김의선 철도·도로 등이 실선이 안된 것은 남북 군사당국자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김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개설 등에 필수적인 군사당국자 회담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넘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중요한 합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임 특사와 김용순 비서간의 3인 첫 특사회담에서 북측이 주적분을 제기했을 때 남측이 남북간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방장관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결국 북측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 답방 = 임 특사 일행이 주요 의제로 북측에 제기했으나 구체적 답변을 얻어내지 못해 '올해 서울답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울에 가고 싶고, 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나영필기자 philip@mk.co.kr

## 南北관계 완전복원 '청신호'

### '공동 보도문' 의미·내용

임동원 대북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은 동해·경의선 연결, 이산가족교향방문등의 합의를 이뤄냈다. 또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북측 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등 경제협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남북관계가 완전 복원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남북한당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예산확보(남한)와 군강경과 설득(북한)이 이뤄져야 하고 남한내 야당과 보수층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철도·도로 연결=남북한이 동·서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물류교류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현재 동해선 철도의 경우 남측의 강릉에서 북측 온정리까지 1백45km구간이 단절돼 있다. 동해선이 복원될 경우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부산이 연결된다. 경의선과 함께 한반도에는 러시아와 중국대륙을 잇는 2개의 '철의 실크로드'가 건설되는 셈이다. 또 남북 양측이 경의선 철도및 도로공사를 재개키로 한 것은 개성공단 조성등 남북 경협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경의선의 경우 우리측 구간의 공사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문제는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약 1조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



지난 3일부터 4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6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북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경협 추진위 서울 개최등 경제협력 최우선 순위

지 않은 상태지만 공공자금 외에 국제금융기구 차관이나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보도문 전문 요약	
-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 원상회복.
-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서울~신의주 철도 및 문산~개성 도로를 조속히 연결.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5월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 회담, 6월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4월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 북측 경제시찰단 5인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	
-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경협추진위 개최=남북경추위는 2000년 12월 처음 열린 이후 중단된 상태다. 경추위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차원에서 경협시안을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추위가 내달 서울에서 열리면 개성공단 건설, 철도와 도로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전력지원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추위 산하 실무협의회가 가동된다.

◇경제시찰단 방한=2000년 평양에서 열렸던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 언급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분야다. 북측의 관심 대상은 정보기술(IT)과 전력산업 분야등. 정부 관계자는 "북한 경제시찰단이 오면 주요 산업단지 시찰, 경제연구소와 세미나 개최,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는것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남북 東-西대동맥 잇는다

## 철도-도로 복원이미 효과

남북한 공동보도문 발표에 따라 철도와 도로의 단절구간에 대한 복원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 한편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을 추진, 동서 양측의 교류 기반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복원되면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와 연계된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남북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사업= 2000년 9월 착공된 경의선 연결 사업은 지난해 2월 남북 군사회의 통해 '비무장지대 공동규칙 합의서'에까지 의견일치를 이뤄 순탄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북측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현재 남측구간의 공사는 비무장지대 1.8km 구

간만을 남겨두고 모두 끝난 상태다. 철도는 문산~군사분계선 12km 복원공사 구간중 10.2km 공사가 끝나 도리산역까지 열차가 운행중이며 도로는 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 5.1km 공사구간중 3.3km에 대한 포장작업을 마쳤다. 건교부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어질 경우 철도는 6개월, 도로는 9개월이면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간성~통일전망대 26.5km 구간은 확장을 위해 실시설계중이다. 남북 도로연결을 위해서는 통일전망대(송현리)~군사분계선간 4.17km와 북측 군사분계선~고성간 10.36km를 건설해야 한다. 사업비는 남측구간만 72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간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경우 1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효과 및 전망=경의선과 동해선 복원은 남북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의선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촉진하고 중국철도(TCR)와 연

경의선 빠르면 6-9개월후 개통 가능  
동해선 강릉~군사분계선~온정리 연결  
수송비 대폭절감 교역 10배이상 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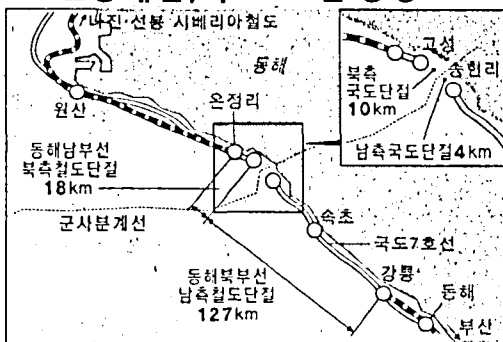
◆동해선 철도-도로사업=동해선 철도는 6·25전쟁 이전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함경남도 원산을 연결했었다. 전쟁 직후 북한이 양양 이북의 철로를 철거해 현재 노반만 남아있는 상태다. 연결을 위해서는 남측에서 강릉~군사분계선간 127km, 북측에서 군사분계선~온정리간 18km를 각각 복원해야 한다.

도로는 강릉~간성 70.4km 구간이 4차선으로 포장돼 있으며

절대 새로운 화물보급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해선은 부산~나진~탈라디보스토크~유럽으로 이어져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된다. 이를 활용한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해 4억달러인 남북간 교역을 단기간내에 열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부산~유럽간 컨테이너 수송비용도 현재의 4분의1 수준인 200~250달러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감수기자 kks@sgt.co.kr

■동해선, 국도7호선 상황도



■남북간 철도 단절 구간

노선명	구분	단절구간	길이
경의선	남측	문산-장단(군사분계선)	12.0km
	북측	장단(군사분계선)-개성	12.0km
경원선	남측	신탄리-군사분계선	16.2km
	북측	군사분계선-평강	14.8km
금강산선	남측	철원-군사분계선	32.5km
	북측	군사분계선-내금강	84.1km
동해북부선	남측	강릉-군사분계선	127.0km
	북측	군사분계선-온정리	18.0km

자료:건설교통부

# “北가족 만난다니 여한없다”

## ‘금강산 상봉’ 들뜬 이산가족들

### 88세老母 막내아들 웃창기며 설레 “다시는 연기안되게 남북이 최선을”

“반세기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북녘에 남겨둔 피붙이 생각에 평생 가슴아프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참말로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지난해 10월 4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에 올라 그동안 애타게 북측 아들과의 만남을 기다려온 권지은(88·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 할머니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결과로 이산가족 상봉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족 상봉이 무산된 때 따른 충격으로 5일 동안 꼬박 앓아눕던 권 할머니는 “3남1녀중 막내아들의 생존사실을 지난해 확인했으나 상봉이 연기되는 바람에 자포자기하고 살아왔다”며 “막내 아들에게 줄 옷과 선물을 사고 챙기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잔뜩 기대에 부풀 모습이었다.

1947년 남편이 먼저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해 12월 셋째아들만 친척집에 남겨둔 채 남한으로 내려온 권 할머니는 2년 전 아들인 이병립(61씨가 북한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반백년 세월을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4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에 올라 그동안 가슴졸이며 북의 가족과 만남을 기다려온 김덕옥(78·서울양천구목동) 할머니도 “이번에

는 정말 북에 두고 온 동생을 만날 수 있느냐”며 눈앞에 다가온 여동생(77)과의 재회가 실감나지 않는 듯 상봉 일정을 수차례 확인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가족 상봉 연기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이제 꿈에서나 그리던 동생을 만나게 됐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돌을 갖지 난 아들의 이름만 지어주고 떠나온 게 한이 맺혔다는 이은하(79·서울강북구번동) 할아버지는 “지난해 북측 이산가족 명단을 보니 내가 지어준 이름 석자가 있어 핏줄임을 느꼈다”며 “북의 아내와 아들은 죽었지만 하루빨리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나고 싶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북에 있는 아버지 조석승(75·평양시은정동씨를 만나게 될 조상래(57·여·경기구리시도평동)씨는 “돌아가신 줄 알고 상봉 신청도 안했다가 3차 때부터 적십자사에서 북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지난해같이 상봉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남북한 정부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아바이마을의 실황민인 박입학(75) 할아버지는 “분위기가 점



“할머니 축하해요” 4차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재개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권지은 할머니가 7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집에서 증손녀들의 뽀뽀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최요한기자

점 좋아지고 있으니 통일도 곧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며 “북청, 반천, 봉암 등 함경남도 출신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은 하

무속히 고향에 가서 북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수·이강은기자 katusal9@sgt.co.kr

# “이번엔 진짜 가는 건가요”

## 상봉발표 이산가족 표정

“이번엔 정말 가게 되는 건지...”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북에 두고 온 큰딸 순실(63)씨와 세 동생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는 황선옥(80·여·부산시 수영구)씨는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지난해 두차례 상봉 취소를 겪었기 때문인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해 10월 방북 이틀 전 북측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자 “곧 북안에 가게 될 수도 있으니 평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며 서울행을 고집해 가족들의 애달 태웠던 황씨는 “죽기 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이번엔 반드시 만남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3박4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한 임동원 특사가 6일 “북한 정부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자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잇따라 상봉계획이 무산돼 실의에 빠졌던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은 합의를 반기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다.

황해도 안백 출신으로 1949년 단신 남하한 강일창(76·서울 노원구 공릉동)씨는 꽃본(73·여)씨 등 여섯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난 겨울 취소돼 이젠 못 가보고 죽는구나 했다”며 “이번엔 틀림없이 가는 거냐”고 되물었다.

동생 승동(65)씨와 두 딸을 만날 예정인 오정동(78·경기도 부천시)씨는 “며칠 전 꿈에서 막내딸을 보았



4차 이산가족 방북단에 포함된 강일창(76·㉠)씨가 7일 서울 공릉동 자택에서 50여년 전에 어머니와 외가 친척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 왼쪽은 부인 최보석(68)씨. 최정동 기자

## “며칠전 꿈서 막내딸 봤다”며 반겨 지난해 두차례 취소돼 걱정도

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려 그랬나 보다”며 “50여년 만에 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기뻐했다.

한편 상봉이 지연되면서 불과 6개월 사이에 노환 등으로 북측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게 된 사람들도 있다.

동생을 만나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던 신영익(78)씨는 6일 대한적십자사에 전화통 걸어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혔다.申씨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 포기했다”며 “지난해에만 상사됐어도 동생을 볼 수 있었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방북 상봉단에 선정됐던 김에란

(80·충남 서천군)씨도 지방인 풀다 공증이 악화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申씨의 아들 최성용(50)씨는 “어머니가 혼자 금강산까지 갈 기력이 없어 자식들이 동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북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머니는 이모들을 만나 한을 풀지 못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대한적십자사 고진남 홍보과장은 “이번에는 정말 만나게 되는 거냐고 묻는 이산가족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어타는 이산가족들의 소망이 이뤄지도록 정성을 다해 상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영·남궁욱 기자 <hypark@joongang.co.kr>

# “이번엔 만날 수 있나요”

## ■ 이산가족·실향민 표정

‘막내 이들과 처조카에게 줄 붓꽃까지 장만에 놓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만날 수 있나요’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고 동해선이 연결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6월과 7월, 이산 가족과 실향민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상봉도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주원택(朱元澤·82·서울 도봉구 창동) 할아버지는 7월 북쪽에 두고 온 외동딸 윤숙씨에게 진달래 선물용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에게 “진짜 가야 가나보다라고 느끼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말 3차 상봉자 명단에 포함되기도 상봉계획이 취소되면서 몸져 누워야 했던 권지은(權志殷·88·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씨는 “이번엔 정말 가는 건가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선물 다시 꾸리기도 속초 아바이마을선 ‘동해선 연결’에 들떠

리동) 할머니는 이날 다시 산책에 시작했다. 북에 두고 온 막내 아들 리병립(61)씨 등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다. 둘째 아들 이병조(64)씨는 “어머님은 임동원 특사가 방북할 때부터 T

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향민 1세대들의 정착촌인 강원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동해선 연결소식이 전해진 후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박인택(朴林學·73) 노인회장은 “철도를 타고 원산역에서 내리면 내 고향 북청군 신평읍이 바로 코앞”이라며 “고향 땅을 하루 빨리 밟았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대한적십자사 민방대 남북교류국장은 “적십자회담 재개나 상봉 세부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nobleliar@hk.co.kr 이진희기자river@hk.co.kr

■ 긴급 대담

임동원 특사 訪北성과·전망

# 경제지원 → 평화정착

## 방북성과 예상대로 커

백학순 위원=임동원 특사가 풀어 놓은 방북 보따리가 예상대로 컸다. 교착됐던 남북관계가 임 특사의 표현대로 원상회복될 조짐이다. 우리의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북측이 공감을 표시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북관계는 최고위 선에서 풀어나가는 게 유효하다는 통설이 입증된 측면도 있다. 식량 비료 등 경제분야에 도움을 주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단계를 높이는 윈-윈 관계 이어왔다.

서동만 교수=남북관계가 풀려 북미관계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다는 데 주목한다.

특히 대북 감경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견제할 상황에서 이런 구도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남한이 북미관계의 중

재자 역할을 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한미관계를 의식하는 우리 입장을 반영하면서 북한의 동쪽쪽 이끌어 낸 것은 민족적 차원에서 긍정적 인 구도이다.

## 한반도 전쟁위험 줄어들어

백 위원=철도 및 도로연결 합의가 돋보인다. 경의선 사업을 재개하고 동해선을 새로 연결키로 한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합의대로라면 동·서부 전선에서 동시에 평화가 열리는 셈이다. 특히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키로 한 것은 경의선 연결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합의서'의 조기 서명을 업무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할 경우 한반도 전쟁 위험은 반감할 것이다. 북측이 동해선 연결을 먼저 꺼낸 것은 금강산 관광 수익을 늘리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서 교수=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북미관계의 악화를 억제할 수도 있다. 남북이 구체적인 화해협력의 성과를

내놓아야 미국과 일본에 대북 평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조선인민군의 진격로를 열어 준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남북화해가 불가능하다.

## 김정일 답방 언질 없어

백 위원=이쉬운 점도 있다. 우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대해 구체적 언질을 주지 않은 것 같다. 장관급 회담이 남북대화 의 기본틀인데, 경협추진위 등의 진행에 연계해 열기로 통합했다. 이산가족 교환을 약속했으나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남북화해 성과물 있어야  
美·日, 對北 평화조치 가능  
'北=주적' 개념 오해불러  
'주적=가상의 적' 설정필요**

워드컵과 아리랑 축전을 연계했으면 민족화해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서 교수=아리랑은 북측이 심혈을 기울인 만큼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다. 당국 차원이 아니라 민간경사로 돌리지는 의미인 듯하다. 남북 모두 서로의 잔치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다.

## '민족 공조' 노력 기울여야

백 위원=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민족공조 주장은 앞으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북한이 이번에 한미일 공조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전환적 조치를 취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인식 전환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승리라는 국내적 목표를 위해 대화를 표명하면서도 거세게 북한을 끌어붙일 경우, 남북간에 민족·외세 공방이 재연될 것이다.

서 교수=결국 임 특사가 밝힌 대로 한미일 공조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견지할 때 유효하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견인해 내지 못할 경

임동원(林東原) 특사의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가 복원됐고 확 밀려 있던 북미·북일 관계가 숨통을 뚫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위기로 치달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될 전망이다.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백학순(白鶴淳)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 간의 긴급 대담을 통해 임 특사 방북의 성과와 전망 등을 점검했다.

/편집자주



# 남북 '원원 게임'



**서동만 상지대 교수**

▲46세 ▲상지대 교수 ▲일본 도쿄(東京)대 정치학 박사 ▲저서 '북한 농업 집권화 연구' 등



**백학순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48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 박사 ▲저서 '김정일시대의 국가기구' 등

▶ 우 한미일 공조가 과거처럼 대북 포위망이 될 소지가 있다. 대북문제에 대해 남한이 독자적인 공간을 찾으려면서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백 위원은이해 민족의 이익을 도모할 시점이다. FX 기준 선정과정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남한 내에도 민족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권선서스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이번엔 북측이 제기한 주적문제 해결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북한을 짊어 다니라 회색·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서 교수=원래 국방백서에는 주적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가 새로 집어 넣어 문제가 됐다. 주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나라는 없다. 군사전략

상으로도 구체적인 국가보다는 가상의 적을 지목하는 게 도움이 된다.

## 美와 대화자세 큰 진전

서 교수=북측이 말한 '민족 앞에 단적인 업종한 시대'는 북이 관계를 말한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는 남북의 조인을 받아들이는 합의 형식에 양보했다. 이는 1994년 핵 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중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임 특사는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과 상향하심도 있는 북미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했음 것이다.

백 위원은북한이 적 프라치드 대북 교섭담단 특사의 방북을 수용하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를 받아들인 것은 북미관계를 대화로 해

갈라졌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북미간에는 정치적 신뢰가 없다. 부시 대통령은 도라산역을 방문해 '이 철도를 타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남한이 더 나은 대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임 특사에 게 나팔대로 미국과 대화할 자세를 보이는 점이 중요하다.

서 교수=부시 행정부는 북미간 군사적 갈등 문제를 밀어붙이기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북한은 그 이단로 반포했다. 사실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후 남북관계가 추위였다. 북한과 미국 모두 한 반박씩 물려서서 신뢰회복 조치를 병행하며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백 위원은북한 지도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전쟁은 하

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평가한 뒤 대화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 앞으로 북한에 이 같은 판단과 방향이 옳았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책에 북한이 손을 들었다고 보는 관론이다. 북한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겠으나, 일방적으로 물이세우면 역효과가 나고 위기가 올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 對北전력지원 언급 없어

서 교수=대북 전력지원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궁금하

## 철도·도로연결 합의 군사 신뢰구축 돌파구

## 이산가족 면회소등

## 제도적 장치없어 아쉬움

다. 이 문제는 제네바 합의의 핵심인 북한 경수로 건설과 미묘하게 연계돼 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자 전력보상을, 미국은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의 전력 재공이 북미간의 차이점 매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대북 핵 압박을 강화하면 8월부터 북미간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백 위원은미국은 남한의 독자적인 대북 전력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도 만만찮은 듯하다.

## 北·日관계 개선 모색할 듯

서 교수=북한 관계는 한일 월드컵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되는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일본은 남한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까지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순방 때도 남한과 일본이 미국의 '역의 축' 구도에 공동 보조축 역할을 있었다. 남한과 일본의 대북정책은 이 같은 동북아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김정일 위원장도 이

점을 고려, 동중국해 괴산박 사건, 일본 검찰의 총련계 상호금고 수사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북일 관계를 해소할 움직임을 보인 것 같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난 후 일본이 집단지위권 강화를 위해 북한 위협론을 제기, 대북관계를 뒤흔들 여지는 남아 있다.

## 국내정치 벗어난 인식

백 위원은사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을 통해 탈냉전 시대의 생존전략을 결정했다. 북·북일 관계 모두 부침은 있었으나 개선 쪽으로 갔 것이다. 한미일도 전쟁을 원치 않는 이상 주교 협상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고,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서 교수=이번 특사 회담을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듯하다. 특사 파견은 고도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할

데, 이번처럼 위기 상황일 때 남북의 지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다. 일부에서 회담결과를 비난한 것은 병진적 대입관계를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특사 파견을 계기로 상황이 호전된 만큼, 이를 실패시키는 공격적 자세가 절실하다.

백 위원은이당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회담의 성과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남북갈등은 개혁과 이념에 대한 입장, 지역주의 등 미묘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현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에 상한선의 걸여도 실효가 떨어진다. 한반도 긴장완화, 화해협력은 주변국도 관여하지만,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주체는 우리 민족인 남북이다. 남한이 먼저 흔들려선 북미관계 등 주변 변수를 극복할 수 없다.

/정리=이동준기자 djl@ch.ko.kr  
사진=홍인기기자

전문가에 듣는다

남북관계 복원

# “對北 대화 주도권 잡을 기회”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은 한반도 안정의 한축인 남북관계를 6·15 공동선언 상태로 복원시켰으며 동시에 또 다른 한축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고유환(高有煥·북한학) 동국대 교수와 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7일 대한매일이 마련한 좌담에서 “북한은 김대중(金大中) 정권 임기말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에서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교수는 특히 “경의선 복원 재합의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담판을 위한 ‘물리적 전제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담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임동원(가운데) 대통령특사가 3박4일간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6일 오전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대중 대통령, 왼쪽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관이다.

●사건공동취재단

## 北, 美압박·경제위기 심각 판단 “남북대화로 탈출구” 방향 잡아

●고유환 교수는 남북이 경의선 복원 등 6개항에 합의하고 미국과의 대화할 수 있을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구도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9·11테러사태 이후 전개된 국제사회 흐름에 적응하는 과정에 거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경제 회생을 모색하기로 큰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동용승 팀장 남측의 경제지원율 노린 ‘한 건주’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위협을 남한과의 공조를 통해서 돌파하기 위해 이번 특사 방북을 받아들였다.

●고유환 합의의 초점은 민족공조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맞춰져 있다. 북한은 김대중 정권이 맡기고 남북관계가 장기 정체됨에 따라 6·15 선언의 이행에 상당한 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우려한다. 북한은 남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꺾별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북한은 한나라당의 대북노선을 줄곧 비판해 왔다. 특히 부시 미 행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에 이은 한·미·일 3각 보수연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용승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이 북한체제에 위협적임을 감지하고, 남쪽에 부시 행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정부가 들어서서는 사태를 염려하고 있다. 현 정부와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

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점에서 남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입지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고유환 6·15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큰 흐름은 한·미 공조에서 민족공조로 옮겨지고 있다. 이번 합의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남북 공조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임 특사가 5시간동안 한반도 경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철도 연결에 주목해야 한다. 서부 지역 경의선은 통일 상정성 부분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고 동부지역 동해선은 경제적 의미가 강하다. 사베리아 횡단철도 등 금강산 사업 활성화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서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 외에 장거리 여행시 열차편을 주로 이용하는, 김정일 위원장 담방의 물리적 전제조건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위원장의 담방 가능성을 시간적·물리적으로 열어두는 조치로 보인다. 김정일 담방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이다.

●동용승 특사교관은 장관급 회담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구제 일감합의 등이 나오는 것은 무리다. 물론 2차 경험추진위가 열린다 해도 대북 지원 규모 및 시기 등 참여 할 난제들이 많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도라산역에서 언급한 이산가족 문

제 및 경의선 연결 등 2개 사안에 대해 북한이 이번에 응답을 한 것은 미국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다.

●고유환 북측은 미국의 대북지지를 확인, 협상에 나설 시점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잭 프리처드의 방북을 수용한다고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었다.

북한은 제네바합의 합의문에 따른 전력 보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엔 ‘카드’이긴 하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님을 북한은 안다. 경수로 건설과 연계된 핵사찰은 선택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제의로 이뤄진 지난달 20일의 뉴욕집중을 북·미 대화 시작으로 봐도 된다. 북·미 관계는 북한으로선 부차적인 문제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직십지회담 등에 일단은 나섬으로써 50만 식량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내 여론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다.

●동용승 경험은 지난 10여년간 진행돼 왔지만 한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좋으면 자본은 자연스레 쏠린다. 당국간 회담이 선행돼 제도적 장치 및 사회간접시설을 마련해놓고 추진해야 할 문제다. 개성공단 건설은 남북경제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고유환 북측이 경제시찰단을 받아들인 것은 자본주의 학습과 개방의지와 연결된다. 사상 해방과 지도자의 신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경협이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다.

철도와 관광개발 등은 빠르게 진척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민족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의미가 있다.

●동용승 너무 빠른 속도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체제 특성상 남북한이 각각 가진 시계가 다르다. 경제시찰단의 경우 대규모 공장시설을 보여주거니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현재 유럽연합 등으로 보내는 유학생을 남쪽으로 오게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고유환 사실은 협의가 얼마나 이행될지가 문제다. 지난해 5차 장관급 회담때도 유사한 합의였으나 다시 정체국면에 빠졌다.

미국의 대북 입장과 대선 상황에서의 남남갈등, 이에 대한 북측 반응 등 손조로운 이렇듯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 정권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경제의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했으면 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고유환  
동국대교수  
북한학

김정일 ‘담방카드’ 아직 유효  
미사일등 북미대화 나설것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경협 제도·시설 선행돼야  
北유학생 南유치 모색을

林특사 訪北 이후 남북관계 전망 • 전문가대담

# “한반도문제 당사자 해결 轉機”

**남** 북관계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다시 본격화에 움직이게 됐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임학백(任學伯) 교수와 김일성종합대 교수 출신인 조명철(趙明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 연구위원이 7일 좌담을 갖고 이번 특사회담의 의미를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를 전망했다.

▲**임학백**(이하 임)=미 대러 사태, 부시 미 대통령령의 '악의 축' 발언 여파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이 성과를 올린 바탕에는 지난 2월 한·미 정상회담이 깔려 있다. 북한은 임동원 특사를 통해 미국의 뜻을 파악하고 대화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동시에 차기 정부에 대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초를 유지해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金, 美대외정책 이해 높아져

▲**이종석**(이하 이)=남북 및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일정하게 조성됐다. 2003년 한반도 위기로 대표되는 긴장 국면으로 향하던 열차가 신뢰하게 됐다. 북한은 그동안 남쪽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를 원했지만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신뜻 나서지 않았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임동원 특사와 만나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 같다. 김위원장의 대남, 대미 관계에 대한 눈높이가 변화가 생겼다고 본다.

▲**조명철**(이하 조)=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갈등을 풀어나간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였다. 하지만 남측은 이번에 적극적인 해결을 지원했고 결국 북·미간 대립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열었다.

북한 역시 이 과정에서 한·미를 하나로 보거나 한국을 미국의 종속 변수로 간주하지 않았다. 북측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남측이 그만큼 상호의존적 관계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고 싶다. 남북한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미국의 정책이나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임**=도그마처럼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북한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화의 길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조명철**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북의 대화 통해  
북정세에 영향



**임학백**  
고려대 정치외교 교수  
경의선 통린다면  
이해관계 비피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눈높이 변화  
필요한 긴장 풀린  
위기에 대비

것이다. 북한은 이제 '미국 아니면 남한' 하는 식으로 어느 한쪽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병행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임특사가 김위원장에게 책 프러치드 미 국무부 대북고립대사의 방북을 제안한 데서 나타나듯 이번 회담은 한·미가 하나가 돼 북한과 대화한 셈이다.

▲**이**=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북측 논리로 보면 북은 더 바빠 여지가 있었다.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바람 끝에 풀리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대화에 나섰다. 북한이 '예방적 측면'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분명하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南北 - 北美 신뢰회복이 관건

▲**조**=대화에는 크게 네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또 대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무기 값이 떨어지고 군사훈련 하면서 대화하겠다는 하한선 곤란하다. 다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대화 내용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성과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그간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뿐 아니라 북·미 대화의 료이 마련됐다. 남측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김정일 위원장이 5시간이나 임북회담 만난 것을 중시해야 한다. 김위원장이 그만큼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가 현재화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2003년을 내다봤다면 1994년 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여겼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위협이 '종이 호랑이'가 아닌 실제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을 수도 있다.

▲**조**=생각이 조금 다르다. 북한은 현 상황을 최악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이 없는 게 이점 입증한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우리는 남쪽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 판을 깨려고만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미국의 대북 탄성을 차단하려 한 것이다.

▲**이**=공통보도문에 군사담화회담이나 경의선 연결 임정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산가족 상봉처럼 남자가 박힌 것은 급격한 상황 변화만 없으면 이행되겠지만 군사회담은 그렇지 않다. 특사회담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 합의깬때 '北불신' 극대화

▲**임**=북한이 앞으로 신경써야 할 대목이 있다. 지난 해 가을 5차 장관급회담 때처럼 백화점식으로 합의해놓고 또다시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는 바닥을 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이 중요하다. 단순한 경험 사안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이 끊린다면 이른바 '과주기' 비관은 속 떨어갈 것이다.

▲**조**=남북관계에서 심천은 늘 쉽지 않다. 북한이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의선이 좋은 예다. 우리는 북측이 몇번만 연결하면 된다고 가볍게 말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방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북측 경의선 공사 비용과 관련해 북한이 원하면 우리가 앞으로 북측에 내야할 철도 이용료와 미리 상계하는 방식의 투자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이 철도 사용할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식으로 들어오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동태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리 / 최재영기자  
cyoung@kyunhyang.com

# 北·美대화 빚장 열리나

## 北, 프리처드대사 訪北권고 수용 앞길 험난... 내달 대화재개 될듯

지난해 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래 단절됐던 북미 대화가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조만간 재개될 조짐이다. 그간 북미 관계는 북한 정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주류인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냉각되기 시작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후 지난해 6월 부시 대통령이 대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1월 연두교사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자 대화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잭 프리처드 대

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 권고를 수용한 것은 일단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을 의미한다.

북미 대화와 관련, 미국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조건 없는 대화"를 재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일단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북한이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고 프리처드 특사의 방북을 요청하기만 하면 양측은 본격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될 전망이다.

대화 재개 시기는 여러가지 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러야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관계자는 "당사자인 프리처드 특사가 8일부터 이틀 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3자 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참석 후 중국 베이징에 들르게 된다"며 "베이징에서 모종의 접촉을 하든지 혹은 워싱턴에 귀임한 후인 다음주 초거나 뉴욕 체납을 통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달에는 아리랑축전 등 북한 내부 행사가 많다"고 지적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추진 위도 5월 7일 열기로 한 점으로 미루어 북미 대화 재개는 그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막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 서울경제 ▶

2002. 4. 8 (월)

## 남북경제협력 준비 활발해질듯

### 국내 경제

목마른 대지가 오랜만에 단비를 만나 갈증을 씻어냈다. 경제도 여러 악재를 말끔히 씻어 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최근 한달간 국내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발전산업의 파업이 끝나 발전소 운영도 정상화되고 있다. 또한 급등세를 보이며 거품 논쟁을 낳았던 부동산 시장도 정부의 기준시가 인상으로 안정국면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유가도 지난주 후반부터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고 있다.

이달부터는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주부터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준비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 양측이 5월 중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한 만큼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 건설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의 핫이슈는 나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조만간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는 가계대출 억제에 한은의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탓에 획기적인 내용의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발표한다. 이미 감독원은 주채무계열 대상 대기업 집단을 기존 60대 그룹에서 35대 그룹으로 축소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중견 대기업 그룹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자부는 8일 일본기업들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일 다국적 기업 지역분부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경경제부는 11일 3월중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관심을 끈다.

임시국회가 8일 개최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핵심 현안인 예보체 차환 발령에 대한 동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장 선임도 관망거리다. 현재 외환은행 행정후보 추천위원회는 연쇄회의를 통해 후보군을 계속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주중 행정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2野 “밀실·이면 거래 밝혀라”

### “핵·주적론 어떻게 대응했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의 방북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임 특사는 방북 중에 북한과 논의한 모든 문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6일 “남북 공동발표문은 기존 합의사항 중 북한에 의해 파기된 것들을 다시 이행한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김정일의 서울 담방 등 압박소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밀실·이면 거래를 했는지 밝혀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식량, 비료, 전력 등을 얼마나 파주기로 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인권문제에 대해 제대로 언급했느냐, 북한의 주적론 폐기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집”이라고 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북측이 우리 측에 대해 주적론 철회를 주장하는 등 아직도 그들의 대남전략선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임 특사는 이런 북한의 어불성설적인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묻고, “임 특사는 이번 방북기간 중 북측과 논의한 내용과 합의된 문제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宋東勳기자 dhsong@chosun.com

## 朝鮮日報

2002. 4. 8 (월)

## 2野 “모든 논의 투명하게 공개를”

### “핵·인권·주적론 밝혀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의 방북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임 특사는 방북 중에 북한과 논의한 모든 문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기존에 합의됐다가 북측에 의해 파기된 사항들 중 몇 가지를 다시 이행하지는 않는 합의만 했을 뿐”이라며 “결단 요란하고 실속은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되풀이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인권문제에 대해 제대로 언급했느냐, 북한의 주적론

폐기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며 “임 특보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북측이 임 특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측에 대해 주적론 철회를 주장하는 등 아직도 그들의 대남전략선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 특사는 이런 북한의 어불성설적인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묻고 “임 특사는 이번 방북기간 중 북측과 논의한 내용과 합의된 문제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宋東勳기자 dhsong@chosun.com

## 東亞日報

2002. 4. 8 (월)

### 野 “밀실 이면거래 없나”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7일 임동원(林東源) 대북 특사의 방북결과에 대해 “결단 요란하고 실속은 없는 외화내빈이 되풀이된 것 이어서 실망스럽다”며 “공동발표문 내용 이외에 무슨 ‘밀실 이면거래’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문제는 건성으로 다룬 것 같고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절실한 인도적 현안은 말도 못 꺼내고 돌아왔으니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고 물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 한국일보 2002. 4. 8 (월)

## 野 “北과 뒷거래 없었나”

### 對北지원여부 공개요구

한나라당은 임동원 특사의 방북으로 남북 대화의 교류 재개의 길이 열린 점을 평가하면서도 양측의 합의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였다.

남측이 합의의 대가로 대북 추가 지원을 약속했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담방 등을 위한 뒷거래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

이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7일 “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회담과 북일·북미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임 특사는 5시간이나 계속된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무슨 대화가 더 오갔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 중앙일보

2002. 4. 8 (월)

## 한나라 “北과 밀실·이면거래 밝혀라”

한나라당은 7일 임동원 특사의 북한 방문과 관련, 대북(對北) 이면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남경필(南景弼)대변인은 “남북 공동발표문은 기존 합의사항 중 북한에 의해 파기된 것들을 다시 이행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김정일의 서울 담방 등 압박소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발표문 내용 이외에 어떤 밀실·이면 거래를 했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강두(李康斗)정책위의장은 “국민

이 궁금해 하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특사가 제대로 지적을 했느냐는 것인데, 설명이 없다”며 “특사는 발표문 외에 북한측과 무슨 말을 나눴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쌀 30만t 추가 지원 여부를 향후 협상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일 기자  
<leesi@joongang.co.kr>

# '이산상봉' 주내 실무접촉

## 北 아시안게임참가 적극 협의

### 정부 특사방북 후속대책

정부는 8일 이번주 중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교향방문의 세부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기로 하는 등 임동원 특사방북의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관련기사 8면>

정부당국자는 28일 열리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간 합의의 첫 일정이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방문단 선정작업을 재점검하고,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조아래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과의 실무협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5월7-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김현추진위와 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 임진강수해 방지 실무협의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군사당국자간 회담 등 일련의 남북대화체제의 본격 가동을 위한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열어 협상의제를 점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는데 대해 북측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관련 협의도 북측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 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대미·대일 대화의지가 확실해짐에 따라 8-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미 양자협의와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1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 등에서 한·미·일과의 대북공조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사 방북이 합의사항을 보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북·미간, 북·일간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의동기자

phil21@nurihwa.co.kr

### 설왕설리

남북을 잇는 철도라면 경의선이 우선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동해북부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원래 동해선(정확히는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해안선을 따라 양양에서 함경남도 원산에 이르는 철길이다. 1937년에 개통되어 6·25전쟁의 포화로 사라지기까지 영북지역과 서울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나 지금은 금강산철도로 이름조차 생소하게 바뀌었다. 동해북부선이 지나는 길에는 금강산 외금강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초등학생들은 봄 가을 소풍을 으레 금강산으로 쉽게 갈 수가 있었다. 일제가 이곳에 철도를 놓은 것은 관광 및 강원지방의 자원을 운반하기 위해서였다. 함경남도 안변에서 동해안을 따라 강릉 삼척 포항까지 물자를 수송하자

### 추억의 동해선

는 전략이었다.

동해선철도 및 도로가 남과 북을 연결하게 됐다. 동해선 연결은 처음으로 제기된 제안이었지만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금강산 관광과 물류교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동해선은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고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다. 현재는 남측의 강릉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27km와 북측의 온정리에서 18km가 끊어져 있다. 만약 복원이 된다면 철도와 함께 국도는 남북을 잇는 양대 축이 된다.

최근 북에서는 원산-금강산 철길을 개통한 데 이어 전철화공사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철도는 동해안 여러 군(郡)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동해선 연결사업은 아직도 남북경협추진위와 군사당국자회담을 거쳐야 한다. 금강산 관광열차가 달리기를 기대한다.

申瑛均, 논설위원  
ckshin@sgt.co.kr

#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GOMIN

2002. 4. 8 (월)

# 이산상봉 규모·경비논의 이른 시일내 연락관 접촉

## 韓赤, 본격 준비 착수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남북한이 합의한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한직은 남북공동보도문 발표된 직후 지난해 10월 남북이 이미 확정해둔 상봉대상자 및 가족 명단의 변동사항을 점검했다.

한직 관계자는 "재정 김길과 상봉대상자 중 1명이 몸이 불편해 방북 포기 의사를 진해왔으며 1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봉자 가족중 일부는 금강산행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지만 신청을 받을 때 숫자를 흥분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방식과 세부일차. 양측 합의 내용에 구체적 사항이 언급돼 있지 않은데다 상봉 자체가 금강산 한 곳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규모와 경비 부담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한직은 이른 시일 안에 판문점에서 직접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11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때 합의가 이뤄졌던 100명의 순차 방문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남측측 100명이 금강산으로 가서 북한의 가족을 먼저 만나고 돌아온다. 이어 1주일 정도 안에 남한에 사는 가족이 금강산을 찾아가 북한의 상봉대상자 100명을 만나는 방식이 그것이다.

순서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금강산의 숙박시설 등을 감안할 때 상봉자와 그 가족, 지원인력, 취재단 등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어렵다. 또 상봉가족의 수를 현재의 대상자 1명당 5명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봉장소가 금강산으로 정해짐에 따라 서울과 평양의 숙박비와 식비를 각각 분담하던 경비부담 방식에도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직 관계자는 "구체적 상봉 절차를 놓고 아직 남북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그러나 가장 시간이 걸리는 대상자 명단이 확정된 상태에서 28일 상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구기자 egkim@kmib.co.kr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 韓-美-日 ‘조율가속’

임동원 특사 파견 이후

### 대북정책조정회의 가동 北-美 대화 재개에 초점 北-日 회담 조만간 개최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발발음이 흘러들었다. 김영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인사보좌기 북·미·북·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3국이 대북 정책을 새로 조율하기 위해서다.

도쿄에서 8일 시작된 한·미·일 남북정책조정장관그룹(TOCC)회의는 이런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모임이다. 회의에는 이대식 외교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나카기 히로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도 참석했다. 이어 최성용 외교장관이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미국무장관과 회담한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6일 부터 북한을 방문했으며, 9일쯤 베이징 갈 거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차출하는 부분은 북·미 관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적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담당대사의 방

북 시기와 프리처드 대사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대화 재개 시점이다.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과 북·미 대화 재개 시기가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과 북·미 대화 재개된 것이라는 전망이 없지 않지만 미국내 협의과정과 예비접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담 또는 내담이 아닌 가능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북한은 체제 안정과 김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문제 등 각각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등 북·미가 시건어 조율된 의제가 만만치 않아 대화가 상사되기까지 광범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이러한 측면이 이달 말 시작되는 대. 남북 관계 행사가 내담까지 이어져 계획되어 북한이 대미 관계개선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임분축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김정일 위원장이 북·일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한 점을 설명하면서 북·일 대화를 둘러싸고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려던 중단됐던 김수환 북한 보건의장과 사기구사 지카라 일본 유생노동상관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구기자 egkim@kmb.co.kr

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 경협추진위 ‘큰 그림’

내달 7~10일 서울 개최

### 1년5개월만에 2차 회의 임진강 수해방지구대상 4대 합의서 발표도 논의

임동원 특사의 발족을 계기로 6일 발표한 남북경제공동발전 4항에서 언급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동보도문은 남북 대화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면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6월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2월 제1차 회의 이후 지난해 2월 열렸던 제2차 회의가 1년5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경추위는 남북한이 2000년 12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기로 합의한 남북협력의 중심체로, 남북한 각각 차관급 위원장 1명과 함께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남북 위원장은 윤진식 재정부 차관이며 통일부 권교주 차관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북측 김수로 위원장은 박정현 국가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남측 김수환 사업(차관), 국토환경보호성, 철도

성 국장 등이 위원으로 돼 있다.

2차 경추위에서는 제1차 회의에 비해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 방지구대 등이 우선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건립계획을 비롯한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구대 등의 분야를 토의했으나 가장 쟁점이 됐던 건립계획문제의 관련, 남북단간 협정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한은 이후에도 전체 회의, 위원장 접촉, 실무협상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했으나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을 위해 공사인정과 사업비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회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경추위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2000년 말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무자보장, 이종교서 방지, 상사 분쟁, 청산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경제 4대항의서도 발효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된 전망이다. 남한의 경우 4대 경제 합의서가 현재 국과 통일외교부장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북한의 경우 핵의 국화 비준에 맞춰 최고인민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 지난해 북한 상인의 제주 영해 통과문제도 논란이 됐던 민간선박의 영해 통과를 보장한 해운합의서, 동해 공동어로 등도 경추위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배영우기자 bwbae@kmb.co.kr

## 國民日報

THE KUMIN DAILY CHORON

2002. 4. 8 (월)

## 문화일보

2002. 4. 8 (월)

## 북 ‘先美後南’ 전략 바꾸나

남북-북미 대화등 병행 천명... 전략적 자세 주목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 특사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과 함께 북·미, 북·일 대화를 병행하기로 함에 따라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는 북의 기존의 대외전략에 변화가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동원은 지난 6일 방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추진 의사를 밝히고 적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사의를 수용할 것을 권고한 우리 의 권고를 받아들여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새정부와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권고에 공감, 곧 발령된 행정부와의 협상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조지 W 부시행정부의 접근방식을 수용했다.

남북대화의 재개는 물론 남한의 권고와 중재를 받아들여 북·미 대화 의사를 권명 한 북측의 태도는 주목할만한 변화다. 그동안 북한은 급린턴 행정부 들어 북·미관계 개선을 피해오다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가 검색국면에 접어들자 남북대 회까지 한동안 중단했다. 대미관계 개선을 대외전략의 기본축으로, 대남관계를 보조축으로 삼았던 북측 대외전략의 관성이 재연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사방북에서 북측은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지속을 바라는 뜻을 피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남북협의를 잘 살펴보면 아직도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지렛대’로 여기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경의선 연결사업의 착

공시기가 합의되지 않았고 군사당국자회담도 원칙합의 수준에 머문 것은 군사적 북·미, 북·일 대화의 진척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백’을 채워나가겠다는 합 의로 풀이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정치군 사 등 반진직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는 북·미간에 논의해야 한다는 북측의 관심이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의 평가기준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에서 찾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북한이 결국은 진척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북측이 김의선외에 동해안 연결까지 합의한 것은 김의선외에 동해안 연결만 합의하지 않는 조지 W 부시행정부의 접근방식을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향후 북·미 대화는 프리처드대사가 이끄는 임동원 남북, 부시행정부의 대화복합을 북측이 설명하는 정치작업을 거친 뒤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프리처드간의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계관-프리처드 채널을 통해 북한과 미국은 대화의 일정과 의제 등 밀그림을 그린 뒤 반이탈회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대화의제 가 핵심작 조기수용, 미사일 수출·개발중 단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의 해결과 경제사면 문제 등 북한체제 존립과 직 결되는 사안에서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기자 phn@kumhwa.co.kr

# ‘北으로 가는길’ 기대半 관망半

재계 남북경협 분위기

경제단체, 창구 개설·조사단 파견 추진 불구

임동원 특사의 방북에 이은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계는 현안 중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남북경협 사업은 북·미관계 악화 등 주변상황이 나빠지고 투자보장 등이 실현되지 못하자 지난해 사실상 전면중단 상태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번 임특사의 방북으로 다음달 7일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에 관한 논의가 예상되는 등 남북경협은 또 한번의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창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진경련은 오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총장을 초청해 남북경협위원회를 열고 남북경협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북한

## “4대 합의서 현실화되기 전엔 불확실성 많다”

서점 조사단 파견 계획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주요 기업들도 중단됐던 대북 경협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은 경협 추진위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조차공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이 착공되면 현재 공단 입수에 관심을 모이고 있는 국내 300여개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I.G SK 한화 등 대기업들도 잠정휴업 상태였던 대북사업들을 다시 정비하고 사업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움직임은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다. 현대아산 경협사업팀 관계자는 “주변 분위기가 풀이지니까

경협이 나아진 거라고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워낙 불발민수가 많아 아직은 사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2000년 말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종과 세방지, 반쟁해결집차 등 4대 합의서 내용에 대한 양측의 비준 및 실행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교역 등 명실상부한 남북 경협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경련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산재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며 “경협현실화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 내용의 실천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남중기자

### 양양~원산 연결... 6·25로 운행중단

#### 북원 합의 '동해북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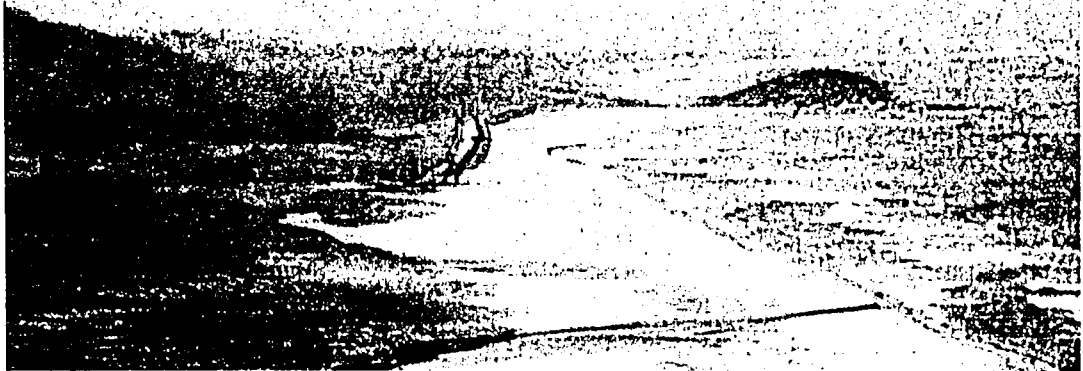
남북간 북원 합의로 동해북부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해북부선은 1937년 개통해 1950년 6·25 사변으로 운영을 중단한 양양과 원산을 이어주던 철도이다. 원래 일제가 관북지방과 강원도 지방의 지하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강원선의 안변역에서 동해안을 따라 강릉과 삼척을 지나 부산까지 연결하려고 시작했던 철도로 1929년 9월11일 안변

~흡곡 사이가 개통된 뒤 1937년 12월1일 양양까지 개통됐다.

총연장 250km에 23개 역이 있었으며 양양읍 청곡리를 출발, 낙산역-물치-속초-진천-문암-공현진-간성-조구역을 통과한 뒤 북한땅에 들어서 북고성-삼일포-외금강-강진-동천-안변역 등으로 이어졌다. 1945년 광복으로 인해 양양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부산까지 연결하려던 동해북부선 건설 계획은 강릉까지도 연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됐다. /춘천=이시영 기자 sylvia@munhwa.co.kr





7일 오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동해안. 반세기 만에 이곳을 지나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가 뚫리면 동해 북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전망대=서영희기자

금강산 관광, 갈때는 육로로 올때는 뱃길로...

# 속초지역 '북한특수' 설렌다

## 남북 철도-도로 복원 발표후 지역경제 활기

남북한이 휴전선 부근 동해안 철도·도로 복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 속초 등 강원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특히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이 시작된 후 관광객이 늘기 시작하자 남측 출항지인 속초항은 침체에서 벗어나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

7일 낮 12시30분 속초항. 학생과 교사 심향민 등 관광객 291명을 태운 선봉호가 고동울 울리며 북녘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 이후 2번째 출항인 이날도 갑판에는 손을 흔드는 심향민과 교사,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지난 4일 첫 출항 때는 정부지원을 받은 대학생과 심향민 등 216명을 포함해 관광객이 무려 551명에 달해서 관광객이 급감으로 한때 운항 중단위기를 맞았던 최악의 침체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오는 10일과 13일로 예정된 3차와 4차 관광 예약인원도 8일 현재 각각

530명과 5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금강산 관광에 나선 한 초등학교 여교사(30)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장선생님과 상의해 사실상 선발대로 떠나는 것"이라며 "먼저 가서 코스를 파악 후 학생들을 인솔하고 다시 금강산

## 관광예약 부쩍 늘어

## 최악 침체상황 벗어나

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대아산관계자는 "정부 지원방침 발표후 학교마다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학과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원신청이 본격화되면 관광 비수기에도 금강산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속초시 한 주민은 "현재 2박3일인 금강산 관광인정을 김씨가 좀

더 들더라도 3박4일로 조정해 설악권에서 하루를 묶고 갈 수 있는 방안 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어리가지로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일 남북한의 동해안 철도·도로 복원방침 발표는 속초 등 설악권 지역주민들에게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불어넣고 있다. 이미 지난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과 남북한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될 경우 속초 지역이 대북 물류기지 내지 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속초항의 회전 주인 김모씨(40)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속초 지역경제가 좋아진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반겼다. 속초시 관계자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면 관광객들이 갈 때는 기차와 자동차를 타고 올 때는 배를 타고 바닷길로 와 설악권을 관광하게 될 것"이라며 속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속초=변영주기자 yzyou@kmb.co.kr

# 대한매일

2002. 4. 9 (화)

# 朝鮮日報

2002. 4. 9 (화)

## 北에 쌀 30만t 지원키로

차관형식으로 제공  
비료 20만은 무상

정부는 북한이 임동원(林東源) 독사 방북과정에서 식량·비료지원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 쌀 30만t을 차관(借款)으로, 비료 20만t을 무상으로 각각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대북(對北) 쌀지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마린된 공감대를 토대로 예년의 사례를 준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경제협력추진 위원회에서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기기자 ginko@chosun.com

# 世界日報

2002. 4. 9 (화)

# 北에 쌀 40만~50만톤 지원한다

빠르면 5월... 당초 계획보다 10만~20만톤 늘어

비료 20만톤은 이달중 북송

조만간 쌀 40만~50만t과 비료 20만t이 북에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8일 기준에 지원키로 한 쌀 30만t에 10만~20만t을 추가

40만~50만t에 달하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농림부 관계자는 북관에 쌀을 보낼 경우 지원시기는 국내 쌀 가격이 어느정도 하락이 드러나면 7월쯤이 유리하지만 오는 5월로 예정된 남북

## 환영! 春來不似春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정세현 통일부장관



민'에 '푸름을 푸름을 들어마 시며 터지는 여 밥을 향해 우람 한 웃음을 중 비하리라는 구 절이 깎여있디 라."고 대꾸를 해주고 돌아시

절기상 봄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을씨 년스럽거나 꽃이 디디게 핀 때 춘래불사 춘(春來不似春)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남북관계가 막 막히 있던 시절, 우리는 춘래불사춘을 읊조리곤 했다. 그런데 요즘 나는 춘래불사춘이 꼭 어울리기나 답답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봄이 왔지만 봄 을 즐길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때 도 춘래불사춘이라는 말만 가지기 때 문이다.

요즘 신문·TV에서는 예년에 비해 봄이 일찍 찾아왔다고 하면서 봄꽃이 만 발한 명승지의 상춘인파를 소개하고 있 는데, 남북회담사무국이 자리잡고 있는 삼청공원 주변에 목련과 벚꽃이 흐드러 지게 피어있는 때에 대통령 특사의 방북 이 선사되었다. 그 동안 "얼음장 밑으로 도 봄은 온다."고 하면서도 사실 조금은 초조했던 나로서도 이제는 즐거운 마음 으로 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막상 일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서 한가롭게 꽃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 는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없어졌다. 이 제는 업무상, 직책상 춘래불사춘이 된 것이다.

그런데 특사가 방북으로 떠나는 날 아 침한 일본기자가 약간은 부정확한 발음 으로 "지난 번 신문에 쓰신 대로 얼음장 밑으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지 않 아도 봄이 무르익기도 전에 '광화문 굽

면서, 남북관계가 그렇게 되면 진짜 또 다른 의미의 춘래불사춘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남북관계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뜻의 춘래불사춘은 얼 마든지 환영이다. 랑군사건이 있고 난 뒤인 1984년 4월부터 6월까지 LA옥린 리к 단원팀 남북체육회담'이 세 차례 열 린 적이 있다.

그 때 우리는 두달의 동안에 보름 걸 도, 그나마 자정 밤이 되곤 했을 때 부상을 사무실에서 지냈다. 봄이 오고 가는지, 여름이 오는지, 비가 내리는지, 춘풍이 부는지, 더위가 오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밤이면 삼청공원과 북 악산에 올라 피지는 소위새의 창랑한 울 음소리만은 귀에 꽂혔고, 그 소리로 피 료를 씻으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

체육회담은 비록 결렬되었지만 그후 남북간에는 수계문화회담, 직실자회담 및 이산가족 산보, 국회회담 등이 이어 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총리회담 과 남북기초합의서 채택이 진척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금년도도 봄이 가는지, 여름이 오는지 모르게 일을 하다 보면 남북관계에는 분 명 춘풍이 불고 우람한 웃음들이 터지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10여년 전에 비해 이제는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축적이 어 무어졌기 때문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지난해 10% 증가했지만 인구증가와 국제사 회의 지원감소로 수요안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을 세계식량계획 (WFP)을 통해 지난해 81만t 보다 25% 줄여준 61만t의 지원을 요청 하고 있으나 한국을 제외하면 마은 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기자 kbs@sgt.co.kr

# 北에 쌀40만~50만톤 지원

北서 요청... 당초 30만톤보다 추가 검토

## 비료 20만~30만톤도 조기 지원키로

정부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올해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앞 초 예문 수립을 거친 30만톤에서 40만~50만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측은 이번 특사회담에서 인도적 지원의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정부보유미 30만톤을 기본으로 하되, 옥 제고 쌀 500만석(약 72만 톤)의 범위 안에서 북측 사정과 합의 사항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속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권런기자 4면

이 당국자는 이어 "식량은 다음달 6~1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경제추진위 협상을 통해 자관 형식으로 지원될 것"이라며 "한나라당 등도 식량난해과장의 투명성을 전제로 대북 식량지원에 사실상 동의한 상태"라

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북 지원 후 남은 재고쌀을 주경 진분이나 사료 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특사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동시에 국내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 특사는 6일 귀한회견에서 "북한 당국과 인민들이 (남측의) 식량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옥수수 10만톤을 포함하면 올해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최대 6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측이 파종기를 맞아 요청한 비료도 20만~30만톤을 직접자사를 통해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 北에 식량30만t 지원

정부, 새달 經推회의 거쳐... 비료20만t도

김대통령, 합의 실천대책 지시  
韓美, 프리치드 방북시기 조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과 관련, "모든 합의가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어 "김의산은 인내에 연결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차가 평안과 신의주를 지나 중국 대륙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과 귀제간·간경요원 등 모두 150명이 먼저 금강산으로 가 북한 거주 가족과 친척을 만나며, 이어 내달 1일 북측 상봉단 100명의 북한 거주 가족 및 친척 500여명이 금강산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대한직접자사에 따르면 정부와 한측은 9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마련한 뒤 12일쯤 판문점 남북연락관 접촉을 갖고 세부 일정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식량·비료 지원과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토대로 예년의 사례를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 차관할대의 식량 30만(어 5월 7~10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원되고 비료 20만(은 이르면 이달 말 지원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은 이날 도쿄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등 일교 북·미 방북·일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착수했다. 특히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와 제임스 캔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김성현(金星顯) 북미국장과 프리치드 미 대북교섭 담당대사는 오후 양자 회담을 갖고 프리치드 대사의 방북 시기 등을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봉원 김수진 전영우기자  
poongym@kdaily.com

# 한겨레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28일 100명·내달1일 500명

## 비료 20만t·식량 30만t 지원

정부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진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남북 이산가족 100명(지원인원 50명 방북)을 보내고, 다음달 1일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500명(지원인원 100명 방북)이 재북가족 100명을 만나게 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 때 북측이 요청한 비료·식량 지원과 관련해 비료는 20만t, 식량은 정부 보유미 30만t 남짓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상봉은 전례가 없어 필요하다면 금강산 현지 답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봉 방식은 1~3

차 교환방문 때 '평양상봉'과 '서울상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은 2박3일씩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일 관계기관 남북대책회의를 여는 등 이번주 내 정부안을 경제 북측과 관련된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상봉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對北지원 ‘붓물’ 터진다

## 林특사 訪北계기 여건호전

입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과 남북합의를 계기로 정부 및 민간차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붓물터지듯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지원이 뜸했던 것은 9·11테러 이후 야기된 남북관계 및 북미, 북일 관계 경색 때문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임 특사의 방북시 (식량비교 지원 관련)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예년의 지원사례를 참조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쌀지원을 단조 예상한 30만t에서 10만~20만t을 더 있어 40만~50만t 규모로 차관형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나라당도 세고량 처분문제를 들어 대북쌀 지원을 동의하고 있다. 비료는 지난해 수준의 20만t을 임무에 두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질차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5월7~10일)가 열리자마자 즉시 비료를 선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 전담 시기는 북한의 파종기를 감안, 이르면 4월도 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임 특사가 방북을 추진중이던 지난해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옥수수 10만t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미국도 긴급 지원키로 한 식량 10만5000t 가운데 5만5000t을 4~5월중에 우선 전담키로 했다. 일본은 ‘남북자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식량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재개되면 곧바로 선적에 들어갈 태세다.

일본은 식량 50만t 정도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한반도긴장완화 상태를 보고 1900만유로(약

223억원) 상당의 비료와 100만유로(약 12억원) 상당의 농업기술을 북한에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한반도 해빙무드를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일어났던 지난 2월 대북지원은 28억5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민간단체들은 이제 지원 보따리를 시시히 풀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은 올해 100만~150만t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도 필요량 160만t 중 자체생산량이 90만t에 불과해 대북지원이 불가피하다. /조정진기자

jjj@sgl.co.kr

정부 “경협위 열리면 비료선적”  
美·日·EU도 식량등 지원 고려  
민간 단체들도 보따리 풀 채비



농기계 지원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식량 비료 농업물자 등 대북지원이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인천항에서 북한에 보낼 농자재를 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쌀’로 南北안정 다지기

정부가 8인 용해 대북 식량지원량을 당초 30만톤에서 10만~20만톤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북측의 지원 요청, 남북 관계의 안정, 재고발 싹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또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남북 성과에 대한 이문 동향, 이문의 대북 쌀지원 협조 등도 감안됐다.

정부는 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북한 당국자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남한의 식량지원에 감사할 표하고,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점이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식량지원이 남북관계 안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고, 북측도 이를 인정된 현실을 반영한다. 세계식량기구(WFP) 등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북한은 올해도 100만 톤 안팎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식량지

## ■ 對北 지원확대 배경

### 국내 재고량 누직돼 값하락 막기 포석도

원 요청에 대해 남측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를 현실화하는 유효수단”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1995년 국내산 쌀 15만 톤을 지원한 이래 70만 톤 가량을 북한에 보냈다.

정부가 식량 지원량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국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이전에 재고발 500만석(약 72만 톤)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재고발 모두를 주정유이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올해 575만석(전체 생산량의 15%)인 정부수매량

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11 분량을 줄여야 하므로 재고발 누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시정 때문에 농민단체 등은 정부 보유미 500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식량지원을 아낀 수급과정을 가진 후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2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지원 방식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10년 가차,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인 1%였던 2000년 방식에 따라 장기 차관 처리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미 등이 강조하는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측에 분배보고서 제출 외에 현지직접 감리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동준기자  
djl@hk.co.kr

## 서울경제

2002. 4. 9 (화)

### 28일 금강산서 100가족상봉

오는 28일에는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과 취재진, 진정요원 등 모두 150명이 먼저 금강산에서 재북 가족·친척을 만나고 다음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 500여명이 방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정부와 한측은 이 같은 계획은 9일 오후 한파에서 열리는 관계기관 대북회의를 통해 확정, 12일경 북측과 연락관 접촉을 통해 4차 이산가족 방북단 교환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한국경제

2002. 4. 9 (화)

### 28일 이산가족 상봉

### 남측 100명 금강산행

정부는 제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우선 남측 1백명이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재북 가족·친척을 만난 뒤 5월1일에는 북측 1백명이 남측 가족 5백여명을 만나는 광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같은 계획을 9일 오후 관계기관 대북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북측과 연락관 접촉을 갖고 협의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런 안을 세워두고 있지만 북측과 협의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대한매일

2002. 4. 9 (화)

### 동해선 연결 김정일이 제안

### 임동원특보 밝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는 8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동해선 연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이날 밤 KBS-ITV 뉴스라인에 출연, “김 위원장이 ‘동해선도 연결하자. 서쪽과 동쪽 두 축선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한반도를 물류중심지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 경의선 연결 軍실무회담 이달중 개최 北측에 제의

## 林특사 방북 후속책 추진

정부는 8일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의 이달중 개최를 북측에 제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합의 가운데 우선적 역점사업은 군사당국자 회담과 경의선 연결, 이산상봉”이라며 “북측이 조속히 경의선 연결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달중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경의선은 연내에 연결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열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지나 중국대

륙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먼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에서 북한 거주 가족·친척을 만난 뒤 다음달 1일부터는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 500명이 금강산에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쯤 비료 20만 t을 지원하고, 식량 30만 t은 오는 5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거쳐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근·이용욱기자

harubang@kyunghyang.com

# “金正日위원장 동해선 연결 먼저 제안했다”

임동원특보 밝혀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임동원 특보는 8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먼저 동해선 연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이날 밤 KBS-1 TV 뉴스라인에 출연, “김 위원장이 ‘서쪽과 동쪽 두 축선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한반도를 물류 중심지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경의선은 중국 철도의 연결하고, 동해선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해 유럽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한반도를 물류중심지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 한겨레

2002. 4. 9 (화)

### “경의선 올안 연결될수도”

김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동원 특보가 평양을 방문해 여러가지 중요한 활약을 이루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할 때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경의선은 올안에 연결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열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지나 중국대륙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에게 경제·문화적인 의미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민족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기자 yskim@hani.co.kr

### 시베리아 연결 북한철도 너무 낡아 전면개수 필요

【도쿄=오태규 특파원】 시베리아철도와 연결을 꾀하고 있는 북한의 철도가 러시아 철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매우 낡아서 전면 개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고 <도쿄신문>이 8일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철도연결 합의에 따라 두달 동안 북한 지역의 철도를 조사한 러시아 철도부 소속의 철도기술경제연구소는 터널과 교량의 대부분이 위험한 상태여서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고 소요 경비가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부터 휴전선 부근인 경강까지 700km 가량을 70명의 전문가가 10량의 열차를 타고 달리면서 조사했다.

ohtek@hani.co.kr

### 28일 금강산 이산상봉 1-2차로 나눠 실시키로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실시되는 4차 이산가족 방문을 1-2차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8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잠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과 취재진·질병의원 등 150명이 먼저 금강산에서 재북(在北) 가족 친척을 만나고, 2차로 5월 1일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 500여명이 금강산에서 남한가족을 만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 속초항과 장전항을 오가는 선봉호의 28일과 5월 1일 좌석을 예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동기자 kldong@sgt.co.kr

# 北 '先美後南' 정책 바뀌나

## 노선변화징후 곳곳감지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을 전후해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 노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선미후남 전략이란 대화파트너로 미국을 우선시하고 남한을 경시하는 대외전략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겉으로는 미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속으로는 미국과 일정한 대화를 유지하는 대신 남한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북한의 외교적 습성은 특사 회담을 계기로 달라지기 시작

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 북한이 이번에 한-미-일 3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화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 그 단초다. 북한이 미국→일본

## 한반도 긴장완화 공조 절감

## '美→日→한국' 깨고 역순대화

## 특사파견 계기 南중시 인상

→남한 순으로 대화제의를 응했지만, 실제 대화 착수는 역순인 걸 보면 상당히 뜻밖이다. 정부는 북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중이지만 일단 남한의 중요성이 그 만큼 부각됐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임 특사가 방북중 김용순(金

容淳) 노동당비서와 '민족공조'나 '외세공조'나 하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한미군철수 등을 겨냥한 북한식의 무거운 '자주' 개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한) '우리끼리' 뭔가 해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선 북미, 북일 대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한을 배제하고는 그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경제난 해소와 아리랑축전 참가 등과 관련, 남측의 지원과 호응은 절대적이다. 북한은 미국 일방(一方)에서 벗어나 남한 일본 등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접촉, 실리를 쫓는 양상이다. 북한의 노선 변화를 지켜볼 만하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朝鮮日報

The Chosun Ilbo

독인이 통일된 직후인 91년 봄날이었다. 동독지역의 포츠담에 있는 상수시 궁전 입구 매표소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직각 오후 5시가 되자 매표원이 창구를 닫아버렸다. 매표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 안되니 마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매표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 서독인이 허를 찔렀다. "저러니 동독이 말할 수밖에".

▶사회주의 체제 사람들의 기계적인 경직성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다. 구소련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도 거리에서 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운전자는 다 썩어버린 과일일 지라도 그걸 수습하게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까운 기쁨을 써가면서 차를 몰았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개인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도 다르지 않다. 지금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무심기만 해도 그렇다. 주민들은 산의 나무를 뽑고 일구어놓은 땀기밭에 봄이 되면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다시 나무를 심는다. 군인들도 동원된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얼마 후 다시 뽑혀진

다. 반이라 나무심기도 좋고 다시 뽑아내기도 수월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밭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목표량뿐이다. 마찬가지로 비오는 날 밭에서 김을 매기도 한다.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 때 북한은 경제시찰단을 5월 중 남한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북측에서 상당히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북한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지 알 수 없지만 첨단기술이나 현대적 시설을 아무리 보고 간들 지금의 북한 형편에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남한 근로자들이 어떤 자세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눈여겨 살펴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 ▶동구권 개혁이 한창이던 91년 봄, 무마니아 최대 일

## 萬物相



간지 아데바불(진실)은 한국 르포 기사에서 "서울시 민들은 모두 아침에 뛰다. 운동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라면서 "체제가 바뀐다고 저절로 잔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면성"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일은 인터넷을 즐기고 남한의 사이트들도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을 그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 ○오늘의 눈

### 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전 영 우  
정치팀 기자

지난 6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서울로 돌아와 북쪽과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을 때 남북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백찬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경의선·동해북부선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해 특사가 가져온 보따리가 예상 밖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 특사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무려 5시간에 걸쳐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가슴을 터놓고 논의, 사실상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했으며 김 위원장께서 직접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은 앞으로 남북, 북·미, 북·일 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6차례에 걸친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국방장관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3차례의 직접자회담 등이 일렸지만 남북관계는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차례의 이산가족 상

봉단 교환이 우리가 거둔 건설의 진부였습니다. 물론 남뉘이 이찌할 수 없는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9·11 테러사태 등 국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고, 부시 미 행정부가 '악의 축' 발언을 비롯,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해 남북관계에 찬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남북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북쪽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이라는 단어를 되풀이 사용하면서도 남쪽과의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회담이 남북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한때 '봉남통미(封南通美)'니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는 말이 북쪽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키워드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남쪽에서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퍼주기' 운운하며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자주 나돌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만경대 방명록' 파문은 남과 북 모두를 당황케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각종 실무협상에서 최고 당국자끼리의 함의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남북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남북 모두를 '양치기 소년'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 민족 앞에 닥칠지도 모를 '임중환 사태'를 우리 거래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anselmus@kdaily.com



# 이산상봉 2개조로 5차례

'금강산 만남' 어떻게...

숙박장소등 미비로

'동시상봉'은 어려워

오는 28일자로 남북이 합의한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은 1·3차 때와 달리 상봉장소가 금강산으로 제한됨에 따라 상봉일정과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측은 9일 대책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전체 상봉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12일쯤 북측과 연락관 접촉을 통해 4차 교환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11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데르 남북가족 100명씩 순차 상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현지 여건상 1000명이 넘는 남북상봉단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장소를 확보할 수 없어 동시 상봉은 불가능하다.

상봉방식은 오는 28~30일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북가족 30~

제4차 이산가족상봉(금강산) 계획안

	상봉규모	비고
4.28 ~30	● 남측 이산가족 100명 (취재진 등 지원인원 50명) + ● 북측 가족 300명	평양상봉시 규모적용
5.1 ~3	● 북측 이산가족 100명 + ● 남측 가족 500명 (취재진 등 지원인원 100명)	서울상봉시 규모적용

400명을 만나는 평양식 상봉이 이뤄진 다음 5월1~3일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남측에서 올라간 재남가족 500명과 재회하는 서울방식의 상봉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 1명당 남측은 5명, 북측은 3~4명의 가족이 나왔던 1·3차 때 상봉 전례를 따른 것이다.

숙박장소뿐만 아니라 상봉장소도 현지 여건이 좋지 않아 2개조로 나눠 절반씩 상봉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개조가 상봉하는 시간에 나머지 1개조는 교역단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이다. 상봉 횟수는 전례에 비해 동식식사를 포함, 5회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의등기자  
phil21@munhwa.co.kr

## "남북 대화재개 환영"

아난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8일 남북간의 대화재개 합의가 남북관계를 제 캐도로 돌려놓은 것이라며 환영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남북간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고무시켜왔다고 프레드 에카르트 대변인이 전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북·미, 북·일 그리고 이핵당사국간의 조기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에카르트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 필립 리커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동원 대북특사의 방북성과의 관련, "북한이 한국은 물론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며 환영했다.

/워싱턴=민병두특파원  
woomin@munhwa.co.kr

# “김정일 작년 3월 서울답방 계획”

## 임동원 특보 밝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작년 3월 서울답방을 계획했었다고 최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온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9일 말했다.

임 특보는 이날 오후 자민련 정우택

(鄭宇澤) 정책위원장을 방문, 북한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초 작년 3월에 서울을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부시 미국 행정부와 의 대미관계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정 의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서울답방 계획

에 대해 “앞으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임 특보의 설명을 들어 말했다. 임 특보는 “김정일 위원장이 ‘부산이 세계 3대 컨테이너 항구이므로 동해선과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기지가 될 수 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남북 동해선 연결을 제의했다”고 정 의장에게 설명했다. /許容範기자 hee@chosun.com

## 한겨레

2002. 4. 10 (수)

## 북-미 대화재개 세부조율

### 한·미·일 임특사 방북성과 집중점검

#### ■ 티록회의 의미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그룹(티록) 회의의 성과는 북-미 대화의 재개라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수순을 마련한 데 있다. 세 나라의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구축을 위한 대북대화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임 특사의 방북 성과를 집중 점검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미 대화 재개 수순을 명확히했다. 즉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 준비과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프리처드 대사는 티록 회의 직후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11~12일 서울로 와 임 특보와 면담할 예정이다.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이 중국 그리고 남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쪽에선 대화재개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프리처드 대사가 뉴욕접촉을 통해 북쪽의 생각 내지 의견을 들을 수 있음에도 남쪽을 다시 찾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 그는 임 특보를 만난 뒤 귀국해 박길언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와 다시 만나 방북 절차와 시기에 대해 논의할 것

으로 알려졌다.

티록 회의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강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 인지는 분명하다. 세 나라는 북한의 개도협상 재개를 환영하면서 추가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적 협력 등 제네바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핵심협안이 북-미 대화 재개 수준에서 경수로 건설과 연계돼 있는 과거핵 규명을 위한 사찰을 북한이 수용하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리처드 대사가 북한에 가서 협의할 문제가 무엇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의 북-미 관계를 감안한 분위기 조성이 목적인지, 프리처드 대사 방북 그 자체로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그의 방북 결과에 따라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관계자들은 인정을 볼 때 그가 다음달 중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에 앞선 사전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티록 회의에서 일본측은 일본인 납치희곡 문제를 풀기 위한 직십자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북한이 북쪽 원폭피해자 지원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각료급 회담을 연기한 바 있어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20개 합의 중 2건 이행 京平축구 등 11건 흐지부지

6·15 선언 이후 남북관계 성적표

20개의 주요 합의사항 중 완전이행 2건, 7건은 지연되거나 가까스로 재개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11개는 무산됐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은 현안.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2개월 동안 남북관계의 성적표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임동원(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은 지난 6일 귀환 때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가져왔다.

하지만 앞서의 남북관계 이행 실적으로 볼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합의가 어느 수준까지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합의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합의서 이행의 현주소=남북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여섯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특사방문 2회▷국방장관회담 1회와 군사실무회담 5회▷경협실무접촉 2회▷각 한 차례의 경협추진위·금강산관광 활성화 당국회담·전력협력실무협의회·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세차례 적십자회담 등 23차례 정도의 당국·준(準)당국 회담을 했다.

이 가운데 주요 합의사항은 20개로, 회담 한차례당 한 항목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개 합의문이나 공동 보도문이 4~6개항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상당수 합의사항이 합의→지연 또는 불이행→재합의의 수순으로 전개되면서 다시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林대통령의 합의서 시연도 동해선 진도·도교 연기를 제외하고는 올해 정부가 대북정책의 5대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한 현안이 빼대질 이루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간 합의 중 완전히 이행된 것은 비전향장기수 복송과 조총련 동포의 고향방문 등 2건.

합의한 지 2개월여 만인 2000년 9월 초 북한행을 희망하는 62명의 장기수모투사 북안으로 갔고, 조총련 동포의 고향방문도 착착 진행돼 8월에는 7차 방문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두가지 모두 북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지연되고 있거나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재개가 예정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6·15공동선언 제3항에 명시돼 있지만 세차례 시행을 끝으로 중단됐다. 6개월 만인 오는 28일 재개된다. 하지만 북측 요구대로 장소를 금강산으로 옮김으로써 서울·평양 교환방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 현황

합의사항 상황	해당 사항
완전이행(2)	비전향장기수 복송, 조총련 동포 고향 방문
진행 또는 지연(7)	이산가족 상봉, 군사당국 회담, 투지보장 등 경협제도, 한라·백두산 관광단 교환, 경협추진위 설치, 전력실무협의회 가동, 금강산 활성화 당국 회담
불이행(11)	김정일 답방, 이산연호수 설치, 경의선 연결, 임진강 공동 수방, 北경제시찰단 서울파견, 경평축구 등 민간교류, 北동해어장개방, 태권도 시범단 교환, 개성공단 건설, 남북러 철도·가스관 연결, 민간선박 상호 영해 통과

“아리랑축전 지나면 또 김빠질 우려” 가지다.

정부 이행 보장장치 마련 골몰

문의 뜰이 깨졌다. 더욱이 2000년 9월 3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변호소 개설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은 북측의 무성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군사당국회담은 지난해 2월 5차 군사실무회담 이후 일리지 않고 있지만 특특사의 방북 때도 재개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는 못했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20개 합의 중 절반이 넘는 사항들이 사실상 무산됐거나 실행이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다.

3차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담긴 김평(京平)축구와 교수·학생·문화계 인사 상호방문, 4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동해어장 개방 등 어업분야 상호협력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5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건설▷남·북·러 가스관 연결▷민간선박의 상호 영해 통과도 마찬

◇이행 보장장치 필요하다=통일부 이병조(李秉朝)통일정책실장은 8일

“이번 합의의 경우 林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난 뒤 북측과 의견일 같이 하는 시연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념식이 더 뜻깊게 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합의실천 여부를 미국이 북·미 관계개선의 중요한 지표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 기대와 달리 4차 이산상봉과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린 경협추진위 2차회의, 6월 11일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을 빼고는 구체적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평양 아리랑축전(4월 29일~6월 29일)과 6·15공동선언 2주년을 정점으로 남북관계를 다시 소강국면으로 가질지 모른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5, 6월을 앞둔 남북관계를 가능한 중요한 시기로 잡고 합의이행을 통해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여세를 이어갈 묘수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영중 기자 <yjlcc@joongang.co.kr>

# 남북경협 활성화 전망 “글쎄요”

## 인프라 미비·이중과세 방지협정등 미발효

### 교역업체 “합의 이행·北정책변화 선행돼야”

지난달 7일부터 경제협력추진위원 회기 시점에서 개최되는 남북 관계 기술회의에 따라 남북 교역이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남북교역의 임체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재 북측과 협의를 끝내고 실제 남북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는 정치적이거나 당한 정보 기술업체인 (주)나비즈닷컴 등 23곳에 그치고 있다. 남북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실무자들은 남북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인프라 미비에 따른 물류비 부담,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 4개 합의서의 미발효 등을 꼽았다.

실제 몇몇 업체는 권위선 연결 등을 위한 실무 협의의 재개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남북 사업자 층을 지난

98년에 받은 (주)에스 차대의 이창동 과장은 9일 “지난 2000년 11월 공산 정권 개혁을 제경하려고 했으나 그 때로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권위선 연결도 뒤따라 지지 부진해서 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며 “협의서가 풀리면 바로 공장 기공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임·투자 명목 이중 과세 등으로부터 합작사업을 걸려져 고 재의 번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나·2월 말 정기총회를 통해 남북 사업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공장을 신안남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계산 감사 내 실용적용공단에 입주할 희망한 업체가 200여개에 이른다”며 “북측과의 실무협회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섬유 임·기공업체만 절반만 남북 투자가 가능한 것”이라고 내다

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북 투자 민간 업체들은 임·투자 명목에 따른 민간 교역 활성화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서 남북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김연철 삼산간재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대북 투자 활성화된 임체는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와 북측의 과감한 정책 변화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이제 물꼬가 트인 교역의 활성화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권위선 및 도로 연결·개신공단 조성 등 남북한 합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아직 ‘방관’ 상태에 있는 민간업체의 투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훈기자 shlee@joongkoo.co.kr

# ‘北-러 철도연결’ 속도 낸다

## 남북 동해북부선 복원 합의가 촉매 러, 건설비 대고 한국빛 탐감 희망

남북이 끊어진 동해북부선을 반세기 만에 연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잇는 사업과 관련한 북한과 러시아간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양국은 TSR와 TKR를 연결하는 작업의 실사를 마치고 재정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측은 TKR 중 북한측 구간에 대한 기술검토가 이미 끝난 상태며, 조만간 북한 철도여건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양국 지도부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알렉산드르 스톨니크 러시아 원동철도국장은 “표준궤(레일간 폭이 1.435m)로 이뤄져 있는 북한 동해안 횡도(나진~원산)를 광궤(寬軌·1.520m)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양주재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도 “금후 몇년간 TSR와 TKR

연결사업이 북·러 경제협력에서 관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히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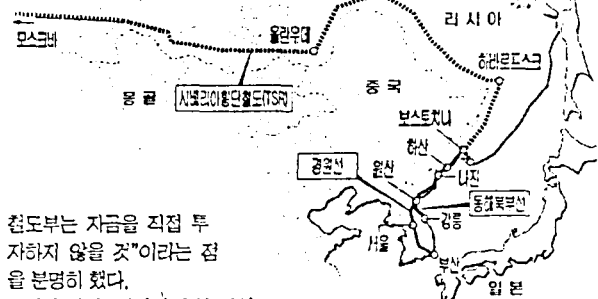
지난달 중순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 5일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철도수송 협력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TKR가 통과하는 함북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화물 환적(換積)을 비롯해 나진항의 항만시설 재건과 현대화, 통신기반시설 현대화 등에 북·러간 합의가 이뤄진 것도 철도연결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한다.

문제의 핵심은 비용이다. 북한당국은 러시아 부담으로 양국간 철도가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스톨니크 원동철도국장은 14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철도연계 프로젝트의 새로운 재정 원천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러시아

러시아-한반도 철도 연결 구상



철도부는 자금을 직접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16일 니콜라이 악쇼넨코 러시아 철도장관은 “중단철도 현대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련의 대한(對韓)외채에서 덜자”며 “한국이 외채상환과 관련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즉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모스크바가 북·러 철도연결 비용을 부담한 후 해당 금액만큼을 자신들이 한국에 지고 있는 20억달러 상당의 외채에서 상계(相計)시키자는 방안이다.

서울과 모스크바가 이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러시아가 그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으며, 러시아측과 어떤 합의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한·러 시베리아횡단철도 학술회의에 참가했던 한 북한전문가는 “한·러 철도연결사업은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남북합과 러시아의 공동 이해가 걸린 만큼 당사국간의 비용분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창림 기자

<jhmin@joongang.co.kr>

## “김정일은 청와대홈페이지 좋아해”

林특사 방북때 밝혀  
“잘 돼있다” 평가도

컴퓨터와 정보기술(IT)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즐겨 접속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최근 방북했던 임동원(林東源) 특사 일행에게 청와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의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의 '역대 대통령 코너'에 대해 "공정하게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코너'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일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에 참가한 가수 김연자씨와 김씨의 남편을 평양에서 일년만에 다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전직 대통령 7명의 약력과 주요 연설, 사진자료 등을 소개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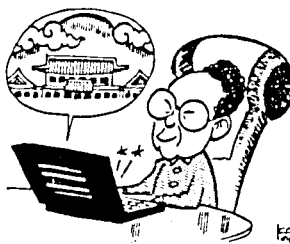
ysshin@hk.co.kr

## “김정일 위원장,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 본다”

[도쿄=오대영 특파원]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청와대·통일부·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즐겨 보고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컴퓨터를 좋아하고 정보기술(IT)에 관심이 많은 김위원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임동원(林東源)특사 일행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 가운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7명의 약력·주요 연설·제임 중 알지·사진자료 등



을 참고 있는 '역대 대통령' 코너에 대해 “공정하게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또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 북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통일캐러리' 코너도 종종 찾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dayyoung@joongang.co.kr>



사 설 · 관 령





時論



白珍鉉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특보가 4월 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임 특보는 그동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주도해 왔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그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획기적 돌파구가 열리기를 바라는 기대도 높다.

안보위기 예방위해 시의적절

그러나 임 특보의 방북이 현재의 어려운 한반도 상황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접근 전략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임동원 특보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특사 파견을 제의한 이유로 세 가지들을 들었다. 첫째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예방하고, 둘째는 올해 예정된 선거와 한·일 월드컵을 비롯한 4대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며, 마지막으로 경제회복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충분히 성공할 만한 것들이다. 임 특보는 이 중에서도 안보위기 방지의

성을 강조한 임 특보의 상황인식은 올바른 현실인정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한반도의 안보 현안을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비롯한 안보문제를 제기하는 데 무척 소극적이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군사문제가 논의되지 않아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북한이 다루기를 원치 않는 군사문제 대신, 북한이 믿기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상상무기에 대한 한·미양국의 심각한 우려를 진하고 북한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단호히 어떠한 상황이라도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과 같은 상징적 행사나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치 제스처로 끝나선 안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공동전략은 마련됐는가? 이번 임 특보의 방북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양국간 치밀한 조율을 거친 것인가? 이번 특사 방북과 후속조치들이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해소를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최소한 접근전략상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또 한번 '화해협력'이나 '민족중심'의 들뜬 분위기가 조성하려 한다면 대외적으로는 우방국과 갈등을, 대내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대교수·국제정치학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말은 하는 特使대라

중요성을 강조했고, 안보 현안의 논의가 이번 방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임 특보가 말하는 안보위기관 북한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서 비롯하는 위기가 이해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9·11 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반(反)테러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며,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개발,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 시설 시설 문제는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안보위기의 예방 필요

상징적 이벤트를 통해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 이면에는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베풀다 보면 안보현안은 나중에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접근전략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 한다면 그동안의 접근전략부터 바꿔야 한다. 상대가 싫어할 말은 피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면 문제가 풀린다는 식의 안이한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

世界日報

시론



高有煥

유리축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남북한이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대북특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북측 당국자와 분치권 차원의 정치적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이산가족상봉 및 남북경협 등에 대한 현안 해결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

남북관계 '물씨' 회생계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속도조절론'이 나올 정도로 급진전되다가 지난해 말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의 모델답이 끊임으로써 남북 화해-협력노력이 종대한 기로에 처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의 특사파견은 남북관계 진전의 물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반도정세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일관된 대북 강경정책과 반테러-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등 미국 반수, 금년 말 대선과 관련한 남한 여론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김수로 미안공 등 제네바합의 이행과 관련한 북·미 갈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약속한 미사일시험발사 유예 만료시기 도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등과 관련하여 2003년 한반도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측의 특사파견이 이뤄진다는 것은 한반도 위기구조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측의 특사파견 제의를 북측이 수용한 데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까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정체시킴으로써 그들이 얻은 것

로 할 수 없다. 지금의 한반도정세에서 미국변수는 '상수(常數)'에 해당한다 한 만큼 부시 대통령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므로, 북한은

對北특사 파견에 거는 기대

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구도를 정착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에서 강고 끝에 남측의 특사파견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대북 강경기조가 확고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미국의 위협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와 정책에 적응해나갈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조건들을 거지고 있다.

셋째, 북한 내부의 식량난 등 체제위기의 심화와 미국, 일본 등 서반세계의 대북지원 감소로 남측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남북 화에 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상반기 예정된 중요 정치행사와 이리양측진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남북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확산되고 있는 남측의 반미주의를 확산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한 방법으로 남북 대화에 진함적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특사파견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북측은 남측의 특사기 기지를 '보따리'를 확인한 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 결정할 것이다.

脫정치 협상력 확보 관건

남북한이 거의 동시에 개최하는 월드컵과 이리양측진을 계기로 남측의 총리와 북측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인사의 교환방문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급진전할 것이며, 제2차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번 특사파견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성전국으로 들어가 있는 남측 당국이 국내 정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대북협상을 할 수 있는 여부이다. 또다시 남북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기 말 정치권력 차원의 남북협상이 이뤄지기로 차두고 있는 한반도정세에 안정화한 관점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중국대교수·북한학

社說

林특사, 北에 할 말 해야 한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다음주 특사자격 방북(訪北) 소식을 접하는 우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된다.

임 특사의 방북으로 그동안 꼭 막혔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개선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특히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기류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임 특사가 이번에도 예전처럼 북측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차라리 가지 않은 것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化)', 다시 말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주변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내면에 깔고 있으며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그 최대 성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국제역학관계상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었으며 작년 초 미행

정부가 바뀐 이래 급격하게 힘을 잃어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런 집권 초기의 대북 인식 및 접근법을 주변 여건이 관이하게 달라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번 특사 발표에서도 감지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북 전략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진 사실이다. 그런 터에 정부가 또다시 전과 똑같은 논리로 대북 접촉에 나선다면 북측에 이용만 당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임 특사는 이번만큼은 북측에 담당하게 할 말을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급한 쪽은 분명 비료가 필요하고 아리랑축전에서 남측 협력이 절실한 북측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로선 북측에 줄 것을 주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측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핵사찰과 대량살상무기 등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현안들을 포함해 북측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문할 핵심 내용이 돼야 할 것이다.

사설

林東源 특사가 할 일

남북한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4월 초 경양 방문을 합의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매우 긍정적이다. 양측이 지난 2개월여의 비밀 접촉에서 장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 등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키로 결정한 데 이어 대통령 특사의 파견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이 기대된다. 정부가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가장 주력해야 할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견어내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남북 간 무장력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쌍방 간 회담의 정례화나 핫 라인 개설 등 이미 오래 전 합의된 사항의 실천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북·미 간의 진지한 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개선을 이뤄내야 국제사회는 물론 남쪽의 대북 지원이 탄력을 받을 수 있

음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林특사도 지적했듯이 북한이 현재의 대미정책을 고수하는 한 2003년의 한반도 핵위기 상황은 예정된 코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남북 양측간에 이미 합의된 각급 회담의 제도화를 담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 행사에 남북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환 방문도 추진하는 듯하다. 물론 교류 활성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두 차례 이벤트성 깜짝 쇼를 기획해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선 남북관계 개선의 정례화나 제도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주로 정치적 활용성을 감안해 추진됐기 때문에 양측간 합의가 금방 물거품이 됐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권차원을 넘어 남북간 대화와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햇볕정책을 살리면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 중단되는 '대화' 안되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대북 특사 파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모처럼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북특사 파견이 지난 1월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이은 미 국무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등 잇따른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현재 남북은 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측에서 보자면 우선 올해 월드컵과 대선 등 주요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내부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시기다. 또한 2003년 한반도 안보 위기설이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책으로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계 진전, 그리

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가로막는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북으로서도 대화를 더 이상 기피할 수 없는 입장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경제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4월 중에 있을 대규모 아리랑축전 행사에 관광 참가자들을 끌어모으는 일도 시급하다. 그보다도 현재와 같은 국제고립과 정세불안 속에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번 대화재개에 앞서 우려되는 점은 혹시 북의 일시적 필요에 의해 일과성 이벤트로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대화에 대한 실망과 대북 불신만 가중되어 장기적인 남북관계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측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입장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이룩해내야 할 것이다.

대한매일

2002. 3. 26 (화)

사설

특사 파견, 교착타개 계기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4월 첫 주 특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 임 특사의 방북은 남북 정상의 대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타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남북간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미대화가 난항을 겪음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당국간 회담, 식량 및 전력지원, 군사적 긴장완화, 금강산 관광 후속조치, 월드컵과 아리랑 축제 협력 문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특사의 평양 파견은 남북대화 재개의 신호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남한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주변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는 역시 북한문제였음을 북한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임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임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고위인사들과 만나 남북협력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에 대처하고 실리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남북이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북한 특사의 서울답방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도 마무리지었으면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임 특사의 방북을 환영하고 그 결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동전에도 앞뒷면이 있듯이 노파심에서 몇가지 지적과 함께 거듭 당부하고자 한다. 남한이 그동안 수도 없이 남북대화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유감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에 특사 방북을 받아들인 만큼 그야말로 '통 큰' 성과물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막는 상징적인 조치의 하나로 즉각적인 경의선 연결등은 북측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굳이 특사라는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 풀지 않더라도 기왕의 장관급 회담 등 공식 협의 기구를 통해 안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른바 '2003년 위기설' 등이 해소되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임동원 特使' 투명성이 관건

## 社說

朝鮮日報

2002. 3. 26 (화)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임동원씨가 평양을 방문하게 된 저간의 과정과 배경이 청와대측 설명으로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특사파견 자체는 현재의 경직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평가를 전제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사의 평양행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특사의 활동은 국민 여론과 미국 등 동맹국들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대단히 미묘하고 복잡한 게 사실이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확한 인식이 시급하다. 때문에 특사의 활동은 북한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 등에 대한 한국인과 미국의 입장 등을 가감없이 북한당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특사의 활동 하나하나가 유리알처럼 드러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밀거래하듯 음험한 분위기를 풍겨서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특사 파견이 성사된 과정을 놓고

이미 정치적 의도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이 특사 파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앞으로 특사의 활동 형식과 내용, 북한당국과의 합의 사항 등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남북 및 미·북관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사는 어디까지나 특사에 그쳐야 한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특사인 만큼 북한 당국과의 대화는 폭넓게 하되 구체적 현안에 대한 합의까지 서둘러서는 곤란하다. 남북 당국간에는 여러 분야의 각급 대화체널이 이미 제도화돼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들은 여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현재 한국관광객의 아리랑 축전 참관과 식량 및 비료 지원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문제들은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 다른 현안들과 함께 공식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추진돼야지 특사의 일회성 대화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임동원씨는 현 정권의 특사가 아니라 대통령을 대신하는 국민의 특사라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 社說

## 한국일보

2002. 3. 26 (화)

### 특사 방북 기대와 주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평양 특사 파견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해부터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대화가 장관급 회담 등 실무차원을 넘어 간접 방식이긴 하지만 정상간 대화로 격상되었고 남북과 북미관계의 현안이 일괄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동시에 이를 공식 발표하고 정부가 특사 파견을 먼저 제의 했음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조선 중앙방송과 평양 방송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남북)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임 특사의 역할이 포괄적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한동 총리 등 고위인사의 평양 아리랑 축전 참관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을 점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재개와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 현안 외에도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유예 등 동북아 질서와 미국의 세계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이슈들의 포괄적 논의 관측도 나오

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임 특사에 대해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흔들림 없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대상이 돼 왔고 임 특사의 고집스런 대북 유화자세가 지난해 해임건의안 통과와 주요 사유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임 특사는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남북간 미원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임기말을 앞둔 김대중 정부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야당 등 정가 일각에서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사 파견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도 적시해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해 비록 쓴소리 할지라도 할 얘기는 똑바로 전해야 할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합리적 접근을 충고하라는 얘기다. 임 특사의 파견이 남북대화의 새장을 열기를 기대하며 추이를 지켜 보고자 한다.

## 社 說

### 특사 방북 햇벌정책의 시험대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4월 3일 북한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은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의 뚫고 트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작년 11월에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 이후 근 5개월 동안 막혔던 남북간 대화의 재개된다는 면에서 특사 방북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구체적인 방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영남 북한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워드캵 참관 방문 등 남북간 총리급 교환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특사의 방북은 이러한 현안들의 타결 차원을 넘어서 무엇인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전반에 걸쳐 대국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 이유는 임 특보가 2000년 6·15 선언의 합의 사항 전반에 대해 최고당국자간에 특사를 통한 간접대화를 통해서라는 의사교환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사 파견을 재의했고 또 북측에서 수락했다고 밝힌 때 때문이다.

특히 남북관계와는 별도로 9·11 미국 테러사건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 사찰 등 복잡한 국제

안보 차원의 북미 현안을 두고 한반도에 새로운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따라서 이 냉기류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현저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 특보가 북측에 전달할 북미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관심의 초점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방북 특사를 파견하는 반면 북한은 답방 특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는 준비된 보따리를 풀되 북한은 일단 특사를 통해 들어보겠다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 악화로 불편한 상태에 있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준비한 방안에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특사의 방북이 현 정부의 햇벌정책 차원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개선하도록 제안하는 거의 결정적인 기회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이번 특사 방북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면 햇벌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특사 방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경향신문

2002. 3. 26 (화)

## 사설

### 특사 방북에 거는 기대

최근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나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파견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 위기설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서 파생된 정책적 불안정 요인과 내년에도 도래할 상황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부각됐다. 내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에 종료시점이자, 북한 과거력 사찰을 개시해야 한다고 미국이 요구하는 시점이다.

만일 미 행정부가 핵사찰에 실패, 제네바 핵합의를 포기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재개 등 바람골 진술을 구사할 경우 한반도에는 1994년 수준의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미 정부는 북한의 핵합의 이행 여부를 보증하지 않겠다고 발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놓은 상태이다. 위기의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대화도 막혀 있었다.

정부 특사는 이런 분위기를 타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뚝고를 터야 한다. 물론 남북한 및 미국이 서로 다

른 입장을 갖고 있는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타결짓기는 쉽지 않다. 북측으로서는 미국에 할 말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 대결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측이 우선 의제로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제시한 점을 주시한다. 북측의 현 불안정 상태 탈출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문제인식은 올바른 해결의 첫걸음이다. 현 상황에서는 대화가 당장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대화라는 접근방법 자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북·미 대화를 갖도록 북한을 이끌어야 한다.

남북대화를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남북간에는 장관 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 등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 많다. 미국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남북대화도 막으면 어떤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에 납득시켜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 위기해소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 사설

###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팀장 특보가 내 주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된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기대 또한 크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김색된 데다 북·미관계도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임 특사의 방북이 남북 및 북미관계의 막혔던 골조를 터주는 역할을 하리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이번 특사파견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의한 것이긴 하지만 북한측이 흔쾌히 수용하고, 남북이 공개적으로 동시발표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척 크다. 우리가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남북대화의 기틀을 보다 확고히 다져주기 바란다.

벌써부터 월드컵과 북한 이리랑 축전에 고위급인사들의 교차방문을 비롯 이산가

족 상봉, 장관급회담 재개, 경제협력사업 촉진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리라 는 기대섞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특사 방북의 실현으로 북한이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선 남북한 공동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은 주목해볼 대목이다. 남북관계를 회기적으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밝힌 특사파견 제의의 배경을 보면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고, 6·15공동선언 준수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를 논의한다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돼있다.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북·미간의 관계개선 여하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특

사방북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만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간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스스로 쌓아놓은 불신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안된다.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느닷없이 연기하는 등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남북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대화 자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자신들의 장애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없다는 진지한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남북측의 특사를 맞이해주기 바란다.

## 서울경제

### 社說 한반도에 봄바람부나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팀장 특보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음달 첫째 주 북한에 파견한다. 어제(25일)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이어 북한도 방송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북한측 특사의 남한 방문도 의견 집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지난 1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한랭기류가 뒤덮인 한반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는 물론이려니와 북미·북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11월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 소강상태가 계속돼 왔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같은 대내외적인 정세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번 임 특보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중요성을 더한다. 우선 남한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개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월드컵 안전 개최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 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도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반대급부 없는 햇볕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도 뱉어해 있는 점이다. 이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북한측의 사정은 한층 더 절박하다. 미국을 비

롯한 서방의 대(對)북한관은 예나 이제나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눈에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이라크와 함께 지구상에서 축출돼야 할 타도 대상이나 진배 없다. 또 4월 말부터 열리는 평양 아리랑 축전 때 외국관광객을 대거 유치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사상 최악의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농사철을 앞두고 비료지원도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에 남북이 특사교환에 합의 한 것은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임 특보가 이번 북한 방문시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바 없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 김용순 노동당비서 겸 아태평화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이산가족상봉, 남북장관급 회담재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담당인 김 비서나 최고 책임자인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월드컵 참관 방한이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한측 총리급의 평양 아리랑 축전 참관도 예상된다. 이제 북한도 패쇄성을 탈고 국제무대로 나와야 할 때다. 월드컵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임 특보의 북한 방문이 남북에 봄기운을 물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 임동원특사 성공의 조건

사설



2002. 3. 26 (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에 중요한 돌파구가 되리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특사 파견에 합의한 남북 두 당국도 북·미관계의 경직화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을 것이다.

긴장이란 일단 조성되면 고조되기 심상이고, 그런 상황에 반전(反轉)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할 때 '2003년 한반도 안보 위기설'이 현실적 위협으로 탁월 수가 있다. 서로 냉정을 되찾아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요체다.

당사자간에 감정의 끈이 깊고 이견의 폭이 크다면 제3자의 중재가 불가피하다. 이 점에서 임특보의 방북은 시의적절하게 성사된 셈이다. 문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다. 북측이 다시 역설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민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할 만한 명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족의 생존'이 우선적 과제다.

유감스럽게도 남북한은 운명공동체의 관계가 아니라 무력 대치의 관계에 있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바로 양측의 무력이다. 이 냉엄한 현실은 외면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다. 따라서 임특보는 작어도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

한편 정부측이 주장하는 대로 올해 우리가 치러야 할 4대 국가적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측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측이 이를 좌우할 입장에 있다는 인상을 그 쪽이나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무슨 뜻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사 파견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 식량·비료 지원이 새삼 강조되는 것도 기쁘하다. 남북관계가 사사건건 거래적으로 이어지는 한 이제까지와 같은 심한 굴곡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남측이 경제적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북측은 화해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전제된다면 두 당국간 이벤트성 합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는 건 물론 바람직하다.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리랑축전에 양측의 고위 당국자들이 상호 방문하고, 남북 교류사업이 다양하게 재개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이다. 임특보가 각별히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바가 이것이다.



사설

문화일보

2002. 3. 26 (화)

## 특사방북의 기대와 우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다음달 3일 방북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사 방북 그 자체가 일단 남북간 대화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것만 해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후 사실상 남북간 첫 공식접촉이 이뤄진다는 것은 향후 북·미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적어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열망만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남북 대화 재개에 따른 동기와 조건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남북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지금 세간에서는 지배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나 남북문제가 대선정국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면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다. 김 위원장의 답방문제는 6·15 남북정상회담의 약속대로 이뤄지면 그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문제는 비밀성이 인정된다해도 최대한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번 특사방북을 계기로 또다시 한·미 양국이 북한문제때문에 갈등을 빚어서는 안된다. 확고한 한·미·일공조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배경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상봉은 화급하게 재개돼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일을 또 벌이려 할 것이 아니라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별기고

임동원 특사의 역할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대북 특사 파견을 전...

기공의 강령과 대외 정책은 북한측이 수용...

통과 미국에 대한 정책은 가능해 보라 하겠...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

그런데 북한의 요구로 특사 파견 사실이...

그러나 이번처럼 사전에 발표한 예는 없...

그러나 이번처럼 사전에 발표한 예는 없...



유길재 경남대 교수

北·美관계 논의 큰 비중

‘역시나’로 끝나선 안돼

이와 같은 조건과 특사 방문이라는 대외...

그러나 워시نگ톤 북부 조미의 관심사로...

특별기고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4월초로 예정된 임동원 청와대 통일특...

어떤 바 있다. 부시의 발언도 레이건의...

최근 북한은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지자...

林특사 訪北에 거는 기대

러전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결국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은 냉전시...

물론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일관계를 크게 집전시킬 수 있는 사안을...

현재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거의 동시에...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



## 사설

### 한반도 평화 돌파구 열기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4월 첫췌주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남북이 25일 함께 발표했다. 그동안 갑갑하기만 하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사 파견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따라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를 남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을 북쪽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을 포함한 7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낸 미국의 핵대세 검토 보고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은 계속 고조돼 왔다. 특히 내년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요구, 북한의 과거력 규명을 위한 사찰 문제 등이 겹치면서 '2003년 위기설'이 무거 있게 나도는 형편이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라도 진지한 대화가 오갈 필요성이 절실했던 터였다. 시기적으로 남쪽은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있고, 북쪽은 식량과 비료의 확보가 시급하며, 아리랑 축전에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특사파견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 추진된 것이다.

임동원 특사는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이 가장 중요

하다며 핵사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모든 문제를 터놓고 논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 특사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을 미리 찾아가 의제를 조율한 일도 있으나만큼 복잡하게 얽힌 현안의 기대를 잡고 남북 사이에 화해의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남북 사이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협의, 개성공단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다. 또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를 포함해 북-미 간에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도 남북이 조율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터이다. 미국의 강경정책 등 외부 여건이 악화됐다고 해서 북한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고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소모적인 신경전을 편 것은 비현실적이고 현명치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남북이 특사 방문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던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서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외부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남북이 주체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세계인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 東亞日報

2002. 3. 28 (목)

## 社說

### 관광대가가 北 군사비로?

그동안 뭉뚱그림으로만 나돌던 '설(設)'이 드디어 수면으로 떠올랐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지금까지 현대가 북측에 지급해 온 4억달러가 군사비로 전용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미 중앙정보국(CIA)과 주한미 군사령부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CIA가 이 같은 내용을 작년 2월 한국정부에 전달했는데도 한국 측은 관광사업을 재정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 관광대가 지급 방식은 이 사업이 시작된 1993년 11월 이래 특히 미국측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서 줄곧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식량구입 등 특정 용도에 한정하지 않은 채 9억4200만달러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북측에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돈이 북측의 정식 국가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사금고'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고, 이런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1993년 10월 국회에 출석한 김종필(金鍾泌) 당시 총리를 통해 "관광대가를 현금에서 현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측이 실제로 관광대가를 군사비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지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햇볕정책의 옥동자'라는 명분 하나로 경영난에 직면한 이 사업에 고집스레 대담리고, 최근까지도 비상식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등의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북측이 관광대가를 군사비에 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강산관광이 긴장완화는커녕 상대의 전력강화에 보탬이 돼 준 셈이 아닌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는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관광대가 지급 방식의 변경 등 이 사업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따라야 한다.

## 기고

### 對北 특사파견 의미와 기대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정체돼 왔지만 막후 교섭이 이뤄져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남북관계에 이렇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우선 남북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맞대응해 미국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남한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계를 중단해 왔지만 이런 상황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에 불리할 뿐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방어(MD)계획 추진을 위해, 그리고 대 테러 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북한을 명분과 타깃으로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수록 미국의 입장만 강화시켜 줄 뿐이다.

#### 남북관계 정상화 스케줄 논의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말려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북한이 대남 관계에 재동을 걸지 않고 2000년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화해협력 국면을 지속했다라면 미국도 이에 상응한 대북정책을 펼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 못지않게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도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은 새로운 국면전환을 필요로

한다.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비료지원을 필요로 하며,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남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미국과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장착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당장의 투자환경 조성에도 필요하며 한·미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 이산가족문제 등 현안 해결되길

대북 특사가 파견돼 남북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의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남한내 탈북자 적응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탈북해 남한으로 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탈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푸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 주민을 국경 밖으로 밀쳐내는 요인을 제거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지원은 재개되어야 한다.

또한 89년 평양축전이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만큼 이번 '아리랑' 축전에 많은 남한 사람들이 참가해 남북 주민간에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번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전이 있고, 또 그동안 남북간 합의했으나 실천하지 못한 이산가족상봉 등 각종 현안들의 해결책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북한도 이제는 미국만을 바라보며 남북관계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한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연일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이틀 대미 비난용만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특사파견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북한에도 좋고, 남한에도 좋다는 사실을 남북이 함께 경험하고,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 임동원특사의 '평양 속제'

2년 전 봄,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곧 이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남북 간에는 '대화의 꽃'이 만발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남북관계는 마치 찻사가 끈 것처럼 답답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올 봄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임동원 외교인보 통일 특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했던 찻사가 맑고 시원할 수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임특사가 직접 나선만큼 일단 대화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 대내외 환경이 싹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대화 중단의 이유로 내세워 온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또 남북대화가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남한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힘겨워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사이에

서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으며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남북에 '민족공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가 민족공조를 위해 한·미공조를 배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민족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대화에서는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만도 없다.

##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 시작을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되, 북한에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와 미국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지속함과 동시에 핵개발정책이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미국의 외교심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핵개발정책이 '퍼주기'만 했을 뿐 한반도 긴장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남한 내부의



홍용표  
〈한양대 교수·정치학〉

비판 여론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대화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임동원 특사의 평양방문이 발표되자마자 야당에서는 대안과 관련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햇볕정책에 많은 경성을 기울여온 만큼, 경원 개강중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특사 파견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사 파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근거 없이 의혹만을 제기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됐을 때에도 정치적 목적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새로운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왕에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고 아울러 남북대화를 경색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 자신도 얼마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특별한 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새로운 사업, 특히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할 경우, 이는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을뿐더러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남북간 합의된 사항을 좀 더 완수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며 하나씩 마무리하는 일이다.

## 정치색 배제 '집중정례화' 필요

이미 6차례나 개최된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남북대화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군사회담을 지속할 수 있다면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걱안다고 해서 피할 수만은 없다. 김대통령이 지난 4년간 공을 들여온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적 마무리가 남북대화의 제도화 상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2002. 3. 28 (목)

## 시론

서동만  
상지대 교수  
북한 정치



# 실패해선 안될 특사訪北

## 요

차라리 뒤처라던 남북대화가 다시 소생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임 특보의 방북이 남북에서 동시에 발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상황은 절박하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10월 북·미 공동 코위니케까지 상승세에 있던 한반도 회담 기류는 부시의 대통령 당선과 콜린턴의 방북 무산을 기점으로 하강세를 타게 되었다. 물론 북측의 대화중단으로 6개월의 공백이 있었으나 남북정상회담을 경험한 남북 양측 모두 대화할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 사이에 제5, 6차 장관급 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터러 사건 이후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성격이 확연히 바뀌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로 이를 둘러볼 때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나고 있다. 위와 같이 남북대화 중단 이후 간헐적으로 보였던 저가 움직임은 남북이 겨우 대화할 여지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번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이 수준의 만남으로는 향후 북·미 관계는 물론 북·일 관계나 남북관계 내에서 접어들지 못하는 '역풍'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남북 양측의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시의 부정적 인식, 미국 정부의 대북 핵 사용 가능성 시사, 북측의 핵 개발 동결에 대한 보증 거부 등을 보면 한반도에 1993~94년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북측도 이번 발표에서 '민족 앞에 다가온 엄청난 사태'가 논의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당장 북·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역풍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대화에서 이를 능가하는 '순풍'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특사 회담에서는 이 순풍을 일으킬 임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일단 중단되면 냉전적 대치상황에서 오는 국외와의 저항 요인이 바로 거슬리게 되어 있다. 한번 잃은 편승을 다시 살려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후회할 수 없는 선에서 일정한 규모에 이르러까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며 지속해야 한다.

우선은 이러한 축전과 월드컵의 연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월드컵 행사에 북측이 전 세계의 이목을 돌린 만큼 경축사갈판이라도 보낸다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의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 이

에 맞추어 북측의 관광직이나 월드컵 관련, 중국·일본 등 외국과의 관광직이 대규모로 북측을 방문한다면 북측에 경제적 이득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화해분위기가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남북이 합의했다가 실행하지 못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관광 합성화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해가는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질적인 내용물 가진 것이면서도 하나 하나가 모두 축적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의선 연

결처럼 남북의 경제적 연계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남북 사이에 합의사항이 실행된다면 한·미 사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북의 달연권은 비약적으로 커질 것이다. 북측은 대북 경제지원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남북 사회가 지난 동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경선 과정을 포함, 남북 국내 정치의 역동성을 보라. 최소한 위와 같은 사람이 실행될 수만 있다면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마련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를 포함해 차기 정권 담당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입장을 선택하고 그 발표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제1차 정상회담이라도 없었다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어땠을 것인가.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면서 남북관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길로는 이것이 최선일 것이다.



## 해외사설

### '마지막'이 될지 모를 北의 기회

미국의 LA타임스는 26일 '북한의 마지막 기회'란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 달 재개될 예정인 남북대화가 북한 정권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다음 주 평양에서 재개되는 남북 회담이 북한에는 긴장 완화할 대가로 한국 정부로부터 관대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회담에서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올해 말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정치인을 한국 국민들은 당신 시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택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했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돼 왔다.

북한의 국내 정책은 수십년 동안 압제로 일관했지만 외교정책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1950년 남침 때부터 90년대 말까지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이 '달라지 어려운' 적(敵)이었으며 공산주의의 몰락과 국내 기아사태에 직면해서야 조금씩 문을 열어젖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2000년 6월 평양 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김정일의 한국 담방과 이산가족 상봉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는 지난달 한국 방문 때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천명했으며 이는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목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으며 북한의 비협조에 화가 난 한국 국민들은 평양에 훨씬 덜 동정적인 태도를 지닌 대통령이 뽑힐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촉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병력의 후방배치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에 수십억 달러 어치의 식량과 연료를 지원해 왔지만, 북한은 미사일 개발 중단, 핵무기 사찰 수용, 이산가족 상봉 및 김정일 담방 등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다음 주 회담에서 이같은 기회를 뿌리친다면 그와 북한은 오랜 기간 같은 기회를 부여잡지 못할 것이다.



## 社說

### 해·외·논·조

#### The Straits Times

스트레이츠 타임스 26일자

다음주 남북한이 현안 논의를 재개한다고 2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한 것은 5개월 동안의 교착상태를 깬 것으로 외교적 수사에 담긴 내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

그 가운데는 서울 담방을 머무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소극적인 자세도 포함된다.

그의 담방 유예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불필요하게 손상시켰으며 미국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배척하는 가외의 구실이 되었다.

북한이 바람직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미국이 한반도 데탕트 실현 절차의 대부

### 남북대화 재개는 옳은 선택

특보의 방북은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은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관계개선의 열쇠를 미국이 아닌 양측이 짊어질 수 있다는 때늦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한은 지난 한해 동안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일관성 없고 혼란스런 방문탕식 북한 포용 방식과 그 이유를 따지는 데 초점을 쫓았다.

양측은 협의할 현안과 화해의 속도를 결정하는 역량 발휘에 소홀했다.

분을 죄지우지했다.

남북한은 미국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남북한이 이제 주도권 장악에 나선 진지한 의향이 있다면 미국의 중재 역할을 줄여야 한다.

부시의 대통령 취임 이후 나빠진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 최선책은 앞으로 양측이 접촉을 계속하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서울이다. /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gt.co.kr



2002. 3. 30 (토)

### '8월 한반도 위기설'은 또 뭔가

요즘 한반도에 위기설이 나와도 사재기를 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하는 현상은 사라졌지만, 위기설이 정부고위관리의 입에서 나오면 여전히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어제 아침 한 조찬강연회에서 "북한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은 8월 사찰 실시를, 북한은 2005년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국제 쟁점화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요지로 사실상 '8월 한반도 위기설'을 거론했다고 한다. 그 발언의 무게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앞뒤를 따져보면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나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위기의 시점을 8월로 잡은 것부터 근거가 명

확해 보이지 않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8월 핵사찰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니 그때부터 북한과의 마찰 가능성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가정은 구체성이 빈약한 단순 가정이다. 미국이 하필 8월 사찰을 고집하려 하는지, 그리고 주장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

구체적 근거들을 예시하면서 위기론을 거론해야 설득력이 있게 된다. 정부가 실제로 위기요소들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하거나, 위기요소가 실제로 미세한데도 다른 이유에서 확대해석한다면 그 어떤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단지 이번 특사파견을 한반도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과대포장하려는 정부내 분위기는 잘못됐다. 더욱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002. 4. 1 (월)

### 對北 대화는 원칙있게 당당하게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미국과 뉴욕에서 대사급 접촉을 갖고 대미(對美)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화수용 태세가 근본적인 자세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 탐색용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지금 남북한, 그리고 미·북 간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이리저리 뒤얽혀 있다. 구체적 현안들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가 상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일정한 안정성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그것이 상호관계의 불안한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수록 진정하고도 정당한 의미의 대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뿐만 아니라, 나아가 체제변화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인권개선 같은 기본적인 문명적 기준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최고지도부를 '모욕'하면서 체제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내비쳐 왔다. 한국의 현 정부는 이 같은 미·북 갈등이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변환경 속에서 북한이 어떤 상황인식으로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오는 3일로 예정된 임동원 특사의 평양행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의 사전조율도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시점에서 강조돼야 할 것은, 대화의 장(場)이 마련되는 것 자체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걸만 번드르른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대화에 나오는 것 자체를 협상무기로 삼아 이런저런 일방적인 요구를 내걸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경제난이나 식량사정 악화, 아리랑 축전 준비 등을 대화에 나서게 함으로써 삼는 것이야 충분히 파악되고도 남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대화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면 생명력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이 일기 시작한 한반도 대화의 기운이 '제대로 된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실체와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일관된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현 정부는 그 '원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 사설

### ‘한반도 위기설’ 해소 계기로

강경 일변도의 북한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에 이어 남한을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대화 의지를 전해 주었고 오는 3일에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북·미 대화와 북·일 대화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와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대사가 뉴욕에서 잇단 접촉을 가졌다. 북한과 일본도 4월중에 핵방출명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2003년 위기설’ ‘8월 위기설’ 등이 나오며 불안했던 한반도 주변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 위기가 닥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협상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 변화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세를 추구하지 않

는다.”고 밝혔듯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누그러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관계가 악화돼 실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온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유연한 태도로 대화분위기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03년 위기설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지연 등을 이유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거나 미국이 조기 핵사찰을 강요할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시기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미국도 위협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당국도 특하면 끊어지는 불안한 남북대화 방식을 청산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반도의 위기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남북협력 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東亞日報

## 社說

### 임동원 특사가 명심할 일

내일 북한으로 떠나는 임동원 특사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임 특사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할 말을 분명히 그리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어떠한가, 미국의 요구는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기 바란다. 김 위원장의 현실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임 특사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특사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기 마련이다. 임 특사의 활동도 북측과의 약속이나 신의 때문에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투명한 구석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문이 떠돌고 그것은 결국 남북관계를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임 특사는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들고 서울에 돌아가겠다는 욕

심을 내면 오히려 정정당당치 못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 한반도 주변 여건이나 시기를 볼 때 남북대화를 더 필요로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당사자는 북한이다. 그런데도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또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고 결국은 퍼주기, 눈치보기란 비난을 듣게 된다.

넷째, 임 특사의 방북시기가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임 특사의 방북에 의구심을 가진 인사들이 없지 않다. 남북관계가 대선 정국에 악용될 경우 어떤 부작용과 폐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시절 생생히 경험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자세다. 북한은 임 특사의 방북을 위기 탈출을 위한 임시 방편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임 특사의 방북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 양보로 한반도에 봄기운을

베가와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뒤 남북 관계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갔던 그가 전한 바에 따르면 '답방'에 대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각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위원장이 상봉이나 회담을 희망하고 있음을 읽을 수는 있다. 특히 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남북의 정상이 간접적으로나마 대화를 재개했고, 두 사람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한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새봄과 함께 풀릴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것이다. 자연히 3일의 임동원 특사 방북에 큰 기대를 걸게 한다. 김위원장의 답방과 이산가족 상봉사업, 장관급 회담 등 남북관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화의지 강도가 재확인될 것이다. 북한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남북관계는 특사 방북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급류를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위기상황을 예방하지는 공통인식 위에서 특사 방북에 합의했다. 또 북한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김집된 대미관계 속에서 줄곧 공세를 취해왔으나 최근 대화 재개에 긍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미 기본합의서(제네바 협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종전의 자세에서 양보할 듯한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북·미관계도 변화의 조짐이 생겨 서로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남·북·미 3자 모두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남한당국은 대화재개의 큰 밑줄기가 잡힌 만큼 단계적 과제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계개선에 중점을 뒀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9·11사태 이후 전개된 국제정세의 원인과 시비를 가리기보다 인위적으로 교착된 현실을 타개하려면 모처럼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살리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미국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자세를 수정해야 한다.

## 社 説

## 임동원 특사에 거는 기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쪽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북한측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았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미 국방부의 '핵태세검토투(NPR) 보고서 이후 조성된 '한반도 핵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일 대통령 특사로 방북하는 임동원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임 특사는 김위원장의 임동원 등 북한 지도부에 9·11테러 이후 완전히 달라진 미국의 안보개념 및 대외정책을 알아듣게 설명하면서 3개월만에 괴멸된 탈레반 정권의 최후가 남긴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을

일깨워줘야 한다. NPR에 담긴 미국측의 진의가 무엇인지, 핵정책의 목표-행동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핵위기를 해소하는 게 남북이 공존하는 데도 필요한 민족적 당면과제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서방세계외의 신뢰가 왜 중요하며 신뢰회복의 방법론은 무엇인지도 알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북한의 존립 및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경의신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의 5대 현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스케줄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임 특사의 방북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지는 중차대한 행차다. 또 남북간, 북미간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임하기 바란다.

노재봉칼럼

전 국무총리



北, 체제변화만이 살 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대통령이 이제는 한반도에 전쟁위협은 없다고 국민 앞에 말씀하신 때가 언제 일인데, 지금 다시 그 대통령의 정부에서 위기를 거론하며 특사급 파견한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도대체 이 정부의 안보기준이 무엇인가.

특사파견 발표도 마침 특검이 활동종결 보고를 하는 날로 잡아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이태재단의 문제에 대한 관심의 강도를 희석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나 월드컵 등 여러 가지 대사를 앞에 놓고 다시 햇볕정책을 가동시켜 국민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핵 등 대가지를 요구 안통해

그동안 금강산관광에 쏟아 부은 4억달러의 돈이 북에 들어가서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사실을 미국은 한국정부에 비망적으로 전달했다는데도, 정부는 다시 금강산관광을 세습으로 지원하면서까지 계속하겠다는 도저히 그 정책의 합리성이 이해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행위가 개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당연히 반역죄에 해당할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외교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서 백보를 양보한다 해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돈으로 위장된 평화환산 것에 불과하다. 무엇 때문에 이래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감상문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래도 대통령 개인의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햇볕정책은 평화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현

재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차원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간에 부차적인 의미 이상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사정을 덮어놓은 채 긴장해소의 성과라고 하여 그간의 행적을 정부가 크게 신진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완전세대(完全世代)에게 엄청난 착각을 안겨주며 내적인 힘의 약화만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 요즘 일각에서 알고 있는 반미운동인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이라는 유희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군의 강력한 억지력을 배경으로 해서 가능했던 것인데, 이 억지력을 약화시키려는 북의 끈질긴 전력이 요사이의 정부조차 슬그머니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체면 파주기를 미국에 간접히 요

구해 온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남의 월드컵과 북의 이리강속전을 이용해 이미 시간 반기에 나선 북의 입장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갈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세계적 추세 속으로 한반도 문제를 끌어내어 막다른 골목에 이른 북의 운명에 되로할 언어주는 전력을 구사하려 한다면, 이따말로 더 큰 불행은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국민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제는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본도 자국민의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과 수교는 불가능을 벗어난 바 있다. 특히 미국이 핵 미사일과 통상병력문제뿐만 아니라 인권과 테러문제를 추가해 한 묶음으로 내놓고 과거와 같은 사안별 견종이 아닌 일괄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의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정부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른 것과 분

리시라 접근하자는 의사인 듯한데, 이미 북한문제를 세계적 안보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를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또 시간적으로 봐도 중국의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 북한문제의 본격적인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기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충분한 역지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스스로 이미 채택했어야 할 방향이었다.

정부도 햇볕정책 거품 때야

이제 공은 북으로 넘어갔다.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방법이나 바람직한 전략도 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이상, 북도 세계의 제반 사정이 혁명적으로 변한 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체제변화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한편 한국정부도 더 이상 자아 도취적인 환상을 좇지 말고 정도(正道)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만약 지금부터 삼삼리 악은 피를 뿌리다가는 엄청난 난관을 초초하지 않을 거려된다. 이미 북한이라는 요소로 한국 내부정치 구조적 요소까지 끌어들이 자리잡게 한 정부는 그만큼 점적계인의 카드를 더 잡고 있다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권력 재창조를 꾀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하세로 붙어오는 가계부채처럼 정부의 햇볕거품도 이제 거품 때가 됐다.

문화일보

천냥 빛 말 한마디

時論



김광원 논설위원

오늘 국가환경이 탄탄치 않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대(對)테러친 친연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파급음을 내고 있다. 특히 중동위기가 가속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 경제불안 심리까지 일거에 이르렀다. 부시" 북한을 겨냥한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 역시 그 언저리에 엉겨붙을 해운계 지간의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월까지 2~33월의 방북에서 거둔 임동원특사의 보따리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의 방북은 여러가지 면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그리고 남북·미 관계의 재정립에 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긴장조성 여파와 경의선 연결등에 과제 및 기타 문제에 관한 협의내용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기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미 관계를 남북이 먼저 당사자로 나서 협의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간 계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북한으로서는 임동원특사의 회담을 계기로 그같은 기본전략을 수정한 셈이다. 이번 회담의 성공여부를 떠나 회담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 배경이기도 하다.

문제는 남북간의 변화 때마다 남북갈등 현상이 첨예화되는 경향을 되풀이 해왔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번의 경우에도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때를 같이해 나오는 '자파는경'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상징적 언어조작으로 나타난 '퍼주기'론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경제불명의 비과학적 용어가 남북관계에 모습을 드러내며 아이러니컬하게도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몇개월 후부터다. 특히 한나라당의 보수파 의원들이 이 말을 단골메뉴로 골랐고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면서 보물경사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기관인 것은 그 논쟁의 장점이 식량이었다는 점이다. 2000년 9월 정부가 북한에 60만톤의 곡물을 지원하기로 한 이후 '퍼주기'는 금강산사업등 남북관계와 동의어가

되다시피 했다. 또 일부에서는 '퍼주기'가 비동의 많고 각음보다는 지원방식 전체에 대한 합숙적인 비판'이라고 논리적 근거를 넓히기도 했다. 이른바 상호주의를 이 부분에도 적용시키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요즘 또다시 달라졌다.

'퍼주기'를 비판하던 한나라당 일각에서 대북발전위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농어촌특위들이 정책논의를 통해 '올해 10월말 우리의 쌀재고가 적정보유량을 무려 800만석이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리 농민과 재정당국의 고통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되고 이용하려는 시도가 막아야 한다. 장부 여담이라고 그 법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정부야말로 야말로 더욱 이 문제에 관한한 야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임동원특사의 방북을 두고도 일부에서는 말들이 많다. 아무리 여야간에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상호불신이 계속되지는 곤란하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최근 한 신문칼럼에서 '며느리가 시집식구 팔레 친경에 식량을 보낸다는 뜻의 '퍼주기'라는 말이 대북지원의 대명사처럼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퍼주기'의 의미는 매우 관계 파괴적이다. 모욕적이고 비호혜적일뿐만 아니라 반(反)인도주의적 분위기가 자아낸다. 이같은 용어를 남북관계에 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고 했다. 그러나 '퍼주기'라는 말은 주고도 천냥 빛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거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임동원특사의 보따리 내용이 또다시 '퍼주기'류의 논전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이해된다. 불안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이아말로 필수불가결한 생존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에서 '퍼주기'라는 용어를 삭제하자.



색깔 공세와 '주적론' 논란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급진세력이 좌파적 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고,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무현 후보 장인의 인민군 부역 전력 의혹을 제기하는 등 색깔론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후보 검증이나 이념 검증이란 이름 아래 특정 후보에 대해 무차별적 인신 공격을 가하는 것은 냉전적 색깔공세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이회창 전 총재가 쓴 '좌파적 정권'이라는 용어가 객관적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돼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김대중 정부를 좌파적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은 시장경제를 무시한 무리한 의약분업 도입,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인한 공교육 붕괴, 퍼주기식 대북정책 등을 사례로 들었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약분업 정책이나 교육 평준화 정책 등을 문제 삼아서 '좌파적'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심하고 의아할 뿐이다. 사회복지적 요소를 띤 정책은 좌파적이란 말인가. 일부에서 신자유주의란 비판을 받는 김대중 정부를 좌파적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우파적'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분명한 기준이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

지 않은 채 자신보다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이면 무조건 '좌파'로 몰아붙이는 행태야말로 색깔공세의 전형적 수법이다.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으로 냉전·수구를 보수로 위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을 방문중인 임동원 특사에게 북한 김용순 비서가 주적론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한편으로 걱정이 드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쪽 처지에선 미국의 군사적 압박, 한-미간 군사적 공조를 문제 삼으며 민족공조를 강조하기 위해 거론할 만한 내용이고, 회담 전략상 초반에 기선을 잡으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북 강경론을 부추길 발미를 제공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이 색깔론이 판치는 남쪽 상황을 잘 알 터인데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재를 제공하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다. 주적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보다 한 반도에 드리운 전쟁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6·15 공동선언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훨씬 시급한 일이다.

대선 정국에서 색깔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경계해야 한다. 구시대적 행태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후보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社說

왜 지금 주적론이 나오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방북한 첫날 북측이 난데없이 주적론(主敵論) 철회를 요구하면서 회담이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조선중앙방송도 때맞춰 "남측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 때 주적론이라는 것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도 계속 그것을 제창하면서 전쟁소동을 일으키는 데 대하여..." 운운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북측의 이 같은 행동은 남북대화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북측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2003년(혹은 8월) 위기설'이 대두되는 등 북-미관계가 점차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갖게 된 기회다. 북측으로선 당연히 이번 회담을 적극 활용해야 할 처지다. 그런 마당에 북측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그들이 혹시 이번 회담에 대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일각에선 북측의 행태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라고 보고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까지 북측의 이런 상투적인 협상 전술을 감내해야 하는

지 답답할 뿐이다. 그동안 남북대화에서 정부가 좀 더 단호하고 원칙에 충실한 자세를 고수했다면 북측이 이번처럼 엉뚱한 주장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대신해 평화체제가 영구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북측이 최소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마련하지는 우리측 요구는 무시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적 개념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 특사는 북측의 당치 않은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성과에 급급해 주적론과 같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차라리 회담을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부가 작년에 돌연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아 정부가 주적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 받은 일이 있었다. 이번 일은 정부가 그 같은 의심에서 깨끗이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복원된 남북관계 정상제도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중인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예정보다 하루 늦은 오늘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다. 임 특사는 북한방문 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 간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의 방북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층 싸늘해진 남북 관계에 해방무드를 조성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대화도 촉구하는 우리측의 의지를 전달,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아 공동보도문 작성에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임 특사의 방북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보도문에 담길 중요한 대목은 그동안 중단됐던 이산가족 교환방문 재개를 비롯, 장관급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서울에서 다시 연다는 것과 월드컵과 평양 아리랑축전에 양측 총리급이 교차 방문하기로 한 것 등이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김 국방위원장의 서을 답방과 북미대화 재개 등 핵심적인 부분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 특사의 방북은 어렵게 성사된 남북간 고위층 대화의 장(場)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임 특사의 방북 효과는 앞으로 남북 '고' 북미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양측이 서로 필요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달 말부터 두 달 동안 개최되는 아리랑축전에 남한을 비롯,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체제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도 한몫을 했다. 촌궁기라는 타이밍이 대화를 재촉한 측면이 짙다. 우리 정부로서도 '퍼주기'라는 일부의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현실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어떻든 경색된 남북간의 대화통로에 돌꼬가 트였다는 점은 매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 국방위원장은 북미·북일간의 대화 필요성에도 등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아리랑축전 기간 중 남측의 이산가족이 대거 평양을 방문, 축전을 관람하고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간 철도 연결을 비롯, 경제 현안도 풀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앞으로의 실천이 중요하다. 진정된 남북간의 화해는 김 위원장의 서을 답방이 그 시작이랄 수 있다. 이제는 김 위원장이 전면에서 나서야 할 때다.

### 시설

### 남북 합의 실천이 과제다

### 대한매일

THE KOREA DAILY NEWS 1996 6 27 411 418

2002. 4. 6 (토)

방북중인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데 이어 5일 북한 당국과 대화재개 문제를 협의, 이산가족 상봉과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의 이달중 개최 등에 합의했다. 임 특사의 북한 체류 일정이 6일로 하루 더 연장됨에 따라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은 비료 및 식량 지원,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한 협력을 위한 대화 재개에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가 개최되면 장관급 회담, 군사당국자 회담 등 각종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높이 평가된다. 또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악화됐던 북·미 관계의 개선에도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뉴욕에서 미국과 접촉한 데 이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볼 때,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합의가 의미있으려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이같은 실천 방안의 하나로 남과 북은 각급 대화 재개와 협력의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순항해 왔지만 내부 요인과 외적 변수에 의해 쉽게 교착상태에 빠져 들고 말았다. 대화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세부 실행 시간표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제부터 재개되는 남북 대화에 원칙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정부의 대북 교섭을 두고 과장되게 비난해 온 정도 없지 않지만, 정부 또한 비난을 살 만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협상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화 지속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미국의 변수도 있었지만 북한은 늘 대화를 할 것이지만 실천적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주저론(主敎論)을 들고 나와 진통을 겪게 만들었다. 수십년동안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어온 남북관계에 비추어 최소한의 군사적 신뢰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저론의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군사 회담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지 상대방의 일방적 굴복을 요구해서 풀린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또 남측은 제쳐두고 미국과의 대화를 앞세우다가, 잘 안되면 남측을 기웃거리려는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없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피해 가려는 남북대화에서는 더욱더 안된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북한에 대해 분명히 주시시키면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 남북한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임동원(林東源) 방북 특사와 북한측은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남북경협추진위 재개 등에 합의했다. 남북경협추진위가 열리면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 문제, 대북 식량지원과 비료지원 문제 등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남북한 교류 협력사업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이산가족상봉만 하더라도 북한은 작년 10월 날짜까지 받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일정을 취소했다. 남북한 경협사업 역시 대부분의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북한이 이를 실천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답보상태다. 북측은 미국이 악의 축이니 워니 하며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한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또 무슨 구실을 대며 합의사항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사실 북한이 오늘날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에 거부반응이 생기는 주된 이유도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공지 탈출'의 일시적 방편으로 이용하려 해서 안 된다. 남북한 관계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보조 수단이나 남측으로부터 비료나 식량 등을 지원 받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북한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그런 자세가 우선되어야 북-미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남북한 관계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 하거나 무원칙한 지원에만 급급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불신만 더 쌓이고 남북한 관계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정부는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林특사 무엇을 가져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林東源)씨가 북한측과 이산가족 상봉 및 경제협력추진위 재개 등에 합의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당초 5일 중 남북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귀경(歸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이번 특사 방북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미·북 대화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돼 왔다. 임 특사는 4일 저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및 만찬을 포함해 5시간여 동안 자리를 함께하면서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달라진 세계전략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 이에 대한 북한의 바람직한 대응자세 등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임 특사는 또 김 대통령의 친서와 미·일 정부의 대북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산가족 상봉재개 같은 구체적인 합의 못지않게 특사로서의 중요한 임무는 최고통치권자의 의중을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전반적 문제

의 타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 만큼 '5시간의 대화(對坐)'는 발표된 것 이상의 함축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 특사 방북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측에 대해 '주적론(主敵論)' 폐기를 요구하면서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택일하라는 식의 위협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앞으로의 남북대화에 여전히 암운(暗雲)을 느끼게 하는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북한당국의 태도는 평소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해석할 때도 유독 '자주'만을 강조함으로써 '외세공조'를 폐기하라는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한·미 합동군사훈련 폐지와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의미한다.

임 특사는 북한의 이러한 인식과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피력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 밖에도 남북 간에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국내외에서 제기된 수 있는 의혹을 최소화해야 한다.

# 社 說

## ‘남북합의’ 이행이 중요하다

世界日報

2002. 4. 6 (토)

임동원 대통령특사의 귀환이 하루 늦춰진 것은 그만큼 합의문 조율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 특사는 한반도 정세로 보아 아주 필요한 시기에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5시간 면담, 3박4일간의 실무회담 등을 통해 상당한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된 대로 '이산가족 상봉-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의 성과만 갖고도 큰 결실의 단초를 감지할 수 있다.

우리는 임 특사의 이번 방북의 주된 목표가 한반도 위기 해소에 있었다는 점에서 임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과 김용순 노동당비서와의 회담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을 거론하고 북미, 북일대화를 촉구한 대북을 주목한다. 임 특사와 김 위원장은 5시간 대화에서 민감한 현안들을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

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당국간 회담의 재개 여부를 주시한다. 왜냐하면 군사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주적론(主敵論)이나 '민족공조' 등 어려운 문제에 진전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항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산상봉과 경의선연결 등 기왕에 합의한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가시화돼야 할 것이다. 축시라도 쌀이나 비료 지원과 일일적인 협력이 교환되는 식으로 남북관계가 전개돼서는 안된 것이다. 북한이 아쉬울 때만 대화하고 문을 닫아서는 식이 되풀이된다면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관계에도 미래는 없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상생(相生)의 남북관계가 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사 설

### 남북합의, 실행이 중요하다

문화일보

2002. 4. 6 (토)

임동원특사가 지난3일부터 3박4일동안 북한을 방문, 이산가족 상봉및 경제협력추진위 개최등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관계에서도 매우 의미깊은 일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이래 단절됐던 남북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합의사항을 이끌어낸 것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보도문은 남북관계와 관련, "그동안 일시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철도와 도로연결 및 남북간의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회의와 실무협의회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더욱이 정부가 몰들어 대북정책의 5대 핵심과제로 정했던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등에서 남북간에 구체적인 협의일정까지 잡힌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이러한 합의들이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도 출현 것은 더욱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남측과 대화를 중단한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한 축이었다. 미국의 대테러전 친명과 '악의 축' 발언, 그리고 핵테세 검토보고서등으로 한반도 안정은 크게 흔들렸다. 더구나 중동의 갈등이 심화되며 국

제한경이 악화일로였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간의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연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 마당은 마련된 셈이다. 북-일관계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을 취해왔던 북한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미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융통성을 보인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은 보다 편안한 자세로 남북관계및 국제문제를 다룰 수 있게됐다.

문제는 대화의 지속과 합의내용의 실행이다. 그동안 남북은 중요한 합의를 이루고도 그 진전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았다. 남북은 이번 합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낸 이번 합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남북은 동시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미국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도 해야 한다.

남측은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남남갈등이 동반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측은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힘써야 할 것이며 북측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끝까지 지키는 신뢰를 보여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2002. 4. 6 (토)

### 한반도에 햇볕 다시 들러나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나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임 특사는 김 위원장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5시간 동안의 면담과 만찬을 통해 서로 솔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한안들) 논의했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 간의 간접대화 자리인 만큼 겉으로 드러난 합의 외에도 속깊은 이야기들이 폭넓게 오갔음을 짐작케 한다.

임동원 특사가 방북해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등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대화의 끈을 다시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북한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 선언 이후 남쪽과의 대화를 중단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북한 등을 겨냥한 미국의 핵대세 검토 보고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점차 고조돼 왔다. 특히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갈등으로 '2003년 위기설'이 나도는 등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다. 임 특사가 민족 화해·협력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으뜸 화두로 들고 갔음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남북이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짜는 데 어디까지 교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 의지를 나라 안팎에 과시함으로써 일단 긴장을 누그러

뜨리는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북·미 갈등이 봉합되고 궁극적으로 두 나라가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임 특사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으며, 대화를 원한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북쪽에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 쪽의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대화 분위기가 촉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뉴욕 접촉을 통해 북·미 대화에 유연하고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있어 대화가 기대된다.

임 특사 방북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햇볕이 내리쬐기에는 마련된 것 같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 중요한 합의를 이루고 대화를 진전시키다가도 예상치 못한 돌출사건에 휘둘러 난항을 겪곤 했다.

남북은 이제 간신히 되살려낸 대화 끈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자중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만든 대화 분위기를 또 흔러보내서는 안 된다. 남쪽은 일부 수구세력의 강경한 목소리가 대화 분위기를 흐트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북쪽도 합의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주위에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핵심적 구실을 하는 미국과의 조율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 경향신문

2002. 4. 6 (토)

### 남북관계 복원을 환영한다

남북이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을 통해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번 남북간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대북 비료·식량지원, 개성공단 조성 등 이미 약속해놓고 지형을 유보했던 현안 사업들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이제 남북한 당국 앞에는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여지게 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합의가 인화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천, 안정적인 대화 기반을 조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동안 남북대화는 한반도 안팎의 작은 현안에도 쉽게 중단되는 불안정성을 보여 왔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종종 북·미관계에 종속시켰던 것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물론 한반도 안보 구조상 북·미관계 변화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북·미 현안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남북대화는 현실적으로도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

니다. 남북대화는 한반도에 화해기류를 조성하고 이는 미국에 영향을 미쳐 미국의 대북 강경책의 실효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북한에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그 효과가 북·미관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북·미간에는 대량살상무기,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사찰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 북·미대화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대결이 아닌 대화로 차근차근 접근해나간다는 북·미 양측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변화가 아니라 태도변화를 원한다"고 정리, 흔들거리었던 대북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정이다. 이미 두차례 뉴욕 북·미채널을 통해 양측이 대화의지를 확인한 것도 좋은 징조이다.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고 그럼으로써 한반도 위기가 막끔히 걷히기를 기대해본다.

# 특사의 성과 평가할 만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임동원 특사를 평양으로 보내면서 '임무 완수'를 각별히 당부했을 것이다. 그 이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직간접적인 교감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그 덕분에 특사 파견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측은 우선 상호존중과 긴장예방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선언적이라고는 해도 남북관계의 중립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당장 반가운 것은 이달 28일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재개기로 한 점이다. 북한측의 주장에 따라 금강산 상봉으로 낙착된 게 다소 아쉽긴 하나 이산가족들로서는 장소가 문제될 게 없다. 또 교환방문의 정례화나 상실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감이지만 일단 물꼬는 트인 셈이다.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은 물론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점은 특기할 성과다. 이로써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적극화할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정서적으로도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는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군사당국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평화구조 정착은 불가능하다. 북·미관계 역시 이 바탕 위에서만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가 있다. 아마 김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에 힘입은 것이겠지만 북측이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선 것은 아주 다행이다.

남북 양측이 발표한 이남의 공동보도문 합의사항은 6개항이다. 이 가운데 '대화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제4항은 다시 5개의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경제추진위 2차 회의 및 7차 장관급회담 개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을 비롯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돼왔던 대화·교류·협력사업들이 담겨있다.

북한이 남한의 선의와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대남관계의 발전을 대외정책의 근간 및 출발점으로 인식하게 된 듯해서 정말 반갑다. 공동 보도문 제6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 '동포애,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이아말로 남북관계의 건강성을 담보할 요건이다.

일방적 시혜-수혜의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의 관계가 되면 오해와 반목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찾아보면 서로 도울 일은 얼마든지 있다. 상호주의가 아니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민족 상생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 사설

# 社說

## 北도 마지막 기회다

엇그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사가 가져온 방북(訪北) 결과는 지난 1년간 경제를 먼저 못했던 남북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만하다.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인건을 제외하고는 남북이 기왕에 합의했으나 이렇지런 이유로 중단돼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본란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남북간에는 작은 합의사항이라도 하나씩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남북 양측은 기왕에 걸쳐놓은 일들의 마무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측의 자세 변화가 관건이다. 북측이 현재 남북 및 북·미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서 과거보다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번 합의는 또 하나의 공수포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혹은 올 하반기에 도착할 수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서 북측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

이다. 임 특사도 이번 방북에서 이 문제를 집중 기원하고 북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압력은 북측에 있다.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북측이 이번 합의를 자신이 현재 처한 난국을 모면할 임시방편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시한폭탄의 위력을 더 키우는 길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임 특사의 이번 방북에서 북측 당국자들은 '민족공조와 외세공조 중에서 택일하라'고 우리측을 압박해 첫 이틀간 회의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고집하는 한 북측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측은 이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발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는 다르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대량살상무기 문제다.

이번 남북 합의는 김대중(金大中) 정부로서도 '마지막 기회'이지만 북측으로서도 남측과의 협조 하에 대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기회를 북측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한승주칼럼



고려대 정치과 교수 前 외무장관

남북한 관계가 경쟁을 벗어나 다시 합성화할 것 같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재개되고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이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이처럼 다시 풀려나갈 수 있다면 무척이나 반기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국과도 대화를 갖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옛그레까지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므로 남북과의 관계를 부활시키지 못하겠다는 북한이 무슨 연고로 태도를 바꾸었을까?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식량문제등 고려' 가능성

첫째, 서방 언론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자세에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군사력을 상당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의 '핵의 축' 발언, 적대국에 대해 신중의 핵무기도 할 수 있다

는 핵테러검토보고서(NPR)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아프간 군사작전을 지켜본 북한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적대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위험하고 불리한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北 태도변화 어떻게 볼까

이이다. 둘째, 부시는 지난 2월 방한에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진정으로 원하며, 북한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는 그때까지 '대화를 하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와는 다른, 다소 우화적인 태도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식량, 비료, 금강산 관광 등에서 대북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는 데 감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로부터 북한의 식량사정은 악화하지 시작했다. 작년의 식량이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금강산의 식량 부족량이 10(만~1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기관들이 아프간 등 다른 나라 구호에 몰두, 북한에 들어갈 식량이 충분치 못할 것이므로 북한은 남한의 관계개선으로 식량 지원을 얻어내야 할 형편이다.

넷째,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재임시의 실적을 반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후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 방안일수도

그러나 북한, 특히 김정일, 김정은, 김 위원장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고려하는 것은 아닐 수 없다. 위에 든 것들은 모두 보조적인 여건이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 하나로 방향전환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1년 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발전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미관계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

햇볕정책, 北 개방에 기여

실속 북한이 남한을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한 방편으로 간주하더라도 어쨌든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중국적으로 우리에겐 북한이 미국 등 바깥 세계와 되도록 많은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한미·일 등과 더 폭 넓은 관계를 가지면 외부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햇볕정책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으나 북한에게 외부, 특히 남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시킴으로써 북한에 개방과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지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영일보

임동권(林東勳)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다녀왔다. 많은 사람들은 林특사가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그리고 북측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성격상 대화내용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을 줄 안다. 다만 林특사가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방북목적은 내년에 있을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사전에 해소하는데 있다고 설명한 것을 보면 그가 북한측에 전달한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문제로는 1994년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방지하기 위해 미·북간에 '합의의 탑'을 이칭하는 문제와 북한측이 3년간 중단하고 있는 미사일 실험 발사를 재개하는 문제가 있다.

核사찰·미사일 당면과제

원래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시간적으로 연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특별사찰을 북한이 제동된 경우로 핵문제가 돌아가기 전에 실행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문제는 IAEA측이 특별사찰에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특

발사할을 시작할 것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아직 특별사찰에 합의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있다. 더욱이 여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강경 우파세력들이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했다고 주장한다는

과거 냉전시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사일 문제는 국제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의 안보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해결돼야 할 도전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과

관련했다고 선언했거나 때문에 미사일 문제도 해결할 때대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3년의 실험발사 중단기간이 끝나고 미사일 발사 문제가 또 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北 설득할 전략 구상해야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은 옳을 판단이다. 그리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기술적으로는 제네바 합의사항의 핵심 등 여러 가지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중국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여권직 보낸 2003년 위기가능성은 한·미동맹에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평화와 안정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회창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다시 열리는 남북대화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기다려 볼 만하다. <사회과학원 원장·고려대 석좌교수>

김경원 칼럼



한반도 위기와 희망

같다. 만일 그렇게 되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94년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당시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까지 위협 준비가 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자칫 잘못됐으면 한반도는 잿더미가 될 뻔할 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에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가 대량 살상무기 제조 및 판매하는데 대해

두들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 및 수출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그대로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바로 이와 같은 고려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 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는 거래를 한 약속까지 돼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정부와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최후적인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다만 북측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3년간 유예

時論



河英善

입동원 특사가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남북의 6개 공동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은 지난해 11월 제5차 장관급회담이 열린 이후 얼어 붙어 있던 남북관계에 정말 봄 같은 편이 찾아올까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입동원 특사의 평양방문을 수락한 이유를 "민족 앞에 닥친은 엄청난 사태와 관련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민족끼리 공조해 나갈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들어 보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美·北 벵글 외교 불보듯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봄에 따라 남북의 합의내용을 해석하면 엄청난 사태를

다른 1항과 남북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다룬 2-6항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2-6항의 성공적 추진여부는 1항의 노력이 얼마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핵심적으로 공을 들여야 할 것은 엄청난 사태의 해결이다. 긴장해소의 기반없는 대화와 협력사업의 노력은 끊임없이 파도에 허

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와 달리 2단계 대테러전의 틀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협상전에서 정치전으로, 그리고 군사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엄청난 사태의 원인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서 찾는다면, 북한은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엄청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존의 최종 담보

벼랑 끝 외교의 순서를 밟아서 타협점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북미의 벵글 외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남북의 대화와 협력사업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다음으로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갈등의 심화를 겪게 만들 것이다.

민족·국제 공조 함께 가야

한반도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2단계 대테러전쟁의 목표가 되는 대량살상무기체계를 포기하는 대신에 한국과의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체계를 2단계 대테러전쟁의 틀에서 다루는 경우와 이러한 조치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보다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기반 위에 남북의 대화와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한반도의 진정한 봄은 소리로써 찾아올 것이다.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봄'은 올까

들어지는 사상누각의 위험성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한반도의 엄청난 사태를 십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오해의 이중성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조심스럽게 분석해왔다. 특히 9·11 테러사태와 10·7 대테러전 이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악의 축'과 같은 군사적 시각으로 보아야 할지, 수령과 인민을 분리하여 제도변경을 시도하는 정치적 시각으로 보아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부시 행정

로 생각하는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합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책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 담당대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대화 노력이 구체화하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2단계 대테러전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은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근질긴 반외세투쟁의 대미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테러전과 북한의 반외세투쟁의 어우러짐은 북한과 미국으로 하여금 십사리 엄청난 사태의 해결을 모색하는 대신에 힘겨운

문화일보

정권·임기 초월한 '햇볕정책'을

입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팀장 특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지난해 9월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사항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어서 남북 관계 진전의 불씨를 되살렸다.

북한이 남북의 특사 방문 제의를 수용한 것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족공조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한 당국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측 입동원 특사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5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한 반도에서 긴장 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2년 한반도 위기감'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합의 성실이행이 첫과제

남과 북이 공동보도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 정신과 합의 사항에 따라 '일일 동결되었던 남북 관계를 원상 회복'하기로 한 것은 남북 관계의 장기 정체에 따른 공동선언의 '사후화'를 우려한 것 같

다.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가 장기 정체에 빠진 상태에서 남측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남북 관계 재설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 남측에서 강경 보수 정권이 출현할 경우 한-미-일 보수 삼각연대가 구축되는 데 대한 우려, 그리고 심해지고 있는 경제난 등을 반영하여 6·15 공동선언 이행차원에서 이번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임특사가 밝혔듯이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우리측이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공동보도문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대화와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남북간 합의 사항의 이행이란 차인과 함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호응 의지를 간접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촉진할 것이라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시장경제 수용 촉구에 대한 '회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경의선 연결과 경제적 의미가 내포된 동해선 연결 및



고 유 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북-미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이번 특사 방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정책 전환을 위한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 극복과 남북결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공조에서 남북공조로 비중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한-미 갈등과 반미주의 확산을 잘 수습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론으로, 이번 합의 사항 이행 과정에서 뒷물러 돌아갈 수밖에 없는 대안 구도와 관련한 남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대신 이후 미국의 전통적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미관계 재설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추보에게 유리한 대남 정책을 추진할 경우 남북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과제들을 종합적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임기를 초월한 '햇볕정책'의 객관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학습' 기회가 될 경제 시찰단의 남한 방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의선 연결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상징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유력한 담판 통로가 된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현 정부 임기내 담판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미를 가진다. 동해선 연결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을 염두에 둔 북측의 전략 제안으로 북한의 남북결합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북미관계 상응조치 필요

합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 이행이다. 제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들이 '9·11 테러사태'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듯이 이번의 합의 사항들도 이행 과정에서



기대감주는 北·美접촉

임동원 대북 특사의 귀환과 때맞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가 북한을 방문해 주목된다. 그의 방북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객 프리처드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수용키로 했다는 임특보의 대북성과 발표가 있던 날 이뤄졌다. 그레그 전대사의 방북은 지난 2월 추진중 무산된 전직 주한 미대사 4명의 방북계획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북시점이 나 북의 태도 등 주변정황엔 환영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의 부시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지난해 9·11테러 이후 '악의 축' 발언으로 언어분은 북·미간 대화시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준다. 특히 김위원장이 우리측의 북·미대화 재개 권고에 대해 "프리처드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수용하고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와의 협의도 다시 하겠다"며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천명한 직후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종속변수로 취급하며 확대했던 자세와는 정반대로 실질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이 실현되고 북·미대화가 재개돼도 성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휴전선 일대의 재래식무기 현수, 북한의 인권문제 등 양측간 현안은 하나같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자칫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거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협상태도를 보일 경우 언제 협상이 결렬돼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불거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양측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서로가 상대방과 외교적 현실을 인정하는 협상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미국이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러지만 4천8백만 남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는 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은 극히 제한돼 있다. 북한 역시 미국의 도움없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국제적 지원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년여의 기세싸움을 통해 대화보다 더 좋은 협상수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 교훈을 되새기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심원할 때다. 남한은 북·미대화가 성과를 거두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 키우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朝鮮日報

2002. 4. 8 (월)

특사방북 以後에 명심할 일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 이후 현 정부는 다음의 사실들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과연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하는 점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이 기대 이하였던 것은 합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북측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합의'와 '파기'를 수없이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이른바 '선미후남(先美後南)' 입장을 견지해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對美) 관계가 악화되자 대남(對南) 대화도 동결해버렸다. 때문에 앞으로 대미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대남 대화를 다시 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특사회담에서 우리측에 이른바 '민족공조'와 '외세공조'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두 가지 공조를 양립할 수 있다는 막연한 선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한·미·일 공조'와 '남북협력'의 속도, 우선순위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조전해 나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야 한다. 그래야 북측의 '외세공조' 파기 시도를 차단하고, 우리 내부의 이른바 '남남(南南)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 합의문 내용은 대부분 북측이 필요로 하는 김형부문에 치중돼 있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장소를 금강산으로 지정함으로써 북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 한반도 긴장의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키가고 있는 인상이다. 이것이 현 정부가 핵과 미사일을 미·북간의 문제로만 파악하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건과라면 우리할 만한 일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정부부터 더욱 확고히 가질 때다.

현 정부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임기 막바지에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올려 이를 대선(大選) 국민에 환유해보려는 유혹이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보다 겉포장에 신경쓴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社說

## 사설

### 남북관계 진전이 평화 지키는 길

북한을 방문했던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공동보도문에 나와 있듯이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등 가시적 합의 사항들도 눈에 띄지만, 군사 당국자 회담을 얻기로 하는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양쪽이 공감대를 넓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든 구절이 이를 잘 표현해준다. 이번 특사방북이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한 경제, 민족 앞에 닥쳐온 임중한 사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전쟁 위기를 예방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만큼 특히 기대가 크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국과 대화할 뜻을 비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북한이 남북관

계를 원상 회복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한때 한반도를 뒤덮었던 먹구름은 걷히게 될 것이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병행되는 것은 대화의 틀이 한층 견고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특사방북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사이에 새롭게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많은 일들이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경제협력추진위와 실무협의 회, 금강산 관광 협상화를 위한 당국자 회담, 군사 당국자 회담, 경제 시찰단의 방남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확고히 정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 해야 남북이 좋은 합의를 이루고도 외부 돌출변수로 삐걱거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방해 요소가 끼어들 틈새를 주지 말아야 한다.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낸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은 이번이야말로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 社說

### 공동선언, 실천이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담당 특사의 귀국 보도에는 뜻밖에 많은 신문이 들어있어, 모처럼 내린 난비와 함께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아주었다. 6일 남북에서 동시에 발표된 공동선언문 내용은 부시 미국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된 북미관계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 공동선언 직후의 해빙기로 돌아갈 듯한 희망을 안겨준다. "일사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다"는 공동보도문의 표현이 더욱 기대에 부풀게 한다.

경제협력 사업 재추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측방문, 금강산 관광사업 원상화 회담, 군사 당국자 회담 등 시기까지 정한 구체적인 합의가 그런 기대를 안겨준다. 무엇보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선언문 제1항에 우리는 주목하

고 싶다. 서로 상대가 의심하고 경계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써 평화관계를 맺자는 이 약속에 7,000만 민족의 입원과 세계의 관심이 담겼다 해도 좋을 것이다.

"민족 앞에 닥쳐온 임중한 사태"에 대해 폭 넓게 협의했다는 내용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에 관한 미국의 압력을 예德利 말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자세가 매우 유연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책 프리드 미국 대북교섭 담당대사의 방북을 수용하라는 우리의 권고를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시사라고 본다.

어떻게 씩 비운 평화의 꽃나무가 활짝 꽃피게 하려면 물과 퇴비를 잘 주는 것도 좋지만, 거센 바람을 막아주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 외교에 꽃나무의 운명이 걸려 있음은 외교 안보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社說

북측의 성실한 이행이 관건

임동원 특사의 방북회담은 작년 11월 제6차 장관급회담이 걸렸던 이래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비롯해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동해안과 서부지역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조기에 연결하기로 한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의미 있는 청신호로 평가된다.

더욱 그 동안 국제적으로 긴장상태를 가져올 만큼 악화되었던 북·미관계와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관계에 대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 뜻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용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적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7차 남북장관급 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에 대해서는 재개 원칙만 합의하는 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보지 못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관해 주적 가벌과 연계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경제협력용 의주-천안 횡단철도 개개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 당국이 이번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에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면 그 때는 햇볕정책에 대한 남북 여론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대북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착수는 경제협력 차원에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청신호로 평가된다.

북한은 합의사항에 대해 북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여부가 남북경협 폭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도라산역에서 북측이 연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철도복원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북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대북경제협력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북측의 이행여부는 국민의 정부로서는 햇볕정책을 마무리하고 차기 정권으로서는 대북관계의 출발점을 설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남북 양측에 큰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

사설

남북경협 활성화를 기대한다

임동원 대통령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찾게 돼 다짐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의 개최일자를 확정하는 등 남북 긴장완화와 협력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특사 방북의 큰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이번 합의사항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성실히 실천에 옮기느냐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남북한 내부의 사정은 물론이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의 이산가족 상봉처럼 북측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다. 우리는 남북 긴장완화와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그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남북경협 활성화를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 많다.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내달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비롯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 회담을 5월11일에 금강산에서 열고, 5월중 북한이 경제시찰단을 서울에 보내기로 합

의했다. 경협추진위에서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철도 및 도로연결은 경의선 이외에 새로 동부지역의 동해선을 빨리 연결하기로 했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다.

이들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남북경협에 가속도가 붙을 것임은 분명하다. 사실 남북간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면이 많은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란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경제협력 활성화가 기업들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대북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제거하는 일이 선행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도나 도로가 연결되고, 공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선뜻 투자에 나설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2000년 말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결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종과세 방지, 분쟁해결절차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기본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급선무다.

특사방북으로 일단 남북관계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된 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지난해 기대나 낙관은 금물이다.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설

남북합의, 이제부터가 문제다

남북한이 휴전선 동·서쪽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각종 회담을 재개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북한은 임동원 특사를 통해 대미·대일 대화 재개를 권고한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안정했던 한반도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林특사가 거둔 방북의 큰 성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林특사가 귀환 회견에서 "이미 합의돼 있던 것을 실천에 들어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번 합의사항 대부분이 기존에 합의된 사항들이다. 북측이 대화의 문을 닫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북한측이 필요하면 문을 열고, 불리하면 합의를 사문화하는 습성을 끝의지와 자세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공개·비공개 절충에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보장장치를 단계별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사항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와 남북 화해 협력을 신장시킨다는 대의(大義)는 있다. 그러나 합의사항 대부분은 우리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대북 지원의 단계마다 모호하게 합의한 사항의 구체화는 물론, 특히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

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북 퍼주기' 논란이 없어지고 국민의 대북 지원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도 뒷받침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공동보도문에는 적시되지 않은 '밀약'과 '뒷거래'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합의가 남북한 정권에 다 같이 조성된 정치적 난관을 헤쳐나갈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은 없는가 하는 물음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을 답변이 거론됐다는 데 주목한다. 정치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깜짝 쇼'의 발표 대상이 될까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林특사는 합의내용과 협상 경과를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또 북·미, 북·일관계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핵사찰·미사일·대량살상무기는 물론 국군 포로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에 소극적 입장을 계속 취한다면 미국이 대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법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남북이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위기가 넘어가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북한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世界日報

2002. 4. 8 (월)

社說

이제 실천만 남았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돼 있던 남북관계가 정상화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것 외에도 북측의 제의에 따라 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새로이 합의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서부 양쪽에서 군사분계선이 뚫리게 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는 대륙횡단 철도망과 접속되어 이른바 '철(鐵)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대목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이 남한의 '권고'를 받아 들어 북미관계 개선의지를 보였으며, 이미 그 움직임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위상과 비중이 한층 커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이 9·11테러사건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전환하여 '한·미·일 공조'가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포괄적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10개월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일이다. 우선 북한 지도자들은 그동안 변변히 합의해놓고도 남남갈등이나 국제정세 변화가 돌출하면 이를 중단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평양방문에 이어 잭 프리처드 미대북교섭담당대사의 방북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비롯해 핵사찰 문제에 대해 결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 등에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직접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를 믿고 기대하고 있는 남북 동포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에는 보다 실리적인 대북 접근이 요망된다. 식량·비료지원과 관련해 다시는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외세공조' '민족공조' 문제와 '주적론(主敵論)' 문제는 여전히 정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의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이 요망된다.

사설

북한의 실천의지 지켜볼 터

임동원 특사의 방북 결과를 놓고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특사의 방북으로 이루어진 양측의 합의가 과연 실천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고 혹시라도 '밀약' 또는 '뒷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데 대한 경계다.

우리는 이미 본란에서 강조한 것처럼 임특사의 방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선 양측이 '2003년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서로 긴장상태를 조성하지 않기로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수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색된 남북관계를 본래대로 진입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뒷거래'에 대한 경계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양측의 합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 그동안 합의와 실천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해왔음을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특사의 방북으로 합의된 사항들 중 당장 북한에 시급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다룰 경험 추진위 2차회의와 그에 대한 '답례' 성격인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 2차회담만 날짜가 확정됐을 뿐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시기 미경이다. 이는 곧 이것들이 언제라도 다시 백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그간 각종 합의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은데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북한은 이번에도말로 그같은 행태에서 탈피해야한다. 이번 합의가 아리랑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기적으로 절실한 식량 및 비료지원,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후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얻어낸 뒤 또다시 합의를 무효화한다면 그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실망과 분노는 견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북한은 더욱 고립된 채 어려운 형편에 빠질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북한이 합의의 이행에 나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북한이 기대를 저버릴 경우 대북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포용정책이 최선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북한의 의도대로 이끌려가서는 안된다. 이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시론



柳吉在

역시 북한다운 선택이다. 임동원 특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김진일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크게 자랑했다. 적 프리치드 대북교섭대사의 방북을 허용하고 한반도에 너지개받기구(KEDO)와의 협의도 재개하겠다고 함으로써 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진 셈이다.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반도에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이 조성되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대화 분위기를 기대해도 좋을 듯싶다. 김 위원장은 남쪽의 특사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기중으로서 특사 방북 전에 과인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만금히 해소시켜 주었다.

임특사 방북성과 일단 함격점

특사 방북의 목적은 북미간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위기를 예방하는 것과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공동보도문에서 밝혔듯이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했으니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 특사 파견은 평균점 이상의 평가를 받을 만

北-美대화 물꼬는 텃지만..

하다. 그러나 북한의 북미대화 재개 의지는 임 특사에게만 밝힌 것이 아니다. 북한은 임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지난 3일, '악의 축' 발언 이후 중단된 KEDO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조선중앙통신 명의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가 미 국무성 관리들 대동하고 임 특사가 귀환하는 바로 그날 평양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2월에 추진됐던 4명의 전직 대사 방북의 일환으로 방문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 국무성 관리가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대화 의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은 임 특사가 오기 전에 이미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모양새로는 북한이 남한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요청에 호응하여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과의 대화들이 이미 장해 놓았던 것이다. 도대체 북한은 무엇할 노리는 것일까. 조지 W.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소강 국면으로 떨어진 남북-북미 관계가 북한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남북간에는 작년 하반기에 대화가 이뤄졌지만 성과적이지 않았다. '악의 축' 발언은 북

는 남한의 노심초사를 심본 활용하여 비료 식량 등을 얻고, 미국에 대한선 공격적이지만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셈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정부가 우리의 노력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시켰다고 본다면 이는 북한의 외교력을 알잡아 보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임 특사의 설원을 듣고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이해를 재고시켰다고 본다면 이 또한 이진일수 我利我利다.

위기모면용 대화수용 가능성

북미 대화는 이제 기우 시작일 뿐이다. 아직 날짜도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가 내건 대화 의제를 북한이 모두 수용했는지 여부도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이 국면적인 상황 돌파용으로 대화를 수용했는지, 아니면 부시 정부를 진정한 대화 상대로 진한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거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미관계가 반드시 남북관계의 순탄한 여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때론 함께 가지만 때론 분개할 수도 있다.

/경남대 교수·정치학

△분면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시론



趙明哲  
KIEP 연구위원  
前김일성대 교수

최근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푸는데 있어 북한이 남한을 우회하여 미국을 상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우회하여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는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엔 한국이 수렁의 역할을 미국과 북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명확한 중재자적 역할이었다.

북한은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살피렸으며, 미국은 대화의 첫 단추를 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특사방북은 한반도의 긴장조가 내부 원인에 의해 발생되든, 외부에 의해 강요되든 그 해법은 남북 대화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만 풀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특사방북은 사기의 조작성과 합의 내용의 공정성,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립적도 불구하고 낙관적이지 않은 않다. 왜냐하면 이번 합의사항 대부분이 이미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에서 다뤄진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일련 일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북한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신뢰할만한 징치가 없다는 데 기인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았듯이 감동적인 합의들을 해놓고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왔고, 그 때마다 우리는 아무 '재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병어리 냉가슴 앓듯 했다.

經協등 현실화방안 미흡

그래서 이제 합의서가 나오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끝음이 나오게 된다. "이번 합의는 지켜질까요?" 합의하기는 쉽더라도 일단 합의하면 지키는 것이 보편적인 국제관례다. 국민들은 남북한 사이의 여러 합의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다.

물론, 합의서만 놓고 보면 북한은 아직 도 통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미국의 대테러전과 연계되어 발생한 것인

이번 합의는 지켜질까요

데도 이를 풀어 나갈 만한 문구들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와 같이 간단히 언급하고 대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띠고 있어 이 같은 의구심을 크게 한다.

북한이 처한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이 '경제문제 해결'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셋째, 경제협력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합의에 비해 구체성이 가미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외면한 듯한 느낌이 든다.

현재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상징적 경제협력 사업들'이 대부분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군사적 담보는 전혀 없다는 측면과 협력추진의 기본원동력이 된 재정문제를 해결할 대안들이 없다는 것이다.

협정의 항목과 이행시간표가 제시되더라도 경제·군사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과거 1년으로 뒤물아가는 것은 시간만 재할 것이다. 또 경제사업의 항목과 군사적 담보가 또 있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공염분이 될 것이다.

공관 건설, 철도, 도로, 수해방지, 인도적 지원 등 모든 것이 막대한 자금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북한여건상 북측의 기여도는 거의 없을 것이고, 한국의 내부 사정상 이를 모두 떠안기도 무리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지원에 일부 기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항목을 발표할 때 그 프로젝트들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함께 제시했다면 보다 신뢰성이 있었을 것이다.

北의 성실한 약속이행 기대

아무튼 이번 특사방북을 계기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인강된 만큼 국민들에게 또 심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북한은 성실한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북한 당국은 특히 한국의 국민들이 '상징적 사업'이나 '출발점 합의문'이라는 헌책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으로써 신뢰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

mjcho@kiep.go.kr

△이 글의 내용은 편집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時論



李相禹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받은 임동원 특사에게 북한당국은 '6가지 합의'를 선물로 돌려 보냈다. 우리 대통령이 원하던 견해선 복원외교를 받았고 동해북부선 연결도 원칙합의를 보았다. 그동안 북한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중단됐던 남북한 간의 몇몇 최담장에 북한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 물론 그 대가로 우리 측은 석방지원과 전기공급 등을 '인도주의'와 '상부상조'라는 이름으로 약속했다.

南北간 접촉확대는 긍정적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한 사람이 없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간의 접촉회話が 많

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기대할 것도 없다. 합의 내용은 모두 상한했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의 본질적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미를 가지려면 북한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관건이다.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물을 붓기 전에 뚫린 구멍부터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뜻을 세우기 전에 교류협력을 한다고 무

한 가시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한국정부가 애대게 희망하는 '회담 재개' 등의이다.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재임 중 최고의 치적으로 삼기를 원한다. 김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많은 양보를 해가면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려 애써왔다. 그 결과 남북 정상회담도 성취했고 여러 가지 가시적 협력관계도 성사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부터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남북관계를 진전

속을 지킨 적이 없다.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책임을 우리 측에 넘기고 빠져버린다. 결국 우리는 또 다시 북한의 평화공세에 둘러러 시주는 꼴이 되고 말 공산이 크다.

'평화공세用 합의' 경계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이다. 북한 주민도 우리처럼 자유와 복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국민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을 뜻이 없고 아직도 공산혁명이라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시적·상징적 남북교류만을 천안하게 펼친다고 무엇이 이뤄지겠는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허상에 속아 통일이 임박한 것 같은 환상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북한이 행동으로 정책목표를 입증하게 하는 등 남북공존 체제를 제도화하는 일부터 추진해 나가고, 이것이 이뤄질 때 교류협력을 시작하자. 경의선 복원, 금강산 관광이라는 선기우를 쫓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을 게 걱정이다. '한 이땅의 봄'에서 깨었을 때를 미리 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강대 교수·정치학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北이 먼저 변해야 한다

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이번 남북합의는 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이몽의 합작품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 부시 행정부에 쫓기고 있다. 미국은 북한정부에 대량살상무기 생산과 미사일수출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결연된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 비관론 외교가 통하지 않는 상대다. 북한이 거부하면 미국은 직접 제재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강압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 이미지를 높여야 할 필요가 절박하다. 그 선택이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

시키지 않았다. 김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걸으신 복원 하나라도 이루려고 애써왔다. 이번 남북합의는 김 대통령으로서의 우선순위이다. 이번 합의의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의 길로 들어설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북한은 아직도 체제의 개혁·개방에 전혀 뜻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평화와 이 미치 제고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가시적 접촉은 지속할 것이나 본질적 관계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훈방문 의사 발표 등 평화공세의 수위를 높이지 못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자기체제 변화와 관련한 약

한국일보

메아리

노진환 주필



국가간에 일이 손쉽게 풀리지 않을 때 특사외교가 효과적일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았다. 가끔씩 불협화음의 전조처럼 생략한 채 글러프 보충 논의가 쉬운 구도 되풀이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헌사를 들고 평양을 찾은 임동원 특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록 제류일정이 하루 늘어났지만 공동보도문이란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미국의 대북 정책변화에 사실상 빛깔이 깔렸던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복판이다.

北·美 갈등 전쟁위기 상존

양측은 합의한 6개항을 시종일관 지켜 지켜 발표했다. 양측은 당기로 쌀 40~50만 톤과 비료 50만 톤을 금 지급하리라 한다. '물론' 원칙을 샅샅이 따져 보면 이 전혀 근거가 없다. 공동보도문의 '양측은 수리 민족간의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자주적으로' 같은 구절이 있다. 통일

이 자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쟁위협이 사라졌다고 큰 소리쳤던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된 상황이 순변한다. 국제정세가 엄청나게

'위기설'과 특사외교

변했다. 미국이 옛 미국이 아니다. 걸프전이 끝나자 '다음 차례는 카스트로와 김일성'이라고 갈갈했던 콜린 파웰 합참의장이 현재 국무장관이다. 그런 그도 비둘기파로 분류할 정도다. '동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중화하게 들리는 이유다. 남북이 하루빨리 한창된 도그마에서 벗어나 현실적 공동번영부터 찾아야 할 까닭이다.

오히려 냉엄한 현실을 일러주어 북한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임 특사가 밝힌 대로 '2003년 위기설'을 바

릇, 한반도는 각종 위기설로 어지럽다. 미사일 발사유에 약속이 끝나는 내년 북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다시 전쟁에 빠져들 위험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내년 이 바로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을 위한 사찰이 예정된 해다. 그러나 북한은 경우로 건설 차질을 이유로 불응할 태세다. 반면 미국은 '발판국가'인 수목 위험한 대량살상무기(WMD)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자세다. 국제사회가 경제의 논리에 좌우되는 현실이 바뀐 여에 오늘의 일이 어림

없고 북한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디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과거

상피는 포착을 직시하고 있다. 그는 9년 핵 위기 때 북한과의 전쟁일보 전 상태에 서 걸린 미 대통령이 1년이란 것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합참의장 파웰, 존 클리프스합참의장장 등이 걸린탄에게 보고한 전쟁 시나리오에는 최초 90일에 한국군 43만, 미군 5만2000명 등의 사상자 발생을 예고 하고 있다. 북한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 재산 피해 등은 상상할 초월한다. 이 같은 피해 규모도 미군의 신속한 반격이 성공했을 경우다.

北 냉엄한 현실 깨달아야

전쟁의 참상은 이처럼 절연하기 어렵다. 특히 강경론자의 가운데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한다. 9.11테러의 이후로 주목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다국적군의 식칼과 등과에 포격한 사실이 이를 잘 말 해준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비록 글 글과 같은 여재는 더 이상 불행하기 어렵다. 임 특사는 이런 급박한 사정을 북한지도부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파웰 장군은 북한이 미국의 북한일당 매사 수을 의자를 표명하고, 북미대화 용의도 명함 라고 한다. 한반도 위기설이 한발 거수로 끝나는지, 아니냐는 전격으로 북한의 항 후 당고에 달한다. [jk@kbs.co.kr](mailto:jk@kbs.co.kr)

임동원 특사가 평양에 다녀와 브리핑을 할 예정이지만, 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브리핑대로 될 것으로는 일단 믿지 않는다. 김정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확신 없다.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 상대나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가 그동안 싹 틔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확실히 임 특사의 방북은 밝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섯시간이나 마주 앉아 인식의 틈을 좁히려 애썼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표현도 나올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성과는 단지 문서를 푸는 데 계기가 될 뿐이다. 특사가 뭘을 다뤘어도 그 몫을 넘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 임 특사 방북 대화 계기 마련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의 길목 곳곳을 미국이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로서 선 호전적인 북한, 미사일을 수축하는 악의 축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북한이 당분간 필요할 것이다. 까탈스럽기는 하나, 고립되고 허약한 북한을 방치해도 큰 문제는 없다. 개혁과 개방으로 가야 하는 북한의 처지는 다급하겠지만, 사정을 꿰뚫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쉽사리 고삐를 늦추려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열어두고 있다고 할 때, 난 그 말의 진정성을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

## 데스크 칼럼

이홍동 남북관계부장



# 대화가 다시 열리면

비교해보곤 했다. 공이 북쪽에 넘어갔다고 말할 때도 그들이 공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국은 적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으나, 협상이 제대로 될지는 도무지 짐작하기 어렵다. 아까 변화무쌍한 고비를 여러번 넘길 것이다.

틀론기대는 있다. 임 특사가 방북한 날, 북한은 한반도여러지개받기구(케도)와의 대화를 제의했다. 케도와의 대화는 한반도 문제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 대화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핵심 부문 인도 일정은 핵사찰 일정과 연계되고, 이는 북-미 핵협상의 타결을 전제한다. 케도가 저놓은 것으로 알려진 인도 일정

대로라면, 북한 핵사찰은 경우로 핵실험부문을 인도하기 3년 전인 올 8월경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은 사흘문제는 제쳐두고 경우로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올 6월이 지나면 지난해 합의들이 일그러지고 위기가 시작될 거라는 예기도 나온다. 이 시점을 4개월 앞두고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일단은 좋은 조짐이다.

관측은 조짐은 또 있다. 임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는 노보르 그레고 전 주한 미 대사와 일본의 '사절'(envoy)도 오 있었다. 그리고 전 대사가 약간의 공식성이 있다면, 북한은 동시에 한-미 임 특사 측은 케신 지를 평양으로 불러들인 셈이다.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은 6·15 정상회담 이후 바깥으로 나오는 시도를 여러번 했지만, 과감하게 중세를 마고들지 못했다. 그 때마다 미국의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좌절되곤 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정면고책으로 인한 북-미 수교 재협이다. 9·11테러 뒤에도 다급하게 거인 여지 틈도 보았지만 악의 촉발언어 틀어막았다.

### 북한 역시 햇볕정책 필요

하지만 그 걸 넘어선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황금같은 시간을 잃은 것이, 오늘의 난국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미사일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북-미 수교여건도 이를 수 있었던 약속들이 송두리채 날아갔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남쪽을 향한 주적들도 단합할 판단을 하기 바란다. 교류와 화해·협력이야말로 주적들의 기초를 무너뜨린다. 햇볕정책은 남쪽의 북쪽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쪽이 남쪽을 변화시키는 데도 최선이다. 탈스피리트 훈련은 한반도 긴장이 한겨울 벗겨졌을 때 중단됐다. 올해 한-미 전시중립 및 특수리 합동훈련은 대화가 풀리고 북한이 미국과 협조하게 대립할 때 실시됐다. 북한 역시 주적들을 녹일 수 있는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난 남쪽도 바깥도 하지 않는다. 다시 시도되는 대화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당위관을 생각한다. hlee@hani.co.kr